

忠南文化

제3호 1999



全國文化院聯合會 忠清南道支會

지역 문화 선언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 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 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 문화 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 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 감수성의 역량이 곧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 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당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 문화 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 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 문화와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 문화 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 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자생적 문화 단체의 활동이 최대로 활성화 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 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도 지역 문화 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 정부와 지역 자치 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995. 11. 1

지역문화행정 전문가 일동

1999년 통권 제 3호

忠南文化

④ 발간사 / 충청남도지회장 김현구

⑤ 축간사 /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⑥ 축간사 / 충남도의회의장 이종수



• 표지사진
당진 왜목마을 일출

• 제자(題字) 민복기

충남의 향토사 연구

⑦ 조치원 지명 유래에 대한 재조명/ 임영수

충남의 인물

①⑨ 기지시 줄다리기의 재조명/ 이인화

①⑧ 서산 지방의 백제 역사/ 이은우

①③ 김용중/ 금산문화원

①⑤ 매죽헌 성상문 선생/ 조치원문화원

①⑧ 민족 시인 신동엽/ 부여문화원

충남의 민속

①② 남산놀이/ 서천문화원

①④ 동화제(洞火祭)/ 청양문화원

①⑦ 결성농요/ 홍성문화원

충남의 전설

①① 향천사와 철불전/예산문화원

①④ 질갓/ 태안문화원

①⑥ 면천 은행나무와 두견주/ 당진문화원



충남의 문화제

①③ 보험인 석탑/ 아우내문화원

①① 봉선홍경사 사적갈비/ 성환문화원

①③ 정혜사의 부도/ 청양문화원 靑丘洞人

충남의 문화 축제

①④ 천안삼거리문화제/ 천안문화원

①⑦ 보령머드축제/ 대천문화원 이해실

충남의 문화 칼럼

①⑨ 전통문화의 수호와 우리 민족의 기본정신/ 논산문화원 부원장 김영배

①② 효행은 만 가지 덕의 원천이다/ 청양문화원 원장 안종일

①④ 2000년을 맞으며/ 당진문화원 원장 민영근

①⑦ 충청남도 문화예술인대회 수상자 명단

①⑧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자

①③ 충청남도지회 활동사항

①⑤ 충청남도 각 문화원 활동사항

未來 社會를 열어가는 文化 活動을 준비하자!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김 현 구

우리 『忠南文化』가 세 살이 됩니다. 새로운 세기(世紀)의 주역(主役)으로 키워 갈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文化)를 바탕으로 한 문화(文化)의 시대(時代), 창의(創意)의 시대라고 하여 문화적(文化的) 정체성(正體性) 회복(回復)과 국민(國民)의 창조적(創造的) 역량(力量)을 제고(提高)시킴으로서 세계(世界)로 향(向)한 도약(跳躍)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산업 사회(産業社會)에 있어서 발전(發展)의 자원(資源)은 땅속에 있었지만 다가오는 미래 사회(未來社會)의 그 자원은 인간(人間)의 마음과 머리속에 묻혀 있는 문화의 비전(Vision)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문화원(文化院)은 전국적(全國的)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문화가족(文化家族)들의 그 풍부(豐富)한 역량(力量)은 이러한 미래 사회의 비전(Vision)을 만드는 데 가장 앞선 주체(主體)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민(住民)과 함께 하는 생활 문화(生活文化) 활동(活動)으로 주민들의 문화 욕구(文化慾求) 충족(充足)에 크게 기여(寄與)했으며 변화(變化)하는 사회적(社會的) 기대(期待)에 대처(對

處)해 나가기 위한 도내(道內) 이만(二萬)에 가까운 문화가족들의 활동과 새로운 변화를 도모(圖謀)해 온 각 문화원장님들의 노고(勞苦)에 치하(致賀)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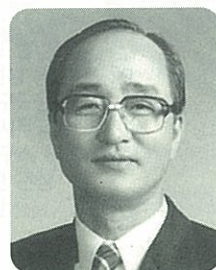
이러한 한 해 동안의 일들을 여기에 담아 뒷날 사료적(史料的) 가치(價値)로서 보존(保存)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 동안 충남문화원(忠南文化院)의 발전(發展)과 활성화(活性化)에 물심 양면(物心兩面)으로 지원(支援)과 협조(協助)를 하여 주신 심대평(沈大平) 지사님과 이종수(李鍾洙) 의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자료(資料)를 제공(提供)하여 주신 각 문화원장(文化院長)님들과 본지(本誌)의 편집(編輯)과 교정(校正) 감수(鑑修)를 맡아 주신 박만진(朴萬眞) 서안시문학회장(西岸詩文學會長)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열어갈 21세기 우리 문화가 가야 할 방향(方向)과 목표를 설정(設定)하고, 그 계획(計劃)과 준비(準備)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기에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고 발전하여 우리가 계획하는 사업(事業)들이 차질(蹉跎)없이 성취(成就)하시기를 바랍니다. ▣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忠南文化』 발간에 부쳐서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해 왔던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도 鄉土文化 暢達의 산실인 17개 문화원 가족들이 그 동안 소중하게 이루어 왔던 지역 문화 활동의 기록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忠南文化』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어느 지역이든 지역마다 고유한 傳統과 文化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역사적으로 考察하여 전승·보존하는 일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님을 모두가 동감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문화 유산을 소중히 가꾸며 승화·발전시켜 나아가는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문화원이야말로 지역 문화, 또는 문예 중흥의 중요한 출발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열악한 지역 여건 속에서도 지방 문화의 열을 지키며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군 17개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21세기는 '文化의 世紀'가 될 것이며, 모든 분야에서 문화 역량에 따라 지역의 위상이

결정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문화의 중요성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윤택하게 살찌우는 문화 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 시대와 더불어 각 지역이 전통 문화 계승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 문화·예술 진흥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에 지역 문화 창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문화원에서 『忠南文化』의 발간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로 3번째 발간되는 『忠南文化』를 통하여 금세기의 문화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 천년을 내다보는 문화적 비전을 제시하는 정론지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제한된 예산과 여건 속에서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과 정리·분석을 담당해 주신 연구·집필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특히 『忠南文化』 발간을 총괄하신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김현구 지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未來 社會를 열어가는 文化 活動을 준비하자!



충청남도회의의장 이 중 수

제 3회 『충남문화』 발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역사의 뒀안길에서 삶의 흔적을 찾고, 『충남문화』의 혼을 심어 온 문화원 가족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천년은 독창적이고 고유한 문화 유산을 간직한 민족이 부흥하는 「문화의 세기」라고도 합니다.

문화는 삶의 그림자와도 같아서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나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화를 천대하고 몰아낸 자리에서 우리는 결코 향기로운 삶을 영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커다란 성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백제문화권의 개발과 함께 1,300여 년 전의 우리 선인들의 발자취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토 문화 진흥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고품격의 문화가 꽃피는 살기 좋은 충남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의지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 문화의 부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 문화 발전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는 『충남문화』 소식지가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문화의 꽃망울을 개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국 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충남의 향토사 연구 ①

鳥致院 地名 由來에 대한 재조명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해운 김학수 선생 동양화 사사
한지연구소 연구요원
조치원문화원 사무국장
연기향토사 연구소 위원
연기향토박물관 관장
「아홉거리」발간

연기향토박물관
관장 林 英 洙

1. 서론

가. 지명어(地名語)의 성립

“지명어는 인간의 생활 터전이 산이나 강, 마을, 골짜기, 들, 또는 인공 축조물 등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별히 붙인 공인된 이름이다.

지명어의 생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형적인 특징이나 인상, 또는 그곳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서 암시되었거나 자연 현상을 나타내는 것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조치원내 지명중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형적인 지명

방아다리 - 지형이 방아의 다리와 같다.

오봉산 - 봉우리가 다섯 개로 이루어졌다.

아홉거리 - 아홉 갈래의 길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

② 인물로 인해 붙여진 이름

오금소 - 오금이란 여자 하인이 한을 품고 빠져 죽어서 붙여진 이름.

③ 역사적 사실

곤디기보 - 일명 보은덕비라 하는데 조선 초에 허만석 현감이 보를 쌓아 농사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하여 공적비를 세웠는데 비가 유실되고 그곳을 곤디기보라 부른다.

④ 자연 현상

참새골 - 참새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 지명은 시대적 사건이나 역사적 인물, 또는 자연 현상에 의해 변화가 생길 때 기존의 지명을 버리고 새로운 지명으로 불리게 된다.

그런데 그 지명이 단순히 다른 것과 구분하기 위한 역할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는

1) 공주의 지명지 P.22(김진규-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997. 공주시

2) 연기실록 1981년 연기군 P.15 조치원읍

자랑거리가 되고 나쁜 의미는 분발하고 결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명은 하나의 역사로 보아야 한다.

현대에는 지명이 의미적 지명보다는 행정적 편의 지명이 많이 쓰이고 있다.

마을과 마을이 병합될 때 앞 자와 앞 자, 혹은 앞 자와 뒷 자를 섞어서 지명을 만든다.

예를 들면 쌍괴리와 전당을 합하여 쌍전리라 하듯이 지명의 변화는 편리한 시대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나. 조치원(鳥致院)의 지명 유래

³⁾ 몇 년 전 조치원 역사(驛舍)를 새로 짓기 전에 광장 한편에는 연기군의 관광 안내도가 그려져 있고 그곳 하단에 조치원의 유래가 쓰여 있는데 신라 학자 최치원 선생에 의해 지어진 이름이라 쓰여 있어서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한 번쯤 조치원이 역사 깊은 마을이었을 것이라 추측을 하였다.

또한 연기군의 군지가 일제 시대의 1936년(연기지), 그리고 1967년, 1977년, 1989년에 만들어졌으며 한결같이 조치원의 유래가 신라 학자 최치원 선생에 의해 지어졌다고 적어 놓았다.

⁴⁾ 연기지(燕岐誌, 시장 - 市場)

조치원 시장(鳥致院 市場)

조치원리에 있다. 속전으로 신라 시대의 최치

원(崔致遠) 선생이 시장을 세워 상업을 장려하고 보를 쌓아서 농업을 장려하였으므로 시장을 최치원 시장(崔致遠 市場)이라 칭하고 보는 고운보(孤雲洑-조천의 동쪽 독)라 하다가 시장은 조치원 시장으로 와전되고 보는 옛날대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장날은 음력 4일과 9일이며 년간의 매매고가 17만 원에서 26만여 원에 달한다.

⁵⁾ 추운실기(鄒雲實記)

최치원(崔致遠) 선생이 건설(建設)하시었다는 조치원 시장(鳥致遠 市場)도 고운득보(孤雲得洑)도 구전(口傳)의 문헌(文獻)이다.

내가 단기 4246년 계축춘(癸丑春)에 조치원으로 이사 와서 살고 있는 노인께 들은 바에 의하면 조치원의 전설(傳說)은 최치원 선생이 건설한 시장인 까닭에 최치원 시장이라던 것을 선현(先賢)의 휘자(諱字)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원(遠)자를 원(院)자로 쓰다가 최(崔)자를 조(鳥)자로 변형시켜 써 왔고 선생이 축보권농(築洑勸農)하시든 보(洑)만은 선생께서 얻은 보라고 선생의 호(號)를 인용하여 고운득보(孤雲得洑)라 한 것이 계축춘(癸丑春)으로부터 또 다시 반세기가 지난 금일에도 고운득보라고 하는데 이 보의 소재지는 충북선 철도 아래와 조천교(鳥川橋)상의 지점이라 전한다.

그 때에 나는 연대가 심원(深遠)한 시장 이름인 만큼 호기심을 가지고 신문 지상이나 잡지에 내가 집필하고 쓸 때는 반드시 전기한 사실을

전설이 아닌 진실처럼 선전하였고, 단기 4265년 임신춘(壬申春)부터 시작된 연기지 편찬 시에도 이를 역설하여 두었으므로 최근에 와서는 각 방면에서 조치원이 최치원 선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 붓끝의 힘이 컸었다고 자각심도 없지 아니하나 (생략)

연기지(燕岐誌) 1967년 p.30

⁶⁾ 조치원읍 - 본 읍은 신라 시대(新羅時代)에 최고운 치원 선생이 침산동(砦山洞) 현 동사무소 후인 166번지 내에 최달식(崔達植)이 거주하고 있는 기지를 중심으로 하여 거주하면서 개시권상(開市勸商)한 까닭에 시장 명을 최치원 시장이라고 하였고 里明(리명)도 최치원리라고 하다가 선현의 명자(名字)를 그대로 쓸 수 없어 원(遠)자를 원(院)자로 쓰다가 최(崔)자도 조(鳥)자로 부지중에 와전되었으나 선생이 쌓은 보는 선생의 호(號)를 인용하여 고운득보(孤雲得洑)라고 불려왔다.

선생께서 개시축보(開市築洑)하여 주신 기념으로 불망비(不忘碑)를 건립하였던 것이 미상년(未詳年)의 홍수에 유실되었으니, 이 비가 지상으로 출현되면 조치원은 대 발전된다고 과거 미호천 시방개수 공사를 비롯하여 조천개수 공사며 여러 가지 공사 시에 불망비가 출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⁷⁾ 연기실록(燕岐實錄) 1981

조치원읍 - 구전(口傳)에 의하면 조치원이란

지명이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과 연관된다고 한다.

또한 오래 전부터 어른들께서는 입과 입으로 걱정스럽게 조치원의 실정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⁸⁾ 조치원의 발전이 늦어지는 것은 조치원(鳥致院)의 조(鳥)자를 새조 자로 표기하는 바람에 새가 모이를 쪼아 먹다 배부르면 다른 곳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조치원에서 돈을 많이 벌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때문에 조치원에는 큰 부자가 살지 않는다.

다. 재조명하게 된 동기

조치원역 광장 연기군 관광 안내판에 쓰여진 조치원이 신라 학자 최치원 선생에 의해 유래되었다는 것은 조치원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는 물론 역사 깊은 문화 마을에 산다는 가슴 뿌듯함도 있었다.

그런데 신라 학자 최치원 선생에 의해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조치원에는 그에 대한 고대 유적이 남아 있지 않았다. 고려 시대나 최소한 조선 시대 향교나 서원, 기타 건물이라도 전해져야 했으나 조치원 중심지에는 오래된 건물이 일제 시대 건물뿐이다.

또 하나 연기군의 연혁 속에는 조치원이나 최치원에 대한 지명이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나타나지 않았다.

똑같은 이름은 물론 그와 비슷한 이름도 기록

6) 연기지 1967년 맹의섭, 임현빈, 연기향교 발행

7) 연기실록 1981년 연기군 편찬 연기군 행정계

8) 1991년 채록 구연 정홍석(조치원읍 서장리, 72세)

3) 1997년 철거 1998년 완성

4) 연기지 1933년 유치성(兪致成), 임현빈(林憲斌), 맹의섭(孟義燮)

5) 추운실기 1972년 맹의섭 저

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최치원에 의해 조치원이 되었다는 내용의 기록은 근간에 발행된 군지와 향토자료집 몇 권에 쓰여 있을 뿐 명쾌한 답변의 기록은 없었다. 그러다 조치원의 전설을 모으다 신라 학자 최치원 선생에 의해 지어진 지명이 아닐 것이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조치원에는 ⁹⁾오금소의 한 이란 전설이 전해온다.

오금이란 하인 딸이 있었는데 주인집 남자는 예쁘게 자라는 오금을 탐내어 겁탈하려고 오금의 아버지를 모함하여 죽인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간직한 채 오금은 늪에 빠져 죽으면서 한을 품는 데 주인집 식구가 원인 모르게 하나 하나 늪에 빠져 죽어 망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의 무대인 오금소가 현재 조치원 중심지에 얼마 전까지 존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¹⁰⁾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연기현의 명현에 허만석 현감에 대한 공적이 나오는 데 그 기록의 무대가 지금의 조치원 지역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 1990년부터이며 연세가 많고 연고가 조치원인 노인들을 찾아 선조들로 구전되어 오는 내용을 최대한 채록하였다.

조치원이 신라 학자 최치원 선생에 의해 지어진 유래가 잘못된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하자 많은 사람들은 우려의 격려를 해 주었다. 오래

전부터 그렇게 알고 지내오던 것을 파헤쳐 좋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과 자랑스러운 유래를 흠집 내지 말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궁금증은 가시지 않고 관심으로 자료를 수집한 것이 벌써 10여년이 다 되어간다. 이만하면 충분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정리하여 보지만 걱정이 뒤따른다.

2. 연기군과 조치원의 연혁

가. 연기군(燕岐郡)

연기군을 크게 세 곳으로 나누면 북쪽을 ¹¹⁾전의(全義), 중심지가 연기(燕岐), 남쪽을 금남(錦南)으로 나눈다.

전의는 백제 시대 대목악군(大木岳郡)의 구지현(仇知縣), 연기는 일모산군(一牟山郡)의 두잉지현(豆仍只縣), 금남은 웅진(熊津)의 소비포현(所比浦縣)이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전의가 대륙군(大麓郡)의 속현인 금지(金池), 연기는 연산군에 속하여 연기(燕岐), 금남은 웅진의 적오현(赤烏縣)(757년 경덕왕)이었다.

고려 시대에는 전의는 청주의 전의현, 연기는 청주의 연기현으로 명종 2년(1172년) 감무를 두었다가 뒤에 목주 감무로 겸임케 하였다.

금남은 공주이다.

조선 시대 전의는 태조 4년(1395년)에 감무

를 두었다.

연기는 태종 6년(1406년)에 감무를 두었다.

태종 14년(1414년) 연기현과 전의현을 합하여 전기현(全岐縣)이라하고 태종 16년(1416년)에 각각 연기와 전의로 환원 숙종 6년(1680년)문의에 속하였으나 1685년에 복구 고종 32년(1895년)에 연기현을 연기군(燕岐郡), 전의현을 전의군(全義郡)이라 칭하고 군수를 두게 되어 군청을, 연기는 연기에 전의는 전의에 두었다.

1911년 연기 군청을 연기리에서 조치원으로 이전하였다.

금남은 공주에 속하여 1895년 현을 군이라 칭하고 군수를 두었을 때 양야리면, 명탄면, 반포면(현 용담리, 성덕리, 영곡리, 도암리)으로 분류하였다.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전의군의 동면, 남면, 소서면, 대서면, 북면, 덕평면, 군내면을 연기군과 통합하였고 연기는 삼기면의 일부와 충북 청원군 서장의 일하면 일부를 폐합하였다.

금남은 공주군 명탄면, 양야리면, 반포면(일부), 구죽면(일부)을 연기군에 통합한 후 연기금강의 남쪽에 있다 하여 금남면이라 불렀다.

1931년 4월 면제 개정에 따라 조치원읍을 신설하고 1읍, 6면, 101동리를 관할하게 되었고 1939년 서면의 신동, 내창, 변암, 동리의 4개 리를 조치원읍으로 편입시켰다.

해방 후 금남면은 1946년 6월 대 홍수로 인하여 면사무소가 유실되자 용포리로 이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5년 1월 1일 소정면을 신설(운당, 소정, 대곡, 고동리)하고, 1995년 3월 1일 청원군 강외면 심중 1, 2구를 전동면에 편입시키고 동면, 갈산 1, 2구를 청원군 부용면에 편입시켰다.

나. 조치원의 연혁

조치원(鳥致院)은 백제 때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던 별판이었다. 공주와 청주에 큰 부락이 형성되면서 스쳐가는 지점이었고 작은 마을로 전의와 연기 사이에 있는 들판이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연산(燕山, 文義)군의령현에 속했으며 고려 현종 때는 청주에 속했다. 조선 태종 때 전기현에 속했으며 조선 말엽에는 북일면(北一面)의 지역이었다.

조치원이 읍으로서 발전하게 된 것은 일제 초기에 ¹²⁾철도가 개설되어 역으로서의 면모가 커짐에 따라 교통의 요지로 등장하면서부터이다.

¹³⁾연기현의 북일면은 10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이 때에 조치원리가 생겨 북일면에 편입되었고 1917년 10월에 9개 리를 서면에 넘겨 주고 나머지를 조치원리를 중심으로 조치원면을 신설하여 지정면이 되고 1931년 4월 1일에 읍제 설정에 의하여 조치원읍으로 승격되고 1931년 12월에 서면의 5개 리를 편입하고 1940년 리(里)를 정(町)으로 고쳤다가 1947년 해방과 더불어 동(洞)으로 고쳐서 14개 동을 관할하는 읍이 되었다.

현재 연기군의 1읍 7면중 읍이 군 소재지이다.

12) 1901년부터 1904년까지 공사했으며 조치원에 건설사무소가 설치되었다가 뒤에 대전으로 이전하였다. (한국철도80년사)

13) 연기실록. 1981년 연기군 P.15 조치원읍

9) 연기실록 1981년 연기군 발간 P.36 오금소의 한

10) (名宦) 許晩石 : 정사는 근검을 위주로 하였다. 현 북쪽 15리에 냇물을 막아 큰 방죽을 만들어 1천경 남짓한 논에 관개하였는데 그 방죽이 청주지경에 있다. 처음 방죽을 쌓을 적에 만석이 몸소 이를 감독하며, 청주 사람 천명 백명이 때를 지어와서 불순한 말을 하고 만석이 겉터 앉는 호상을 꺾어 버림으로 만석이 활을 당겨 쫓으니 청주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방죽이 이루어지매 백성들이 그 물리에 힘입어 지금까지 청송하고 있다.

11) 전의(전의, 소정, 전동면) 연기(서면, 조치원, 동면, 남면) 금남(금남면)

3. 잘못된 유래에 대한 부분 설명

가. 조치원(鳥致院)은 최치원(崔致遠) 선생에 의해 만들어졌다

조치원이란 이름이 처음 불려진 것은 1905년 이전이다.

조선 말엽까지는 연기현의 북일면이었고 전의와 청주와의 경계 지역이었다. 경부선 철도 공사가 시작되었고 1900년 초에 조치원리가 신설되었으며 1911년 연기에 있던 연기 군청이 조치원리로 이전하였고 1917년에는 조치원리이었던 것을 조치원면으로 승격하였다. 1931년 4월 1일에 읍제 설정에 의하여 조치원읍이 신설되었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읍으로 존재하고 있다.

같은 시기 읍으로 승격된 곳이 대전읍이다.

대전읍은 현재 대전광역시사가 되어 충남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치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므로 조치원이란 이름은 경부선 가설 공사를 시점으로 지명이 생겨났으며 그 이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었다.

1901년 경부선 철로 건설 사무실이 조치원에 설치되기 이전에는 조치원의 모습이 늪과 갈대로 뒤덮힌 벌판이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마치 넓은 바다를 연상했으며 뚝에는 집 없는 가난뱅이들이 뗏집을 만들어 살았기에 뗏집거리라 불리었으며 신라 학자 최치원 선생께서 이곳에 말

년을 보냈다는 유적이 전혀 없었다. 더군다나 최치원 선생 일대기를 보더라도 조치원 부근까지 왔었다는 기록이 없으며 충남 지역에서는 홍성에¹⁴⁾ 고운 선생 묘소가 있다는 연구 논문이 있다.

나. 조치원(鳥致院)의 옛 이름은 새내

조치원여자고등학교에서 발행되었던 교지의 표지가 「새내」였다. 그 이유를 물은즉 조치원의 옛 지명이 새내였다고 한다.

조치원의 입지 조건은 조선 말 연기와 청주, 전의 경계 지역으로 지금처럼 정확한 경계선 표시가 없이 주먹구구식의 경계를 그었다. 더군다나 조치원 일대에는 늪과 갈대로 형성된 냇가로서 비만 오면 마치 큰 강을 연상케 하고 물이 빠지면 군데군데 웅덩이가 생겨나는 곳으로 갈대 억새풀이 무성한 새들의 천국이였다.

그래서 이곳의 냇가를¹⁵⁾ 조천천(鳥川川)이라 불렀는데 조천(鳥川)의 우리말 표기가 「새내」이다.

현재 조치원의 각 동의 지명과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¹⁶⁾평동(平洞)

현재 조치원에서 청주 쪽으로 조천천변에 있는 마을로 고려 때는 청주 목에 속했으며 조선 태종 때는 연기현에 속했고 조선 말엽에는 충북 청주군 서강의 일하면의 지역으로서 벌판이었

다.

그래서 「벌말」, 또는 「평리」라 하였고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시 연기군 북면에 편입되어 조치원리가 되었으며 1940년에는 일본인이 「소화정」이라 부르다가 1947년 해방과 더불어 평동으로 고쳤다.

죽림동(竹林洞)

조선 말엽에는 연기군 동1면의 지역으로서 조천동 안쪽에 있으므로 「죽안」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죽안」 또는 「죽내」가 되었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죽내리라 하여 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 조치원에 편입되어 죽림정(竹林町)이라 하다가 1947년 해방과 더불어 죽림동이 되었다.

정동(貞洞)

고려 때는 청주 목에 속했으며 조선 태종 때부터 연기에 속했다가 전기현에 속했으며 다시 연기현의 지역이었다.

조선 말엽에는 연기군 북일면의 지역으로서 벌판이었다.

1917년 조치원면이 신설되어 편입되고 해방과 더불어 정동(貞洞)으로 고쳤다.

원동(元洞)

고려 때는 청주 목의 지역이었다.

조선 태종 때 연기에 속했다가 조선 말엽에는 연기군 북일면에 속했다. 벌판으로서 1914년 행정 구역 개혁 때 조치원리라 하여 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 조치원면에 편입되고 갑자기 번창하여짐에 따라 1940년 일본인이 살게

됨으로서 本町二丁目이라 하다가 해방 후 원동으로 고쳤다.

신흥동(新興洞)

조선 말엽에는 연기군 북일면 지역으로서 벌판이었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조치원리에 편입하였고 역이 신설되면서 갑자기 번성해지자 조치원리를 갈라서 1940년에 신흥정(新興町)이라 하고, 해방 후 신흥동이 되었다.

신안동(新安洞)

조선 말엽에는 연기군 북일면의 지역이었다.

숲이 무성하므로 「섞골」이라 불렀는데 변하여 「석골」, 또는 「신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충북 청주군 서강의 일하면의 「옥동」 「정중리」 「장대리」 각 일부를 병합하여 「신동리」라 하고 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 조치원면을 신설함에 따라 읍에 편입되어 「신동」과 「안터」의 이름을 따서 「신안정」이라 하였다가 1947년 해방과 더불어 「신안동」이라 고쳤다.

상동(上洞)

뗏집거리

상동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는 이 지대가 벌판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이 뗏집으로 움막같이 집을 짓고 살았다 하여 「뗏집거리」라 부른다 한다.

명동(明洞)

조선 말엽에는 연기군 북일면의 지역으로서

14) 고운 최치원 선생 묘역고(孤雲 崔致遠 先生 墓域考) 홍성 장곡 월계에 고운묘소가 있다 - 전옥진, 김갑현 1997.

15) 조치원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냇가로 미호천과 합류한다.

16) 연가실록 1981. 연기군.

별판이었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조치원리가 되었고 철도 개설에 따라 역이 생기면서부터 갑자기 변창하자 일본식으로 旭町이라 하다가 해방 후 명동이라 하였는데 여기에 빛을 주는 발전소가 있으므로 명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남동(南洞)

조선 말엽에는 연기군 북일면의 지역으로서 별판이었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조치원리에 편입되었고 갑자기 변창하여 1917년에는 일본식으로 적송정(赤松町)이라 하다가 해방과 더불어 조치원 남쪽에 위치한다고 하여 남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교동(校洞)

조선 말엽에는 연기군 북일면의 지역으로서 별판이었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조치원리가 되어 북면에 편입되었다. 갑자기 변창하여 1940년에 조치원리를 잘라서 「길야정」이라 부르다가 해방 후 학교가 있는 곳이라 하여 교동이라 했다.

그 외로 조치원에서 지대가 높고 오래 전에 마을을 이룬 곳이 세 군데 있는데 다음과 같다.

침산동(砦山洞) - 방아미산이 있으므로 방아미, 또는 침산이라 불렀다.

서창동(瑞倉洞) - 서곡과 내창의 이름을 따서 서창동이라 했다.

봉산동(鳳山洞) - 오봉산(五鳳山)의 이름을 따서 봉산동이라 했다.

번암동(礮岩洞) - 뒷산에 반석이 있으므로 번암이라 하였다.

조치원의 13개 동에서 9개 동은 일제 시대에 신설된 마을이고 일제 시대 이전에는 들판이었거나 냇가로 형성되었다가 경부선 철도가 개설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침산동, 서창동, 봉산동, 번암동은 조선 시대에는 연기현의 북면 지역으로서 오래 전부터 마을이 형성된 곳이다.

봉산동은 본래가 토흥부곡(土興部曲)의 소재지였다.

다. 조천(鳥川)독을 최치원 선생 호를 따서 고운득보(孤雲得湫)라 불렀다

조치원과 충북 청원군 경계에 조천천이 있다. 조천천(鳥川川)이 범람을 막기 위해 쌓은 보를 고운득보라 한 것은 최치원 선생께서 농사를 장려하기 위해 보를 쌓았기 때문이라 했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인물에 허만석(許晩石) 현감이 명관으로 공적이 기록되어 있다.

명환(明宦) 허만석(許晩石) : 정사는 근검(勤儉)을 위주로 하였다.

현 북쪽 15리에 냇물을 막아 큰 방죽(堤)을 만들어 1천경(千頃) 남짓한 논에 관개하였는데 그 방죽이 청주 지경에 있다.

처음 방죽을 쌓을 적에 만석이 몸소 이를 감독하며, 청주 사람 천 명, 백 명이 떼를 지어 와서 불손(不遜)한 말을 하고, 만석이 걸터앉은 호상(胡床)을 꺾어버림으로 만석이 활을 당겨

쫓으니 청주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방죽이 이루어지매, 백성들이 그 몽리(蒙利)에 힘입어 지금까지 칭송하고 있다. 또 연기실록(燕岐實錄, 1981년, 연기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조치원 앞들에 있는 보를 「곤두기보」라고 부른다.

일명 「보운덕보」라고도 부르는데 이보는 조선초에 허만석(許萬石)이가 연기 현감(燕岐縣監)이 되어 큰 내에 독을 막고 보를 내어 전답 천여(田畝千餘) 마지기에 물을 대게 하는데, 그때 독을 쌓을 때 그 보가 청주 땅에 있다 하여 청주 사람들이 수천 명 몰려와 허만석이 친히 감독하는 걸상을 부수므로 허만석이 크게 노하여 활을 당기어 쏘려고 하니, 청주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서 감히 범하지 못하므로 그 보를 완성하여 농민들에게 크게 도움을 줌으로 그 지방 사람들이 허만석의 은덕을 갚겠다는 뜻으로 보운덕비(報恩德碑)를 평리 앞에 세웠으므로 「보운덕보」라 하던 것이 변하여 「곤두기보」가 되었는데, 수백년을 내려오는 동안에 비석이 전복되어 땅에 묻혔으므로 현재(現在) 묻힌비라는 이름이 남아 있다.

위의 두 기록으로 보아 최치원 선생의 호를 따서 부른다는 「고운득보」는 허만석 현감의 공적을 기린 「보운덕비」의 와전으로 보아야 한다. 속설에 이 비(碑)가 발견되면 조치원이 망한다는 말이 있다.

분명 최치원 선생의 호와 관련이 없다면 그렇

게 이야기한 사람은 이 비가 발견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비를 없애고 영원히 발견되지 말라는 기원이 들어 있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고운득보」는 「보운덕비」이기 때문에 이 비가 발견되면 분명 허만석 현감에 대한 칭송의 내용이 적혀 있고 최치원 선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고의로 비를 유실시키고 이것도 미더워 만약 이 비가 어떠한 경로로 발견되더라도 급히 묻어버리라는 바람의 지명을 만들어 낸 것이다.

라. 조치원(鳥致院) 시장은 최치원(崔致遠) 시장이라 했다가 변한 것이다

조치원 시장은 신라 학자 최치원 선생에 의해 개설되었기에 처음에는 최치원 시장이라 하다가 최치원 선생의 함자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조치원이라 불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17)박천순옹의 증언에 의하면 1901년 경부선 철로 건설 작업이 시작되고 이곳에 노역자로 일하러 나간 조선인은 일본인과 마찰이 심했다.

특히 조선 노역자들은 일터에 나갈 때 높은 임금보다는 새참과 막걸리를 요구했다. 일본인은 뽕포(도시락)를 싸 가지고 와서 일을 했으며 일하는 도중 새참과 막걸리를 마신다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지만 조선인이 노역에 참여하지 않아 대책을 세웠다. 그래서 조치한 것이 작업장 근처에 주막을 개설하는 것이었다.

작업을 하다 쉴 때에 막걸리 한 사발 마시고

17) 박천순(1928년생) 충북 청원군 강외면 어렸을 때부터 부친으로부터 조치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하며 부친이 철로 공사에 직접 참여했다고 한다.

작업에 착수했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배를 채워 작업 능력을 올려 주었다.

공교롭게도 작업장 부근에 설치된 주막집 주인의 이름이 최치원으로 신라 학자 최치원 선생과 동명이인이었다.

일하다가, 또는 일이 끝나고 인부들은 “우리 최치원내 가서 막걸리 한 잔 하지” 혹은 “최고운 선생집으로 막걸리 먹으러 가자”라는 농담 섞인 말을 하곤 했다.

주막집 주인 최치원은 인부들의 식사와 술을 제공하는 독점 상권을 따냈기 때문에 제법 많은 돈을 벌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전기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등잔을 켜는데 등잔 기름으로 아주까리기름이나 콩기름을 썼다. 그런데 이러한 기름은 불의 밝기가 약했고 불편했다.

경부선 철로 공사에 쓰기 위해 지급됐던 석유(일명 시기지름)를 등잔에 넣고 불을 켜자 밝기가 두 배요 오래 갔다. 이것을 주막집 주인 최치원이 구해서 팔기 시작했는데 많은 돈을 번 것은 물론 조치원에 최초로 시장을 개설하게 된 것이다.

¹⁸⁾조선 말기 조치원 부근의 시장은 현재 서면 월하리 부근에 청거리 시장이 있었다. 청거리 시장은 연기인 뿐 아니라 인근 청주, 전의, 공주 사람들도 모여드는 큰 시장으로서 4, 9일에 장이 섰으나 일인들이 조치원을 신설하여 중심권을 빼앗기 위해 청거리시장을 폐쇄하고 조치원 시장을 개설하였는데 조치원시장은 시초가 최

치원에 의해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주막집 주인 최치원은 조치원에 커다란 시장이 개설되게끔 많은 물건을 팔아 돈을 많이 벌게 되자 이웃 큰 도시인 청주로 이사했다고 한다.

그래서 조치원의 속설에는 조치원에서 큰돈을 벌면 새처럼 다른 곳으로 날아간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마. 조치원(鳥致院)에 조천원(鳥川院)이 있었다

조치원은 신라 학자 최치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처음에는 최치원이라 부르다 학자 최치원의 이름을 그대로 부를 수 없어 조치원이라 개명했다고 한다.

¹⁹⁾조선 말기 연기지(燕岐誌)에는 원(院)이 몇 군데 있었으나 금사역(金沙 - 현 남면 갈운리) 조천원(鳥川院 - 현 조치원) 송현원(松縣院 - 현 전동면 송성리)의 기록이 보인다.

여기서 조천원은 현재의 조치원역 부근이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조치원 동북쪽으로 흐르는 냇가가 조천천(鳥川川)인데 조천원(鳥川院)과 연관되는 이름이다.

²⁰⁾1902년 경부선 가설 공사가 한참 진행될 때 역을 개설하고 역 이름을 짓기 위해 지명 조사를 하였다고 한다.

일본인은 ‘새내’ 중 새는 조(鳥)자로 표현하고 내는 천(川)자로 썼으며 합하여 ‘조천원(鳥川院)’이라 표기하여 보고했다고 한다.

조치원(鳥川院)이란 이름을 조선 총독부에 올리자 이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천원(鳥川院)이란 이름이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조천’을 일본말로 하면 ²¹⁾「조생징」이 된다. 조선을 「조생징」이라 부르던 일본인은 조선과 조천의 같은 발음이 못마땅하였을 것이다.

만약 조천역을 그대로 사용하면 일본식 발음이 조선역과 같기 때문에 조선역이란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치로 이름을 개명하게 되었다. 일본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할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고 더군다나 ²²⁾조치원 발전지(1915년 간행)에 의하면 충남에서 반일 감정이 가장 심한 곳이 조치원 부근 조선인이었으니 함부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여간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던 어느 날 경부선 가설 공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인부들이 농담 삼아 나누는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니 주막집 주인 최치원을 마치 신라 학자 최치원 선생을 대하듯 하는 모습을 보고 좋은 방안이 떠올른 것이다.

조선인들은 신라 학자 최치원(崔致遠) 선생을 전국 향교에 위패를 모시고 숭배하듯 최고의 역사 인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꺼내면 자랑스러워할 것이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신라 학자 최치원의 연관성 지명을 만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최치원이란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²³⁾1906년 발행된 지도(朝鮮全岸)에 기록

이 되어 있다. 그러다가 최치원 선생의 함자를 그대로 부를 수 없어서 부득이 조치원(鳥致院)으로 개명하게 됐다는 이야기이다.

정리하면 조치원의 원 이름은 「새내」인데 이를 한자로 옮기면 「조천(鳥川)」이며 조선과 조천의 일본식 발음이 같다 하여 바꾼 것이 조치원(鳥致院)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4. 결 론

조치원(鳥致院)은 신라 학자 최치원(崔致遠) 선생에 의해 개척된 고을로 전해져 왔다. 그래서 조치원에 대한 지명 유래를 물을 때 최치원 선생을 자랑삼아 이야기하지만 두 번, 세 번, 또한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자랑거리가 머뭇거리진다.

역사성 깊은 자랑거리에는 사실이란 기본이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아버지와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 이름은 웬지 다정스럽고 포근하다. 또한 지명 속에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성한 역사가 왜곡되었거나 그 본체를 모른다면 이 또한 슬픈 일이다.

조치원의 옛 이름은 「새내」였다.

그것을 한자로 표기하면 조천(鳥川)이고 이것이 변하여 조치원이 된 것이다. 조치원을 신라 학자 최치원 선생이 이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장려하려고 쌓은 보가 「고운득보」요, 상업을 일

18) 연기지(燕岐誌) 1967년 연기지 편찬위원회 P.62

감성시장은 대평리시장으로 이전하고 청거리시장은 조치원시장으로 이전하였다.

19) 연기지(燕岐誌) 1933년 - 유치성, 임현빈, 맹의섭, 역원(驛院)

20) 정홍석(72세, 조치원읍 서창리)옹 구연

21) 조천원(조오센인 ちよりせんいん) 조선인(조센인 ちよりせんじん) 조치원(조오원 ちよりちいん)

22) 조치원 발전지(鳥致院 發展誌) - 大正四年十月十日(1915년)

23) 조선전안(朝鮮全岸),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수로부(水路部, 1906년 188.8 x 77.7cm)

기지사 줄다리기의 재조명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당진군지·합덕읍지 집필겸 편집위원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길잡이 집필위원 겸 간사
계성초등학교 교사
한국지리교육학회 이사
내포민속문화연구소 소장
당진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 인 화

I. 서론

1. 연구 목적

본 연구자는 1992년도부터 공동 사회의 기초인 마을 민속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료를 모아 왔다. 동네 또는 자연 부락이라고 부르는 그 사회에 내려오던 갖가지 대소사들이 이제는 몇몇 나이든 노인들의 회미한 기억의 언저리에 맴돌고 있을 뿐이다.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하여 통치의 수단으로 행정 구역을 개편하면서 이질적인 집단들을 섞어 놓음으로 인하여 마을 공동체는 사라지기 시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¹⁾ 이처럼 일제 강점기를 겪어온 상황에서 기지사 줄다리기도 상당 부분 변질되어 전해지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또 1914년 일제가 행정 구역을 개편하면서 행정 구역의 초보 단위인 기

지시리가 형성되었다면 어떤 상황에서 기지사 줄다리가 행해졌고, 기지사 줄다리가 이루어진 기지사 줄다리가 보존회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약 4백 년 전에 형성되어 왔는지 아니면 근세에 만들어진 민속 놀이인지 마을 공동체 사회 속에서 기지사 줄다리기의 원형을 찾아 보존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자는 마을을 단위로 자료를 모아 정리하면서 누군가는 마을사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개화기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 마을사는 차츰 황폐화되어 가다가 일제가 지방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마을 단위를 통폐합하여 군·면·리를 새로 조직함으로써 마을 공동체는 분열되었고, 우리 삶이 녹아 있던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간 자식 손자들에게 전해 주지 못해 맥이 끊겨버리고 있다. 이처럼 유구한 세월 동안 내려오던 마을의 대소사들이 서양 과학 문명과 더불어 한 순간에 단절되어 사라지는 위기를 맞고

* 계성초등학교 교사. 당나루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내포지역민속문화연구소 소장, 제12회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최 논문공모전에서 「내포 지역의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1)李貞殷, 「일제의 지방통치체제 수립과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제6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으며 시장을 「최치원시장」이라 불렀다 한다.

조치원도 처음에는 최치원이라 했다가 학자 최치원 선생의 함자를 그대로 부를 수 없다며 바꾸어 부른 것이 조치원이라 한다.

이러한 기록이 일제 시대 발행된 조치원 발전지에서 맹의섭 저서 『추운실기』, 그리고 1967년, 1977년, 1989년 발행된 연기군지와 각종 향토지에 기록되어 있고 연기군의 홍보물에도 표기되어 마치 정설인양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명은 일제 시대 일본인에 의해 교묘하게 변질된 잘못된 유래라는 것을 알게 됐다.

더군다나 최치원 선생 호를 따서 만든 고운득보는 조선 초 연기 현감을 지낸 허만석 현감의 「보은득보」의 변질이며 최치원시장은 신라 학자 최치원이 아니라 주막집 주인 최치원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이었음을 알아냈다.

이렇게 지명 유래를 속여야만 했던 일인들은 36년간 지배 속에 식민지화하려는 작업으로 조선 정신을 말살하려면 철저한 규제가 필요했고 조치원에 역을 개설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활발한 역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조선의 정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명을 말살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일 감정이 심한 조치원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해석이 필요했기에 신라 학자 최치원 선생을 끌어 들였으며 발전을 저해시키는 여러 가지 낭설을 퍼트리게 되었다.

그러나 변질된 역사는 언젠가는 바로잡아지는 것이다. 비록 그 근원이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역사 의식에서 후손에게 되풀이되지 않는 역사를 남겨 주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교훈을 뒤흔들고 이야기하여 주어야 되겠기에

본 고를 썼다. ■

참고 문헌

1. 공주의 지명지 1997년 공주시(김진규 -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2. 연기실록(燕岐實錄). 1981년 연기군 행정계
3. 연기지(燕岐誌). 1933년 유치성(俞致成), 임헌빈(林憲斌), 맹의섭(孟義燮)
4. 추운실기(鄒雲實記). 1972년 맹의섭
5. 신증동국여지승람 - 연기현
6. 연기지(燕岐誌). 1967년 맹의섭, 임헌빈, 연기향교 발행
7. 한국철도 80년사 - 철도청
8. 고운 최치원 선생 묘역고(홍성 장곡 월계리에 고운 묘소가 있다) - 전옥진, 김갑현
9. 연기지(燕岐誌). 1967년 연기지 편찬위원회
10. 조치원 발전지(鳥致院 發展誌). 大正四年十月十日(1915년)
11. 조선전안(朝鮮全岸).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수로부 - 水路部, 1906년 188.8 X 77.7cm)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형문화재 75호로 지정된 기지시 줄다리기는 우리 나라 대표적인 문화 축제로 자리 매김되어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민의 전통 민속으로 당진의 자랑인 동시에 한국민의 자랑거리로 존속하기까지 많은 연구와 책들이 발간되어 왔다. 그러나 기지시 줄다리기의 현주소는 그런 명성에 걸맞게 그런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지역 내에서 기지시 줄다리기의 원형에 대한 수많은 의문과 함께 기지시 토착민과 문화재 보존회와의 수많은 갈등이 존재했고 지금도 갈등의 불씨가 상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조상들로부터 물려 받은 전통 문화는 잘된 작품이든 잘 못된 작품이든 시류에 흘러 현대인의 잣대로 새롭게 창작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현대인의 생각대로 고증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뜯어 고치다 보면 원형은 사라지고 그 문화의 의미와 값어치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원형 그대로 조사하여 보존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자는 우리 조상들이 아무 이유 없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만들었던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의 민속들을 찾아 한꺼풀 벗기고 나면 무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를 전달받고 그것을 고이 간직했다가 후손에게 넘겨 줄 책임이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업으로 지어져 있다. 현 위치에서 그 민속의 속성을 파악해 그 본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가 1993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참

여하여 마을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면서 기지시 줄다리기의 고증 문제로 지역민들간에 화합의 장을 맺지 못하고 언제나 양극단으로 갈리는 모습을 보아 왔다. 작년에도 군의 지원으로 발간된 홍보 책자가 제작되어 갈등의 사태까지 벌어졌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해 볼 때 이들의 갈등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기지시 줄다리기의 원형을 밝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기지시 줄다리기의 전야제로 치러지고 있는 민간 신앙과 줄다리기의 속성과 줄다리기의 특성을 고찰하여 기지시 줄다리기가 1981년 전국민속놀이경연대회 출품 작품으로 시류에 편승하여 원형과 다른 모습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지시 줄다리를 전통 마을 내에서 民間信仰物들의 배치를 복원함으로써 기지시 줄다리가 민간 신앙과 연계하여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기지시 줄다리기에 대한 연구는 우선 지역 주민들로부터 다각적인 고증을 받았다. 토착 주민들의 증언대로 기지시리에서 줄다리하던 장소들을 파악하고 방법들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고증을 통해 확인 작업을 했으며 기존의 문헌과 현지 토착 주민들과 상반되는 주장들은 문헌 자료를 찾아 검토하고 상황을 추적해 보았다. 처음 본 연구자가 1993년도 접한 기지시 줄다리기의 문헌 자료는 1986년에 이우영이 쓴『機池市 줄다리기』²⁾였다. 이 책은 논리적인 설명이나 기지시 관련 고문헌 기록이 없어 아쉬움이 남았다. 그 후 자료 수집차 방문하였을 때 책의 내용

이 토착 주민들과 상충된 주장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기지시에 관한 자료로는 1981년도에 당무사에서 출간된 김기호의『틀무시의 유래』가 있는데, 광복 이후의 기지시에 관한 기록으로는 최초이다. 그 기록에는 기지시 시장의 시작과 줄다리기의 유래 및 역사, 주민들의 동태, 관공서의 변천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 기지시를 비롯한 송악면을 파악하는 데에도 귀중한 자료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기지시 시장과 연관된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각 지역의 줄다리기 자료들을 수집해 줄다리기와 비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전통 마을에서의 민간 신앙물의 배치를 기지시 줄다리기와 관련하여 1/5000 지도에 복원하는 작업을 하였다.

II. 줄다리기의 이론적 배경

1. 줄다리기의 발생

줄다리기는 우리 나라 외에도 중국, 일본, 버마 등 여러 나라에서 행해 오고 있는데, 그 발생은 2000년 전 중국 양한(襄漢)³⁾에서 행했던 풍속으로 전쟁시 초(楚)나라 장수가 오(吳)나라를 칠 때 행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

대 이후 발하(拔河)라는 줄다리기가 행하여졌는데 당(唐)나라 봉연(封演)의『문견록(聞見錄)』⁴⁾에는 발하(拔河)는 한대(漢代)에 정월 15일에 대나무 껍질을 엮어 만든 큰 줄을 이용해 하던 놀이로⁵⁾ 「발하」는 강을 사이에 두고 행하는 놀이에서 붙여진 것⁶⁾이라 한다.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따르면 한식의 행사로「타구(打拘), 추편(그네), 시구지희(施金句之戲:줄다리기)를 행했는데 주(注)에 밝히기를 시구지희는 대나무 껍질 등으로 동아줄을 꼬아 수리(數里)에 걸쳐 놓고 북을 치며 떠들면서 서로 잡아다니는 것이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다.⁷⁾

일본의 민속학 사전에는 줄다리기에 대해서 본래는 연점(年占)의 신사(神事)로 행했는데, 시기는 동부 일본에서는 상원, 서부 일본에서는 7월 보름, 8월 보름이 많다고 한다. 대개 두 부락 사이의 승부로 이긴 쪽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한 줄을 다리는 데도 있으나 숫줄의 머리를 암줄의 머리속에 넣어서 다리는 예가 많다⁸⁾고 한다.

일본 대림(大林)太良『수도경작어로민문화(水稻耕作漁撈民文化)』에서「중국에서의 줄다리기는 수도재배민(水稻栽培民) 문화를 배경삼고 있다. ...6세기에서 9세기 기록에는 호남(湖南), 호북(湖北)의 양성(兩省)에 성행된 기록이 보이

2) 이우영,『機池市 줄다리기』, 집문당, 1986.

3) 한대는 B.C. 206년부터 A.D. 220년대 왕조

4) 拔河古謂之索 襄漢風俗 常以正月望日爲之 相傳 將伐吳 以此孝戰 古用 纜 今民則用大 麻 長四十五丈 兩頭分 小索數百條 分二朋 兩相齊挽 當大 之中 立大旗爲界 震鼓叫 使相 引 以却者爲勝 就者爲輸 名曰拔河

5) 최남선, 조선상식(朝鮮常識), 동명사, 1947, p.102 참조

6) 고대민족문화연구소, (韓國民俗大觀) 제4권, 1982, p.450

7) 최남선, 앞의 책, p.102참조「荊楚歲時記謂之施 今學校中運動有 之戲 卽古拔河遺制也」

8) 장수근, (한국의 세시풍속), 형성출판사, 1984, p.173

며 호북의 양양(襄陽)에서는 정월 만월에 행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리고 그 기원에 대해서 초나라와 오나라 양국이 싸울 때 발명됐다고 전하며 호북에서는 줄을 용으로 상징하고 줄다리기는 연점(年占)의 의미가 있었다. …줄다리기가 동남아시아 오세니아에도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봄에 행하는 연점(年占) 행사로서의 성격, 줄과 뱀, 또는 용과의 관계, 여자편이 이기게 되어 있는 점 등, 성적인 의미들의 특징이 뚜렷한 것은 수도재배민, 특히 인도지나(印度支那)의 타이계통 민족 지역들이다. 라오스의 루아, 푸라방 지방에서는 저녁에 남녀가 각각 줄을 지어 춤을 추는데 줄은 뱀을 의미하며 일방(여성의 줄)의 뱀(줄)이 타방(남성의 줄)의 뱀(줄)을 쫓는다. 이것은 비가 가뭄을 쫓는 것을 상징한다. 이 의식이 끝나면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것도 남녀로 조를 나누고 여자편이 이기면 금년은 행운이지만 남자쪽이 이기면 재액이 온다고 믿는다.」이 기록으로 미루어 동남아시아 일대의 줄다리기가 공통의 기반 위에서 유래된 것을 추측된다.⁹⁾

줄다리기에 관한 우리 나라의 기록은 15세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지만 그 이전부터 있어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홍석모(洪錫謨)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상원(上元)조와 8월조에 「충청도 풍속에… 편을 갈라 줄을 잡아당긴다. 서로 끌려가지 않는 편이 이기는 것으로 풍년을 차지한다. 이것은 곧 예날의 혈하희(繫河戲)이다. 경기 지방 풍속도 그러하다. 승려들도 이 놀이를 한다. …영남 지방 풍속에 갈전이 있다. 칙으로 줄을 크게 40~50발쯤 만들고 편을 갈라 서로 잡아당겨 승부를 겨룬다. 이렇게 하여 풍년을 점친다고 한다.

제주도 풍속에 해마다 8월 보름날 남녀가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좌우로 편을 갈라 큰 줄의 양쪽을 잡아당겨 승부를 겨룬다. 줄이 만약 중간에서 끊어지면 양편이 모두 땅에 넘어지고 구경꾼들은 크게 웃는다. 이를 조리지희(줄다리기)라 한다.」¹⁰⁾

즉, 호서 지방에서는 줄다리기를 도삭이라 기록하고 옛날의 혈하희라 하였으며 영남 지방에서는 갈전(葛戰)이라 하였고 제주도에서는 조리지희(照里之戲)라 기록하였다.

《오주연문장전산고》¹¹⁾, 《부산읍지》¹²⁾에 정월 대보름에 줄을 당겨 승부를 결정하고 그 해의 풍흉을 점치는데, 동편이 이기면 흉년이 들고 서편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고 하였고 《동래읍지》에 천중절인 5월 5일 단오절에 동서부로 나뉘어 줄을 당기는데, 승부로써 그 해의 풍흉을 점친다¹³⁾고 하였다.

최남선의 《조선상식》의 풍속편에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의 정월 15일 풍속에 쥔, 또는 칙으로 큰 줄을 수십 발이나 되게 길게 꼬고 줄 양 머리에는 수많은 작은 줄을 매달아 몇몇 마을이 둘로 편을 갈라 줄을 서로 잡아당기어 승부를 가린다. 이기는 편에 풍년이 든다고 말하는 데 이것을 줄다리기라고 한다. 이는 정초에 어디든지 있는 기년(祈年), 또는 점풍(占豐)의 한 습속인 원시 형태의 소박한 행사이므로… 각처에 두루 행하였는데, 다만 그 시기가 정월 보름에 행하는 곳도 있으나 8월 보름, 혹은 운소시(雲消時)에 행하기도 하며 유구(琉球)에서는 6월에 길한 날을 점쳐서 행하였다.」¹⁴⁾

김택규는 《한국문화사대계Ⅳ》¹⁵⁾에서 한자로 '색전(索戰)' 순 우리말 사투리로 「줄다리기」, 「줄당기기」, 「줄싸움놀이」등으로 불린다고 하였다.

1936년 조선 총독부에서 조사한 수요를 정리해 보면 경남 18, 경북 14, 전남 20, 전북 8, 충남 8, 충북 8, 경기 7, 강원 12, 황해 4, 평남 1, 평북 3, 함남 5, 함북 없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가 정확한 것은 아닐지라도 대체적인 우리나라의 줄다리기 실태를 파악하는 자료는 되리라고 본다.

경북 「문경 지방의 줄다리기」는 정월 3,4일쯤부터 청년들이 밤에 애기줄을 다리며 이긴 쪽에서는 진 쪽의 줄을 모두 제편으로 끌고 와서 합친다. 따라서 진 쪽에서는 먼저 줄보다 적어도 두 배 이상 굵게 만들어야 한다. 애기줄 싸움은

12, 13일까지 7,8번 반복되며 이에 따라 줄이 상당량 모인다.

원줄의 굵기는 50내지 60센티미터이며 길이는 300내지 400미터에 달한다. 동줄(벗줄)은 대체로 1미터 간격으로 매었으며 이 줄의 직경은 9,10센티미터, 길이는 3,4미터이다. 승패는 중앙 지점에서 좌우 양편으로 5,6미터 거리에 결승선을 그어놓고 상대편 줄을 이곳까지 끌고 오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정한다. 처음에는 줄이 끌려가고 끌려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로 어느 한쪽으로 1미터 가량 쏠리게 마련이며 대체로 30분이 지나야 승패가 결정된다.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 줄다리기」는 음력 정월 이후 행하는 데 줄다리기를 하기 며칠 전부터 청소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짚단을 얻어다 줄을 만든다.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줄을 당기는 데, 줄의 지름이 1m 넘을 수 있고 싸움을 하는 날 암줄과 숫줄의 고를 만들어 연결하는데, 암줄은 고를 크게 만들고 숫줄은 암줄의 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게 만든다.

줄은 위낙 크기 때문에 줄 사이 사이에 지름이 10cm 내외의 결줄을 만들어 잡아당긴다. 또 끝에는 쑥지줄이라 해서 줄 십여 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 수 있도록 한다. 줄다리기는 서부 지역인 여성이 이겨야 그 해 풍년을 맞을 수 있다. 또 이긴 편이 밧줄과 쑥지줄은 한 움큼씩 떼어 가는데, 이 짚을 지붕 위에 올려놓으면 아들을 낳게 되고 관운이 트이며 집안이 잘된다고 믿기 때문이다.¹⁶⁾

9) 심우성, 『한국의 민속놀이』, 에광인쇄공사, 1980, pp.245~246

10)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상원조(上元條) 거전(炬戰), 갈전(葛戰), 8월조 조리지희(照里之戲) (湖西俗 有葛戰 又以 索 分隊把持 相不被引者爲勝 以占豐 卽古之 河戲也 畿俗亦然 徒又有此戲 …嶺南俗 有葛戰 以葛作索 大可四五十把 分隊相引以決戰 謂之占豐. …濟州俗 每歲八月望日 男女共聚歌舞 分作左右隊 大索兩端 以勝端 索若中絕 兩隊 地則 觀者大笑 以爲熙里之戲)

11) 《五洲衍文長箋散稿》, 상계서, P.451. 「今湖西忠州牧之邑村 上元有挽索戲爲勝負以占其歲之豐凶」

12) 《부산읍지》, P.451. 「每年正月十五日 邑人分東二隊 索爭勝以占 穰 東勝則 西勝則穰」

13)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속대관 제4권』, 1982, P.451. 「天中節邑內男女 聚會分件爲 繩之戲 又分東西部引大索以勝負 占豐凶」

14) 최남선, 앞의 책, p.102 참조

15) 김택규 (金宅圭), 《한국문화대계Ⅳ》, P.679.

16) 김광연, 『빚깎이는 책들 101-4 민속놀이』, 대원사, 1989, pp.12~15.

밀양의 「계줄다리기」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계 모양을 한 줄을 목에 걸고 땅을 기면서 줄을 잡아 당긴다. 한 사람, 혹은 다섯 사람씩 편을 갈라 경기를 한다.¹⁷⁾ 전북 김제군 월촌면 「선돌 마을의 줄다리기」는 줄다리기가 끝나면 그 줄의 고를 선돌에 끼우고 그 줄을 석주에 감아 놓으며 제를 지낸다.¹⁸⁾ 「동래 줄다리기」는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경기를 하는데, 동부는 숫줄, 서부는 암줄이다.

전남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진목마을 줄다리기」는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줄다리기를 하였던 데 길이 500m 지름 30센티 정도의 외줄을 동네가 총 출동해서 수백 명이 남자편과 여자편으로 갈라서 당긴다. 여자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해서 남자편이 지기도 한다. 몇 차례 줄다리기를 하여 줄이 끊어질 때까지 당기는 데 끊어진 줄은 당신목(堂神木)에 감았다.²⁰⁾

이와 같이 우리 나라 민속 놀이 가운데 승부를 겨루는 내기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웅장한 놀이로 협동 정신과 단결력을 길러 주는 놀이이다. 줄은 대개 짚으로 만들며 옛날에는 정초부터 동네에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집단을 얻어 모아 젊은 청년들이 큰 동아줄을 꼬아 자기 마을의 줄을 메고 줄다리기를 할 광장으로 나가는 데, 줄 앞에 농악대가 흥을 돋구어 나간다. 수염을 달고 큰 관을 쓴 대장격인 사람이 사령이 되어 지휘를 한다. 광장에 여러 마을의 줄이 도착되면 두 편을 갈라 각각 여러 개의 줄을

연결하고 줄을 다린다. 암줄과 숫줄을 연결할 때는 줄 끝의 암고리에 숫고리를 집어넣고 여기에 비녀목을 꽂아 고정시킨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남성을 상징하는 지역과 여성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나누어 승패를 겨룬다. 줄다리기는 수십 명에서 수천, 수만 명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로 마을과 마을 대항의 놀이에서 군 단위 대항,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되기도 하고 있다. 이러하기에 질서를 가장 존중하는 놀이이다. 총사령의 호령과 신호에 의하여 줄다리기는 시작되는 데, 여러 마을에서 모여온 농악대는 같은 편끼리 합류하여 신나게 농악을 울려 기세를 돋군다. 경기와 아울러 농악을 울리는 모습은 참으로 큰 구경거리이므로 모여드는 군중은 수천 수만을 헤아린다. 줄다리기를 이긴 편은 농악을 울리며 줄을 메고 춤을 추면서 돌아간다. 이긴 편은 승리감에 흥이 나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긴 편은 마을은 그 해 풍년이 들고 무병, 무재하다는 것이다. 또, 이긴 편은 줄을 찢어서 논에 거름을 쓰면 그 해 풍년이 들고 어부가 이긴 편은 줄을 한 토막 배에 싣고 가면 배는 폭풍을 만나지 않으며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속설이 있다.²¹⁾

2. 줄다리기 유형

줄다리기는 놀이 기구인 줄의 형태에 따라 외줄다리기, 쌍줄다리기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전자는 줄 하나를 갖고 그 중심부를 경계로 하여 양편으로 갈라 잡아당기는 줄다리기를 말하고 후자는 줄에 따라 '암줄', '숫줄'이란 두 줄이 있어서 이 두 줄의 머리, 즉 '암줄'에 '숫줄'의 머리를 끼워 비녀목으로 연결하고 잡아당기는 줄다리기를 말한다.

3. 줄다리기 의미

첫째, 줄다리기 그 자체가 남녀간의 성행위 의식이다.

대보름에 줄 당기는 것은 이 무렵이 농한기의 끝이면서 새로운 농사의 시작이 되는 분기점일 뿐만 아니라 대보름은 최초로 만월(滿月)이 되는 날이고 음력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실제적인 연초이며, 달은 여신인 동시에 농신(農神)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²²⁾

둘째, 여성쪽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하는 것이다.

줄다리를 남녀간의 성행위에 결부시켜 생산의 최종 담당자인 여성쪽이 이기게 하는 것은 농경 사회의 지신(地神)은 여신으로 여신을 즐겁게 하여 풍년을 기리는 것이다. 즉, 여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여자편이 이기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여성 자신이 생산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매우 자연스러운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장소 문제이다.

줄을 당기는 장소가 논밭인 것은 이곳이 곧 농사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영산에서는 전에는

한없이 넓은 보리밭 위에서 했다고 한다. 보리밭 주인도 밭아 주는 셈이 되어서 조금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밖에도 겨울에 논이 많고 보리가 있는 곳에서 한다는 보고도 있다.²³⁾

물론 대규모 줄다리기는 강가 모래판 같은 곳에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위와 같은 장소 문제는 고려됨직하다.

넷째, 줄이 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줄다리기에 쓰이는 줄을 용(龍)에 비유하는데 줄과 용과의 관계는 우선 그 형태가 비슷한 데에서 비롯되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줄을 뱀에 견주기도 한다. 용과 비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짚을 용처럼 엮어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결국 농사에 꼭 필요한 비를 기원하는 주술 행위로 볼 수 있다. 전남 완도, 경남 마산, 충북 괴산 등지에서 줄을 용의 관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줄다리를 가뭄이 심하면 여름철에도 기우제의 일종으로 울산, 진주 등에서 했다는 보고가 있다. 이것은 쌍룡(相爭)으로 비를 내리게 하려는 주술적 행위로 조사자는 보고하고 있다.²⁴⁾

다섯째, 하는 시기가 주로 정월 대보름에 행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제 시대 조선 총독부가 조사한 108개 지역의 줄다리를 계산해 보면 추석 10개소, 여름 2개소, 수시 2개소, 겨울 2개소이고 나머지 90여 개소는 모두 정월 대보름이다.

여섯째, 여기에 많은 俗信이 따른다는 것이다.

상대방 줄을 넘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17) 김광연, 앞의 책, p.16

18) 김광연, 앞의 책, pp.18~21

19) 김광연, 앞의 책, pp.22~26

20) 장수근, 『동제(洞祭)』, 한국민속학개론, 1981, p.180 참조

21) 김성배, 『한국의 민속』, 집문당, 1980, pp.108~109 참조

23) 전해순, 『한국풍속지』, 1956, p.95

24) 조선총독부, 『석존(釋尊)·기우(祈雨)·안택(安宅)』, 1938, p.140

밤에 그것을 넘으려고 틈을 노리는 부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줄이 끊어진단가 줄다리를 진단가 해서 밤새 지키는 장정들도 있었다. 또 이긴 편이 줄을 잘라다 지붕 위에 던져 놓으면 관운이 트이고 일이 잘된다고 한다. 짚을 썰어 먹이면 소가 잘 크고 건강해지며 일을 잘하고 거름으로 쓰면 풍작이 된다는 등이다.²⁵⁾ 또 아이를 못 가진 부녀자가 줄을 넘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4. 줄다리기 때 불렀던 민요

대전하는 두 지역의 동부를 남자편, 서부를 여자편으로 암줄의 큰 목줄 고리 속에 숫줄 작은 목줄 고리를 넣고 비너목을 꿸으면 여기가 승부 판가름의 중심점이 된다. 그런데 나중 판결에 유리해지려고 양편 줄꾼들은 줄을 내밀었다가도 수천 명 군중 속이라 앞의 목줄 상황은 안보이니 잡아다니기에 바쁘다. 그래서 숫줄 고리는 암줄 고리 사이를 들락날락하는데 진행부의 고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출입에 30분이나 한 시간이 걸린다.

이때 서부 암줄편 대장이 외친다. “여자가 먼저 갖다 대는 법이 어디 있냐? 너희 이리 오너라.” 하면 동부 대장은 “요즘 세상이 어디 그러냐!” 하고 응수한다.

부왔네 부왔네 동부 ×이 부왔네

25) 장수근, 앞의 책, 1984, p.173

26) 최상수, 『한국의 세시풍속(동래지방 민요)』, 1960, p.58

27) 임동권, 『한국민요집(대구지방0)』, 일지사, 1961, p.447

28) 장수근, 앞의 책, p.171

29) 임동권, 앞의 책, 1974

닿았네 닿았네 서쪽 ×이 닿았네²⁶⁾

부왔네 부왔네 동쪽 ×조 부왔네

닿았네 닿았네 서쪽 ×이 닿았네²⁷⁾

구경꾼 노인들께 물으니 “해가 깜북져야 안 합니까. 태도 없임더. 어떤 남녀가 대낮부터 그런 그런 짓을 하느냐?” 고도 한다. 옆의 할머니들도 히죽거리면서 “세기도 하제” 한다. 오래 끌기도 한다는 것이다.²⁸⁾

*줄노래

자- 줄잡아라/ 여- 동무야 올려(선창)/ 여- 동무야 올려(제창)/ 여- 동무야 올려/ 여- 동무야 올려/ 어- 새비 문내야/ 어- 새비 문내야/ 어- 동구녕 군내야/ 어- 동구녕 군내야/ 어- 동무야 올려/ 어- 동무야 올려/ 어- 동구녕 꼬순내야/ 지나칭칭나네/ 지나칭칭나네/ 시내강변에 자갈도 많다/ 지나칭칭나네/ 오늘 저녁에 여기서 놀면/ 꽤지나칭칭나네/ 널저녁은 어디서 놀고/ 꽤지나칭칭나네/ 소리도 적고만네/ 꽤지나칭칭나네/ 어깨춤이 절로 나도록/ 꽤지나칭칭나네/ 정월이라 대보름달/ 꽤지나칭칭나네/ 줄쌈이나 해봅시다/ 꽤지나칭칭나네/ 줄을 싸우면 우리가 이기요/ 꽤지나칭칭나네/ 동편이 이겼다네/ 꽤지나칭칭나네/ 서편에는 문내나고/ 꽤지나칭칭나네/ 동편에는 고신내난다/ 꽤지나칭칭나네/ 다 잡아 줄줄/ 꼬집어라/ 간단이/

오- / 우여차 우여차 우여차/ 우여차(합성)와(합성)/ 동편이 이겼다/ 동편이 이겼다/ 동편이 이겼다²⁹⁾

5. 현대의 줄다리기 문제점

농업의 합리화로 보리밭이 없어지고 1969년 중요무형문화재 27호로 지정을 받은 영산의 줄다리기의 경우 중학교 운동장에서 하고 있다. 그 결과 무제한이었던 줄의 길이가 80m로 제한되니 굵기도 따라서 줄어들었다. 전에는 지름 8cm의 줄 120가닥을 꼬아서 두 겹으로 했던 것이 80가닥으로 험약해서 4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장소의 의미도 사라지고 줄의 길이도 사라져 전통의 계승에 차질을 빚고 있다.

Ⅲ. 기지시 시장의 역사·지리적 배경

1. 역사적 배경

1) 문헌에 나타난 기지시 시장

우리의 생활과 더불어 시장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상거래를 이루었다. 시장과 관련된 고기록으로 1770년(영조 46년)에 쓰여진 『동

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 조사된 시장은 전국에 1,064곳, 1807년(순조 7년)의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 5권 각전(各塵) 부(附)에는 1,064곳에 향시(鄕市)가 있다고 하였고 기지시 시장명은 기록에 없었다.³⁰⁾

기지시 장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845년(헌종 11년)에 죽은 서유구의 만년 저서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예규지(倪圭志) 卷四 팔역장시(八域場市)에 전국의 1,052개의 시장이 제시되고 있는데, 면천(沔川) 구(區)의 기지 장(機池場)은 면천 읍내에서 북쪽으로 20일 승선면(升仙面)에 있고 장은 1일, 6일과 3일, 8일에 섰다. 거래되는 물건은 요죽어염약애(饒鰈魚鹽藥艾)³¹⁾ 이라고 밝혀 음식, 어물, 소금, 약재 등이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의 향사중 거래 상품의 종류가 밝혀진 장시는 324개 소로 곡물과 담배, 목화 등의 특수작물, 그리고 수공업 제품 등이 상품으로서 대량 매매되었다.³²⁾ 이뿐 아니라 내포 지역 일대에서 면천군의 읍내 장과 기지시 시장이 매우 큰 장이었던 것 같다. 다른 예산, 덕산, 홍성, 서산, 해미, 아산, 온양, 대흥 등의 지역은 한 달에 6번 장이었으나 면천 읍내 장과 기지시 장은 한 달에 12번씩 서는 장이었다.

또 기지시 시장에 관련된 기록은 보부상의 조

30) 민족문화추진회, 『만기요람 I』, 서울: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 pp.496~497

「향의에서 개시하는 것은 한 달에 6장인데 1·6일, 2·7일, 3·8일, 4·9일, 5·10일을 예용하고 있다. 경기 102처, 충청도 157처, 강원도 68처, 황해도 82처, 전라도 214처, 경상도 276처, 평안도 134처, 함경도 28처로 기록되어 있고, 충청도에 있는 장명(場名)은 은진(恩津) 강경장(江景場), 직산(稷山) 덕평장(德坪場) 등 2곳이 기록되어 있다.」

31) 서유구,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1830년대

「면천(沔川) 구(區)의 기지장(機池場)은 제읍북 20일 승선면(升仙面) 1·6일, 3·8일 설 요죽어염약애(饒鰈魚鹽藥艾) 면천구 읍내장(邑內場) 2·7일 5·10일 설 범근천장(泛斤川場) 제읍동(在邑東) 20일 범천면9(泛川面) 1·6일 설 당진구(唐津區) 읍내장(邑內場) 2·7일 4·9일 설 삼거리장(三巨里場) 제읍서(在邑西) 10일 하대면(下大面) 5·10일 설 요죽어염약애(饒鰈魚鹽藥艾)」

32) 강만길, 『한국사회의 역사』,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 1974, pp.100~101

직이었던 예덕 상무사의 기록에서 그 당시 기지시 시장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알 수 있었다.

광서 7년(1881년) 5월 이정여(李正汝) 冊으로 면천군의 기지시 좌목은 본방공원 노계현(盧桂賢), 문서공원 김치옥(金致玉), 도공원 엄시화(嚴時化), 집사 ○○○, 비방(殺房) 안수○(安壽○)³³⁾ 광서 11년(1885년) 예덕상무사 『先生案』³⁴⁾에 면천군 기지시 영감으로 이종건, 엄시화, 유진필, 임동진이, 『예산임소좌목』³⁵⁾에 면천기지시 접장 이정여(李正汝), 본방공원 손득서(孫得瑞), 문서공원 김윤필(金允弼), 도공원 김치옥(金致玉), 집사 박성범(朴聖範), 대방 안수경(安壽敬)이었다. 광서 14년(1889)에 『보상선생안(祿商先生案)』에 이종건(李宗乾), 노중현(盧重鉉), 손득서(孫得瑞), 유진필(俞鎭弼), 임동진(林東鎭)³⁶⁾ 光緒 18년(1892년) 『예덕면장사읍임소선생안(禮德沔唐四邑任所先生案)』에 별공원(別公員) 유봉규(柳鳳圭), 본방(本房) 임춘삼(林春三), 문서공원(文書公員) 송군필(宋君弼), 공사공원 안성수(安聖秀), 교수

공원 김치상(金致尙), 별공원 노광여(盧光汝), 김선필(金先弼), 김춘삼(金春三), 이성춘(李成春), 이경행(李景行), 교집사(敎執事) 김윤보(金允甫), 황덕성(黃德成), 김재근(金在根), 이치삼(李致三), 전도현(田道鉉), 김곤이(金坤伊), 이약대(李若大), 황승손(黃升孫), 이장춘(李長春), 이판봉(李判奉), 이원석(李元石)이 기록되어 있다.³⁷⁾

작성 연대는 알 수 없으나 『德山本所帳內座目』에 본방 손득서(孫得瑞), 수전공원 안덕화(安德化), 별공원 양성화(梁聖化), 도집사 김군심(金君心), 본방 김춘화(金春化), 도수공원 장치선(張致先), 별공원 권청일(權淸壹), 도집사 문윤칠(文允七), 문서 노계춘(盧桂春)이 면천 기지시로 기록되어 있고³⁸⁾ 대정 5년(1916년) 3월 『商務右支社任員錄』에 명사원(明查員) 이득서(李得瑞), 도집사 김성길(金聖吉), 부집사 윤희영(尹熙榮), 도공원 유치순(兪致舜), 도집사 이판보(李判甫), 부집사 박성서(朴聖西), 대방 이문학(李文學), 명사장 이민갑(李敏甲), 명사

장 강춘삼(姜春三), 임영주(林英周), 김우봉(金又奉)이었다.

이상에서 기지시 장의 기원은 1800년 초부터 기록에 나타나고 그 이후 보부상 조직인 『예덕상무사』 기록 7곳에서 「기지시」 市場名과 보부상 임원 명단을 볼 수 있다. 또한 『임원경제지』의 시장 숫자와 시장에 관한 최초의 기록인 『동국문헌비고』의 시장 수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아 1770년대에는 「기지시 장」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기지시 줄다리기에 대한 기록이라고 정확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1936년대 村山智順의 『朝鮮郷土娛樂』 당진군편 줄다리기에 줄다리기는 「밧줄을 당기면 그 해에는 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전설에서 유래한다」.³⁹⁾고 기록하고 있어 기지시 줄다리기의 유래에 대한 기록으로 는 최초의 기록으로 여겨진다.

그 외 기지시 줄다리기에 관련된 기록으로는 1981년도에 김기호가 출간한 『틀무시의 유래』⁴⁰⁾가 있으며, 1983년에 만들어진 임동권의 『한

국민속문화론』⁴¹⁾에 기지시 줄다리기를 조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986년 이우영의 『機池市 줄다리기』⁴²⁾, 1990년 최무용, 김추운의 『당나루의 맥락Ⅸ 지명편』⁴³⁾, 1991년 구자성이 『내포문화』 3호에 실은 「기지시 줄다리기에 얹힌 전설」⁴⁴⁾, 1996년 이인화의 『당진의 민간 신앙』⁴⁵⁾, 1996년 송봉화 외 3인의 『살아 있는 문화 유산』⁴⁶⁾, 1997년 당진군지 편찬위원회의 『당진군지』⁴⁷⁾, 1998년 송봉화의 『기지시 줄다리기』⁴⁸⁾가 있다.

2) 기지시⁴⁹⁾ 시장의 이주설

김기호⁵⁰⁾는 『틀무시 유래』에 「틀무시 시장의 시작은 4235년⁵¹⁾ 여름이며 기지시는 면천군 중흥면 2리 한천동 지역에 있던 새장터에서 옮겨왔다」.⁵²⁾고 기록하고 있다.

면천군 당시 발간된 『면천군지』에는 기지시라는 리명은 없고 면천군 승선면 상촌리(上村里), 하촌리(下村里), 신촌리(申村里)⁵³⁾ 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며, 호수는 294호, 인구는 1,065

33) 예덕 상무사가 소장한 중요 민속 자료 제30호

예덕상무사, 『任所座目』 1책, 1881. 「예산 덕산 면천 당진 시읍장내 접장」

34) 禮山德山沔唐津四邑掌內

李先生令監 閑良宗乾氏住沔唐機池市申3月差癸酉3月傳

嚴先生令監 時和氏住沔唐機池市丙申3月差

兪先生令監 鎭弼氏住沔唐機池市壬寅3月差

林先生令監 東鎭氏住沔唐機池市癸卯3月差

35) 『禮山任所座目』, 예덕상무사, 1885. 3.

예산덕산면천당진시읍장내접장 중 면천기지시장내 임원

36) 『보상선생안(祿商先生案)』, 예덕상무사, 1889

李先生令監 閑良宗乾氏住沔唐機池市壬申三月日差癸酉三月日傳

盧先生令監 出身重鉉氏住沔唐機池市庚辰八月日差申巳五月傳

孫先生令監 閑良得瑞氏住沔唐機池市申卯四月日差

兪先生令監 鎭弼氏住沔唐機池市壬寅三月差

林先生令監 東鎭氏住沔唐機池市癸卯三月差

37) 『예덕면당사읍임소선생안(禮德沔唐四邑任所先生案)』 기지處所

38) 『德山本所帳內座目』, 예덕상무사, 임신년, 면천기지

39) 村山智順, 조선이 향토 오락(朝鮮 郷土娛樂), 박전열역, (서울: 집문당), 1992

40) 김기호, 『틀무시의 유래』, 당문사, 1981

41) 임동권, 『한국민속문화론』, 집문당, 1989

42) 이우영, 『機池市 줄다리기』, 집문당, 1986

43) 최무용, 김추운, 『당나루의 맥락Ⅸ 지명편』, 당진문화원, 1990

44) 구자성, 「기지시 줄다리기에 얹힌 전설」, 『내포문화』 3호, 상록인쇄사, 1991

45) 이인화, 『당진의 민간신앙』, 당진문화원, 1996

46) 송봉화 외 3인, 『살아있는 문화유산』, 당진문화원, 1996

47) 당진군지편찬위원회, 『당진군지』, 상록동양인쇄문화, 1998

48) 송봉화, 『기지시 줄다리기』, 상록동양인쇄문화, 1998

49) 기지시(機池市)는 순수한 우리말로 틀무시라고 함

50) 송악면 노인회장으로 평생간 송악면 기지시에서 살며 직접 겪고 경험한 내용을 『틀무시 유래』에 기지시의 시장과 줄다리기를 등 마을의 역사를 간단 간단히 정리해 놓았음

51) 서기 1903년

52) 김기호, 앞의 책, p1

53) 中村里의 中을 申으로 오기한 것으로 보임

54) 이상현외, 『면천군지·당진군지 역본』, 미문출판사, 1994, p23

명⁵⁴⁾이라 기록되어 있어 한 개 리에 100호로 주민이 350명 정도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시장의 규모는 못 났으리라 사료된다.

기지사 시장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는 1872년에 제작된 면천군 고지도⁵⁵⁾로 승선면에 대하여 「自官北距四十里 面內各里 上村中村下村 民戶二百九十四 人口一千六十五」라고 기록되어 있어 『면천군지』의 기록과 같으며 인구수도 같다. 또한 기지시는 장으로 존재했지 행정 구역명으로써의 기지시리는 아니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기지시리가 행정 구역명으로 최초로 등장하는 리명은 1917년 발간한 『新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上)』에 송암면(松岩面)⁵⁶⁾은 기지시리(機池市里), 내기리(內機里), 상가리(上佳里), 삽교리(插橋里), 반소리(盤所里), 부지리(釜池里), 송산면(松山面) 파리(坡里), 각 일부라고 기록하고 있어⁵⁷⁾ 기지시가 처음으로

지방 행정구역 명으로 나타난다. 즉 일제가 우리 나라 군면리(郡面里)를 통폐합하면서 형성된 행정 구역명으로 김추운 박사는 『당나루의 맥락Ⅸ 지명편』⁵⁸⁾과 『당진군지』⁵⁹⁾ 지명의 유래에서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승선면 내기리(內機里), 부지동(釜池洞), 반소리(盤所里), 상가리(上佳里), 삽교리(插橋里)의 각 일부와 송산면 장파리(長坡里) 일부를 병합하여 행정구역명을 기지시리라 하여 송악면에 편입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어 일제가 통치 수단으로 형성된 「기지시리」인 것이다.

그러나 김기호는 『틀무시 유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면천군 때 도 사령이었던 아원교가 중흥면 새장터에 있던 장을 군내 중심 지형인 틀못시로 강제 옮겨왔다」⁶⁰⁾고 기록하고 있으며, 안원교⁶¹⁾, 안경택⁶²⁾, 김동기⁶³⁾, 김영지⁶⁴⁾, 김윤희⁶⁵⁾, 강춘삼⁶⁶⁾, 강은삼⁶⁷⁾, 박기보⁶⁸⁾, 박상희⁶⁹⁾, 최동순⁷⁰⁾, 송군필⁷¹⁾ 등이 합세했다고 고증을

들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⁷²⁾ 또 기지시 시장의 시작부터 이주해 온 주민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전 거주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기록하고 있다. 즉, 「1900년 초 기지시 내기(內機)인 안틀못시에 1집, 바깥틀못시, 즉 장터에 김윤희와 중국인, 송군필, 박기보와 박상희, 안원교, 안경택과 최동순, 강은삼과 강춘삼 등 여섯 채의 집에 10명의 호주가 거주하고 있었고, 1930년을 기준으로 기지시리 바깥틀못시 장터에 이주해 온 집은⁷³⁾ 최동순, 송군필, 강춘삼, 박기보, 강은삼, 박상희, 김윤희, 김동현, 조영화, 임영감, 임주영, 이민갑, 김남재, 한선달, 이승모, 안원교, 조정숙, 김동기, 안경택, 강석형(중국인) 등 20명이었다. 안틀모시 송태준, 김선화, 1940년대를 기준으로 기지시리 바깥틀모시 장터에 이주해 살던 89호는 박창봉, 조경순, 윤기학, 박창봉, 한백현, 김윤배, 홍정유, 이승보, 이진식, 중국인(진가), 공병무, 김동현, 강석형(중국인), 김재천, 김태호, 임주형, 송군필, 장상순, 이민갑, 황호정, 오종백, 박순중, 김남재, 김윤관, 부병자, 임영감, 강경태, 안봉옥, 양증백, 송영선, 홍사묵, 홍사용, 전풍원, 신봉선, 최운엽, 박성진, 이순태, 이승보, 김한경, 한석이, 김양태, 이순서, 김덕재, 이흥준, 강동석, 김상봉, 김태호, 황한영, 고진오, 김재홍, 김재봉, 이성옥, 강동만, 박봉호, 남정희, 김강환, 이덕삼, 강주용, 최만홍, 임영열, 김동근, 오종근, 김양운, 정민섭, 손관원, 국지(일본인), 안찬옥, 최광우, 홍사열, 명계동, 김석태, 조경순, 김동옥, 이수복 등 호주가 74명이며, 샘 건

너 동네는 장명달, 노병식, 노공재, 박준산, 양치경, 김석태, 강동엽, 김현택, 유태선, 최희낙 등 호주가 10명이었으며 연방측 동네는 김인철, 김덕진, 최한홍, 최동순, 최사운 등 호주가 5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1940년대 안틀모시는 김강환, 김복산, 노병직, 광영식, 이수복, 이중학, 유점식, 박득표, 이대한, 한백현, 조인경, 유정술, 서광직, 김기안, 이민옥, 이민용, 노광운, 한백현, 박광열, 박치교, 과주용, 장명남, 안기택, 안경택, 박복근, 유민석, 박상학, 김순화, 황희철, 김학봉, 윤수일, 유덕일, 광무용, 백종근, 구임희, 김동국, 박상희, 노을봉, 윤기석, 이성운, 손성운, 김교진, 김학준, 김구배, 김동국, 박상희, 노을봉, 윤기석, 이성운, 손성운, 김교진, 김학준, 김구배, 김동호, 박덕철, 김인덕, 노군봉, 유민석 등 39호가 살고 있어 기지시에는 총 128호가 있었다.⁷⁴⁾고 밝히고 있고 출신지별로 「송악면에서 이주한 집은 가학리 안원교(아들 안병국), 안경택(아들 안병태), 안기택(아들 안명호), 안찬옥(아들 안광세)이고, 복운리는 김강환(아들 김기호), 김영환(아들 김기홍), 김영지(아들 김창원)이고, 반촌리 조영화(아들 조승열), 박치교(아들 박승남), 김성만(아들 김세배), 김양운(아들 김덕환), 김기안 아들(김창하), 김동국(아들 김홍일), 김재홍, 김재봉이고 영천리 박준산(아들 박한호), 박광열(아들 박우성), 윤금옥(아들 윤정남), 조승열(아들 조은기), 중흥리는 한백현(아들 한우택)이고, 오곡리 이중학(아들 이갑춘)이고, 월곡리 김순경(아

55) 김추운, 『당진의 옛지도』, 당진문화원, 1997, p.15, p.90

56) 松岩面은 옛 면천군 승선면(昇仙面) 지역임.

조선 태종 13년(1413년) 면천군은 죽림, 덕두, 가화, 범천, 손동, 초천, 중흥, 감천, 송산, 승선, 정계, 송암, 마산, 읍내면 등 14개 면을 관할했는데 송암면은 현 면천면 송학리, 삼용리 지역을 일컬음

57) 한국지리풍속지총서(189), 『新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上)』, 경인문화사 영인, 대정6년(1917년), p.310

58) 최무용, 김추운, 『당나루의 맥락Ⅸ 지명편』, 1990, 당진문화원, p.299

59) 김추운, 『지명유래』 <당진군지>증권, 당진군지편찬위원회, 상록중앙인쇄문화, 1997, p.775

60) 김기호, 앞의 책, pp.5~6

61) 안원교는 안병국(1991 당시 75세)의 아버지로 송악면 가학리에서 이사함

62) 안경택은 안병태(1991년 당시 66세)의 아버지로 송악면 가학리에서 이사함

63) 김동기는 김기준(1991년 당시 82세)의 조부로 송악면 복운리에서 이사함

64) 김영지는 김창원의 아버지로 송악면 복운리에 이사함

65) 김윤희는 김익환의 조부로 면천면 성상리에서 이사함

66) 강춘삼은 강창대의 조부로 천안군 풍세면에서 이사함

67) 강은삼은 강인환의 조부로 천안군 풍세면에서 이사함

68) 박기보는 박준열의 아버지로 경기도 포천군에서 이주함

69) 박상희는 박윤본의 아버지로 경기도 포천군에서 이주함

70) 최동순은 최병식의 아버지로 서천군 한산면에서 이주함

71) 송군필은 송영묵의 아버지로 당진군 당진면 원당리에서 이주함

72) 김기호, 앞의 책, p6

73) 주민은 각 집안의 호주임

74) 김기호, 앞의 책, pp.6~13 참조

들 김희태), 도원리 박순중 등 23호가 이주하였고, 송산면에서 이주한 집은 상거리에 홍정유, 홍사열, 홍사묵, 홍사용, 송용선(아들 박윤희), 박봉효(아들 박기석), 박봉산(박기운), 가곡리는 신용봉, 부곡리는 최우락(아들 최병택), 유대선(아들 유제관), 매곡리는 박창봉(아들 박원식) 등 15집이 이주하였다. 면천면에서 이주한 집은 성상리 김윤희, 김동근(아들 김익환), 죽동리 한석이(아들 한인석), 사기소리 서광직(아들 서제중) 등 4명이었고 당진면에서는 이주한 호주는 원당리 송태준(아들 송영목), 시곡리 강경태(아들 강병석), 수청리 오희수(아들 호병산), 읍내리 명계동 등 4집이, 고대면에서 이주한 호주는 장항리 이승보(아들 이중식), 이원준(아들 이동식), 이수복(아들 이석형), 진관리 손낙한(아들 손희동), 이을준(아들 이대성), 이흥준(아들 이대식), 대촌리 손성운(아들 손인권) 등 7집, 순성면에서 이주한 집은 옥호리 백태현(아들 백승구), 갈산리 임일성(아들 임완수), 김재천(아들 김성희), 임일남(아들 임민수) 등 4집, 합덕면에서는 조인경(아들 조병관), 김윤관(아들 김월성), 운산리 이순봉(아들 이중만)으로 당진군 내에서 기지시 시장으로 이주해 온 호수는 60호이다. 충남권에서 이주한 집은 천안군 풍세면에서 강동엽(아들 강창대), 강득석(아들 강중환), 서천군 한산면에서 최동순(아들 최병근), 아산군에서 한선달(아들 한홍이), 배방면 이민용(아들 이기영), 이민옥(아들 이호영), 모산면 임영열(아들 임영재), 홍성군 광천면 전풍원(아들 전우선), 광천면 이건식, 예산군 덕산

면 고진오(아들 고용순), 공주군에서 공주읍 윤상준(아들 윤병기), 유구면에서 황운(아들 황선성), 장명달, 장명남(아들 장기천), 황희철(아들 황선길), 서산군 여미면 김현택(아들 유홍건), 유점석(아들 유제만), 최만홍(아들 최낙원), 최한홍(아들 박윤본), 인천시 송현동에서 공병무, 개성군 강주용(아들 강성희), 안성군 조경순(아들 조신행), 수원군 유정술(아들 유창호), 백종근(아들 백만수), 강화군 노군범(아들 노재근) 등 7집, 충북에서는 진천군 광화진(아들 광영식), 광무용(아들 광영길), 충주군 한백현(아들 한정택), 노병직(아들 노주환), 노영세(아들 노충환), 노병식(아들 노철우) 등 6집, 전라도에서는 남원 윤수일(아들 윤영복), 이성운(아들 이근태) 등 2집, 경상도 이성옥(아들 이월용) 등 1집으로 타 지역에서 이사온 호수는 총 37집이 기지시리로 이사를 왔다. 그 외 박성진, 양증백(아들 양창식), 양치경(아들 양대산), 오윤도, 노광운(아들 김강노), 이덕삼(아들 이수산), 정민섭, 남정희(아들 남상옥), 김재홍, 유덕일(아들 유백용), 권석천, 김복길, 오종백, 유인호, 오탱근, 박봉교, 임주영, 김양대, 윤장성, 라달복, 임고미, 이순서(아들 이삼천) 등 27집이 이사를 왔으나 전 거주지를 알 수 없다.⁷⁵⁾고 밝히고 있어 1900년 초 틀뭇시에는 몇 집이 없어 마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열거한 전 거주지를 종합 정리해 보면 경기도 개성, 포천, 수원, 평택, 안성, 여주, 인천 상인들, 충청도 청주, 공주, 논산, 부여, 서

천, 장항, 서산, 홍성, 예산 아산 지역, 전라도 전주, 남원, 경상도 상주, 남원 지역에서 상인들이 이주해 와서 1910년대부터 기지시에서 상권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안병화, 안명호, 김기택, 최병근, 김태환, 박한호, 김명환, 강중환, 전우석, 광영만, 박운식, 한진성, 이덕영, 김인원, 박세희, 노덕우, 조신행, 김서진, 황선성, 임민수, 유재관, 서재중, 송양일, 김정구, 조은기, 임영재, 호병하, 백석재, 김종호, 장기천, 손희동, 손원영, 이대성, 이대식, 이동식, 조병관, 박광남, 고용순, 한승교, 노영호, 김세배, 광영재, 이상철, 최인묵, 송두섭, 노봉산, 최기영, 안광세, 김희태, 유창호, 박윤희, 이준성, 김성희, 박용신, 김강노, 장동섭, 이삼천, 이용호, 원창재, 김덕환, 이중만, 박기해, 이영민, 김성호, 유제만, 김홍일, 박우복 등 각 씨족 대표들을 밝혀 확실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이 지역은 1900년 초까지 모든 행정의 중심지가 송악면 중흥리로 학교, 면사무소 등 각종 관공서들이 송악면 중흥리에 밀집되어 있

었다. 기지시에 당진경찰서 송악지서 헌병 파견소가 생긴 것은 1909년이며, 송악면 중흥리에 있던 송악면사무소가 1933년에 기지시리에 지어졌고, 은행, 우체국이 들어섰다.⁷⁶⁾ 또 기지시 시장의 장옥과 마전이 1935년 송악면 가곡리 구완희, 구임희 형제가 지어⁷⁷⁾ 김석태, 김동옥, 이수복, 조정순이 입주해 장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밝혔듯이 기지시 장은 기록상으로도 1800년 초부터 있었던 정기 시장이었다.

그렇다면 1903년 면천군 사령⁷⁸⁾이며 송악면 2리 한천동⁷⁹⁾에 살던 순운 안씨 안원교가 송악면 중흥리 새장터⁸⁰⁾에 있던 장을 그의 권세로 3, 4개월에 거쳐 장을 때려부수고 논란을 버리면서 틀뭇시로 장을 옮겼다⁸¹⁾는 설은 타당성이 없으며, 『新平李氏世譜(1권)』에 선조대왕 초년 하룻밤에 육지가 꺼져 바다가 되었다는 기록으로 「宣廟初年一夜之間陸陷爲海」⁸²⁾라는 기록이 있으며, 주민들이 전하는 이야기로 1578년 이 지함이 아산 현감으로 있었던⁸³⁾ 당시 아산만이

78) 면천군지에 보면 관직(官職)으로 면천군에 사령(使令)이 28명 있었음

79) 한천동(漢泉洞)은 한진리, 부곡리, 중흥리 지역을 말한다 함

80) 김영귀(조사일: 1999. 2. 5. 남, 송악면 중흥리 경노당 노인호장, 72세, 주소: 송악면 중흥리 새장터, 352-8121, 중흥리 경로당 352-8014)에 의하면 새장터는 전하는 말에 의하면 송악면 한진리 앞바다에 있는 영웅바위가 있던 자리가 장터로 한진이 터지면서 장터를 옮겼다고 해서 중흥리 새장터라 했다고 한다.

81) 1981년 4월 19일 김동근, 김기준, 김창취, 김익환, 안병태, 강창대, 박윤본, 최병식, 송영목, 안병국씨 등 10명이 김기호(73세, 남, 송악면 기지시리 169번지, 355-6034)에게 고증한 내용임

김동근 면천군 면천장터에서 살다가 4살때 틀뭇으로 이사를 와 85년 동안 살다가 91년도 돌아가신 분임.
김기준의 할아버지 관참봉이었던 김동기씨는 송악면 복원리에서, 김창원의 아버지 김영지씨가 송악면 복원리에서, 김익환의 할아버지 김윤희씨가 면천면 성상리에서 살다 이곳으로 왔으며 안병태의 아버지 안경택씨가 송악면 가학리에서 살다가, 강창대의 할아버지 강준삼, 작은 할아버지 강은삼씨가 천안군 풍세면에서 살다가, 박윤본의 큰 할아버지 박기보와 할아버지 박상희씨가 경기도 포천군에서, 안병국의 아버지 안원교는 송악면 가학리 면천군 송악면 당시 도사령으로 참여하였으며 최병식의 아버지 최동순은 서천군 한산면에서, 송영목의 할아버지 송군필, 아버지 송태순은 당진군 원당면에서 1903년 틀뭇시장을 개척하는데 참여하였다고 함

82) 신평이씨대동보소, 『新平李氏世譜(1권)』 회상사, 1978, pp.14~16

83) 홍석표, 『당진인물지』, 동양인쇄문화주식회사, 1997, p.206

이지함은 1517년 중종 12년에 출생하여 1578년 선조 11년 아산 현감으로 생을 마쳤음

75) 김기호, 앞의 책, pp.14~20

터지면서 송악면 한진(漢津)의 영웅바위에 있던 장이 바다로 되면서 송악면 중흥리 새장터로 장이 옮겨져 「새장터」라는 지명이 유래했다는 설과는 이치가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 생각되며⁸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 가능성은 중흥리 새장터 장에 대한 고문헌 기록이 없어 정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본 연구자가 『예덕상무사』 기지시 처소에서 활동했던 당시의 보부상들을 추적해 보았다. 각 종파별로 다 추적하지 못하고 송악 면사무소에 비치된 제적부(除籍簿)⁸⁵⁾를 떼어 그들의 거주지를 파악해 본 결과 50여 명의 명단 중 1892년와 1916년도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이치삼, 강춘삼, 송건호, 김성길, 김춘삼⁸⁶⁾ 등 5명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892년 당시 예덕상무사 기지처소 별공원인 김춘삼은 당시 36살로 송악면 전대리가 주소였고(제적부 1), 이치삼은 35살로 송악면 고대리 161번지가 주소지로 되어 있었다.(제적부 2)

1916년 『商務右支社任員錄』의 기지시 처소 이득서, 이득춘, 김성구, 윤희영, 유치순, 이판보, 박성서, 이문학, 이민갑, 임영주, 김우봉, 송건호, 강춘삼, 김성길 등 14명의 임원 중에 서기원으로 있던 22살인 송건호가 1938년 송악

면 기지시리 266번지 살다가 사망했고(제적부 3), 명사장이었던 강춘삼 송악면 기지시리 361번지에서 1931년 61세로 사망(제적부 4), 김성길은 기지시 269번지로 기록되어 있다.(제적부 5)

위의 제적부 추적 결과 1892년 면천군 때는 송악면 중흥리를 중심으로 그 근거리인 전대리, 고대리에 보부상들의 성명이 거론되고 있어 중흥리 새장터와 기지시 처소와 어떤 관련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1916년 일제 치하시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1903년 기지시에 상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예덕상무사 기지시 처소 임원 14명 중 파악된 임원 3명이 모두 기지시리라는 점은 보부상들이 기지시로 거주지를 옮겨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그 나머지 1명의 이름이 기지시로 거주지를 옮겨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그 나머지 11명의 이름이 기지시리에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은 기지시 보부상 조직이면서도 기지시나 송악면에 살지 않고 당진군 일대나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인 1800년대나 그 이전의 기지시 시장은 어디였을까. 기지시 시장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은 1872년도에 작성된 고지도에서 답을 얻

을 수 있다. 그 고지도에 「機池市場在山月炙」, 「升仙面 自官北距四十里」라고 기록하고 있어⁸⁷⁾ 기지시 장이 존재하는 속에서 중흥리의 새장터 장이 번성하자 어떤 이유에서 그 일을 도모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으나 군 차원에서 기지시 장으로 통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상인들을 대개 襍負商으로 行商이었다. 즉 「교환 경제의 주역이 상인들이었고, 도로와 운반 도구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상인이 물건을 등에 지거나 머리에 이고서 팔러 다니는 행상(行商)의 형태를 띄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물화 유통을 담당하는 이들 행상, 곧 보부상(襍負商)들의 삶이 여간 고달프지 않았다. 산 넘고 물 건너 낯선 마을의 가가 호호를 방문, 물건을 파는 일이 예나 이제나 어디 쉬운 일이던가.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 생겨난 것이 장시이지만, 상설 시장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경제력이 미미한 터여서 이들은 5일 장으로 번갈아 열리는 지방 장시들을 이 장 저 장 쫓아다니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했다.」⁸⁸⁾

위와 같이 상설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부상들은 우리 나라 전통 장시(場市)인 5일 장을 중심으로 행상(行商)을 했다는 점이다. 즉, 기지시 장이 행정의 중심지도 아니었고 주민들도 1900년 이전에 거의 거주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시장이 형성될까. 상설 시장이 아닌 상태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단지 5일 장의 거점으로 시장이 서다가 1900년 초부터 군

의 정책에 힘입어 인구가 유입되고 常設 市場化되어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기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나 보부상들의 임원 명단이 중흥리 근거리에 나타나는 점이나 화석 지면으로 남아 있는 송악면 중흥리 「새장터」 지명을 통해서도 주민들의 말처럼 중흥리 새장터로부터 장을 통합하고 상인들을 이주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2. 지리적 배경

1) 기지시의 지명

(1) 菊秀山과 國守峯

국수봉에 대한 논의는 임동권의 『한국민속문화론』에 「산명을 국수봉이라 쓴 것은 최근의 일인 듯하고, 73년도에 현지에 갔을 때에는 國守峯이라고 부르는 촌로들도 있어 산은 비록 작지만 좋은 산이기에 國秀峯이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다가 나라를 지킨다는 뜻에서 國守峯이라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國守峯이라 부르고 정자 이름도 國守亭이라 부르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고종 6년 己巳(1869년)에 양선이 九萬浦에 입항하여 洋兵이 가야산 등에 잠입하였기에 한때 소동이 있었던 바 조정에서 해변 방위책을 기지시의 이웃 신평에서 논의가 있었고 국수봉에서 군병을 양성하여 방위케 하였고, 봉화를 올리는 자리로 활용하였으므로 나를 수호하는 데 기여하였으니 國守한 峯이란 뜻에서 그렇게 부르게

84) 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난 상황을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을 보면 연산군 원년 12월 27일 기록을 시작으로 연산군 9년 6월 12일, 연산군 9년 8월 23일, 중종 15년 3월 17일, 중종 15년 4월 8일, 중종 17년 3월 26일, 중종 37년 11월 23일, 명종 1년 5월 23일, 선조 30년 9월 18일, 효종 10년 3월 1일, 현종 12년 9월 7일, 현제 12년 9월 7일 등 13회에 걸쳐 면천군과 아산만 주변 지역에 지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선조 30년 9월 18일에 기록을 보면 「충청도 당진(唐津)·면천(沔川)·대흥(大興) 등지에서 이 달 13일 이후로 연 3일 동안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떤 곳은 하루에 3~4번, 어떤 곳은 하루에 6~7번 연거푸 지진이 일어나면서 기왓장이 진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85) 일제가 우리 나라를 통치하면서 처음 만들어 놓은 것으로 1915년부터 기록된 것으로 대략 1900년 초 내용도 알 수 있었음

86) 강춘삼은 1900년 초부터 기지시에 기지시에 거주하고 있었음

87) 김추윤, 『당진의 옛지도』, 당진문화원, 1997, p15, p.30

88) 윤규상, 『예덕상무사(禮德商務社)』, 금호출판사, 1997, p.1

89) 임동권, 앞의 책, pp.412~413

90) 임동권, 앞의 책, p.413

되었다고 한다.⁹¹⁾ 하였고 『地誌나 文典에서 고증할 자료가 없어 확증을 잡을 수가 없으나 國守, 國秀는 다분히, 즉 國師의 와전(訛傳)이 아닌가 싶다』⁹²⁾고 했으며, 이우영도 『機池市 줄다리기』에 「이조 16대 왕 고종 기미년(1869년) 양선이 구만포에 입항하였을 때 양병 수백 명이 가야산 등지에 잠입하여 난행을 하여 국내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각처에서는 봉화가 울려지고 국수봉에도 봉화를 올렸는데 그 봉화 때문에 야음을 타서 양병들은 달아났다고 한다.」⁹³⁾ 國守峯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오페르트 사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오페르트 사건은 행담도에 군함을 정박하고 예산군 고덕면 구만포로 이동했다가 주민들이나 관군의 저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으로⁹⁴⁾ 이 봉화를 올리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없다.

김기호의 『틀무시 유래』에는 「1919년 3월 3일 밤 고종황제 장사일에 기지시리 국수산에서 독립 만세 사건이 있었다. 틀무시 상인 김동기, 안경택, 안원교, 강춘삼, 최동순 등이 주동이 되어 안틀무시와 바깥틀무시 주민 전체가 참여했다. 노인과 부인, 아동들이 짚을 날라다 봉화를 올렸으며 주민들 전체가 만세를 밤새 불렀다.

다음날 독립 만세에 가담한 주민 박상희, 김윤보, 김윤희, 신용봉, 박준일, 박기보, 김윤철, 김선화, 김복산, 강동엽, 강동석, 김복환, 김강환, 김영환, 안기택, 김학봉, 김학준, 김동근,

송태준, 안찬옥, 노병직, 김인철, 전풍원, 임영열, 백종근, 곽주용, 곽무용, 박광열, 조영화, 양치경, 서상일, 이수복, 곽화진, 박덕칠, 김현택, 조인경, 한선달, 박치교, 한석이, 조승열, 노병세, 노병식, 고진오, 남정희, 박봉효, 박득표, 이순태, 조경순, 이순서, 윤상준, 장명달, 김영지, 김동현, 한백현 등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당진경찰서로 끌려갔는데 당진면 시고리 요장미서부터 당진읍 계성리 밤절고개까지 늘어설 정도로 많은 사람을 일본 순사 1명이 연행하였다.

그 때 최동순은 송악면 초대 면장 김종태에게 옥살을 하고 구타를 하며 항의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당진경찰서 순사와 헌병에게 체포되어 당진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무수한 고문으로 기동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구장 송태준의 노력으로 석방되었다. 이를 강동엽, 김강환, 안경택이 들것으로 폐매어 왔다.⁹⁵⁾

이때부터 국수산(菊秀山)이 국수봉(國守峰)으로 한자를 바꾸어 쓰게 되는 계기를 주었다고 한다. 그래 그 후의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고 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뜻으로 '국수봉에서 독립 만세를 불렀어!' 라고들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순종국장첩』에 보면 고종황제 장례시 北向四拜하고 봉화를 올렸던 곳이 전국적으로 나오는데, 그곳에 「機池市의 菊秀山」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천군 당시는 국수봉이 국수산(菊秀山)⁹⁶⁾이었다고 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즉, 고종황제 장례식 때에 북향 사배하고 봉화를 올렸기에 산명이 바뀐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 김기호가 앞의 책에서 「1919년 3월 3일 국수산에서 불을 피우고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나라국' 자에 '지킬수' 자를 써서 국수봉(國守奉)이라고 쓰게 되었던 것이다. 즉, 기지시 시장의 상가들이 4개월 동안 휴업을 하며 안원교, 김동기, 안경택, 강춘삼, 최동순 등 5분이 주동이 되어 틀무시 시장 상원들 일동이 만세를 불렀다. 부인들과 아동들이 짚단을 날라다 봉화를 올림으로 인하여 된 지명이라 한다」라고 기록하는 내용이 옳은 것으로 사료되나 3.1운동사 기록엔 기지시 만세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⁹⁷⁾

(2) 기지시의 지명 유래

임동권은 『한국민속문화론』에서 「機池市는 충남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로 속칭 〈틀무시〉〈틀모시〉란 〈틀못〉의 와전에서 한자로 기지시라 적은 듯 〈機〉는 틀의 뜻이고 〈池〉는 〈못〉의 뜻에서 機池市라 표기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지시 마을 뒤 언덕 너머에는 큰 우물이 있었고 전설에 의하면 옛날 이 고장에는 방직업이 번창해서 각 가정에서 모시 길쌈을 많이 했는데, 이 우물에다 실꾸리를 당그었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우물의 수량이 풍부해서 지

금은 기지시의 상수원이 되어 복개되어 못의 흔적은 없어지고 말았으나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물이라기 보다는 20평쯤 되는 못이었다」⁹⁸⁾라고 기록하여 지명이 베를 형국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학자 김추운의 『당나루의 맥락 Ⅷ 지명편』과 송봉화의 『살아 있는 문화 유산』에서 베를 지명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김추운은 「'기지(機池)'라는 지명 유래는 틀에 물을 대는 못이 있었으므로 틀모시 또는 機池市라 하였던 데」⁹⁹⁾ 「틀이란 원래 좁은 독, 경지를 말하는 것으로 기지시의 지형이 고지이므로 계단식 농경지의 안쪽 마을이 內機가 된다.」¹⁰⁰⁾ 「外機는 기지시의 지형이 고지이므로 계단식 농경지의 안쪽 마을이 外機가 된다. 농경지에 물을 대는 좁은 독에 둘러 쌓인 저수지인 〈틀못이〉가 변해 〈틀모시〉, 〈機池市〉가 됨」¹⁰¹⁾이라 기록하고 있다. 『살아 있는 문화 유산』에서 정종수는 당진의 민속을 다루면서 「기지시란 지명의 옛 이름은 〈틀모시〉인데 틀은 논틀, 밭틀과 같이 경작지나 좁은 독을 의미하고 못은 물을 대 주는 관개지를 뜻한다. 따라서 기지시란 마을이 고조지에 위치하고 또 이곳에 못이 3개 있는 데서 유래했다」¹⁰²⁾고 기록하고 있다.

기지시리는 1914년 3월 일제가 군현 및 각리를 통폐합하여 향약이나 두레 등과 같은 자생

91) 이우영, 앞의 책, p.12

92) 김추운, 『삼교천의 역사 문화』 당진문화원, 1995, 오페르트 사건 참조

93) 1981년 가을 김기호가 최동순의 아들 최병식과 김윤희의 아들 김동근, 안원교의 외동딸 안봉옥, 김수환의 아들 김기준으로부터 증언을 받음.

94) 『순종국장첩』

95) 李炳憲의 『三一運動秘史』 898쪽에는 「송악면 틀무시(機池市)에서는 4월 5일 수백명이 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하였는데, 주모자 4명을 체포하여 갔다. 그 중에는 여자도 한 명 있었다.」라는 기록만 있다. 그러므로 이 기록과는 별개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96) 임동권, 앞의 책, p.411

97) 김추운, 앞의 책, p.299

98) 김추운, 앞의 책 p.309

99) 김추운, 앞의 책, p.310

100) 송봉화 외 3인, 앞의 책, p.196

101) 이정은, 『일제의 지방통치체제 수립과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6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pp.233~241

적인 동네들의 자치 활동을 통제하고 통치의 일사분란함을 꾀하고자 이질 집단들을 섞어¹⁰²⁾ 기지시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웃 마을인 반촌리(盤村里)의 경우 승선면 반바지, 반소리(盤所里)와 다촌(大村), 주동(注洞), 본리(本里), 부지동(釜池洞), 신암리(申庵里), 상가리(上佳里), 손동면 민하리(民下里), 치촌리(峙村里), 각 일부를 병합하여 반소리의 '반(盤)'자와 대촌의 촌(村)자를 따서 만든 반촌리라 하였으며¹⁰²⁾ 가교리(佳僑里)의 경우 승선면 가재리(佳才里), 삼교리(插橋里), 신암리(申庵里)와 정계면의 석소지리(石所之里)의 일부와 사계리(巳溪里)를 병합하여 가교리라 하였는데 가재리의 '가(佳)'와 삼교리의 '교(橋)'를 따서 지은 리명¹⁰³⁾으로 일본인들이 행정 개편을 단행하면서 각 리명을 어떤 특별한 의미를 주어 마을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님도 쉽게 알 수 있다.

기지시리의 소지명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안틀못시 : 면천군 당시 지명에 '內機'라 표기하고 안틀못시라 부름

*수꼴미 : 안틀못시 남쪽 골짜기로 숯골미, 즉 소나무를 이용해 숯을 굽는 골짜기로 숯골미가 수꼴미로 불렸음

*공쟁이 : 수꼴미 아래 가교리와 경계 지역으로 향아리 등 웅기를 굽던 곳으로 이곳에서 생산된 웅기를 기지시 장에서 팔았음

*구역말 : 구석진 곳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불

여진 이름
*연방측 : 샘건너 아래 지역으로 보아 막아 물을 댔던 곳. 일제 치하시 송산 방면으로 도로가 나면서 사라짐

*소금고개 : 송산면 성꾸미에서 소금을 구워 기지시 시장을 오며 쉬던 고개를 소금고개라 함

*샘건너 : 안틀못시 서북쪽에 대동샘이 있는데 그 대동샘 건너 편의 동네라는 뜻으로 붙여진 지명

*큰골 : 안틀못시에서 북쪽으로 국수봉 내에 있는 골로 큰 골짜기라는 뜻에서 붙여진 지명

*작은골 : 큰골 넘어 있는 작은 골짜기를 부르는 지명

*바깥틀못시 : 원래 바깥틀못시라는 지명은 없었으나 안틀못시가 있으니 안틀못시를 제외한 지역을 일컬음

*벼락재 : 당진읍 시곡리와 기지시리 경계 지역으로 원당리쪽 방향에 있는 고개로 옛날에 하늘에서 바위에 벼락을 때려 불려진 지명

*평상재 : 기지시리와 당진읍 시곡리 사이에 있는 고개로 평평한 고개라는 뜻으로 붙여진 지명

*서낭댕이 : 당진읍 시곡리와 경계에 위치하여 당진을 고개로 평상재 있는 곳을 말하며 정월 초순경 당사를 지내고 서낭제를 지내던 곳을 말함

*밤나무골 : 가학리와 기지시리 경계 지역으로 밤나무가 많은 골짜기라는 뜻으로 붙여진 지명이며 제 3회 씨름대회를 했던 곳

*도고머리 : 가학리와 기지시리 접경으로 공동묘지가 있는 데 그 옆 지역으로 지세가 볼록 나온 곳을 말함. 옛날 한진이나 안섬을 가는 도로였음

이우영의 『機池市 줄다리기』에 「이곳 줄다리기는 장소는 與尺골이라 한다. 지면이 평평하고 장방형이어서 아주 안정마춤이다」¹⁰⁴⁾ 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홍척동은 기지시리에 없었다고 한다. 홍척동은 현재 샘건너 동네의 줄을 다리는 밭을 말하는데 켜 '흙겹게 자질한다는 뜻'으로 이 지명은 원래 송악면 반촌리에 홍척골이라는 지명으로 존재한다.

이우영의 『機池市 줄다리기』에 「서쪽에 대동샘 못이 있고 샘건너 동네가 있으며, 북쪽에 홍척골이 있어 줄다리기를 관람하기가 편리하다. 그 외 도구머리(도투머리) 부락이 있고 가세울(가위) 부락도 있다. 당골, 또는 불당골은 절이 있었다가 폐사가 되어 불당골이라고도 하며 벼를 찼 때 꾸리를 담아 좌우로 드나드는 북집을 말하는 지리설로 북당골이라고도 한다」¹⁰⁵⁾ 고 주장하나 토착 주민들은 '부처님을 모시던 절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의 불당골이지 북당골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고 한다. 또, 그 지명이 기지시리에는 없는 지명이다. 그러므로 기지시가 지명만 보고 벼틀 형국이라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2) 옥녀직금형인가 지네 형국인가

이우영의 『機池市 줄다리기』에 「전설의 내용은 기지시(틀못시)는 지형이 벼틀 형국으로서 玉女織錦하는 형국이라 한다. 그러기 때문에 閨朔드는 해에 온 마을 주민들이 극진한 정성으로 당제를 지내고 줄을 다려야 모든 재난을 몰아내고 예방하며 태평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한다. 이때부터 뚜렷한 행사가 시작되었다는 데 이를 다시 풀이하면 玉女가 벼틀을 놓고 벼찌는 형국이라 해서 벼틀기(機), 벼를 찌는 데는 꾸리고 담그고 또는 찼 벼를 담귀 우리고 하는 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못지(池) 해서 機池市라 명명된 것이라 하며, 市字는 시장을 뜻한다」¹⁰⁶⁾ 라 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의 논리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첫째, 옥녀가 벼를 찌는 형국인 데 주민들이 극진한 정성으로 당제를 지내고 줄을 다려야 하는 점이고, 두 번째로 재난을 몰아내기 위해 줄을 다려야 하는 나쁜 지세가 벼틀 형국인가라는 문제이다. 셋째, 「일설에는 이곳이 지네 形局이고 당진은 鷄城, 즉 닭이므로 닭과 지네는 상극이라 만나면 싸우므로 지네와 같은 줄을 만들어 줄을 다려서 지기를 누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풍수지리상에는 지네 형국이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玉女織錦穴이란 설은 地緣性이 가장 짙어 유래가 그와 같이 되었다」¹⁰⁷⁾ 고 벼

102) 김추운, 앞의 책, P.785

103) 김추운, 앞의 책, P.776

104) 이우영, 앞의 책, p.12

105) 이우영, 앞의 책, p. 17

106) 이우영, 앞의 책, p.11

107) 이우영, 앞의 책, pp.12~13

틀 형국을 주장하며 지네 형국이기에 때문에 줄을 다려야 지기를 누른다는 지네 형국설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하는 점이다.

여기서 밝힐 내용은 아니지만 우선 「鷄城」에 대한 논의를 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내포문화』 1호에서 차석기는 당진의 「鷄城」은 덕대골이 변하여 된 지명¹⁰⁸⁾이라고 하고 있어 기지시의 지네 형국과 당진의 닭계(鷄)를 비교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를 밝히는 것은 우선 역지로 한자 뜻풀이를 하면 「닭의 성」으로 말이 안되며 닭이 지네를 잡아먹기에 기지시가 당진 형세에 짓눌린다는 말들이 구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도 기지시 줄다리기가 연원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우영도 『機池市 줄다리기』에서 「이 고을은 약 사백여 년에 갓은 액상이 발생하고 큰 변이 일어나며 백성에 맹호가 활동하는 등 괴변이 생기어 많은 인명 피해가 속출하여 민심은 크게 동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이조 선조 초에 한나루(한진만)가 하룻밤 사이에 육지가 매몰되어 5개 면이 바다가 되고 7개 면이 인접 군인 등지로 분리·편입되었다 한다. 그 당시에는 17개 면이었다. 이때에 많은 인명이 손실되었으며 재산이 파괴되었고 각종 괴질이 발생하여 만연되었

으므로 민심은 더욱 동요되어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이리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공포와 실의에 빠져 수습할 길이 없었다」¹⁰⁹⁾고 기록하고 있다. 이 액상들이 벼를 형국 때문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네 형국임을 밝히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된다.

김기호는 『틀못시 유래』에서 각 지방 선비, 학자, 상인들이 모여 연구 계획하에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의 번영을 위해 각 지방의 상인들이 모이게 했다.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등 상인들이 줄다리기 시작하는 3일 전에 모여 기지시 장을 열었다. 그 때 상업의 활성화를 위해 초창기 주민들은 외지에서 오는 상인들에게는 숙박료를 무료 제공하였다¹¹⁰⁾고 밝히고 있다.

이우영의 『機池市 줄다리기』에 「아득한 옛날부터 기지시(틀못)는 한양을 왕래하는 교통의 요로인데다가 통상의 중심지로서 각양 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이라 한다」¹¹¹⁾ 또 당시 기지시는 면천군을 경유하여 한진을 통해 한양에 가는 관도였기에 이때에 각처에서 모여드는 과객 중에는 보부상, 또는 풍수지리학자, 철인들 간에 나온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앞서도 밝혔듯이 1936년대 村山智順의 『朝鮮の郷土娛樂』에 당진 지방의 줄다리기 유래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줄다리기를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통행하던 곳이었기에 괴질이 전염병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고, 이우영의 『機池市 줄다리기』에 「옛날에 한 선비가 청운의 뜻을 품고, 열심히 학문을 연마하여 한양에 올라가 과거를 보았으나, 불운하게도 번번히 낙방하여 하염없이 귀향하던 차에 국수봉에 올라 산경을 보며 쉬다가 피로한 끝에 깜박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큰 구렁이와 지네가 궁중에 나타나 서로 뒤엉키며 치열한 싸움을 벌이다가 끝내 둘이 죽어 땅에 떨어졌다. 그 때 색동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 춤을 추며 하는 말이 “이곳에서 해마다 당제를 지내고 줄을 다려야 과거에 급제하고 해마다 풍년이 들며,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¹¹²⁾ 라고 이우영 자신이 지네 형국임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기지시 시장이 왜 산중에 있었느냐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벼를 형국과 산, 지네 형국과 산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지네 형국이라면 지네는 발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솟구쳐 있어 불안하기 그지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네 발의 발과 같은 사람의 발로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 모아 地氣를 누르고 有感呪術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면천군의 중심지이며 5개 면의 접경지에 위치한 이 산 능선에 지기를 눌러 면천군의 안정을 도모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지세

가 지네형이어서 시장을 형성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쉽게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고, 또한 면천군의 안정을 꾀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기지시와 결부시키기는 어렵지만 면천군의 준산이었던 몽산이 지네였다는 전설이 있다¹¹³⁾ 즉, 몽산의 정상이 몽뚝해진 이유에 대해서 몽산은 힘이 센 지네였고 아미산은 이무기였는데 몽산의 지네의 목을 치므로 몽산 봉우리가 몽뚝해졌다는 이야기다. 면천군의 주산인 몽산을 지네의 머리라 할 경우 순성면 성북리, 갈산리, 당진읍 시곡리를 거쳐 한진으로 흘러가는 산세와 上京하는 옛 도로망의 중심은 기지시였고 그 지세가 지네가 굽이치는 형국이 아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진, 성구미, 면천 北倉, 홍주 북창 등 각 지역으로 가는 중심지로 몽산에서부터 성북리, 시곡리, 기지시 가는 옛 도로가 능선을 따라 가고 있으며 40리 안팎으로 한진과 80여 리로 중심지이다.

Ⅲ. 기지시 줄다리기 전야제 행사로써의 민간 신앙의 성격 규명

1. 전통적인 기지시의 민간 신앙

1) 서낭제

현재까지 기지시 줄다리기와 관련하여 발간된 책들¹¹⁴⁾에는 기지시리의 서낭제에 대한 조사

108) 차석기, 『내포문화(창간호)』, 『唐津地方의 地名考察』, 1988, pp.18~19

「역사적으로 볼 때 통일신라 신문왕 때에 지방행정구역 명칭이 우리말로 완성되었다가 경덕왕 16년(서기 757년)에 한문명명(漢文命名)으로 개칭하였는데, 우리말 지명이 한문식으로 고쳐진 것은 120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졌다. 개칭한 내용을 현재 대강 조사해 보면 吏讀文으로 고친 것과 우리말로 직역한 것과 漢文式으로 새로 지은 것과 原形을 고증하지 않고 작자 구상대로 지은 변형된 지명 등 4가지 종류를 들 수 있다. …鷄城은 세번재로 새로 지은 지명으로 우리말과 관계없이 시대에 따라 시대에 따라 새로 생긴 洞里的 이름을 新作한 것이다. 즉, 당진읍 鷄城洞은 옛날 덕대골인데, 그 말의 뜻이 융합으로 따라 시대에 따라 새로 생긴 洞里的 이름을 新作한 것이다. 즉, 당진읍 鷄城洞은 옛날 덕대골인데, 그 말의 뜻이 융합으로 덕재를 닭재로 굴러 新羅의 鷄林을 생각하여 닭재, 즉 鷄城의 새로운 이름으로 되었고…」

109) 이우영, 앞의 책, pp.10~11

110) 김기호, 앞의 책, p.11

111) 이우영, 앞의 책, p.14~15

112) 이우영, 앞의 책, 1986, p.15

113) 최문회, 『忠南 傳說集(상권)』, 명문사, 1986, pp.488~489

114) 3권이 있음(임동권의 『韓國民俗文化論(1983)』, 이우영의 『機池市 줄다리기(1986)』, 송봉화의 『기지시 줄다리기』)

115) 이인화, 『당진의 민간 신앙』, 당진문화원, 1996, p.68

기록이 전혀 없는 형편이다. 기지시는 앞에서 밝혔듯이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서낭은 매우 중요한 신앙물이었다. 이인화의 『당진의 민간 신앙』에 「서낭제는 상업하고 널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아무 문제 없도록 서낭신이 받들어 달라고 지내는 것이다」¹¹⁵⁾ 라고 기록하고 있다. 명산 대천에 산마다 산신이 없는 곳이 없듯이 모든 명산 고개마다 서낭신이 있다. 그러기에 기지시 줄다리기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기지시에서의 서낭당의 비중과 성격

기지시는 앞에서 밝혔듯이 다른 전통적인 농경 마을과는 다르게 상업 활동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은 상인들의 마을이다. 당시의 상인들은 상설 시장이 형성되기 이전이기에 5일장을 찾아다니는 보부상들이었다. 이들은 定期場을 따라 물건을 지고 지방 곳곳을 떠돌아다녀야 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은 고되고 힘들며 항상 어디선가 다가올지 모르는 위험 앞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후미진 모퉁이를 돌 때나 가파른 산등성을 넘을 때는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맹이 하나를 들고 오른다. 자신이 가는 길에 행운이 깃들고 행로의 안전을 빌었던 신으로 자연히 상인들의 가장 친근한 신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러기에 기지시 시장에서의 서낭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서낭은 고을 고을마다 상인들이 다니면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재앙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비는 상인들의 주신인 것이

다. 그러기에 그들은 큰 고개를 넘을 때에 산 밑에서부터 돌을 주어 가지고 올라 서낭당에 돌을 던져 놓고 평안과 안전, 부자가 되기를 빌었던 것이다. 기지시 상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낭님을 마을 안에 가까이 두고 국수봉 당(堂)나무에도 벋나무를 神木으로 해서 서낭님을 모셨다. 이것도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지역적인 특성일 것이다.

장터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서낭을 위했다고 한다. 우선 시곡리 잣배기 서낭당 서낭 나무에서 위하고, 가학리로 넘어가는 고개인 도고머리, 그리고 옛날 양조장이 있던 마을 앞에 있는 서낭 나무에서 제물은 차리지 않는았으나 마을의 대표인 이장이 마을에 질병이 없고 잡귀가 들어오지 말게 해 주십사 기도하고 상인들이 잘 살기를 빌었다. 이렇게 농악을 치며 빌고 나서 절을 세 번 하였다.¹¹⁶⁾

본 연구자가 몇 년 전 당제를 처음 구경할 때 연구자의 常識으로는 당목에 오색 천을 내리고 밤새 반짝반짝 빛나는 네온싸인을 보며 국수당은 신성해 금줄을 치고 잡인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신성 구역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서낭당이라고 할 때, 서낭님께 드리는 당연한 제물로 기지시에서 상인들이 오색 천을 걸고 재물들인 짚신이나 떡, 웃고름 등을 걸어 놓은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이다.

(2) 서낭제

서낭제의 순서는 가학리 가는 고개인 도고머

리에서 제일 먼저 지내고, 작은 평상재 서낭당이, 옛 양조장 뒤의 서낭 나무 순으로 제의를 가졌다.

제물은 없었고 마을 대표가 말로 지성을 들였으며, 제의의 목적은 이 마을에 거리의 잡귀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서낭을 모셨다.

당진 지역에서 무당을 대동해서 서낭제를 지내는 예를 이인화의 『당진의 민간 신앙』¹¹⁷⁾에서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떡시루에 쌀그릇을 놓고 실을 건 초를 쬔다. 그리고 청수를 떠 놓고 북애(북어) 한 마리, 과일을 차린다. 서낭제는 이렇게 차린 후에 동서·남북으로 세 번씩 절을 한 다음 잘 되게 해 달라고 빈다. “명산대천 서낭할아버지, 서낭할머니, 서낭대신님, 대서낭, 소서낭님 인간 골골다 계시는 성낭님, 인간을 받들어 주십시오. 차 가지고 다니고 상업하는 ○○이 아무 탈없이 도와주시고 앞뒤 막힌 것이 있으면 열어 주시고 1년 365일 돌아 갈 적에 가는 길목 오는 길목을 살펴 주시고 짧은 명 이어 주고 긴 명(긴 명) 설여 담아 주고 소원 성취하게 해 주십시오. 거리 노정살, 삼재 환란 없게 짓혀 주고 차 앞바퀴 뒷바퀴 거리 노정 수전 다 없게 하시고 금전 순재 인간 홍액 관직 귀설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빈다. 그런 다음 소지를 올리고 떡을 조금 떼어 놓고 청수는 붓고 촛불은 가지고 오며 명태는 머리를 잘라 놓고 온다. 또 신수가 글른(안 좋은) 사람은 동정을 떼다가 서낭에 매단다」고 기록하고 있다.

기지시에서는 서낭제를 지내고 서낭 나무에 다 음식을 꼬맹이에다 담아 꿰달아 매는 등 서낭 나무에 제물을 바치는 데 그 제물은 마전국이 있는 후에 했다고 한다.¹¹⁸⁾

(3) 기지시리 마을내의 서낭당 위치

서낭은 한진으로 가는 도고머리 고개 서낭당이, 당진으로 가는 시곡리 작은 평상재 서낭당이, 현재 대산 상가 지점에 있던 서낭당이 (옛날 양조장 골목) 등 3곳이 있었다. 도고머리 서낭당에는 큰 돌무더기가 있었고 2, 3백 년 된 소나무가 신목으로 모셔져 있었다. 작은 평상재 서낭당에도 큰 돌무더기와 목 부러진 소나무가 신목으로 모셔져 있었다. 양조장 골목에 있던 서낭당은 소나무를 신목으로 모시고 있었다.

(4) 기지시 인근 지역의 서낭당

기지시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南控伽倻하고 北踰大津이라 하였듯이 「我東輿地圖」¹¹⁹⁾, 「東國地圖」¹²⁰⁾ 등을 보면 남으로 멀리 홍주, 덕산, 해미, 서산, 당진, 태안, 결성, 보령, 감포, 비인 등지에서 상경하려면 면천을 거쳐 기지시를 통과해 가야만 했고 하경(下京)하려면 평택 마누리를 통해 한진으로 해서 기지시를 거쳐가야 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또한 기지시는 면천 군내의 중심지로 안섬이나 한진, 성구미로 가는 길목이었다.

고지도에는 면천군 관아에서 기지시까지 40

116) 증언자 참조
117) 이인화, 상계서, pp.67~68

118) 뒷편 증언자 참조
119) 김후윤, 앞의 책, p.67. 1163년 조선전도를 5폭으로 구성한 지도첩
120) 김후윤, 앞의 책, p.69

일로 기록되어 있고 기지시로 가는 옛길은 면천향교 옆으로 해서 몽산을 넘어 순성면 성북리 갈산리, 당진읍 시곡리를 능선을 타고 기지시를 통과했다. 면천군의 주산(主山)인 몽산에서 뻗은 능선이 기지시리를 돌아 한진, 성구미, 신평면 땃돌포로 뻗어 내리고 있으며, 면천 읍내에서 몽산고개 서낭과 함께 기지시리로 가는 길에는 능선 따라 열두 서낭이 있었다.¹²¹⁾ 바로 기지시 작은 평상재 서낭과 도고머리 서낭이 같은 능선 위에 있었으며, 기지시가 산준에 있음¹²²⁾은 지네 형국과 관련된 것으로 서낭은 지네의 힘을 빼기 위한 방법으로 지네의 척추 곳곳을 누르고 지기를 누르던 역할을 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문제는 줄다리기에서 좀더 논의하겠다.

2) 국수봉 산신제

(1) 산제의 기원

菊秀山 산신제는 앞에서 밝혔듯이 기지시가 상설 시장이 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상가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모시던 산신과 서낭을 모시게 된 것으로 보인다.

토착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1913년도부터 산제를 국수산(菊秀山)¹²³⁾ 정상 바위 위에서 정월 초닷새 안으로 산제 지성을 들이기 시작하였

다. 1913년도부터 1935년도까지 기지시리 구장이었던 송군필과 그의 아들 송대준이 축관으로 지성을 들였다. 산제의 주축은 시장의 상인들로 쌀을 걷어 지냈다. 1932년부터 몇몇 기독교인들¹²⁴⁾을 제외한 전 주민이 지냈다.¹²⁵⁾

이상과 같이 산제는 1900년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1935년도부터는 주민들이 날로 불어나고 시장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당집을 지어 당사(堂祠)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즉 이때부터 객潑豫라는 말을 썼는데, 1950년대까지 안틀못시가 당사를 먼저 지내고 곧이어 바깥틀못시가 당사를 지냈다. 그 이유는 자연 부락 공동체가 안틀못시, 바깥틀못시로 구분되어 있어 안틀못시 지역공동체에서 지역내 당사가 있다는 기득권으로 먼저 지내고 그 후 바깥틀못시가 지냈다」¹²⁶⁾고 한다.

「당사는 초가집에 외를 엮어 흙을 붙인 집으로 평수는 방 한 칸 정도로 3평 정도 되었다. 당사의 방향은 남향으로 북쪽 벽에 창호지로 산신령이 지팡이를 들고 서 있고 오른쪽 대발에 호랑이가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먹으로 그려 붙여 있었다. 그 외 다른 물품은 없었다. 당사의 문을 여는 시기는 지성을 드릴 때를 제외한 다른 때는 절대로 문을 열지 않았다. 어른들이 ‘당사 문을 열면 부정타고 큰 일이 난다’고 해서 아무

도 그곳을 접근할 수가 없었다.

또, 그 당시 당사 주변 및 기지시리 주변 전체가 소나무들이 짙게 들어 차 있어 당사로 가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었다. 1950년도까지 당사를 지내지 않다가 1960년도부터 1974년도까지 산제를 지냈다. 1975년도부터 기지시 줄다리기 문화제 행사로 ‘국수봉당제’라 해서 지내기 시작하였다.¹²⁷⁾

그러나 임동권은 그의 저서에서 「기지시리의 동편에 國守峯이 있는데 산이라기보다는 구릉이라 할 정도로 낮은 야산이다. 이 국수봉 정상에는 국수당이라는 정자가 있다. 정자를 신축한 지 십여 년밖에 안되고 원래에는 峯北麓에 30년 전까지만 해도 堂, 또는 法堂이라 불려지는 一間草堂이 있었으나 그 안에는 神像도 없었다고 전한다」¹²⁸⁾고 하여 기원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앞에서 밝혔듯이 주민들이 당사(堂祠)라 부르던 것을 국수당제로 기록하고 있고, 산제를 모신 당집을 법당이라 하였으며 신상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임동권은 「地誌나 文典에서 고증할 자료가 없어 확증을 잡을 수 없으나 國守는 國師의 와전이 아닌가 싶다고 했으며 봉록에 초당이 있었다면 당산이라고 통칭되는 것이 일반의 예이고 당 이름을 법당이라 불렀다고 전한다며 그 일대에 법당골이 있었다」고¹²⁹⁾ 하였으며 「법당이란 명칭은 흔히 볼 수 있는 바 巫覡들이 자기

지위를 대외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무속 신앙의 당에 부처님을 모셔 놓고 흔히 그렇게 부르고 있는 巫佛齋舍의 예가 많다고 하면서 한때 유교와 불교의 양쪽에서 천시당하던 무력들은 법당이라 부르고 스스로를 법사라 불러 불교를 가장하고 내용에 있어서는 巫儀를 집행하는 일이 많았으니, 그러한 상황에서 법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며 그 근거로 목격한 노인들 말에 일간 초당 안에 아무런 신상도 없었다고 하는데 불사의 법당이었다면 불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민간 신앙의 당에는 서낭신, 토지신, 여역신을 모시되 神像이나 位牌를 놓는 경우보다는 없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어 민속적인 당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밝히고 있고」¹³⁰⁾ 「堂祭¹³¹⁾에 인근 申菴寺의 주지가 참여해서 山王經을 독경하고 있어서 무불이 습합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오래 전부터 무불이 습합 전승된 당이었던 것으로 믿어진다」고¹³²⁾ 하고 있다. 또 古老당의 말에 「국수당할머니」란 말이 있었으나 따로 국수당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원래에는 國師堂이었던 것이 국사당이라 와전되고 서낭에는 할머니당, 할아버지당의 대칭이 많은 것으로 보아 국사할머니당 즉, 여서낭을 모시는 당이었던 것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巫佛 습합으로 법당으로 변하고 국사당에서 국수당이라 개칭되었을 가능성도 있다¹³³⁾고 하고 있어 유교, 불교, 무교가 습합되었다고 주장하고 당사를 직접 지냈던

122) 앞에서 밝혔듯이 1872년 제작된 면천군 지도에 「機池市場 在山」이라고 기록하고 있음

123) 『순종국장집』

124) 기지시 감리교회는 1930년 박성준의 집에서 속회로 모인 자리에서 교회 설립을 결의한 뒤 1932년 송악면 구 금융조합 건물내의 잠실을 매입하여 5월 6일 송산교회 홍진유 장로의 인도로 박준성, 이경은, 방한영, 이상규, 호희수, 안운봉 등 6명이 예배를 드린 것이 최초이다. (당진뉴스 1998. 4. 20자)

125) 뒤편 증언자 참조

126) 김기호, 기지시 노인회장, 『틀못시의 유래』 저자

127) 강종환, 당진군 송악면 군의원

128) 임동권, 앞의 책, p.412

129) 임동권, 앞의 책, p.413

130) 임동권, 앞의 책, p.413

131) 산제나 당사로 불려야 될 것임

132) 이우영, 앞의 책, p.15

133) 임동권, 앞의 책, p.413

134) 증언자 참조

당시의 증언자 김기호, 김기원, 박석재, 박한호, 장경환과 같은 주민들은 유교적 제의에 경쟁이 참여해서 제의를 가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즉 불교가 습합되어 같이 지낸 적은 없다고 한다.¹³⁴⁾

또 이우영은 『機池市 줄다리기』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불치라, 이 또한 국수당 신령의 노염이라 믿고 장시일간 굿을 하고 인근에 있는 신암사에 가서 불공을 드리니 드디어 병이 완쾌되었다 한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더욱 더 국수봉을 영산이라 믿고 국수당을 영당이라 모시며 유불무 합동으로 당제를 지내면서 풍년과 민안을 빌게 되었다 한다」¹³⁵⁾ 고 함으로 주민들이 주장한 내용과 전혀 다를 수 있다.

즉, 당주를 중심으로 경쟁이가 참여해 경을 읽던 유교식 제의인 당사를 무교와 유교의 습합과 더불어 불교까지 습합한 신앙으로 보고 있고 국수산 산제를 국수당제로 보아 신앙의 대상이 변질되어 있다. 즉, 앞에서도 밝혔듯이 1900년 초까지 國守峰이나 國師峰으로써의 지명이 아닌 菊秀山이었다는 점이 그 증거이며 김태곤의 『한국민간신앙연구』에 「國師堂(국수당)은 대개 마을의 뒤쪽 高山頂에 위치하여 그 마을의 수호 경계를 필요로 민간에서 신앙되고 있는 신당인데, 이와 같은 국사당 신앙은 神堂 信仰 중에서도 그 淵源이 오래어 신당 신앙의 기원 규명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¹³⁶⁾ 는 점과 당진 지역에는 기지시 국수당만이 유일하게 존재하

는 점으로 당진 지역은 산신제와 서낭당, 기우제, 나무제, 노신제, 노송제, 장승제 등의 신앙만이 잔존해 왔다.¹³⁷⁾

또한 임동권이 국수당이 와전되어 국사당이 되었다가 다시 국수당으로 개칭되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김태곤은 신당의 보편적인 명칭은 「국수당」, 「국시당」인데 이 양자의 명칭 중에서도 「국수당」이라 부르는 예가 많은 것으로 보아... 국사당은 「국수당」, 「국시당」으로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구수봉」 또는 「당금」, 「당그미」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국수」는 구수(龜首)의 한자 취음 표기의 과정을 겪어 온 것으로¹³⁸⁾ 보고 있다. 또, 임동권은 「국수봉에서 군병을 양성하여 방위케 하였고, 봉화를 올리는 자리로 활용하였으므로」¹³⁹⁾ 라고 기록하고 있어 신성시 되어왔던 당산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이며, 당진군에서의 산신을 모신 당집이 있는 경우는 산신과 호랑이를 그린 무신도가 있었는데 기지시리는 대나무밭에 호랑이와 신선이 그려진 무신도가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기지시당신(堂神)이 여신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제의

제일 먼저 쌀 서 되 서 흙을 부어 꽃반을 만들어 당주 부인이 맨 앞에 간다. 그런 다음 당주가 지계에 시루와 제물을 지고 뒤를 따라 국수산에 올라갔다. 그 당주 뒤에 부정하지 않은 주민들이 따르고 농악이 그 뒤를 따랐다.

산에 올라 당사를 열고 산신제를 지내는 데 제의는 유교식 제의였다. 당주가 술을 붓고 중간에 산신축을 읽고 산제가 끝나면 대동축을 올리고 정쟁이가 축원을 하며 대동 소지를 올리게 된다. 그런 다음 각 호주별로 개인별 소지를 올려주는 데, 풍년 기원, 동민 질병 방지, 상인들의 행운이 깃들고 지방의 발전을 기원하게 된다. 이렇게 남자 경쟁이가 대동 소지와 개인별 소지를 모두 올리면 산신제를 다 끝나게 된다. 그런 다음 샘굿과 서낭 나무 위하기를 하는데, 안틀못시 사람들은 샘굿 후에 다들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바깥틀못시(시장) 사람들은 샘굿을 한 후 서낭 나무를 위한 다음 마을로 내려와 그때부터 쌀가게 앞에서 마전굿을 한다. 마전굿에서는 삼색 실과를 차려 두었다.

이렇게 국수봉 산제가 끝이 나고 무당들은 줄을 타고 '행운이 돌아오고 귀가 밝게 해달라' 고 닭이 울기 전까지 조라술을 판다. 그러면 주민들은 농사가 잘 되어 쌀이 시장으로 많이 오길 기원했다.

산제를 지내는 안틀못시 주민들의 직업은 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었고 바깥틀못시의 주민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제일은 안틀못시가 정월 2, 3일에 지내고, 며칠 후에 바깥틀못시가 제를 지냈다.

(3) 당주

당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당주는 당사와 당주 집 앞에 금줄을 치고 대동샘에서 목욕 재계하며

출입을 삼가고 금기를 철저히 지켰다.

당주는 선달 그믐날부터 보름 동안 당주집 앞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세 무더기 놓고 집 밖 출입을 삼갔으며 대화도 삼가했다. 또한 당주 내외는 당사 전날까지 1주일 정도 매일 목욕 재계를 했다.

전 주민은 당사 전까지 부정을 끼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애를 낳을 달이 당사 달이면 다른 곳에서 출산을 했다. 불을 내면 부정하기에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했으며 피부정을 막기 위해 아이들이 노는 것도 조심시켰다.

(4) 제일

이우영의 『機池市 줄다리기』에 「1985년도에는 매 음력 2월 1일자 중화절에 국수당제를 복원하여 소제를 올렸고, 충청남도 대표 축제로 지정 받았다. 윤년의 행사는 대제를 하고, 매년 중화절의 행사는 소제로 구분하여 축제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¹⁴⁰⁾ 고 기록하고 있는 데 기지시에서 전통적으로 당사일은 매년 정월 보름 전에 지내는 것이 상례였다.

기지시 국수봉에서의 경우 산제로 지내던 1934년도까지는 초닷새 전에 지냈고, 당사로 지낼 때부터 정월 보름 전에 길일을 택해 지냈다. 그러나 동네에서 상을 당하거나 출산이 있을 경우 날을 물려 다시 날을 정해 했는데 정월이 넘어서는 당사를 모시지 않았다. 대개 당사일은 안틀못시가 정월 초이튿날이고 바깥틀못시는 정월 정월 초사흘이나 초닷새쯤 저녁을 먹

135) 이우영, 앞의 책, p.16~17

136) 김태곤, 『韓國民間信仰研究』, 집문당, 1983, p.126

137) 이인화, 앞의 책, 참조 『당진의 민간신앙』은 당진군 전역을 리별로 민간신앙지표조사한 자료집임

138) 김태곤, 앞의 책, p.136

139) 임동권, 앞의 책, p.413

140) 이우영, 앞의 책, p.14

141) 증언자 참조

142) 강종환(남, 전 송악면 군의원),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 전화번호: 355-7552

고 어두울 때 올라가 당사를 지냈다 한다.¹⁴¹⁾

처음 당집이 없었고 바위 앞에서 산제를 지내다가 1935년도부터 당집을 지어 지냈다. 당집은 기둥을 세우고 외를 엮어서 흙으로 담을 친 집으로, 대략 50년 전의 일로 문 열고 들어 가 보니 까만 먹으로 그린 그림인 데 호랑이 그림이 있었다. 지붕은 짚으로 엮어 해 이룬 집이었다. 당집 안에는 넓고 큰 바위가 있어 그 앞에서 제를 지냈다.¹⁴²⁾

(5)당집

처음 당집이 없었고 바위 앞에서 산제를 지내다가 1935년도부터 당집을 지어 지냈다. 당집은 기둥을 세우고 외를 엮어서 흙으로 담을 친 집으로 대략 50년 전의 일로 문 열고 들어 가 보니 까만 먹으로 그린 그림인데 호랑이 그림이 있었다. 지붕은 짚으로 엮어 해일은 집이었다. 당집 안에는 넓고 큰 바위가 그 앞에서 제를 지냈다.¹⁴²⁾

(6)당목

국수봉 정상에 있는 큰 나무를 서낭 나무라 했다. 이우영은 『기지시 줄다리기』에서 「국수봉에 수백 년 묵은 槐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국수당 신령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나무」¹⁴³⁾ 라고 기록하고 있고, 김기호는 『틀못시 유래』에서 국수산 팽나무는 1991년도를 기준으로 42년 되었고 1950년도에 큰 팽나무는 화목이 되었다고 기록

143) 이우영, 앞의 책, p.16

144) 김기호, 앞의 책, P.8

145) 증언자 참조

146) 뒤편 고증자 참조

147) 뒤편 고증자 참조

하고 있다.¹⁴⁴⁾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느티나무가 있기 전 벚나무를 당목으로 모셔 돌을 쌓아 놓았다고 한다. 이 당목을 서낭 나무라고 불렀다. 주민들은 절을 하고 나서 청홍색 천을 걸었다.

(7)제의 절차

제의는 제물을 차려 놓고 당주가 유교식으로 지냈다. 구장이 축을 읽었으며 축을 쓴 사람은 이은배가 맡아서 썼었다. 당주가 잔을 올리고 축을 읽고 구장이 독축하고 나서 정쟁이(경쟁이)가 제사를 지낼 때 거들었다. 제사가 끝난 다음 경쟁이가 대동소지를 올린 후 호주별로 소지를 올린다. 이렇게 제의가 끝나고 나면 경쟁이가 굿을 하며 조라술을 팔았다.¹⁴⁵⁾

(8)제비

당사 일을 맡은 사람들은 팽매기 치고 다니며 제비로 돈이나 쌀을 걷었다.

(9) 제물 준비

큰굿을 할 때는 소를 잡아 지낸 적도 있었다고 한다. 아쟁을 켜고 춤을 추고 하는 데, 그 때는 비용을 많이 들여 하였다. 송악면 석포리 담 안에 사는 단골 만신이 무당이 늘 와서 했다. 간단한 당사는 경 읽는 분 한 사람이 와서 하기도 했고 무당이 많이 올 때는 남자 여자 대여섯이 함께 제의를 주관하기도 했다.

제물은 술, 과일, 복어, 떡 밤, 꽃감, 대추, 돼지머리 등으로 당주의 부인은 큰 바가지에다 쌀을 넣고 초에다 불을 켜고 실을 감아 창호지로 말아 가지고 가서 제사상 앞에 놓는다.

동네 사람들이 소지를 올릴 적마다 그 불에다 붙여서 소지를 올렸다. 개인 지성을 올리는 사람은 각자 꽃반을 만들어 그 놋을 그곳에 놓았다가 그 꽃반의 불로 소지를 올리고 그 꽃반은 집으로 가져갔다.¹⁴⁶⁾

(10) 조라술 담기

조라술은 당주 내외와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이 당사 전날 저녁 때에 담아다 둔다. 산제 당시는 숲속에 섬에 무작정 당집이 지어지면서 당집 안에 놓아 두었다. 즉, 조라술은 쌀 서 되 서 홉과 누룩, 엿기름과 혼합하였다.¹⁴⁷⁾

(11) 역대 축관 명단

① 안틀못시 축관

1914년부터 1934년까지 21년 동안 송군필, 송태준 등

1935년부터 1936년 안경택

1937년부터 1939년 이규제

1940년부터 1941년 이민용

1942년부터 1943년 김범구

1944년부터 1945년 안병태

1946년부터 1950년도까지 6년간 김기호

② 장터 축관

148) 김기호, 앞의 책, p.16

149) 고증자 참조

150) 고증자 참조

151) 싸전을 말하며 말로 댄다고 해서 마전이다

152) 고증자 참조

장터의 축관은 이장이 맡아 했다.

송태준 (1935-1937)

최만홍 (1938-1940)

안찬옥 (1941-1943)

김재천 (1944-1946)

박준산 (1947-1948)

김은배 (이장 아님) (1949-1950)

1960년도부터 1974년도까지 안틀못시, 바깥틀못시 구분 없이 이장들이 했다. 당시 이장은 강창대, 한순교, 윤범석 등이 했다.¹⁴⁸⁾

(12)기지시 당사 무격(巫覡)

①안틀못시 당사 경쟁이

서공열 : 1930년부터 1939년도까지 반촌리 2구 주거

구갑서 :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송악면 본당리 주거

②장터 단골 무당

방대봉 모 : 1930년 경부터 1945년도까지 송악면 석포리 주거하며 보통 무당 서넛과 무격들 정도가 마전굿과 당사 지성을 들었다.¹⁴⁹⁾

2. 우왕제(샘제)

현재 평상제 있는 곳에 상수도 급수장 앞에 용왕제라고 해서 행해지고 있다. 제의는 유불선 3교가 함께 제를 지낸다.

이곳 사람들은 용왕제를 우왕제라고 불렀고

때론 샘제라고 했다. 샘제는 국수봉에서 당사가 모두 끝난 후 동네 대동샘(안틀못시 대동샘과 바깥틀못시(장터) 샘건너 대동샘)에서 샘굿을 했다. 즉, 풍년이 들고 비가 많이 내려 식수가 많이 나게 해달라고 샘굿을 했다. 샘굿은 농악대의 상쇠가 지휘하여 하였는데, 제물은 술 한 잔을 따라 서너 곳에 뿌리고 “물구녕을 뽕뽕 뿜어서 마을에 풍년을 가져와 주십시오” 하고 기원을 하였다.¹⁵⁰⁾

3. 마전굿

마전¹⁵¹⁾에 내려와서 제사를 지냈다. 그 당시 마전자리가 옮겨지면서 장소는 수시로 변경이 되었다. 시장에서 현 제재소 자리, 전파사 자리를 이동하였다. 마전굿을 하는 목적은 싸전 마당에서 지내야만 그 해 풍년이 들어 기지시 시장에 쌀이 많이 나온다는 믿음에서 행한 제의였다.¹⁵²⁾

4. 장승제

이우영의 『機池市 줄다리기』에 「이곳 장승은 五方에 서 있어 부락을 지키는 洞護神으로서 동방에 靑帝將軍, 서방에 白帝將軍, 남방에 赤帝將軍, 북방에 黑帝將軍, 중앙에 黃帝將軍이 당당한 위용과 엄숙한 자세로 말은 방위를 지키고 있어 재액을 막고 地殺을 누르며 잡귀를 잡아 몰아낸다. 그러기에 장승제를 지성껏 푸짐하게 지낸다」¹⁵³⁾ 고 기록하고 있고, 1993년 신양웅은

『내포문화 5호』 「당진 지방의 장승고」에,¹⁵⁴⁾ 또 김두하의 『백수와 장승』¹⁵⁵⁾에 「사방의 장승이 있는 곳은 서낭이라 하여 국수봉 서낭(南方)을 중심으로 음력 정월 인(寅)날 당제를 지내고 있으나 장승에 관한 제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인화는 『당진의 민간 신앙』에 「기지시 장승들은 제거되었다가 1984년에 다시 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오방 모두 명문은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라 했다. 몸통 색채에 있어서는 반촌리 20번지에 위치해 있던 것은 동방청제, 당진읍과 경계지인 기지시 줄다리기 탑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서방백제, 기지시 국수봉에 위치한 것은 남방적제, 기지시 농조 뒤에 위치한 것은 북방흑제, 반촌리 신흥동에 위치한 것은 중앙황제라하여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없고 현재 국수봉 신목 옆에 한 쌍의 장승만 남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옛날에 기지시에는 장승이 없었고 1984년도에 세우기 시작했다. 서낭을 지극히 위함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災厄을 방지하고자 했다.

V. 기지시 줄다리기의 성격 규명

1. 사회 문화적 배경

1) 민족적인 배경

설날에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였으며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세배를 하였다. 보름이 넘어서는 세배를 가지 않으며 세배를 가도 세배

를 받지 않았다. 정월 열나흘날 새벽 부럼을 깨뜨리는 데 주로 밤을 깎고 해뜨기 전에 밖에 다니며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내 더위 사라”며 더위를 팔았다. 그 날 낮에는 나무 아홉 지게 해다 놓고 밥을 아홉 번 먹었다.

정월 보름날에는 벼가리를 동네의 대동샘에 세우는 데 쌀 서 홑을 창호지에 싸서 달아 매었다. 농악을 치면서 상쇠가 물이 잘 나고 풍년들라는 축원을 하며 동네 부정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며 세웠다가 2월 초하룻날 쓰러뜨려 풍흉을 점친다. 매달아 놓았던 쌀이 붙었으면 풍년이 들고 쌀이 붙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흉년이 든다고 했다. 또, 이날 액막이 연을 날려보내는 데 정월 초승께 연을 만들어 준비하였다. 정월 보름이 지나야 여자들은 친정에도 가고 집 밖으로 나다닐 수 있었다.

정월에 논뚝과 밭뚝을 태우는 쥐불농기를 하였고 2월 초하룻날은 머슴의 날로 이날 머슴들은 선 세경을 받고 그 해 머슴을 살기 시작하여 주인들은 머슴들을 대접했다.

봄에 제일 먼저 개구리를 보면은 ‘그 해 굼지는 않는다’라 해서 밥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했으며 그 해 뱀이나 개미를 보면은 ‘그 해 부지런하다’고 했다. 또 흰나비를 그 해 제일 먼저 보면은 ‘몽상을 입는다’ 즉, 상을 당한다고 했고 노랑나비를 보면은 ‘그 해는 즐겁다’고 했다.

3월 3일은 삼짇날이라 해서 제비가 날아오며 9월 9일에 제비가 강남으로 날아간다고 했다.

4월 초팔일에는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으며 5월 5일 단오날에는 여자들은 그네뛰기, 널뛰기를 하였는데 ‘여자들 다리 좀먹지 말고 튼튼하라’고 하였으며 7월 7석날은 건 우직녀가 만나보는 날로 미역국에 쌀밥을 먹는 날이다.

8월 보름날은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했으며 여자들은 밤에 모두 나와 널뛰고 그네뛰기를 했으며 남자들은 팽이치기, 제기차기, 농악치기를 했다.

동짓달에는 동지 팔죽을 쑤어 먹는데 노동지만 쑤어 먹었다. 새알시미를 바람벽에 붙였는데 이것은 잡귀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주술이었다.

남자들은 봄, 여름, 가을 동안 농사를 짓고 겨울에 사랑방에서 새끼를 꼬고 삼태미, 명석, 쪼세기, 만태기 등을 삼았다. 또, 가을 바심이 끝나고 나서 눈이 오기 전에 이영을 엮어 지붕을 해일었다. 기지시리에서 집을 주로 건축한 사람은 박목근으로 안틀못시 초가집의 반 정도는 지었다고 한다. 결혼식 등 동네의 애경사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왔는데 돈으로 돕지는 않고 결혼식 때는 기주를 찌다 주고 콩나물을 길러다 주며 인절미, 계란 등을 갖다 주었다.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는 쌀, 콩나물 등을 가져다 부조하였다.

옛날 결혼식에서 함을 지는 풍습이 있었는데, 함진애비는 아들을 많이 난 사람이 지게 되는데 솟으로 얼굴에 검정을 칠하고 갔다. 함진

153) 이인화, 전거서, pp33~34

154) 당진 향토문화연구소, 『내포문화 5호』, 1993. pp.127~128

155) 김두하, 『백수와 장승』, 집문당, 1995, p.501

156) 고증자 참조

157) 고증자 참조

158) 이우영, 앞의 책, p.10

애비가 미리 초례청으로 함을 지고 가는 데 그 함에는 신랑 신부 예식복과 혼수가 들어 있었다. 함진애비 역은 주로 전풍원이 하였다. 그의 별명은 막동이였다.

그 외 한가위, 생일, 설, 정월 보름 때 서로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 제사는 밤 12시가 넘어 한 시까지 첫닭이 울기 전에 지낸다. 닭이 울면 혼령이 왔다가 가기 때문에 그 때 지낸다.¹⁵⁶⁾

2) 사회적인 배경

기지지 안틀무시 두레는 1930년 경에 구성된 것으로 두레에서는 논매기와 밭을 매고 수해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독을 쌓는 일을 하였다. 일제하 즉, 1945년 7월까지 두레로 논을 매는 일을 했다. 그 시절 좌상은 안경택, 박상희가 했다. 두레 농악 대원은 정민섭, 이순서, 김동국, 노주환, 신용봉, 노병직, 윤수일, 노인석, 장명남, 김복산, 안병국, 노재근 등 12명으로 그들은 줄난장(줄다리기)도 이끌었다. 기수는 박팔근, 김기안, 김기정으로 기지지 수상 농악을 이끌어 왔다.¹⁵⁷⁾

2. 줄다리기의 기원 및 역사

이우영의 『機池市 줄다리기』에 「기지지 줄다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한 기록이나 고증은 없고 지금부터 약 사백여 년 전부터 시

행되었다고 전설로만 내려오고 있다」¹⁵⁸⁾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김기호의 『틀무시 유래』에는 1909년(단기 4242년) 여섯 집 마당에서 심심해서 사나기(새끼) 주서다가(주워다가) 동아 꼬아서(동앗줄을 틀어서) 장양삼아(장난삼아) 시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이 주장하는 기지지 줄다리기의 시작은 이우영 보존 회장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

앞에서 밝혔듯이 기지지 시장은 5일 정기 시장으로 상인들이 주거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장난삼아 행하기 시작된 것이며 상설 시장으로 시장이 점차 번창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목적을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기호는 일제 시대 대부분의 줄다리를 「줄난장」이라 기록하고 있다. 1935년도부터 시작되어 1936년, 1938년, 1941년까지 줄다리를 줄난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亂場이란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마구 떠들어대거나 뒤죽박죽이 된 판」으로 「정한 장날 외에 특별히 터놓은 장」¹⁵⁹⁾으로 줄다리를 통해 시장의 활성화로 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김기호는 『틀무시 유래』에서 「1909년 바깥틀무시(장터) 여섯 집 마당인 산줄기 등성이에서 1회 때와 2회 때 줄다리를 하였고, 그 후 당진읍 시곡리와 기지지 경계인 평상재에서 3회와 4회를 사내기를 꼬아 동아바로 줄을 다

렸다. 틀무시 줄난장¹⁶⁰⁾은 1936년부터 하여 1941년 줄다리기가 7회였고, 일제 시대 계속 줄다리를 하다가 1945년부터 1959년도까지 줄다리가 중단되었다. 1960년도부터 1963년, 1966년, 1968년, 1972년, 1974년도까지 13회 줄다리를 하고 다음은 문화제가 지정되면서 기지지줄다리기 보존회에서 하게 되었다」¹⁶¹⁾

3. 줄다리기의 유래

이우영은 『機池市 줄다리기』에서 「전설의 내용은 기지지(틀무시)는 지형이 벼를 형국으로서 玉女織錦하는 형국이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윤년 드는 해에 온 마을 주민들이 극진한 정성으로 당제를 지내고 줄을 다려야 모든 재난을 몰아내고 예방하며 태평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한다」¹⁶²⁾고 하면서 「줄을 다리는 것은 벼를 짜서 마전을 하는 것으로서 양쪽에서 다려서 마전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¹⁶³⁾ 라고 하였고 「베를 짜는 데는 기간이 있으므로, 3년 隔하여 돌아오는 윤식 드는 해에 하는 것은 베짜는 기한이 완료되었고 마전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실행하는 것이」¹⁶⁴⁾라 하였다. 임동권도 「기지시는 풍수설로 보아 옥녀가 비단을 짜는 소위 玉女織錦型 땅이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구자성은 1991년 『내포문화』 3호에 「기지지 줄다리에 얽힌 전설」이라 하여 발표하였으며, 최문희는 1986년에 『충남전설집』에 「기지지 줄다리기」라고 해서 전설을 소개하고 있는 데, 기지시는 지네 형국으로 천년 묵은 지네의 심술 때문에 재난이 든다고 하였으며, 틀

무시는 땅 모양이 지네 형국이니 지네 모양의 밧줄을 만들어 매 윤년마다 한 번씩 줄을 다려 주게 되면 사람들이 지네의 혈을 밟게 되고 지네의 허리를 늘여 놓아 지네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기지지 줄다리에 얽힌 전설」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이곳 틀무시(기지시리의 옛 지명)는 먼천군에서 순성, 송악을 거쳐 한진항을 이용하여 한양에 가는 직통 관도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 이곳에 한 선비가 청운의 큰 뜻을 품고 명절이 지나가는 줄도 모를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 그러나 그가 공부한 문제는 기이하게도 나오지 않거나 공부를 한 문제가 시험 나오더라도 그것을 막상 시험지에 쓰려고 하면 모조리 잊어버렸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시험을 마치고 나오면 잊어버렸던 답이 또렷이 떠올랐다. 이렇게 다섯 번이나 낙방하자 이 선비는 과거라는 '과'자도 떠올리기 싫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선비는 과거에 대한 뜻을 버리고 농사나 지으며 평범하게 살려고 마음먹고 귀향하면서 국수봉에 올라 산 아래 보이는 경치를 바라보며 앉아 있다가 깜박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어슴푸레한 구름이 금방 무시무시한 용으로 변하여 선비에게 다가왔다. 선비는 꿈속에서도 무서운 생각이 들어 몸을 움추렸다. 그러자 용은 선비에게 놀라지 말라는 시늉을 하여 꿈속에서 선비는 용을 조심스럽게 바라 보았다. 용은 다시 노인으로 변하더니

“놀라지 말고 듣거라. 그대가 과거를 볼 때마다 시험에 낙방하는 것은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천년 묵은 지네의 심술 때문이니라. 또한 이 천

159) 김민수·홍용선 『옥편검용 다목적 중합국어사전』, 어문각, 1983, p.267

160) 기지지 줄다리를 시장 주민들은 「줄난장」이라 함

161) 김기호, 앞의 책, 참조

162) 이우영, 앞의 책, p.11

163) 이우영, 앞의 책, p.11

164) 이우영, 앞의 책, p.11

년 묵은 지네로 말미암아 이 마을 틀몹시가 윤년마다 재난이 드는 것이니라”

고 말을 하였다. 선비가 노인에게

“그러면 저의 과거는 어떻게 해야 하며 이 마을의 재난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르쳐 줄 테니 잘 듣고 행하라”

고 말을 하여 고맙다고 대답하고 노인의 말을 들었다.

“정월 대보름날 밤에 네가 앉아 있는 자리 옆, 가지는 없고 줄기만 남은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필 텐데 자정이 되면 그 꽃에서 예쁜 아가씨가 나올 것이니라. 그 아가씨는 그대를 보자마자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할 것이네. 그러면 그대는 재빨리 그 꽃에 불을 질러 그 여자의 입 속에 넣어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곳을 피하라”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꿈에서 깨어난 선비는 하도 기이한 꿈이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정월 대보름날 밤이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려 꿈속에서 노인이 시킨 대로 국수봉으로 다시 올라갔다. 달이 휘영청 밝아 가지 없는 죽은 나무가 쉽게 눈에 띄었다. 자세히 보니 거기에는 전에 꿈에서 보았던 예쁜 꽃이 피어 있었다. 선비는 근처 큰 나무 옆에 숨어 자정이 되길 기다렸다. 이윽고 자정이 되자 그 꽃에서 예쁜 아가씨가 나왔다. 그러자 선비

는 그 아가씨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선비를 본 아가씨는 노인이 말했듯이 선비를 보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였다. 선비는 노인이 시킨 대로 불을 놓은 다음 얼른 그곳을 피했다. 그랬더니 그 예쁜 아가씨는 간곳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귀까지 두 개 달린 12발 구렁이가 공중에서 나타나 천년 묵은 지네를 물어뜯어 결국은 죽이는 것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선비는 너무 지치고 밤도 깊어 깜빡 잠이 들고 말았는데 먼저 나타났던 용이 노인으로 변하여 말하길

“지네는 죽었지만 죽은 지네의 남편과 자식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것이니라. 이곳 틀몹시는 땅모양이 지네 형국이니 지네모양의 밧줄을 만들어 매 윤년마다 한 번씩 줄을 다려주게 되면 사람들이 지네의 혈을 맑게 되고 지네의 허리를 늘여 놓아 지네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되면 지네는 심술을 부리지 못하게 되어 그대는 과거에 급제를 할 것이고 이 마을의 재난은 없어지고 평화로움을 되찾게 될 것이니라”

하였다. 꿈에서 깨어 그 때부터 선비는 노인이 시키는대로 했더니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게 되고 마을에서는 재난이 없어졌다고 한다.¹⁶⁵⁾

또, 최문회의 「기지사 줄다리기」를 일부 인용해보면

「오늘밤 죽은 지네는 암컷인데 아직 숫컷이 하나 남아 있느니라. 그 숫놈이 원수를 갚으려 할 것이다. 그 숫놈 힘을 못 쓰게 하는 방책으로

지네 모양의 밧줄을 만들어 줄다리기를 하면 지네는 힘을 못 쓰고 너는 과거에 급제할 것이다. 용의 말이 너무나 부합됨으로 그는 마을 사람들을 시켜 지네 모양의 밧줄을 만들고 줄다리기를 했더니¹⁶⁶⁾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우영 자신도 『機池市 줄다리기』에서 「일설에는 지네 형국이라 해서 지네 같은 줄을 만들어서 줄을 다려기지를 누른다고 했다¹⁶⁷⁾」고 하여 지네 형국설을 인정하고 임동권도 「지네 모양의 줄을 만들어 놀이함으로써 地氣를 맑아 풍년 들고 질병이 없고 국태 민안을 빌었다고 한다¹⁶⁸⁾」고 지네 형국설을 밝히고 있다.

또, 1936년 일제가 문화 정책을 펴면서 우리나라의 풍습을 조사하여 보고한 村山智順의 『朝鮮 郷土娛樂』이라는 책을 보면 당진군편 줄다리기에 항에 「이 밧줄을 당기면 그 해에는 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전설에서 유래한다¹⁶⁹⁾」고 기록하고 있어 풍농을 위한 줄다리기보다도 이곳의 줄다리기는 재액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4. 줄을 다리는 시기

줄다리기는 전설에서 보았듯이 윤년마다 줄다리기를 실시한다. 윤년(閏年)은 윤달이나 윤일(閏日)이 든 해, 평년보다 역일수(曆日數), 또는 역월수(曆月數)가 많은 달이다. 태양력에서는 지구가 태양을 일주하는데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걸리므로 그 단수(端數)를 모아 4년마다 하루를 늘려 2월을 29일로 하였다. (더 정확히 한다면 400년에 97일의 날짜가 된다) 태음력에서는 평년을 354일로 정하므로 계절과 역월(曆月)을 조절하기 위해 5년에 2번의 비율로 1년을 13개월로 하고 있다. 즉, 3년 또는 2년마다 윤달이 한 달씩 끼게 되는 것으로¹⁷⁰⁾ 5년에 2번 줄다리기를 한다고 하여야 옳다. 그러나 임동권은 「기지사에서는 당산제를 매년 지내되 줄다리기는 윤년이 드는 해에 하게 되므로 대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바 배를 많이 짜놓았다가 3년마다 한 번씩 마전하는 줄다리를 한다¹⁷¹⁾」고 하였다.

윤달(閏月)은 태음력에서 날짜가 계절과 1개월의 차이가 생길 때 조절을 하기 위하여 두 번 거듭되는 달, 윤월 또는 군달이라고도 한다. 태음력에서는 2월이 평년보다 하루 더 많아 29일로 정하고 태음력에서는 양력과 맞추기 위하여 평년보다 한 달을 더하여 윤달을 만든다. 옛 풍속에는 윤달을 평년보다 한 달이 더 있는 달로 ‘궁달’이라고 하였다. 민간에서는 결혼·건축·이사 등 무슨 일을 해도 지장이나 부작용 즉, 재액(災厄)이 없는 달로 되어 있어 모든 일을 꺼리지 않고 하였다. 요즘에도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윤달이 오면 수의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 《東國歲時記》를 보면 광주(廣州) 봉은사(奉恩寺)는 매양 윤달을 맞으면 서울 장안의 여인들이 다투어 불공을 드리우고자 윤달이 다 가도

165) 구자성, 「기지사 줄다리기에 얽힌 전설」, 『내포문화』 3호, 상록인쇄사, 1991. pp.127~129

166) 최문회, 『충남전설집』, 명문사, 1986. pp.510~512

167) 이우영, 앞의 책, p.14

168) 임동권, 앞의 책, p.420

169) 村山智順 『朝鮮の郷土娛樂』, 박전열역, (서울: 집문당 1992), pp.153~154

170) 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민족문화사, 1991. pp.1130

171) 임동권, 앞의 책, p.420

172) 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앞의 책, p.1130

173) 김기호, 앞의 책, p.36

174) 임동권, 앞의 책, pp.419~420

록 인파가 그치지 않았다. 특히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로 간다 하여 사방에서 노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지금도 영남에서는 윤달에 불공을 올리는 일이 많다. 또, 고창(高敞)에서는 윤달에 성 밝기를 하면 극락세계로 간다고 하여 머리 위에 작은 돌을 이고 모양성 둘레를 돈다.

172) 이와 같이 손(損)이 없는 달로 부정이 끼지 않는 해에 災厄을 퇴치하는 줄다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 정확히 하자면 기지시는 액을 방지하는 줄다리기 때문에 윤년 윤달에 줄다리를 하여야 옳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기지시에서는 줄다리를 늦은 봄인 음력 2월 말부터 3월 초에 하였다고 한다. 1960년도 9회의 경우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줄다리를 했다.¹⁷³⁾

5. 줄다리는 장소

임동권은 「줄다리는 바로 홍척동 앞 보리밭에서 놀이 되며」¹⁷⁴⁾ 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기지 줄다리가 행해졌던 장소는 보리밭이 아닌 산 능선이었다.

김기호는 『틀무시 유래』에서 1909년 (단기 4242년) 줄다리는 바깥틀무시(장터) 여섯 집 마당에서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섯 집 마당은 산 능선의 등성으로 고지도에 「機池市場 在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산 능선 공터에서 1회, 2회 줄다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

고, 그 후 평상재에서 3회, 4회 줄다리를 하였다는 말에 의하면 보리밭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 후 틀무시 줄난장¹⁷⁵⁾ 인 1936년부터 현재의 줄다리의 장소인 연방측으로 당시 면사무소에서 상수리를 심었던 곳으로 상수리나무를 이식을 시키고 그곳에서 줄다리를 하였고 그 후에 보리를 심어 줄다리기 장소를 지정했다고 한다.¹⁷⁶⁾

6. 줄다리기 편 구분

1) 1944년도 이전의 수상, 수하 구분
기지시 구장 송태준씨 댁을 중심으로 신흥정미소에서 평화사진관 뒤를 지나 제네바다방, 한일전파사, 반디가스, 동준상회 골목으로 낙원식당, 옛 교회, 장원집을 거쳐 최영호 댁, 박한호 댁을 거쳐 외곽도로 하수구를 따라 김석환 댁, 전재선 댁, 김기택 댁을 지나 하천 간이 저수지로 해서 이준영 댁, 반바지 당재, 본당리 하천, 청금리, 순성면 아찬리, 합덕면 창정리, 합덕면 운산리, 합덕우체국, 합덕국민학교, 당진군 합덕면 구양도까지 좌우로 나누어 우는 수상, 좌는 수하로 나누었다. 기지시리는 안틀무시는 수상, 샘건너 동네, 연방측(저수지) 동네는 수하로 구분하였다.

즉, 당진군 10개 면 중에 수하는 송산면, 송악면, 합덕면 일부, 범천(우강)면 신평면이었고 당진면, 면천면, 고대면, 순성면, 석문면, 합덕면의 석우리, 창정리, 소소리는 수상이었다.¹⁷⁷⁾

2) 1960년도 이후의 수상, 수하 구분
재향군인회에서 1960년도 3월에 줄다리기 행사를 거행하면서 줄다리기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당진군 일원으로 기지시리를 중심으로 지방도로 나누어 우측은 수상, 좌측은 수하로 나눈다.

즉, 기지시에서 당진읍, 서산 경계 당진읍 구룡리까지, 면천면, 정미면, 석문면, 고대면, 대호지면, 당진읍을 나누는 데 우측은 물위, 좌측은 물아래로 구분하고 기지시리에서 송산면 가곡리까지 송산면 일원은 도로 우측은 수상, 좌측은 수하로 구분하고, 기지시에서 신평면, 합덕면, 당진군, 합덕읍, 구양도까지 우강면, 순성면, 합덕면, 신평면 등 4개 면은 우측은 수상, 좌측은 수하로 구분하였고 기지시에서 한진까지 송악면 일원은 우측으로는 수상, 좌측으로는 수하로 구분하였다.

즉, 수상은 당진읍 일부, 정미면, 고대면, 석문면, 대호지면, 순성면과 송산면 일부, 송악면 일부, 합덕면 일부 지역이고 수하는 면천면, 우강면, 신평면과 송산면 일부, 송악면 일부, 당진읍 일부로 구분하였다.¹⁷⁸⁾

7. 기지시 줄다리의 특성

기지시 줄다리는 동남 아시아 및 우리 나라에 전승되어 오는 줄다리와 성격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사료된다. 흔히 줄다리는 「두 패로 갈라져 굵은 줄을 서로 당겨 자기 편 쪽으로 끌어온 쪽이 이기는 경기, 또는 놀이」¹⁷⁹⁾이며 「한편 줄다리는 민속, 종교적인 의미에서 성행하기도 했고」¹⁸⁰⁾ 「줄다리기에 이긴 편의 마을은 그 해 풍년이 들고 무병, 무재하다는 것이나 이긴 편의 줄을 썰어 논외 거름으로 쓰면 그 해 풍년이 들고 배에 싣고 가면 폭풍을 만나지 않으며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속설이 있다」¹⁸¹⁾고 한다.

중국의 경우 「줄다리가 행해진 목적은 풍양(豐穰)」¹⁸²⁾ 이 그 기원이며 「줄다리의 관습은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민족의 줄다리는 농경제와의 깊은 관련이 있다」¹⁸³⁾ 우리 나라 줄다리기 분포를 살펴보면 「주로 중부 이남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줄다리가 이처럼 중남부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이 행사가 수도농경(水桃農耕)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¹⁸⁴⁾

줄다리가 행해졌던 장소 문제로는 장주근은 「밭에서의 성교 인용(性交引用)에서도 보았듯이 이러한 의의를 지닌 농경 의례로서의 줄다리기라면 마땅히 논밭 위에서 거행되었어야 할

175) 기지시 줄다리를 시장 주민들은 「줄난장」이라 함

176) 김기호, 앞의 책, p.40과 고종자들의 증언

177) 김기호, 앞의 책, p.32

178) 김기호, 앞의 책, p.33참조

179) 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민족문화사, 1991, p.1295

180) 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앞의 책, p.1295

181) 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앞의 책, p.1295

182) 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앞의 책, p.1295

183) 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앞의 책, p.1296

184) 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앞의 책, p.1295~1296

185) 장주근(張籌根), 『줄다리에 대하여』 《한국문화인류학(韓國文化人類學)》 제1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68, p.60

186) 지춘상, 『줄다리와 고싸움놀이에 관한 연구』, 민속학회, 《민속놀이와 민중의식》, 집문당, 1996, p.314

187) 임동권, 앞의 책, pp.419~420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성적 행사가 전염 주술적인 종교 심경(宗教心境)에서 밭에서 거행하는 것이 시원적인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⁸⁵⁾

또, 지춘상은 『줄다리기와 고싸움놀이에 관한 연구』에서 「줄다리기 장소는 첫째 보리밭, 둘째 갯가, 셋째 한길, 넷째 강변으로 보리밭에서 행하는 지역은 대체로 육지 지방인 데 마을 앞이나 혹은 마을 뒤의 편편한 보리밭에서 행해졌고, 둘째의 경우는 도서 지방 내지는 해안 지방의 마을들로서 사장(沙場) 즉, 갯가 모래터에서 줄다리를 했으며 한길의 경우는 인근에 강이나 내가 흐르고 있는 마을들로서 모두가 강변에서 줄다리를 했었음을 확인되었다」.¹⁸⁶⁾

그러나 기지시 줄다리는 첫째로 농민들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줄다리기가 보다 앞서도 밝혔듯이 지네 형국의 地氣를 눌러 주기 위해 행해진 점으로 시장의 변역을 위해 줄亂場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자 지역 학자들이 연구 기획하였다는 점이다. 임동권이 「직조를 많이 해서 尺數가 많아야 하는 데서 與尺이란 말이 나왔고 줄다리는 바로 홍척동 앞 보리밭에서 놀이되며」¹⁸⁷⁾ 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상수리나무 묘목 밭이었으며, 그 동네 이름이 홍척동이 아닌 연방측이었다는 점에서도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기지시 줄다리기의 주체가 상인(보부상)들이었기에 풍농도 중요했겠지만 재액으로부터

안전을 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줄을 당기지 않으면 마을에 질병이 퍼지거나 사람이 죽어 피해를 입게 되어서 이러한 凶事를 막기 위해 줄을 당긴 것으로 밭바탕에는 이미 들어와 있는 災厄을 쫓아내고 앞으로 다가올 厄을 마리 막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시절이 좋을 때보다는 오히려 나쁜 때 계획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풍년을 위한 줄다리기가보다 액을 방지하기 위해 행했던 줄다리기가 오히려 〈보리밭〉에서 행해오는 다른 지역의 줄다리기와는 다르게 산 능선이나 고갯마루 등에서 행해졌다고 본다.

한양명은 『줄당기기의 주술-종교적 성격과 기능 체계』에서 「풍수지리상 마두가 달아나는 형국이므로 그것을 끌어당기고자 줄을 당기기 시작하였다는 언양의 줄다리기, 지세가 센 사형장 터를 눌러 고을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줄을 당긴 청도 화양의 줄당기기, 역시 사형터였던 사대광장의 센 터를 누르기 위하여 줄을 당긴 삼척의 줄당기기와 관련된 담론은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집단의 결집된 힘의 과시 = 재액구축이라는 사유 방식이 줄을 당기는 사람들에게 자리잡고 있었음을 보여」¹⁸⁸⁾ 주는 사례라고 말하였다. 기지시 줄다리가 줄을 당기면 마을이 편해진다는 믿음이 통용되는 것으로 이우영도 「액상이 발생하고 큰 변이 일어나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줄을 당겼다」¹⁸⁹⁾ 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지네 형국의 地氣를 누르고자 줄을 당긴 것으로 보리밭과는 상관없이 산의 능선에서 줄을 다렸던 것이다.

둘째로, 다른 지역의 줄다리기에 줄이 상징하는 것은 용을 상징하여 비를 부르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지춘상은 「줄이 용이나 뱀을 상징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용 또한 물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속한다」¹⁹⁰⁾ 고 하면서 「용은 만물을 조화하는 영물로서 물과 깊은 관계하에 있고 물은 농사와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기에 실제로 '석존기우안택'에는 한발 대 기우제의 한 행사로써 울산, 진주 등지에서 결사적인 줄다리를 했고, 또 의령 지방에서도 기우 목적으로 행해졌으며 전북 지방에서는 농산물 관계로 줄다리를 했다. 따라서 용을 끌어들이는 것은 우순풍조(雨順風調)와 풍년을 기약하는 철학관에서 생성된 것이라 본다. 그래서 용을 상징하는 줄을 만들어 용은 물을 타고 승천하기 때문에 강변에서 자기 마을로 끌어들이려고 결사적인 줄다리를 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줄다리는 풍흉을 조작하는 용을 자기 마을로 끌어들이려는 농경 의례의 한 행사」¹⁹¹⁾ 라고 하였다.

「한국의 용신은 수신과 농신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줄당기기는 특히 농경과 관련된 용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줄이 나가는 장면을 용이 풍운 조화 속에 승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 용이 신기한

능력을 보이므로 올해도 풍년이 들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줄을 메고 나가며 혹은 마을을 도는 장면은 곧 용이 꿈틀거리는, 그리하여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줄다리가 간직하고 있는 의의는 보리밭에서 성 행위를 통해 생산의 신인 여성축을 승리하게 함으로써 풍요 다산을 의미하는 농경 의례의 한 행사요, 또 다른 하나는 강변이나 갯가에서 용을 상징하는 줄을 끌어들이 우순풍조에서 오는 풍년을 기약케 하자는 농경 의례로서의 복합적 의미 내용을 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¹⁹²⁾

그러나 지지시 줄다리기에 보여지는 줄다리의 특성은 줄이 용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내포문화』 3호에 게재된 기지시 줄다리에 얽힌 전설에 「이곳 틀뭇시는 땅 모양이 지네 형국이니 지네 모양의 밧줄을 만들어 매 윤년마다 한 번씩 줄을 다려 주게 되면 사람들이 지네의 혈을 맑게 되고 지네의 허리를 늘려 놓아 지네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느니라」¹⁹³⁾ 라고 한 것처럼 줄이 지네를 상징하고, 지네가 사람들에 의해 당겨짐으로 인하여 그 줄다리기가 줄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지네의 허리를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줄은 지네를 상징한다는 점이다.

8. 줄 만들기

1) 줄 꼬기

188) 민속학회, 『민속놀이와 민중의식』, 집문당, 1996, p.371

189) 이우영, 앞의 책, pp.10~11

190) 지춘상, 앞의 책, p.315

191) 지춘상, 앞의 책, pp.316~317

192) 지춘상, 앞의 책, p.317

193) 구자성, 앞의 책, pp. 127~129

194) 장기천, 남, 줄꼬기 기술자

일제 시대의 줄다리기에 쓰인 벚짚은 3천 못으로 지금의 짚단으로 말하면 6천 못 가량 되는 것이다. 기술자 15명이 한 달 동안 꼬았다. 길이가 120m에서 130m 정도가 된다. 둘레가 장정 아름으로 두 아름 정도로 성인 키를 170cm로 보면 3m 정도의 굵기였다고 한다.

줄 꼬는 방법은 대략 벚짚 30개 정도로 작은 동아바를 끈다. 그것을 50가닥을 모아 한 가닥으로 돌려 중간 줄의 동아바로 만든다. 이때 50가닥을 말기 위해 중간 중간을 짚으로 한 줄 한 줄 묶는다. 그런 다음 50가닥 짜리 동아바 3개를 합쳐 작은 줄 150가닥으로 동아바를 꼬면 이것이 원 줄이 된다. 즉, 150가닥 짜리 원줄 130미터 정도를 두 가닥 끈다. 즉, 하나는 수상, 하나는 수하 줄이 마련된다.

그런 다음 젓줄 30가닥 짜리 줄을 다는 데, 30가닥 짜리 젓줄은 길이는 20에서 30m정도로 원줄에 반을 접어 3가닥을 달아 양쪽으로 6가닥이 된다. 다시 말하면 30가닥 짜리 줄 가운데를 원줄의 3곳에 단다. 이렇게 만들어진 30가닥 짜리 젓줄 6개에 10m의 15가닥 짜리 줄을 각 젓줄마다 5개씩 총 30줄을 단다.

머리 부분은 줄을 말기에 총 가닥 수가 300가닥 정도로 지름이 1.8m 정도 된다. 이렇게 압줄과 솥줄을 만들어 연결해 놓으면 중국엔 지내처럼 모양이 형성되게 된다.¹⁹⁴⁾

2) 줄의 크기

줄다리기에 쓰이는 줄의 크기는 그때그때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를 말하기는 어

렵다고 한다. 김기호의 『틀무시 유래』에는 옛자로 80자라고 기록되어 있다.¹⁹⁵⁾

대규모 줄다리기가 거행될 때는 그 줄의 크기나 길이도 대단하였다고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크기도 작았으나 줄다리기가 정착되면서 줄의 크기도 일정하게 되었다. 어느 지방의 줄다리기도 마찬가지로지만 '암줄'이 '숫줄'보다는 항상 큰 데, 그것은 숫줄의 고머리를 암줄의 고머리 속에 집어 넣고 비녀 목을 찢러 양쪽 줄을 연결하기 때문이다.

3) 줄 만드는 과정

맨 먼저 짚을 3가닥으로 꼬기 - 줄드리기 - 줄 말기 - 목줄 만들기 - 벚줄매기 - 쑤지줄 만들기 순으로 제작한다.

① 가닥줄 꼬기

모은 짚을 3가닥으로 꼬아 이를 동부, 서부의 본부에 보관한다.

② 줄드리기

줄드리기 하루 전 날에 줄을 길바닥에 길게 펴 놓고 한 가닥씩 우차 바퀴에 감고 돌려서 줄이 단단히 꼬이도록 한다.

③ 줄 엮기

이 줄을 다시 길게 한 가닥씩 펴서 나란히 놓고 줄 사이를 새끼로 엮어 큰 멍석처럼 만든다.

④ 줄 말기

이 줄을 한쪽에서 말아 둥글게 만든 다음 반을 접어서 두 줄을 같이 묶어 하나로 만든다. 그리고 줄이 단단해지도록 메로 다지고 소금물을 뿌려 줄을 튼튼하게 한다.

⑤ 목줄 만들기

목줄을 타원형으로 구부리고 잔 새끼로 칭칭 동이며 다듬는다.

⑥ 원줄 매기

긴 원줄의 중간을 몸줄 밑으로 한 번 감아 위로 빼어서 양쪽에서 당길 수 있게 한다.

⑦ 쑤지줄 만들기

4) 줄틀

줄틀은 50가닥의 줄과 150가닥 짜리 원줄을 만들 때 쓰인다.

5) 줄의 재료

벚짚은 옛날 3,000못, 통나무의 지름은 약 30cm이고 길이는 2~4m 정도의 크기

6) 비녀장

줄은 암놈이 숫줄 가운데로 들어와 비녀장을 낀다.

7) 줄꼬기 기술자

1936년, 1938년 줄다리기 줄꼬기 기술자 : 정민섭, 노병직, 신용봉, 이순서, 김복산 등 5명이었고, 1941년, 1944년 줄다리기 줄꼬는 기술자 : 유정술, 장명남, 안병국, 노인석, 노재근, 윤수일, 김기안 등 7명이었으며, 1960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줄다리기 줄꼬는 기술자 : 김양대, 박승남, 박광남, 노주환, 김창하, 장기천 등 6명이었고 1963년, 1966년, 1968년, 1971년, 1974년까지 곽영만, 백석재, 김홍춘,

196) 김기호, 앞의 책, p.31

197) 공중자 참조

198) 공중자 참조

199) 김기호, 앞의 책, p.18

김남수, 김종호, 이용하 등 6명이 더 참여해서 줄을 꼬았다.¹⁹⁶⁾

9. 줄다리기 행사

1) 줄의 이동

물위의 줄은 숫줄로 줄다리기 장으로 먼저 이동시키고 물아래 암줄이 그 뒤를 쫓아 따라온다. 대개 줄을 옮기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로 줄을 옮기는 인원은 최소한 한 줄에 300명 정도가 필요하였다. 줄을 옮기는 과정에 물아래 물위 농악이 중간 중간에 서서 농악을 울리며 응원을 하였다. 당기는 장소에 가서는 물위 줄은 지형의 위로 물아래 줄은 암놈은 가서 머리를 돌려 숫놈에 맞춘다.¹⁹⁷⁾

2) 줄다리기 행사장

줄이 완료되면 물아래 물위가 각각 줄을 지킨다. 그리고 줄다리기 날 3일 전에 각 동네에서 젓줄을 가지고 와서 물아래 물위 젓줄을 달고 간다.

3) 줄다리기 두목

1936년 윤달이 3월에 있던 해, 1938년 윤달이 7월에 있던 해, 1941년 윤달이 6월에 있던 해, 1944년 윤달이 4월에 있던 해 이렇게 4회 줄다리기 수상 두목은 김강환, 박만복이었고 수하 두목은 강동석, 안찬옥이었다.

195) 김기호, 앞의 책, p.32

1960년도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할 때부터는 시장 상인들이 주축이 아니고 단체들이 하면서 부터는 두목을 뽑기보다는 주최측의 책임자가 줄을 옮길 때만 수상 책임자, 수하 책임자로 정해 운반하고 줄다리를 하였다. 즉, 1960년 윤달이 6월에 있던 해 줄다리는 송악면 재향군인회 송악면분회 김기호가 수상 책임자, 수하는 황○○였고, 1963(윤 4월)년도는 기지시 개발위원 반장 일동으로 강종환 외 1인이 책임자였다.

1960년도는 재향군인회 송악면분회 회장 백승모이고 난장의 중심은 김기호를 중심으로 11명이 주축이 되어 송악면 각리 분실장 29명과 등과 함께 지역 주민, 군민이 줄다리를 행했다. 1963년은 틀몹시 10인회 회장 강종환이 중심이 되어 한순교, 강종환, 김세배, 이한용, 박기학, 김종두, 김석기, 김기석 등 10명이 주축이 되어 줄을 당겼다. 1966년도에는 소방대장 김성근이 주축이 되어 소방대원들이 중심으로 줄을 다렸으며 1968년 기지시 번영회 광영상이 주축이 되어 줄다리를 하였다. 1971년도는 기지시 번영회 번영회장 이우영이 주축이 되어 줄다리를 하였고 1974년도는 기지시 개발위원, 반장, 이장 강종환이 주축이 되어 줄을 다렸다.¹⁹⁹⁾

4) 승패 결정
다리는 시간은 5분간으로 끝나는 거리는 2,3m 거리로 이긴 지역 중 한 부락을 추천해

200) 고종자 참조

201) 고종자 참조

202) 김기호, 앞의 책, p.6

1982년도에 1등은 황우 1두, 2등부터는 5등까지는 약간의 상금을 주었고 1,2,3등에게 부상으로 농기를 주었다.²⁰⁰⁾

5) 기
농기는 물아래 물위가 비등해서 수하가 50개, 수상이 마흔 대여섯 개였다. 송악면 전체 자연부락 단위 농기, 송산면 자연 부락 단위 농기, 당진 시곡리, 순성 갈산리, 옥호리, 합덕면 소소리, 우강면 창리, 신평면 거산리, 초대리, 남산리, 금천리, 한정리가 참여하였다.

1960년도 농기가 96개, 송악면 일원 송산면 일원, 당진읍 시곡리, 순성면 옥호리, 우강면 창리, 신평면 거산리 등이었다. 그 뒤로 송악면 일원과 송산면 일부, 당진읍 시곡리 두레들이 참여하였다.²⁰¹⁾

6) 그 외 씨름난장

씨름은 줄다리기와 더불어 시장의 번영과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행하여진 것이었다.

① 역사

기지시 시장이 시작되고 10년 후 면천군 당시인 1913년도 씨름난장이라 해서 처음 시작하였다. 줄난장과 더불어 그 후 일제 치하에서도 계속되었고 광복 후에는 1948년도에 씨름대회가 먼저 개최되었다. 그 이후 17회 씨름대회까지 실시하다가 1974년도 기지시 줄다리기 문화제 행사로 베짜기대회, 궁도대회, 시조경창대회, 그네뛰기대회, 널뛰기대회, 윷놀이대회, 농악대

② 씨름난장 개최 동기 및 상품

씨름은 상인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시장의 번영을 꾀하고자 하는 궁여지책에서 시작한 것

회를 추가하여 이들 대회와 더불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제 1회 씨름대회는 우체국 앞 등구봉, 제 2회는 기지시초등학교 뒤편, 제 3회 씨름대회는 1927년 기지시리 주유소 앞인 밤나무골, 1940년도 제 4회 씨름대회부터 1944년 제 8회 대회까지 바깥틀모시 마전 앞, 1948년도 제 9회 때부터는 씨름난장(亂場)이라 하여 모든 경비를 상인 업자들이 부담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씨름대회가 치러진 난장이었다. 이 씨름난장은 대동약방 앞, 1949년 제 10회 씨름대회가 송악소방대 주관하에 동성식당 앞에서, 1959년도 8월 15일 기지시 시장 장옥을 짓고 시장의 번영과 발전을 기리기 위해 8.15 광복 기념 행사로 제 11회 씨름대회가 상무회 송악면분회 주관하에 용기양복점 앞에서 거행되었다. 1960년 3월 26, 27, 28일 3일간 제 12회 씨름대회는 재향군인회 송악면분회 주관하에 대명식당 앞에서 행했고, 1963년 제 13회 대회는 송악 의용소방대 주관하에, 1966년 제 14회 씨름대회는 기지시 청년회 십인회 주관으로, 1968년 제 15회 씨름대회는 기지시 번영회 주관하에, 1971년 제 16회 씨름대회는 기지시번영회 주관하에, 1974년 제 17회 씨름대회는 기지시 개발위원 반장 일동이 씨름대회를 주관하였는데 씨름대회 장소는 우시장터였다.²⁰²⁾ 그 이후 문화제에서 행해 오고 있다.

③ 씨름난장 개최 동기 및 상품

씨름은 상인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시장의 번영을 꾀하고자 하는 궁여지책에서 시작한 것

203) 고종자 참조

으로 줄난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당진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역 사람이든 힘깨나 쓴다는 사람은 다 모여들어 씨름을 하였다고 한다.

상품은 무제한급으로 제일 힘이 센 자의 상품을 주던 시기인 제 1회부터 제 3회 대회까지는 씨름대회 상품을 황소(중소) 1마리를 주었다. 이때 소소리라 해서 씨름 우승자는 소리를 잡고 끌고 집으로 갔는데 우승자에게 황소 한 마리를 주었다. 제 4회 대회부터는 일본 씨름이 잠깐 있었지만 이 행했었다.²⁰³⁾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기지시 줄다리기에 대하여 기지시 시장의 역사 지리적 고찰과 민간 신앙으로써 서낭제, 국수봉 산신제, 우왕제(샘제), 마전굿, 장승제 등을 알아보았고 기지시 줄다리기의 기원 및 역사, 유래, 시기, 장소, 특성, 지역 구분, 줄 만들기, 줄다리기 행사, 씨름난장 등을 알아 보았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지시 시장은 1800년 초 서유구의 만년저서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등장하며, 1770년도 『동국문헌비고』 시장 수와 거의 같은 점으로 보아 기지시 장이 그 당시에도 이미 있었다고 추정되며, 장날은 1일, 6일과 3일, 8일에 켜고, 요죽어염약애(饒魚藥艾)로 보아 음식,

도미 붕어와 같은 생선, 소금, 약초 등이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기지시 시장에 관한 기록은 예덕상무사의 기록으로 1881년 『任所座目』, 1885년 『先生案』, 1889년 『보상선생안(裨商先生案)』, 1892년 『예덕면당사읍임소선생안(禮德沔唐四邑任所 先生案)』, 연대 미상의 『德山本所帳內座目』, 1916년 『商務右支社任員錄』에 당시의 기지시 장의 보부상 임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② 기지시 시장의 위치가 최초로 나타나는 지도는 1872년도에 제작된 면천군 지도에 「機池市場 在山月炙○」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면천군에서 40일 거리에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면천에서 한진을 가는 산 능선 위에 섰던 장으로 현 기지시 장 장터의 여섯 집 마당이었던 곳이 최초의 위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김기호가 당시 면천군 중흥면 새장터에 있던 장을 현재의 기지시로 시장을 옮겨왔다는 주장은 당시 면천군 중흥면이 면의 중심이었고 기지시는 산중에 있어 관공서도 1920년대 들어 이주해 온 정황으로 보아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기지시 시장은 그 이전부터 기록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중흥리 장이 커지는 것을 막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기지시 장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중흥리 새장터 장을 통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즉, 풍수지리상으로 지네 형국이기에 때문에 면천군의 중심지인 기지시의 지기를 누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을 형성시킴으로 면천군에 드는 재액을 막고자 했던 것으로 면천군 사령이 앞장서서 기지시 장을 활성화시킨 것이라 추정된다.

이지함과 관련된 전설로 한진 영웅바위 있는 곳에 있던 장이 중흥리 새장터로 옮겨왔다가 현 위치로 기지시 장이 옮겨왔다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중종 때부터 선조 당시까지 아산만 지역에 많은 지진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④ 기지시 줄다리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936년에 조산된 村山智順의 『朝鮮 郷土娛樂』로 기지시 줄다리기로 명확히 게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진 지방의 줄다리로 병을 퇴치하기 위해 줄다리가 이루어졌다는 유래가 밝혀져 있다.

⑤ 기지시의 지형은 옥녀직금형이 아니라 지네 형국이라고 여긴다. 즉, 「틀무시」의 「틀」이 배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논틀, 밭틀을 말하는 것으로 지명이 배틀과 관련된 지명도 있지만 「홍척동」이나 「북당골」 같은 것은 억지로 짜 맞추기 위하여 동원된 지명들로 여러 정황으로 보아 지네 형국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⑥ 기지시 민간 신앙 행사는 원래 기지시 줄다리와 한 짝으로 행해졌던 것은 아니라는 점으로 기지시 국수산 당사, 샘제, 마전굿, 서낭제는 음력 정월 5일 안쪽으로 행했고 기지시 줄다리는 음력으로 2월 말에서 3월 초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에 행하였다.

⑦ 국수당 당제는 국수산 산신제로 산신을 모셨던 것이 국수당으로 잘못 행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국수당은 당진군에 한 곳도 없는 신앙이고 菊秀山에서 國守峰으로 산명이 바뀐 것은 1920년대로 그 이전에 국수당으로써의 제의는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 김태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국수당으로써의 제의는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 김태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국수당 신앙은 옛 신앙의 원형으로 점차 산신제나 서낭당 신앙으로 변천되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⑧ 용왕제를 이곳 사람들은 우왕제, 또는 샘제라고 부르고 있으며, 과거에는 샘 건너 연방측 샘에서와 그리고 안틀무시 샘에서 지냈는데 현재 평상제 근처의 급수장에서 전혀 물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제의를 행하고 있어 크게 변질되어 있다.

⑨ 서낭은 상인들의 주신으로 행로의 안전을 기원하던 신으로 기지시에 3곳, 그리고 면천군에서 기지시를 가는 산 능선을 따라 40일 길에 12 서낭이 있을 정도로 서낭당 신앙이 상인들의 주신이었으나 서낭당이 다 훼손되어 기지시 내에서도 위치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⑩ 기지시 장승은 과거에 없었으며 오방신이라 해서 문화제가 되면서 세워졌고 당산 정상에도 세우는 그런 오류를 범했었다.

⑪ 기지시 줄다리기의 특성은 풍농을 위한 것보다 재액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지기를 누르고 시장을 번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이며 줄이 용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지네를 상징하여 지네의 힘을 빼기 위해 행해진 놀이라는 점이다.

⑫ 씨름도 줄다리와 더불어 시장의 번성을 위해 줄난장으로 행해졌다.

⑬ 끝으로 기지시 줄다리와 관련하여 관광상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관광의 3대 요소인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제공하여야 하는 데 전혀 그런 상품 개발이 아니되어 소모적인 축제로 끝나고 있다는 점이다. 값싼 가격의 먹거리나 이 고장 전문 요리의 개발 및 줄다리와 관련된 기념 상품 개발 등 후자 축제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⑭ 기지시리 내의 신앙물의 배치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할 것이며, 마을 가운데로 가로질러 난 32호선 국도가 기지시 마을 공동체를 양분시키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존 마을이라는 입장에서 전통 마을 복원 차원에서 굴다리를 철거하고 우회 도로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⑮ 기지시 줄다리기 전야제 행사장인 국수봉의 복원과 용왕제 제의장의 복원이 있어야 하겠다. 즉, 국수봉에 정자가 들어서고 휴식 공간으로 벤치가 설치되고 체육 놀이 시설들이 죽 늘어 있으며 급수장이 세워져 있을 뿐 아니라 국수봉에 오르는 도로가 나 있어 이것들을 철거하고 전통적인 민간 신앙물들의 원형을 복원시켜야 할 것이다. 용왕제 제의 장의 경우 옛날에 이 마을 주민들이 지내던 두 곳의 샘에서 지내야 할 터인데 현재 급수장에서 바위에 용왕 제단이라 한자로 새겨 놓고 제의를 갖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샘 건너 샘은 복원하여 그곳에서 지내고 안틀무시 샘에서 지내야 할 것이다.

⑯ 끝으로 기지시 줄다리와 더불어 시행하고 있는 시조경창대회, 활쏘기대회 등 여러 가지 대회가 전국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새롭게 발굴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

〈증언해 주신 분들〉

- *김기호: 남, 76세,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 ☎ 355-6034, 355-6232, 기지시리 노인 회장, 기지시 줄다리기 집행위원장으로 기지시에서 탄생하여 평생 송악면 정당 활동 및 우익 활동
 - *백석재: 남, 68세, 송악면 기지시리 51번지 ☎ 355-6271
 - *박한호: 남, 70세, 송악면 기지시리 356번지, ☎ 355-6623
 - *김영귀: 남, 72세, 송악면 중흥리 경로당 노인 회장, 송악면 중흥리 새장터, ☎ 352-8121(조사일:1999. 2. 5)
 - *강종환: 남,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 샘 건너, ☎ 356-7552, 전 당진군의원
 - *박영규: 남, 49세, 송악면 반촌리 830-16, ☎ 352-6000
 - *권오동: 남, 50세, 송악면 기지시리 355번지, ☎ 355-7110
 - *김기원: 남, 55세, 송악면 기지시리 169-1, ☎ 355-6210
 - *박문희: 남, 55세, 송악면 기지시리 96, ☎ 355-6273
 - *박세희: 남, 54세, 송악면 기지시리 55-1, ☎ 355-7025
 - *장경환: 남, 58세, 송악면 기지시리 328번지, ☎ 355-6036
 - *한진성: 남,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 ☎ 355-7010, 송악면소방대장
- 〈참고문헌〉
- 강만길, 〈한국상업의 역사〉,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 1974

- 고대민족문화연구소, 〈韓國民俗大觀 제 4권〉, 1982
- 구자성, 「기지시 줄다리기에 얽힌 전설」, 〈내포문화 3호〉, 상록인쇄사, 1991
- 김광언, 〈빛깔 있는 책들 101-4 민속놀이〉, 대원사, 1989
- 김두하, 〈벽수와 장승〉 집문당, 1995
- 김민수·홍웅선 〈옥편점용 다목적 종합국어사전〉, 어문각, 1983
- 김성배, 〈한국의 민속〉, 집문당, 1980
- 김추윤, 〈당진의 옛지도〉, 당진문화원, 1997
- 김태곤, 〈韓國民間信仰研究〉, 집문당, 1983
- 김택규, 〈한국문화대계 IV〉
- 당진군지 편찬위원회, 〈당진군지〉, 상록동양 인쇄문화, 1997
- 당진 향토문화연구소, 〈내포문화 5호〉, 미문 인쇄소 1993
- 민속학회, 〈민속놀이와 민중의식〉, 집문당, 1996
- 민족문화추진회 〈만기요람 I〉 서울: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1986
- 서유구, 〈임원경제지〉 1830년대
- 송봉화 외 3인, 〈살아있는 문화 유산〉, 당진문화원, 1996
- 송봉화, 〈기지시 줄다리기〉, 상록동양인쇄문화, 1998
- 심우성, 〈한국의 민속놀이〉, 대광인쇄공사, 1980
- 윤규상, 〈예덕상무사〉, 금호출판사, 1997
- 이능화, 〈조선무속고〉, 백록사, 1976
- 李炳憲, 〈三一運動秘史〉, 시사시보사출판국,

1970

- 이상현 외, 〈면천군지·당진군지 역본〉, 미문출판사, 1994
- 이우영, 〈機池市 줄다리기〉, 집문당, 1986
- 이인화, 〈당진의 민간 신앙〉, 당진문화원, 1996
- 이정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제 6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 임동권, 〈한국민요집(대구지방)〉, 일지사, 1961
- 임동권, 〈한국민속문화론〉, 집문당, 1989
- 장수근, 〈동계, 한국민속학개론〉, 1981
- 장수근, 〈한국의 세시 풍속〉, 형성출판사, 1984
- 장주근, 〈줄다리기에 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창간호, 한국문화인류학회, 1968
- 장주근, 〈한국의 향토 신앙〉, 을유문화사, 1975
- 전해순, 〈한국풍속지〉, 1956
- 조선총독부, 〈석촌·기우·안택〉, 1938
- 지춘상, 〈민속놀이와 민중 의식〉, 집문당, 1996
- 차석기, 〈내포문화(창간호)〉, 「당진 지방의 지명 고찰」, 토판, 1988
- 村山智順, 〈조선의 향토오락〉, 박전열 역, (서울: 집문당), 1992
- 최남선, 〈조선상식문답〉 (풍속편), 동명사, 1947
- 최남선, 〈조선상식〉, 동명사, 1953
- 최무용 김추윤, 〈당나라의 맥락Ⅲ 지명편〉, 당진문화원, 1990
- 최문휘 〈충남전설집〉 명문사, 1986

- 최상수, 〈한국의 세시 풍속(동래 지방 민요)〉, 1960
- 한국지리풍속지총서(189), 〈新 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上)〉, 경인문화사 영인, 1917
- 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민족문화사, 1991
- 홍석모, 〈동국세시기〉, 조선광문호, 1941
- 홍석표, 〈당진인물지〉, 동양인쇄문화주식회사, 1997
- 〈순종국장첩〉 (1926년)
- 〈문견록 (聞見錄)〉
- 〈형초세시기 (荊楚歲時記)〉
- 〈부산읍지〉
- 〈五洲衍文長箋散稿〉
-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
- 〈任所座目〉
- 〈先生案〉
- 〈德山本所帳內座目〉
- 〈보상선생안 (稞商先生案)〉
- 〈예덕면당사읍임소선생안 (禮德沔唐四邑任所先生案)〉
- 〈德山本所帳內座目〉
- 〈新平李氏世譜〉
- 〈당진뉴스〉 1998. 4. 20자

서산 지방(瑞山地方)의 백제 역사(百濟歷史)

천안시립중앙도서관(지방서기관)으로 정년퇴임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서산시문화유적 보존위원
서산시지 편찬위원 및 집필위원 역임
서산향토연구회장
「지명에 얽힌 이야기들」(서산시 동지역편)
지방행정지를 비롯한 문학동인지, 「서산의 문화」 등에 발표

이 은 우
서산향토연구회장

1. 주류성(周留城)은 상왕산성(象王山城)이다

1) 연구 경위(研究經緯)

백제가 660년에 부여 사비성에서 망한 뒤에 661년부터 중(僧) 도침(道琛)과 무왕의 조카 복신(福信) 등이 중심이 되어 일본에 가 있던 풍(豐) 왕자를 데려와 주류성(周留城)에 근거를 두고 백제의 부흥 운동을 하다가 끝내 나당(羅唐)의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케 되었는데 1335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역사의 중요 지점을 명확히 확정치 못하고

① 서천의 한산건지산성(韓山乾芝山城)설 (李丙燾)

② 전북 부안의 위금암산성(位金巖山城)설 (今西龍, 全榮來)

③ 연기의 당산성(唐山城)설 (申采浩, 金在鵬)

④ 홍성의 여양성(驪陽城) 학성(鶴城)설 박성흥(朴性興) 등

어느 곳도 정설(定說)로 확정짓지 못하고 있

음은 민족사 정립을 위해서나 후학들을 위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주류성이 우리 지방 운산면에 있는 상왕성(象王城)이기에 그 당위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상왕성(象王城)이 주류성(周留城)으로 볼 수 있는 전거(典據)

(1) 호산록(湖山錄)

서산에는 경기 충청도인 기호 지방에서는 가장 먼저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9번째이며 남한 만으로는 다섯 번째로 빠르게 1619년(광해군 11년)에 작성된 최고(最古)의 읍지(邑誌) 호산록(湖山錄)이 있다.

이 호산록(湖山錄)의 저자 한여현(韓汝賢)은 광해군 8년(光海君 8年)에 증광별시(增廣別試)에서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이조정랑(吏曹正郎)에 있을 때 쓴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경명(高敬命)¹⁾이 서산군수 재임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서장관으로 가서 2년간 있을 때 그곳 풍토를 익히며 중국에서의

지방사 정리에 감명을 받고 구해은 대명일통지(大明一統誌)를 주면서 서산의 읍지를 써보라는 권유를 받아 쓴 것으로 각종 문헌과 지역의 내력을 잘 아는 고로(古老)들의 고증을 받아 한치의 것도 빠짐이나 잘못됨이 없도록 하여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어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조에 있어 읍지(邑誌)²⁾는 16세기 초부터 17세기까지에 한강 정구(寒岡 鄭述), 윤두수(尹斗壽), 이수광(李係光) 등 내노라 하는 당대 최고의 선비들이 수령으로 있으면서 편찬하는데 이렇게 편찬된 읍지 중 현존하는 것이 남북한 모두 10개이고 남한 것만 친다면 5개인데 이 10개의 읍지(邑誌) 중에서도 체제와 정밀함이 크게 돋보이는 것이다.

400년(380년전)에 가깝게 오래된 호산록(湖山錄)에 기록된 내용 중 본 논제와 해당되는 부분을 이곳에 옮겨 본다.

○ 상왕산(象王山) (湖山錄 山川條21쪽)

「상왕산(象王山)은 군청 동쪽 30리에 있으니 해미의 경계에 있다. 이 산(山)은 두 이름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상왕산(象王山)이라 하고 하나의 이름은 가야산(伽倻山)이라 하는데 상왕산(象王山)이란 이름은 당시의 사람들은 부르지 않고 오직 가야산(伽倻山)이라고 일컬어 왔다. 부처의 서적을 참고해 보면 가야산(伽倻

山)이란 이름은 본래 불서 가운데서 유래된 것이다. 하나의 산에 두 가지 이름을 증거하였으나 그 사적의 본 말은 또한 증거하지 못하겠다.

동국통감(東國通鑑) 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모두 상고해 볼 수가 없는데 홀로 이 산을 상왕(象王)이라 하여 궁전(宮殿), 누대(樓臺), 연못 연하는 길, 벽돌 절단된 기와, 깨어진 주초 등이 숲속에 쌓여 있어 완연하게도 옛그제 일과 같았은즉 어느 시대에 임군(君王)이 나와서 그 산에 다다 국도(國都)를 건설하였는지 알지 못하겠다. 한편 생각해 보면 일백 가지 짐승 가운데서는 웅장하였은즉 코끼리로서 왕이라 칭하여 불러온 것 같으나 당시에 유력한 자의 칭호에 불과하다 신라(新羅)와 백제(百濟)가 전쟁으로 일삼던 때에 참람(僭監)³⁾하게 국호(國號)를 도명하여 서로 힘을 믿고 힘지에 점거하면서 왕(王)이라 칭하고 나라라 칭한 것 같으나 그 때의 역사인즉 병화(兵火)에 유실되어 후세에 전함이 없기 때문에 당시의 사적을 고증할 수 없다.

또 내가 중년(中年)에 어느 사람으로 인하여 늙은 스님이 가지고 있던 옛 문서를 얻어 보았더니 책장 가운데에 상왕지대(象王地大)원년지대(地大) 2년이라고 쓴 것이 있었은즉, 그것이 왜인(倭人)들이 자칭 천정(天靖) 2년 정월

1) 고경명(高敬命):년 문과장원 호조좌랑으로 기용되었다가 전직, 정언을 거쳐 사가독서를 한 후 1563년에 인순왕후의 외숙인 이조판서 이양의 전횡을 논할 때 교리로서 이에 참여 그 경위를 이양에게 알려준 것이 발각되어 울산군수로 좌천된 후 파직 1581(선조 14년) 영암군수로 다시 기용되고 종계변무주청계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승문원 판교를 거쳐 서산군수를 역임 1591년에 동래부사로서 서인이 제거될 때 사직하고 낙향했는데 임진란이 일어나자 광주에서 모집한 의병 6,000명을 이끌고 선조 행궁이 있는 평안도로 북상 중 금산에서 침입한 왜군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다.

2) 읍지(邑誌):세기에서 17세기의 읍지 중 현존하여 오는 것을 연대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함주지(咸州誌) 이자 저 1587년 정구 저, 영가지(永嘉誌) 1608년 권기 저 평양지(平壤誌) 1590년 윤두수 저, 동래지(東萊誌) 1611년 성보선 저 상산지(尙山誌) 정구 저, 승평지(昇平誌) 1618년 이수광 저, 호산록(湖山錄) 1619년 한여현 저 연안읍지(延安邑誌) 윤두수 저, 성천지(成川誌) 함경북도) 1603년 이상의 저, 북관지(北關誌) 경성 길주 명천 부령 회령 무산 종성 은성 경원) 1617년 이식 저.

3) 참람: 분수를 지나치게 함부로 함

초하루라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네 개의 큰 내 가 있으니 하나는 봉대암(鳳臺庵) 아래에서 흘러오고 하나는 서림사(西林寺) 아래에서 흘러나와 무릉대(武陵臺) 앞에서 합류하여 북쪽으로 당진(唐津), 면천(沔川)을 경과하여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하나는 덕산 대치(德山大峙) 아래에서 흘러와서 홍주 대치동(洪洲大峙洞)을 경과하여 여정(黎亭)에 합류하고 서쪽으로 병영 남문(兵營南門)을 통과하여 양림포(陽林浦)까지 흘러서 남해로 들어가고 하나는 가야산 동네 가운데로 흐르기 시작하여 봉종원(峯從院) 앞을 통과하고 신교천(薪橋川)에 합류하여 마침내 면천 대진으로 들어간다.

강당사(講堂寺) 건너편 수정봉(秀菁峯)이 있는데 봉우리가 지극히 위험하고도 높으며 돌성(石城)이 있는데 세상에서 전해 오기를 이 성은 상왕(象王)이 쌓은 것이라 한다.

지극히 정교하고도 견고하여 한 개의 벽돌도 퇴락된 것이 없다. 지나간 정유년(1597년) 선조 30년에 병사 이시언(兵使 李時彦)이 자기가 답사하고 다시 증축하여 군사 기지를 삼으려다가 모든 군사들이 산이 깊고 길이 멀어서 출입이 곤란하다 하여 좋아하지 않으므로 드디어 정지하고 말았다.

(이하 략)

「象王山在郡東三十里海美地界 ○山有二名一名象王山一名伽倻山 其象王之名時人不言傳以伽倻 稱之考於佛書其伽倻之名本自佛書中來也一山兩名皆有所據而其事蹟本來則亦無據而名也東國通鑑 與地勝覽皆無考見而獨於此山象王宮殿臺沼輦路榮石斷尾破礎積在於林中而宛然如昨

則不知其 於何代建都立國於此山也

意者百獸之中維象有力雄於獸中則以象稱王爲號者不過當時有力者之稱 羅濟戰爭之日號盜名 博力據險稱王稱國而其一時史記則失於 兵火無傳於後世故其當時之事無得以考也潛且不 中歲因人得見老僧所持古文書冊張中有象王之大元年地大二則此與倭人自稱天靖二正朔稱 ○云者何以異哉 有四大川一出於鳳臺庵下一山於西林寺下 合流於茂陵臺前北過塘唐津沔川境入于海一出德山大峙下洪洲大峙洞合流于黎亭西過兵營南門外流入于陽林浦達于南海一出於伽倻寺洞中流過于峯從院前合流於新橋川竟達于面沔川大津

講堂寺越遺有秀菁峯極險高有石城世傳此城象王所築云極其精巧堅固無一磚頽落欲爲鎮戍之計而軍士以山險路迂出入之難不說遂停」

이상에서 살펴보면 상왕산에는 상왕이 쌓은 성(城)이 있는데 궁전 루대 연못 벽돌 절달된 기와 주초등이 완연하게 있다는 것이고 상왕(象王)이란 힘이 센 왕이란 뜻으로 코끼리가 100가지 짐승 중에서 제일 크고 힘이 센 짐승 이름을 따온 것이란 뜻이다.

또 이것은 신라와 백제가 전쟁을 할 때에 어느 힘있는 자가 참람하게도 왕(王)이란 칭호와 국도(國都)로 칭했는지 병화로 사서가 유실되어 없으니 알 수가 없다고도 하였다.

또 저자가 어느 노스님이 가지고 있던 옛 문서를 얻어 보았더니 책장 가운데 상왕지대원년(象王地大 元年) 지대 2년(地大 2年)이라고 쓴 것이 있었은즉, 그것이 곧 왜인(倭人)들이 천정 2년 초하루(天靖 2年 正朔)라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하였던 데 이 점을 특히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신라와 백제가 싸우는 과정에서 기존의 왕도(王都) 이외에 심산 유곡에다 새로이 성(城)을 쌓고 왕(王)이라 칭하거나 칭할 사람이 풍왕(豐王) 이외에 또 있는가.

둘째, 백제의 왕자 풍장(豐璋)이 일본에서 건너와서 복신(福信), 도침(道琛) 등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면 왕위에 오른 뒤에도 왕자 때의 이름을 딴 풍왕(豐王)이라 했겠는가? 새로운 왕의 이름과 연호가 있었을 것이니 이 이름이 상왕(象王)이고 년호(年號)는 지대(地大)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 성

셋째, 또 일본의 년표(年表)를 조사해 보니 일본에는 하늘천(天) 자를 딴 왜왕(倭王)의 년호는 천지(天智), 천무(天武) 등 두 사람이 있는데 천지 2년(天智 2年)이 바로 풍왕(豐王)이 주류성(周留城)에 웅거하던 662년(豐王 2年)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상왕(象王)은 풍왕(豐王)이고

상왕성(象王城)은 주류성(周留城)으로서 너무도 일치하는 것이다.

(2) 삼국사기(三國史記) 관련 기록

삼국사기권 제 28권 백제본기 630 의자왕 중 「무왕의 조카 복신은 군사를 거느리고 승도침(僧道琛)과 함께 주류성(周留城)에 웅거하여 모반하고 일찌기 왜국에 불모로 가 있던 옛 왕자(王子) 부여 풍(豐)을 맞아 왕으로 삼으니 서북부의 여러 성이 이에 호응하였다.

이 기록에서 승도침(僧道琛)이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점과 서북부(서북이라 함은 웅진과 사비성에서 지칭하는 것임)의 여러 성(城)이 이에 호응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류성 비정은 웅진에서 남쪽이나 동쪽, 그리고 서남쪽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다.

또, 승도침(僧道琛)이 중요 중심 인물이었다면 조직 속에 사는 승려로서는 먼 옛날 보원사지에만 100개의 사찰⁴⁾이 있었다고 전해 오는데 승려가 많이 있는 상왕산(伽倻山 象王山)이 중심이 되는 것은 너무도 순리적인 이치이다. 따라서 상왕성(象王城)이 백제 부흥 운동의 중심이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닌가?

(3) 택리지(擇里誌) 관련 기록

이중환(李重煥, 1690~1757)은 그의 저서 택리지(擇里誌)에서 내포(內浦)란 차령(車嶺)의 서쪽에 있는 가야산(伽倻山)을 중심으로 한 주

4) 운산면 용현리 2구 강대이골(보원사지가 있는 곳)에는 백 번째 절로서 백암사(百庵寺)를 세웠다는 전설과 함께 지금도 백암사지(百庵寺址)가 남아 있다.

변의 10개 고을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는 데 조선시대의 10개 고을이란 서산(瑞山), 덕산(德山), 해미(海美), 태안(泰安), 면천(沔川), 대흥(大興), 예산(禮山, 홍주(洪州), 결성(結城), 신창(新昌) 지방을 말하는 것이고 넓게는 청양과 보령을 남포 지방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이 지방의 모든 중심은 가야산(伽倻山·象王山)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신라 시대(新羅時代)에는 가야산(伽倻山)을 서진(西陣)⁵⁾으로 삼고 이에 소재관(所在官)을 두어 춘추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가 서진(西陣)으로 삼은 가야산(伽倻山·象王山)에 별도의 소재관을 두어, 제사를 지낼 만큼 중요시 했던 것은 백제 유민(百濟遺民)이 최후까지 저항했던 곳이었기에 그토록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4)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기록

1864년에 고산자 김정호(古山子 金正浩)에 의해 제작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도 가야산(伽倻山)에는 고산성(古山城)이 있음을 크게 표시하고 있다.

이 고산성이 있는 곳을 이곳 마을 주민들은 군왕골(君王谷)이라 한다.

(5) 일본서기(日本書紀) 관련사항 발췌(關聯事項拔萃)

일본서기 권27 천명개별천황편(天命開別天皇 天智天皇元年) 661년 신유(辛酉) 9월 황태자

(天智天皇)는 장진궁(長津宮)에 어(御)하여 직관(織冠)을 백제의 왕자 풍장(豐璋)에게 내렸다.

또 '오오노오 고모시(多臣莊敷)'의 누이(妹)를 그의 처(妻)로 하였다. 그리고 '사이노무라지 마치마사(大山下挾井連檉梁惹瑯)'와 "'하다 노이야쓰고다구쓰(小山下泰田來津)'에게 군병(軍兵) 5천 명을 이끌게 하고 풍장(豐璋)을 호위하여 본국에 송환케 하였다. 풍장(豐璋)이 백제에 돌아가자 복신(福信)은 출영하여 이를 배하고 국정을 남김 없이 풍장(豐璋)에게 위양하였다.

○662년(天智 2年 壬戌) 3월 4일에 백제왕 여풍장(余豐璋)에게 베(布) 300단(端)을 하사하였다. 당나라와 신라군이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우리 나라(倭)에 구원을 요청하였으므로 장국을 파견하며 소류성(疏留城)에 백제 유민이 본거에 거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당나라 사람들은 고려 남쪽의 경계를 침략치 못하였다. 신라도 고려 서방의 성루를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백제왕(豐璋) 복신(福信) 등은 '사이노무라지(挾井連)' 에치노다구쓰(朴市田來津)와 협의하여 '우리들이 지금 있는 쓰누(州柔·疏流域)는 전답(田沓)에서 먼 곳이며 토지가 척박(瘠薄)하여 양잠이나 농사에 적합한 토지가 아니라 이곳은 방전(防戰)을 위한 장소이다.

이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백성이 식물에 곤란을 겪을 것이다. 그런고로 피성(避城)으로 가야 한다.

피성(避城)은 서북으로 고연단경수(古連旦涇水)의 물이 대(帶)처럼 돌고 있고 동남(東南)은 심니거연(深泥巨堰)의 제방이 지키고 있다.

주위는 한면이 전(田)으로 비가 잘 내리고 작물이 잘되는 점에서는 삼한(三韓)에서는 가장 풍요한 곳이며 의식의 근원이라 할 만큼 풍요한 곳이다.

"평지이기는 하나 어찌 옮기지 않을 수 있으리요"라 말하였다. 에치노다구쓰(朴市田來津)는 홀로 나와서 피성(避城)과 적이 있는 곳은 하룻밤 사이에 오갈 수 있는 거리이다. 만약 공격을 받을 때 후회하여도 늦다. 사람의 굶주림보다 멸망하느냐 안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지금 적이 함부로 공격하여 오지 않는 것은 쓰누(州柔)가 험난한 여러 산을 방벽(防壁)으로 산고 심곡(山高深谷)하여 지키기가 쉽고 공격하기에 어려운 곳이 있기 때문이다. 이곳이 평지면 어찌 지금까지 수비를 견고히 할 수 있었겠는가 하고 간하였다. 그러나 풍장(豐璋) 등은 드디어 이 간언을 듣지 않고 피성(避城)에 도읍(都邑)을 옮기었다."

○일본군 백촌강에서 궤멸 663년(天智 3 年) 2월 2일 백제는 달솔금수(達率金受) 등을 파견하여 조(調)를 진(進)하였다. 신라가 백제의 남부의 사주(四州)(居列, 居忽, 沙平, 德安)을 태우고 안덕(安德) 등 요지를 점령하였다. 피성(避城)은 적지에 가깝고 세력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다구쓰(田來津)의 의견대로 다시 쓰누(州柔)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달에 좌평복신(佐平福信)은 당의 포로속수언(捕虜續守言) 등을 상송(上送)하였다.

3월에 전군(前軍)의 가미쓰게 노모기미와가 고(上毛野 君來稚子), 하시히도 노무라지 오오 후다(間人連大蓋), 중군(中軍) 장군 고세노 간사기 노오미오사(臣勢神前臣譯語), 후군(後軍)의 장군으로(阿倍引 田臣比羅夫) 오오야게노오 미가마쓰가를 보내어 27,000명을 이끌고 신라를 치게 하였다.

중 략

추(秋) 8월 13일 신라는 백제왕이 스스로 양장(良將=福信)을 참하였다는 것을 알고 즉시 백제를 쳐서 쓰누(州柔)를 함락시키려고 하였다. 백제왕은 적의 계략을 알고 장군들에게 야마도노구니(日本國)의 구원 장군 이노하라 노기미오미(盧原君臣)가 일만여 용사를 이끌고 지금이라도 바다를 건너온다는 것이었다. 원컨대 장군들은 이 계략을 세워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백촌(白村)까지 가서 그곳에서 구원군을 영접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17일 신라의 장군은 쓰누(州柔)에 이르러 왕성(王城)을 포위하였다. 한편 당나라 군장(軍將)은 군선(軍船) 170척을 이끌고 백촌강(白村江)에 전열을 구축하였다.

27일에 일본 군선 중 선착한 것과 당나라 군선(軍船)과의 일대 회전이 있었다. 이때 일본군은 패하고 당군은 전열을 고수하였다.

28일에 일본의 장군들과 백제왕은 기상을 잘 관측하지 않고 「우리 편이 앞을 다투어 공격하여 가면 상대는 스스로 퇴각할 것이다」하고 일본의 중군을 이끌고 선대(船隊)를 잘 정비하지도 않은 채 진격, 이미 진을 굳게 한 당나라군에

5) 서진: 신라 서울 경주에서 서쪽에 있는 군사 요충지(교육출판공사전 한자대전 8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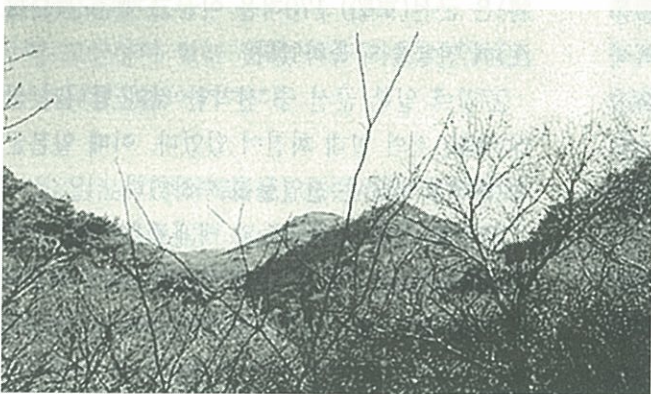
공세를 가하였다. 당나라군은 좌우에서 배를 내어 이를 사격하고 포위 공격하였다. 짧은 시간 내에 일본군은 패하고 많은 자가 물에 빠져 익사하고 뱃머리는 돌릴 수 없었다.

에지노다구쓰(朴市田來進)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맹세하고 이를 갈며 성을 내어 부르짖고 수십 인을 죽이었으나 드디어 전사하고 말았다.

이때 백제왕은 몇 명과 함께 배에 올라 고구려로 도주하였다.

9월 7일에 백제 쓰누성(州柔)은 드디어 당군에 항복하였다. 이때 백제 사람들은 「쓰누(州柔)가 항복하였으니 어찌 할 수 없다. 백제 이름도 오늘로 검멸할 것이다. 조상의 묘가 있는 땅에도 두번 다시 못 오게 되었다. 이후에는 테례성(弓禮城)에 가서 일본의 장군들과 만나 필요한 대책을 세울 뿐이다」라고 서로 말하고 침복지성(枕服枝城)에 체류하여 둔 처자들을 타일러 나라를 떠날 것을 결심하였다.

9월 11일에 그들은 무테(牟徒)를 출발하였다. 13일에 테례(弓禮)에 이르렀다. 24일에 본군선과 좌평 여자신(余自信) 모구소기시(達辛木素貴子), 고구나신스(谷那晋首), 오구라후구



성안골에는 1만 평이 넘는 계단식 옛 경작지가 지금도 남아 있다

루(億禮福留), 거기에 백제 나라 백성들이 테례성(弓禮城)에 이르렀다. 다음날 배를 띄워 처음으로 일본으로 향하였다.

3) 일본서기(日本書記)의 사료로서의 문제

661~3년까지 백제 부흥사나 주류성(周留城)을 비정하는 데 있어서 주된 전거(典據)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에만 의존하는 것 같은 기존 논문들은 바뀌어져야 할 것이라고 필자가 언급한 일이 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주체 의식에서 쓰여져야 한다는 데는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우리 사서(史書)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아집만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象王城이 周留城으로의 興件

(지금까지 周留城, 또는 關聯城으로 比定한 山城의 諸元, 별표1)

○주류성(周留城)이 30,000명 내외의 군사가 있었던 지역의 중심성(城)이라면 얼마 만한 크기의 성(城)이어야 하고 지원 세력인 지역의 일반 백성의 거주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 식수로 먹는 물의 양에 대한 것도 얼마 만한 우물(井)이 있어야 할 것인가는 당연히 깊은 검토 대상이다.

○상왕성(象王城)은 가야산(伽倻山) 속에 있는 고산 심곡(高山深谷)의 성(城)이다. 성(城)의 둘레는 6,000m 이상으로 추정되고 성내(城內) 등 군왕골



성안골 성지 부분

(君王谷)에는 여하한 한해(旱害)에도 수만 명(數萬名)이 식수로 할 수 있는 맑은 물이 줄지 않고 년중 흐르며 어느 곳이고 2~3m만 파면 맑은 물이 샘솟는다.

○또 상왕(象王)이 직접 쌓았다고 전하는 수정봉(秀靑峯)하의 대성(大城)은 부속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성도 해발 400m 위에 있는 성(城)으로서 성 둘레가 4,000m 이상이고 물이 풍부해서 최근년까지 이곳에는 1~2호의 농가와 4,000여 평의 논이 있어서 자연히 융출하는 물로 풍흉 없이 논농사를 경작할 수 있었으니 1~20,000명의 군사가 웅거하기에는 최적의 성이라 할 수 있다. 성(城)의 기능만으로 따진다면 겹산으로 임존성(任存城)보다도 훨씬 유리할 수 있다.

(1) 용현리(龍賢里) 2구(區) 강당부락(江堂部落)은 천연(天然)의 요새(要塞)인 자연성(自然城)

상왕성(象王城) 아래에 있는 용현 2구 강당부락(江堂部落)은 천연의 자연성(自然城)이다. 해발 4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로 마애삼존불 근처의 마을 입구만 지킨다면 어느 곳으로도 외적(外敵)이 용이하게 접근키 곤란한 요새다.

이 마을 전체를 왕성(王城)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보원사지로 들어가는 용현리(龍賢里) 2구 마을 입구의 자연 부락명이 '돌무더기' (1/5,000지도에도 그렇게 명기됨)인데 이제는 일부 잔량만 있지만 이 돌무더기가 70년대 초까지는 수십 트럭분이 쌓여 있었다.

이 마을에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이 돌들은 옛날 전쟁 때 석전용이었다고 이 마을 노인 장석희(77세)씨는 말하면서 옛날 이곳이 큰 전쟁터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곳에 100개의 절과 수천 명 승려가 있었는데 전설과 도침(道琛)이 승려(僧侶)라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찰이나 승려는 27,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유지 관리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2)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가 주장한 홍주 주류성(洪州周留城)과의 관계



보원사지 입구 돌무더기(1970년대 초까지 수십 트럭분이 있었다. 석전용으로 전해 온다)

1864년 古山子 金正浩가 전국을 두루 답사하거나 백두산을 등정한 것이 아니라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와 동지지도(同地志)를 만들면서는 65종이나 되는 수백 권의 방대한 책과 고지도 등의 전거를 바탕으로 하였더니 홍주 주류성(洪州周留城)을 비정한 것도 현지 답사보다는 문헌만의 검토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상왕성(象王城)과 대성(大城)이 있는 곳은 옛날 서산군(瑞山郡) 및 홍주목(洪州牧)의 월경지(越境地), 또는 비지(飛地)가 서로 겹치거나 맞닿아 있었고 해미현(海美縣)과도 경계지점으로 옛 경계가 불명확한 곳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성(大城)이 있는 곳은 현재는 운산면 원평리이지만 조선조 때까지만 하여도 홍주목 합북면(현 당진군 합덕읍) 원당북리(合北面 元堂北里) 원당남리(元堂南里) 영산곶리(令山串里)이다. 따라서 고산자 김정호가 일일이 전국을 답사치 못하고 전거에 의하여 비정하다 보니 주류성(周留城)이 홍주땅에 있다는 것만으로 홍주 주류성(洪州周留城)으로 비정했을 것이다.

(3) 주류성(周留城)과 주변 마을과의 관계

운산면 고평리(현 고평저수지 수몰지)는 깊은 협곡 마을로 용현 2리 강당부락 아래이고 대성(大城)의 옆에 있는데 1895년 이전 조선 시대까지는 마을 이름이 군장동(軍莊洞)이라 기록되어 왔다(여지도서). 지명은 우연히 지어지는 것이 아니니 이 마을 이름도 백제와 신라가 싸울 때부터 생긴 지명이라면 백제 부흥 운동의 거점이었음을 더욱 뒷받침하는 것이다.

(4) 주류성(周留城)과 아철지(冶鐵址)

상왕성(象王城)과 근거리에는 현재 확인된 것만도 수평리(壽坪里) 절골 아철지, 고산리 1반 아철지, 고산리 두산 아철지 등 3개의 옛 아철지가 있다. 옛부터 이러한 아철지가 있었던 것은 많은 군사(軍士) 유지에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상왕성(象王城) 접근로 문제(接近路 問題)

현재는 산천(山川)의 지형이 몰라보게 변하여 옛날 일을 추리해 보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천수만(淺水灣)을 통해서 배가 상왕성(象王城)으로의 접근은 3km 미만의 근거리였으니 운산면 거성리(巨城里) 창산(倉山)과 해미면 관유리(館柳里)까지 주운(舟運)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풍왕(豐王)과 일본군의 진입로도 이곳이었을 것이다.

5) 피성(避城)과의 관계(關係)

1994. 9. 23. 박성홍 선생이 홍주 주류성고(洪州周留城考)에서 피성(避城)을 면천(沔川) 즉, 혜성(慧城)으로 비정한 것에 대하여는 두고두고 검토하여 보아도 절묘한 것으로 절대 지지를 보내면서 상왕성(象王城)이 있는 군왕골(君王谷)에서 혜성(慧城)까지 거리는 15km 내외로서 너무도 잘 들어맞는 것이다.

피성(避城)과 적과의 거리, 또는 주류성(周留城)이 서로 하룻밤 사이에 오갈 수 있는 거리로서 산고 심곡(山高深谷)이란 점도 어느 타비정성(他比定城)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6) 무테(牟弓)와 테례성(弓禮城)

일본 서기 천지천황 3년 9월 신해삭(辛亥朔) 「663년 9월 11일 주류성(周留城)에서 패배한 백제 사람들은 무테(牟弓)를 출발하여 계해(癸亥) 13일에 테례(弓禮)에 이르렀다. 갑술(甲戌) 24일에 일본군선과 좌평 여자신(余自信)과 모기순기시(達率木素貴子), 고구나신스(谷那晋首), 오구라이후구르(億禮福禮), 거기에 백제 나라의 백성들이 테례성(弓禮城)에 이르렀다. 다음날 배를 발하여 처음으로 일본을 향하였다」에서 무테(牟弓)와 테례성(弓禮城)이 어느 곳이나 하는 것이 그간의 논점이었다. 그간에 비정한 것을 보면 훈차(訓借)한 예 ‘테례’(弓禮)를 사포(寺浦)로 주장한 것도 있고 음차(音借)한 예 ‘틀못이’(機池)로 한 것도 있다.

일본 서기에서 주류성(周留城)을 쓰누(州柔)로 표기한 것을 보면 이것은 훈차(訓借)보다는 음차한 지명이다.

이에 필자는 음차(音借)한 지명이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상왕성(象王城)에서 서북쪽으로 12km 지점에는 ‘무르티’ 마을(운산면 갈산리 1구)이 있는데 이곳이 ‘무테(牟弓)임에 틀림이 없고 테례성(弓禮城)은 무테(牟弓)에서 다시 서북쪽으로 12km 지점인 테미성(吐美城과 富城)으로 비정된다. 이 성(城)을 이곳 사람들은 테성산이라 칭하고 그 테미성 밑에는 닛개(碇浦) 등 남북서로 성밑 어구에 돛단배가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던 양향이 1940년대까지 있었던 것이다.

또, 무테(牟弓)는 토미성(吐美城)에서 내륙(공주 지방)으로 도보에 의하여 통하던 중요 도

로가 있었는데 지곡면 무장리 작은 한티재로 하여 성연면 평리 신맹이, 명천리 아래위 삼거리 를 거쳐 음암면 문양리 소양다리, 도당 1리인 간대산 밑 구수울, 탑곡리로 하여 은봉산을 넘어 무르티마을 용못과 미력벌, 군장동, 원벌 와 우리 1구로 하여 예산봉산과 덕산을 거쳐 왕래되던 옛 주요 도로의 중간 지점이었던 것이다.

테성(吐美城) 주변에는 망군말(亡君洞), 전군항(戰軍項), 피란피(避亂山), 칠원재(七冤峙), 망미(望山), 왕산(王山) 등의 지명이 있다.

테례성(弓禮城=吐美城)에서 돛단배를 띄워 가로림만을 벗어나 편서풍의 순풍을 받아가면 일본 구주쪽으로는 1주일 정도면 쉽게 닿게 된다.

2. 백제부흥사(百濟復興史) 연구의 유의점

첫째, 그간의 백제부흥운동 연구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간과한 점이 있다. 백제부흥운동이 마치 주류성(周留城)이나 임존성(任存城)에서만 주요 세력이 있었고 여타 지역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완전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연구가 출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삼국사기 백제본기나 신라본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660년 신라와 당나라가 왕도(王都) 사비성(泗布城)과 웅진성(熊津城)을 점령, 의자왕과 왕자 및 대신 등 88명과 백성 12,807명을 잡아간 후 사비성(泗布城)에는 낭장 유인원(郎將劉仁願)에게 맡기고 웅진도독(熊津都督)에는 좌위낭장 왕문도(左衛郎將王文道)로 삼았고 5부(部) 27군(郡) 200성(城)의 지배는 지역내에서 뽑은 거장(渠長)으로 통

치하였으니 전 백제 영토를 신라(新羅)와 당(唐)이 완전히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1년간 왕(王)만 없었을 뿐이지 백제 유민의 정서로는 백제는 계속 존재해 왔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도침(道琛)이나 복신(福信)의 영향력은 사비성(泗布城)과 웅진성(熊津城)에만 제한적으로 있을 뿐 전 국토에 걸쳐 있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553년(법흥왕 20) 이전에 이미 신라는 아산만에서 죽령으로 잇는 북쪽 경기 지방의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당항성(唐項城·남양)을 비롯한 아산만 해역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도 백제부흥운동사 연구에 있어서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삼국사기, 또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백강(白江) 백사(白沙) 백강지구(白江之口) 등을 비정하면서 660년의 백강(白江), 또는 백사(白沙) 장암(長岩) 등이 663년의 백강(白江) 백사(白沙) 백강지구(白江之口) 장암(長岩)과 일본 서기에 나오는 백촌(白村) 또는 백촌강(白村江)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견강부회(牽強附會)라 할 수 있다.

여지도서에서 보면 장암(長岩)은 조선조 때까지는 서천군 남부면 장암리(長岩里·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길구지)가 있고 백사(白沙)는 서천군 남부면 백사리(白沙里·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로 서로 연결해 있다.

따라서 신라본기 문무왕편 663년에 나오는 백사(白沙), 기벌포(技伐浦), 지벌포(只伐浦), 장암(長岩), 손량(孫梁)도 모두 같은 장소에 틀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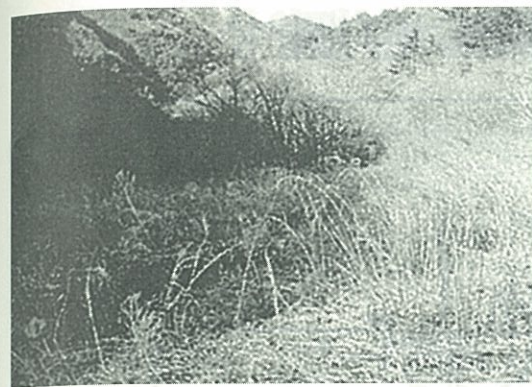
넷째, 663년 신라본기 문무왕 하편에 문무왕

(文武王)과 유인원(劉仁願), 손인사(孫仁師)는 군량을 싣고 웅진강(熊津江)으로부터 백강(白江)으로 나와서 주류성(周留城)으로 가다가 백사(白沙)에 이르러 백강(白江)에 머무르고 있는 왜선(倭船) 1,000척을 맞아 모두 쳐부수었다는 기록으로 보더라도 백강(白江)이나 백사(白沙)는 그 어느 한 곳이라거나 타지방으로의 비정(比定)은 타당치 않다.

다섯째, 663년의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하편에 「南方已定廻軍北伐任存一城」의 기록에 따라 주류성(周留城)은 무조건 임존성(任存城) 남쪽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주류성(周留城)이 남쪽에 있었다면 회군(廻軍)이란 기록이 타당치 않은 것이다. 회군(廻軍)이란 어느 위치에 있다가 다시 원위치 지역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삼국사기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같은 시기에 있었던 같은 내용도 백제본기와 신라본기 열전 등에 나오는 내용이 서로 크게 다른 것을 볼 때 거시적으로 파악해야지 미시적으로 파악, 지명(地名) 하나를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면 660년 백제가 망하고 당나라로 잡혀가는 사람이 백제본기에는 왕자 및 신하 88명과 백성 12,807명이라 한 반면 열전 김유신 편에는 신료 93명과 군사 20,000명으로 되어 있고 유인원(劉仁願)과 유인케(劉仁軌)의 직책에도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고 663년에 손인사(孫仁師)가 데리고 오는 당나라 증원군이 백제본기에는 7,000명이라 하고 신라본기에서는 40만 명이라 하였으니 어느 미세한 기록 하나로 전체를 파악하는 오류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군왕골(君王谷), 60년대까지 5~6호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고 윤용근(63세)씨가 증언했다. 멀리 성안골이 보인다.

3. 結論

필자는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지인 주류성(周留城)이 임존성(任存城)과 함께 충남 서북부에 위치해 있었다면 서산, 태안 지방이 이와 결코 무관한 독립된 지역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생각을 펼쳐버릴 수 없었다.

서산은 마애삼존불을 비롯한 여러 유적과 유물들이 있고 이러한 유적과 유물들은 상왕산(象王山=伽倻山)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유물을 만들었던 중요 세력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깊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백제가 온조와 비류 등 형제가 따로 나라를 세우고 백제와 비류백제 등 두 개의 이름으로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그 중의 하나인 비류백제의 후예인 상왕(象王)이란 사람이 도읍(都邑)을 일시 이곳으로 옮겨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 아닐까도 한때 생각해 본 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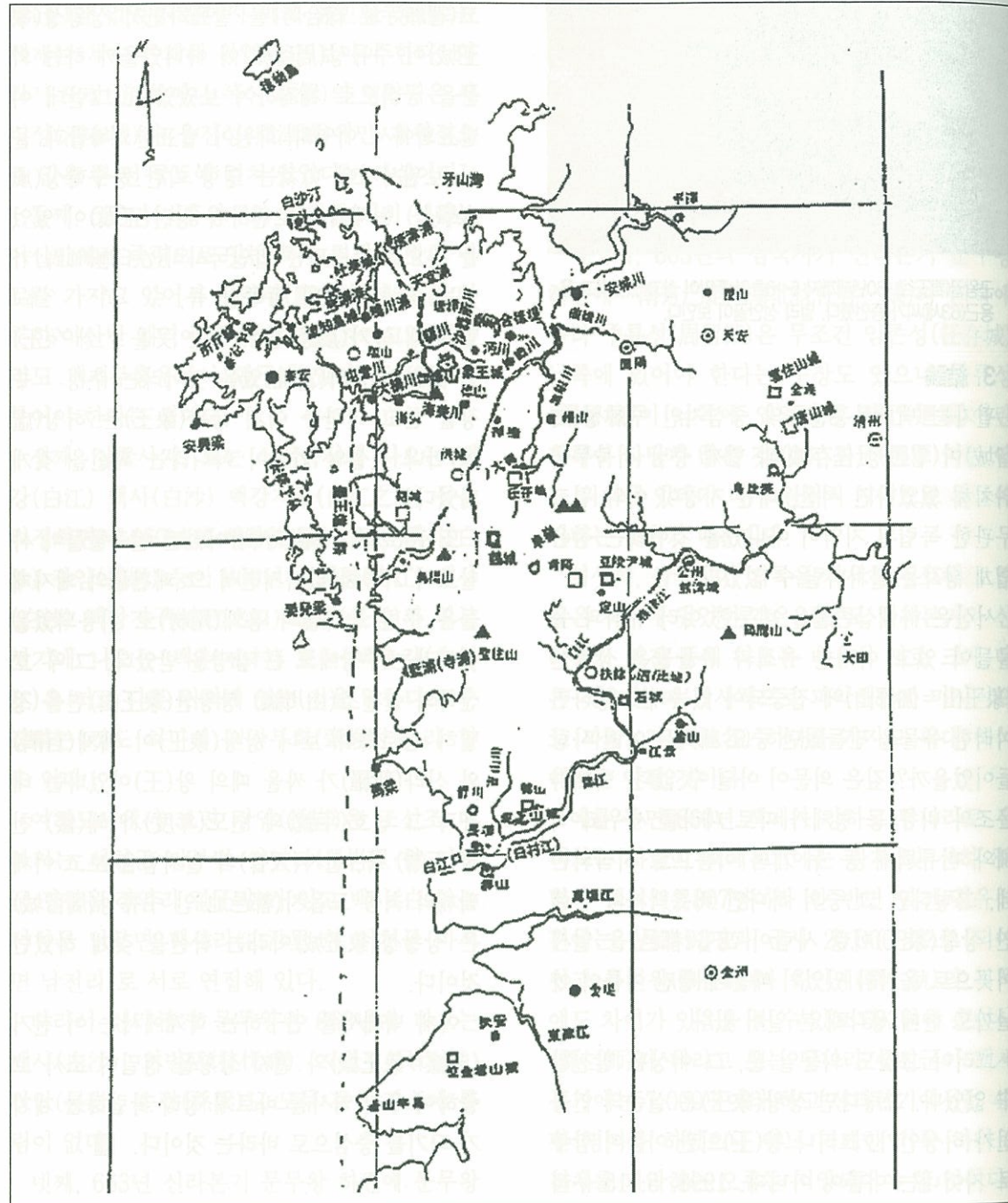
그러나 그것도 의문일 뿐, 그 이상은 발전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상왕(象王)은 실존의 인물인가 허상인가. 그러나 왕(王)이란 이름이 함부로 지어내는 이름이 아니다. 1998. 5. 15 우리

서산향토연구회 월례 발표회가 보원사에서 열렸었다. 필자는 이 발표회에서 보원사지 종합고(普願寺址 綜合考)를 발표하면서 상왕성(象王城)이 주류성(周留城)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공식으로 제기하여 보았었다. 그런데 이 발표회에서 이영하 회원이 발표한 '바람과 물이 보원사지에 미치는 영향'이란 풍수학상(風水學上) 논제에서 보원사지 정전(正殿)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국사비(法印國師碑)가 있는 곳에서 보면 동쪽편 즉, 수봉(水峰) 및 현재 농가(農家)들이 있는 곳을 상왕(象王)이 있었던 궁터(宮址)였을 것이라는 주장과 주장을 듣고 더한층 이제 상왕(象王)은 허상(虛像)이나 전설의 인물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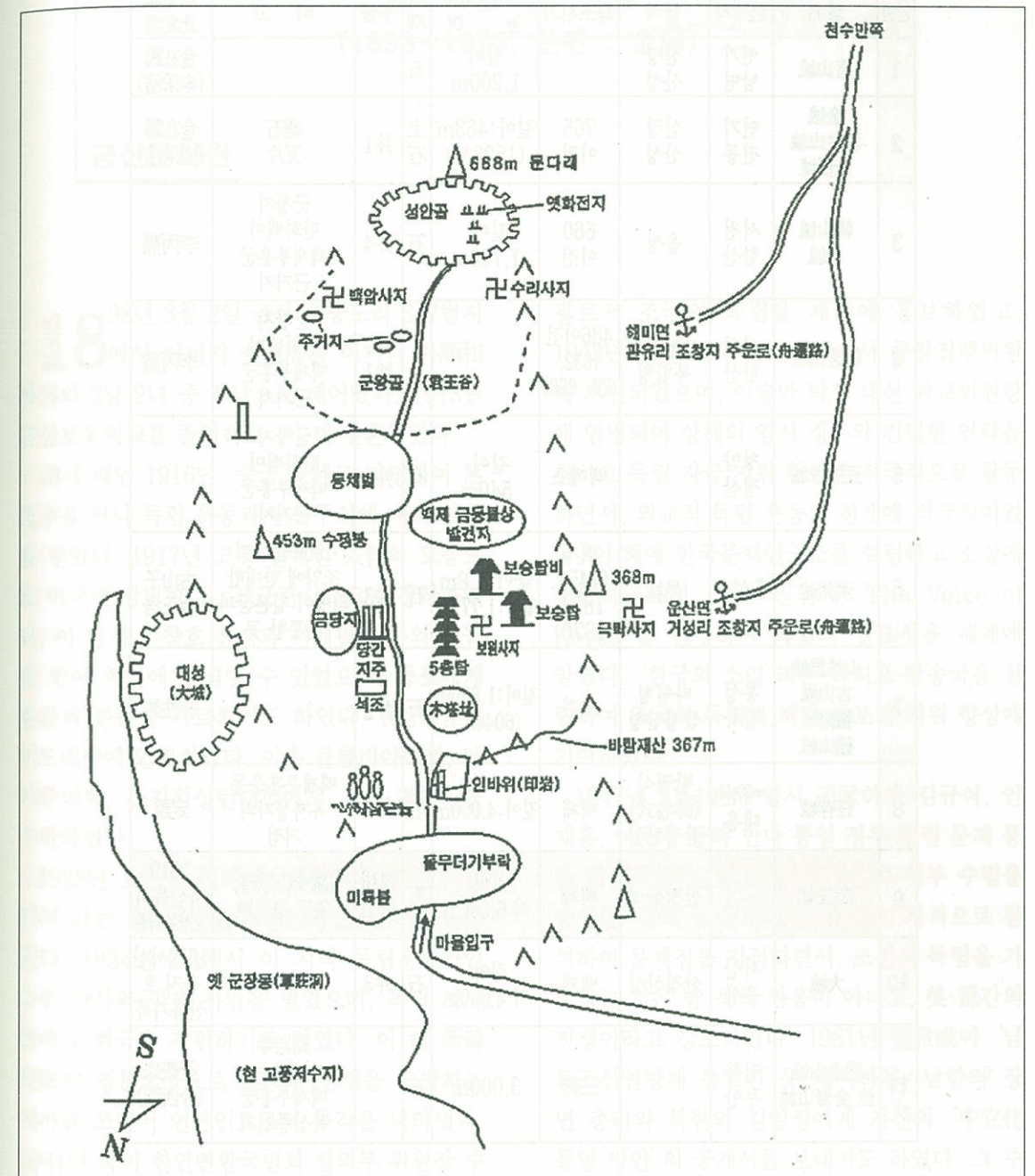
또 100개의 사찰(寺刹)이었던 건축물들이 사찰로서 기능이 없어지면서 그 폐건물의 폐자재들은 주변 농가들의 용재(用材)로 이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에도 큰 감명을 받았다. 그 후 호산록의 산천조(山川條) 상왕산(象王山)편을 정밀히 검토하다 보니 상왕(象王)이 백제(百濟)와 신라(新羅)가 싸울 때의 왕(王)이었다는 내용과 그 년호(年號)와 년도(年度)가 왜(倭) 천정(天靖) 즉, 천지(天智)와 일치함을 보고 이제 백제의 최종 도읍지(都邑地)인 주류성(周留城)은 상왕성(象王城)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이제 백제사를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이 전거(典據=象王城)와 현지 상황을 정밀히 조사 고증하여 우리 역사를 바르게 정리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

百濟復興運動 關係 地方圖



상왕성과 주변도 (象王城과 周邊圖)



지금까지 周留城 또는 관련성으로 비정한 산성의 제원

연번	城名	현재지	형식	축조시기	성벽길이와 높이	축재	우물	비고	周留城 比定者
1	唐山城	연기 남면	산정 산성		길이 1,200m	石			金在鵬 (申采浩)
2	金城 雲住山城 金伊城	연기 전동	산정 산성	765 이전	길이:463m (1528尺)	土石	井1	礎石 瓦片	金在鵬 (申采浩)
3	韓山城 邑城	서천 한산	읍성	660 이전	길이: 1,700m	石	井4	군창지 탄화백미 백제부흥군 근거지	李丙燾
4	乾芝山城	서천 한산	산정산성 복합형	486이전 (632, 655, 660)			井7 池1	군창지 탄화백미 백제부흥군 근거지	李丙燾
5	豆隆尹城	청양 정산		백제초	길이: 540m	石	井3	군창지 탄화백미 백제부흥군 근거지	
6	洪州城	홍성읍	邑城	백제 (1451, 1824, 1870)	높이:4.8m 길이:1,772m	石	井3	1906년 을미 조약에 반대한 의병이 일본군과 전투한 곳	古山子 金正浩
7	山城里城 古山城 驪陽城 鶴山城	홍성 장곡	타원형 산정산성	고려	길이:1,830m (6040尺)	石	井2		朴性興
8	任存城	예산 대흥	발권식 (鉢卷式) 산정산성	백제	길이:4,000m	石	井3	백제부흥운동 흑지상지의 거점	定說
9	象王城	서산 운산	산정산성	백제	길이: 약 6,000m	石	성내 하천	(羅濟戰爭時) 象王 都邑地	1619 서산읍지 호산록기록
10	大城	서산 운산	산정산성	백제	길이: 약 4,000m	石	井3	상왕 축성	1619서산 읍지 호 산록기록
11	遇金山城 位 金岩山城	진북 무안		三韓	3,000m	石		開岩寺 妙巖寺 백제부흥군 복신중언지	全榮來 (今西龍)

충남의 인물①

金 龍 中

(1898~1975, 본관 : 金海)

금산문화원

1898년 3월 2일 금산군 중도리 347번지에서 아버지 金逸澤과 어머니 朴順和 사이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13년 금산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이 해 결혼하였다.

18세 때인 1916년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呂運亨을 만나 독립 운동과 민족주의에 대해 영향을 받았다. 1917년 고향 선배인 宋哲의 도움으로 미국에 망명한 뒤,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하였다. 이 당시 안창호 선생과 서재필 박사의 도움을 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으며, 동포에게 한글과 한문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1927년 하버드대학에 입학하였다. 이후 콜롬비아대학, 남가주대학,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수학하였다.

1928년 보스턴 선데이 신문이 '일본의 黃金통치'라는 논설을 실어 일본의 虐政을 고발하였다. 1934년 LA에서 이 지역 독립운동가인 송철 박사와 함께 사업을 벌였으며, 독립지사들에게 현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 해 新韓民報의 영문국장으로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기사를 쓰면서 언론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1941년 북미 한인연합국민회 섭외부 위원장 주

필로서 조국의 독립을 세계에 홍보하였고, 1943년 대한 민국 국민회의에서 중앙집행위원에 피선되었으며, 이승만 박사 대신 위교위원장에 임명되어 상해의 임시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독립 자금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외교적 독립 운동의 전개에 적극적이었다. 이 해에 한국문제연구소를 설립하고 소장에 취임하였으며, 영문 일간지 'The Voice of Korea'를 간행하여 독립의 필요성을 세계에 알렸다. '한국의 소리'라는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여 조국의 독립과 재미 동포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였다.

1947년 31년만에 일시 귀국하여 김구식, 안재홍, 여운형 등과 만나 통일 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하였다. 1948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승인한 '과리 유엔 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가로막는 것은 남·북의 싸움이 아니고, 美·蘇간의 전쟁이라고 강조하였다. 1961년 金日成이 '남북조선연방제 통일안'을 제시하자, 남한의 장면 총리와 북한의 김일성에게 자신의 '中立化 통일 방안'의 공개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 주

송철 박사의 회고록에 '이승만 박사의 라이벌'이라는

표현은 김용중 선생이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였으며,

연방 정부 통일을 주장하여 용공으로 몰리기도 하였다.

요 내용은 첫째, 남북한간의 연락부 설치, 둘째, 중립국에서 남북 회담 설치, 셋째 자유 선거에 의한 제헌 국회 창설과 한국 정부 수립, 넷째, 유엔과 인접 국가들이 보장하는 중립 국가 협정 체결 등이다.

이상과 같이 그의 활동은 다소 과격해 보일 정도였으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절대 충성심을 살펴볼 수 있다. 냉전 이데올로기가 극복되지 못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일 조국의 달성을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조국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방과 건국의 시기에 훈장을 받지 못하였으며, 후에도 추서되지 못하였다. 해방된 뒤에는 최고 통치 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과의 의견 대립으로 직접 국정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송철 박사의 회고록에 '이승만 박사의 라이벌'이라는 표현은 김용중 선생이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였으며, 연방 정부 통일을 주장하여 용공으로 몰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 의식은 당시에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파로 몰려 말년을 외롭게 마감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금산의 인물 중 1910년 경술국치 당시 순국 자결하여 항일 순국의 단서를 제공하였던 홍범 식 군수의 아들 홍명희는 해방 이후인 1948년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지도자 연석회' 시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안을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순수한 민족주의자로 민족적 양심을 대표하였던 홍명희의 사상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김용중 역시 통일 조국을 주장하다가 이승만 대통령과의 정책 대립으로 이어졌고, 해방 이후 국정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1957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병원에서 사망한 그는, 통일 조국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하면서 화장하여 뼈를 휴전선에 뿌려 주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현재 7백의총 옆 금성면 의총 1리의 선영에 모셔져 있으며, 묘 앞에는 비를 세워 뜻을 기리고 있다.

〈자료 제공: 김영보(김용중 선생의 딸, 전 금산여고 교장, 현재 서울 거주), 김성수(손자, 현재 금산군 중도리에서 유치원 경영)〉 ■

충남의 인물②

매죽헌 성삼문 선생 (梅竹軒 成三問 先生) 약사(略史)

조치원문화원

성삼문(成三問)의 자(字)는 근보(謹甫)요 호(號)는 매죽헌(梅竹軒)이다. 본관(本貫)은 창녕(昌寧)이며, 태종(太宗) 18년(1418년), 그의 외가였던 홍성 노은동(洪城 魯恩洞)에서 무관(武官)인 승(勝)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출생(出生)할 때 하늘에서 낳았느냐고 묻기를 세 번 들었다 하여 삼문(三問)이라 이름을 지었다.

세종(世宗) 20년(1438년), 생원(生員)으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하위지(河緯地)와 함께 급제(及第)하였다.

세종(世宗) 29년(1447년), 문과중시(文科重試)에 장원(壯元)하였다.

집현전학사(集賢殿學士)에서 집현전수찬(集賢殿修撰) 직(直) 집현전(集賢殿)을 거쳐 왕명(王命)으로 신숙주(申叔舟)와 함께 예기대문언독(禮記大文諺讀)을 편찬하였다.

경정관(經筵官)이 되어 항상 세종(世宗)을 가까이 모셔 충애를 받았으며 왕(王)과 세자(世子)의 자문(諮問)에도 응하였다.

세종(世宗)께서 언문청(諺文廳)을 설치하고 집현전 학사(集賢殿學士)들에게 훈민정음(訓民

正音)을 제정하기를 명하거늘, 1440년부터 1443년 완성을 보아 송포(頌布)되기까지 만 5년간(滿 五年間) 성삼문 선생(成三問先生)께서 한글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중국성음(中國聲韻)과 불가분의 관계를 알고자 옛날 교통이 불편함에도 13번이나 왕래한 것은 인내심과 끈기 있는 집념으로 요동(遼東)으로 귀양 온 한림학사(翰林學士) 황찬(黃瓚)과 면담하여 음운(音韻)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당시 30여 세의 젊은 학자로 다른 집현전 학사보다 뛰어난 재능(才能)이며 중국어(中國語)도 남달리 능하였다.

세종 말년 중국 사신(中國使臣) 예겸(倪謙)이 우리 나라에 왔다. 그는 특히 시(詩)의 조예가 깊어 신하 중에 당할 사람이 없는지라 세종(世宗)은 성삼문과 신숙주에 명하여 만나게 하였고 사귀어 본 예겸(倪謙)은 성삼문과 형제지의(兄弟之誼)를 맺었다.

예겸(倪謙)은 시를 모아 요동편(遼東編)이라는 책(冊)을 엮었으며 발문(跋文)은 성삼문 선생이 지었다. 예겸(倪謙)이 다녀간 4년 후(四年後), 그의 제자인 장영(張寧)이 사신으로 나왔

었으나 성삼문은 이미 몰(沒)하신 뒤라 소식을 들은 장영(張寧)은 몹시 섭섭해 하였다. 성삼문은 생전에 대문장가(大文章家)로 높은 명성을 떨쳐 있었다.

문종(文宗)은 재위(在位) 2년에 승하(昇遐)하시고 단종 원년(端宗元年)(1453년), 수양(首陽)은 야욕을 품고 김종서(金宗瑞), 황보인(皇甫仁) 일파를 죽인 다음 영의정(領議政)에 사병책(史兵策) 내외 병마도총사(內外 兵馬都總使)가 되어 정권(政權)과 군권(軍權)을 장악(掌握)했다.

단종(端宗)은 즉위(即位) 3년(1455년) 6월 2일에 불안(不安)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양위할 뜻을 전하고 국새를 수양에게 전수(傳受)하여 수양(首陽)은 세조(世祖)가 될 때 예방승지(禮房承旨)(국새를 받치는 임무)인 성삼문이 치밀어 오르는 울분에 자신도 모르게 통곡하며 국새를 전하자 수양(首陽)은 독서린 눈초리로 한참 성삼문을 쳐다봤다. 단종(端宗)은 어린나 이로 상왕(上王)이 되셨다.

그러나 그해 겨울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이개(李塏), 하위지(河緯地), 류성원(柳誠源), 유응부(兪應孚) 등 중심이 되어 성승(成勝)(성삼문의 부)과 박중림(朴仲林)(박팽년 부), 윤령손(尹鈴孫), 김질(金質) 등 단종(端宗) 복위(復位)에 기수(旗手)로서 협모(協謀)하였다. 세조(世祖) 2년(1456년) 6월 1일, 세조(世祖)가 상왕(上王) 단종(端宗)을 모시고 중신(重臣)을 모아 창덕궁(昌德宮) 광정전(廣庭殿)에서 명(明)나라 사신(使臣) 윤봉(尹鳳)을 초대하여 연회를 열기로 했다. 연회석의 그 기회(機會)에 세조(世祖)와 한명회(韓明澮), 권남동 일파(一派)를 죽이기로 했으나 상왕(上王)은 연회석에

불참케 하고 운검(雲劍)을 갖기로 한 성승(成勝)(성삼문의 부)과 유응부는 운검(雲劍)을 못가지게 되자 기회(機會)를 놓치고 다시 후일(後日)을 기다려 거사(擧事)하기로 했다.

협모(協謀)했던 김질(金質)은 성사가 안될 것을 믿고 장인 정창손(鄭昌孫) 우찬성(右贊成)에게 알려 6월 2일 세조에 보고하였다.

세조(世祖)는 모의에 가담한 연루자를 모조리 잡아들였다.

세조는 주모자 성삼문(成三問)과 김질(金質)과 대질(對質)시키고 “내복을 먹고 무슨 염치로 배반(背反)하느냐?” 묻자 성삼문은 “나으리의 복을 먹은 바 없소”하고 대답하자 세조는 “전에 네가 나에게 상소시(上疏時) 상소문(上疏文)에 신(臣)이라 썼거늘 상감이라 하지 않고 나으리라 하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하고 노(怒)하여 묻자 성삼문은 “상소문(上疏文)을 보시오. 쓴 일이 없소.” 세조는 상소문을 가져오라 하여 보니 신(臣)자를 쓰지 않고 클거(巨)자를 쓴 일이 밝혀지자 성삼문은 “상왕(上王)이 계시거늘 나으리는 나를 신하(臣下)로 삼는단 말이요?” 하자 세조는 극도(極度)로 대노(大怒)하였다.

세조(世祖)때 받은 녹봉은 월별 표시(月別表示)로 별실에 쌓여 있었다.

세조는 무사(武士)에게 명하여 첩편(鐵片)을 불에 달구어서 친(親)히 폭락 형(刑)으로 엄국(嚴鞠)함에 새빨간 첩편(鐵片)은 다리와 팔을 뚫고 베고 하였으나 이것도 모라자 불에 달군 쇠젓가락을 배에 당근질하니 피와 기름이 지글 지글 불에 탔다. 그러나 성삼문은 안색(顏色)이 불변(不變)하고 태연히 쇠가 식었으나 다시 달귀 오라 하니 “형벌(刑罰)이 과연 참혹하구나”

하였다.

결국 군기감(軍器監) 앞에 6월 8일 거열(車裂)의 극형(極刑)을 받을 시(時) 세조는 “당대 지란신(當代之亂臣)이요 후세지충신(後世之忠臣)이라” 하였다.

성삼문(成三問)은 요동 왕래시(遼東往來時)에 중국의 주(周)나라 충신(忠臣)인 이제묘(瘝齊廟) 앞에서 ‘당년고마감언비(當年叩馬敢言非) 대의당당일월휘(大義堂堂日月輝) 초목역침주우로(草木亦沾周雨露) 괴군유식수양미(愧君猶食首陽薇)’라는 시(詩)를 읊었다.

성삼문은 1418년에 태어나 1456년에 36세의 짧은 생애(生涯)로 사지가 찢긴 채 이슬로 사라졌다. 형장(刑場)으로 끌려갈 때 충절(忠節)의 시(詩)를 아래와 같이 읊었으며 그가 남기고 간 업적과 교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거열시음(車裂時吟)

격고취인명 (擊鼓催人命)

회두일욕사 (回頭日欲斜)

황천무객점 (黃泉無客店)

금야숙수가 (今夜宿誰家)

울리는 저 북소리 목숨을 재촉하는데

머리를 돌이키니 서산에 해 저문다

황천 가는 길엔 주막도 없다던데

오늘밤은 뉘 집에서 자고 가리

식군지식 의군의 (食君之食 衣君衣)

일사고지 충의재 (一死故知 忠義在)

소지평생 막유원 (素志平生 莫有遠)

현릉송백 몽의의 (顯陵松柏 夢依依)

임의 밥 임의 옷 먹고 입으며 (品食)종유 (3)

일평생 먹은 마음 변할 줄 있으랴 (15)

이 죽음의 충과 의를 위함이기에

顯陵(문종의 능)

현승의 푸른 송백

꿈속에도 못잊혀라

※ 기소(基所): 성삼문 부자의 사지(四肢)를 전국에 끌고 다니며 전시하였다가 묻은 곳이다.

(1) 서울시 노량진 야산에 성씨지묘(成氏之墓)라는 표석이 있으나 성승과 성삼문 시체를 분별할 수 없어 한곳에 모시어 묘를 씀.

(2) 충남 논산군 가야곡면 양촌리에 묘가 있음.

(3) 부친 성승 묘는 홍성에 있음.

(4) 성삼문은 부친 성승과 아우 삼빙(三聘), 삼고(三顧), 삼성(三省)과 아들 원(元), 맹담(孟膽), 맹평(盟平), 맹종(孟綜), 9인 가족이 전멸되고 다만 따님 한 분이 박씨가(朴氏家) 박호(朴壕)로 출가하였으며 젓먹이 막내아들을 죽일 때 죄명(罪名)도 모르고 죽는 아들을 보고 눈물을 비로소 흘리셨다 한다.

(5) 성삼문 부인은 관비가 되었으나 세조 모르게 부(夫)의 신주(神主)를 만들어 제사하다가 죽게 되었으며 인왕산중(仁王山中)에 매안(埋安)하였거늘, 산(山)이 장마로 무너져 신주(神主)가 출현(出現)되자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선생의 상소로 외손(外孫) 박호(朴壕)의 자손(子孫)이 신주를 봉안(奉安)하였으며 부인(夫人)의 묘(墓)는 외조부(外祖父) 박공담(朴公檀) 묘 부근에 모셨다.

(6) 유품(遺品)

(가) 경북 창령군 대지면 맥산리 물계서원(勿溪書院)에 친필 목판(親筆木板)이 보존되어 있다.

(나) 친필 족자(親筆簇子)로 충남 연기군 금남면 달전리 봉사손 성하진 보존 글의 내용은 국은미보 유쌍수(國恩未報 有雙淚).

(다) 홍성 노은동의 록운서원(錄雲書院), 노량진의 민절서원(愍節書院) 영월의 창절서원(彰節書院), 의성의 충렬사(忠烈祠), 창령의 물계서원(勿溪書院) 연산의 충곡서원(忠谷書院), 동학사 경내의 숙묘전(肅慕殿) 등에서 재향하고 있다.

(라) 숙종(肅宗) 17년(1691년)에 관직(官職)이 복위(復位)되고 동 24년(1698년)에 단종(端宗)의 복위(復位)와 사육신 추장(死六臣 追裝)의 식전(式典)이 거행되며 영조(英祖) 34년에 추증(追贈)되고 충무공(忠武公)의 시호(諡號)를 내림.

충신 통정대부 승정원 우부승지 증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경연 의금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지 춘추관 성균관사 세자 좌빈객 오위 도총부 총판 시충무공 성삼문

(忠臣 通政大夫 承政院 右副承旨 贈資憲大夫 吏曹判書 兼 知經筵 義禁府事 弘文館 大提學 藝文館 大提學 知 春秋館 成均館事 世子 左賓客 五衛 都總府 總管 諡 忠武公 成三問)

(마) 한말 풍운(韓末風雲)이 험악(險惡)하여 외국 세력(外國勢力)으로 사회가 문란(紊亂)해지자 고종(高宗)께서 심히 근심

하시고 침수(寢睡)하지 못하시어 각부 대신들을 매일 저녁에 한 사람씩 불러 말동무를 삼으셨다. 그 때 달전 출신인 관내부 협변신 성기운(達田 出身人 官內府 協辦臣 成岐運)의 차례가 되어 입궐하였다.

고종께서 선대(先代)의 잘못이 있어 내대에 와서 나라의 비운(非運)에 이르니 아마도 사육신(死六臣)의 방손(傍孫)으로 봉사손(奉祀孫)을 정하여 제사를 받도록 윤음(綸音)하시와 성기운(成岐運)께서 인제(仁悌) 성희(成禧) 문두공(文斗公) 생육신 성담수(生六臣 成聃壽) 부자(父子) 두문전거지(杜門轉居地)인 거주자(居住者) 달전리 족후손(성삼문의 당숙(堂叔)의 자손) 성주영(成周英)씨(현 성하진 조부)를 봉사손(奉祀孫)으로 광무(光武) 5년(1901년) 12월에 상소(上疏)와 장예원(掌禮院) 경신(卿臣) 남정철(南廷哲)께서 광무 5년(1902년) 12월에 입안(立案)되어 어명(御命)으로 광무 7년(1903년)에 사우(祠宇)를 건립하고 신주(神主)를 성삼문 외손택(外孫宅) 홍성(洪城)에서 이안(移安)하고 매년 회진(諱眞)(陰 6월 7일)에 향사(享祀)하다.

충의(忠義)는 고려의 왕조(王朝)를 위하다가 선죽교(善竹橋)에서 숨진 포은(包銀) 선생에 비하여 몇 배나 무서운 형벌(刑罰)을 받아가면서도 그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은 인간으로서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일로, 이조 500년을 통해서 추모(追慕)를 받았으며 실로 그의 충절은 독야 청청(獨也靑靑)하고 있다. ■

충남의 인물③

민족 시인 신동엽

부여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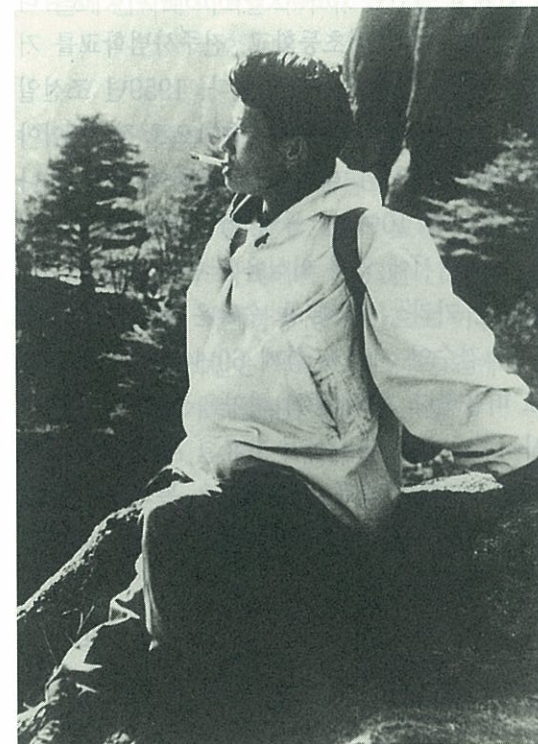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이곳에는 우리 한국 문학사의 빛나는 정점에 도달했던 민족 시인인 신동엽(申東燁) 시인의 생가가 있다. 바로 부여 군민회관 뒤쪽, 부여 천주교회 옆에 있는 아담한 기와집이 시인의 생가이다. 이 생가는 1985년 복원되어 1989년 동학혁명이 일어나던 해에 태어난 시인의 아버지 신연순옹이 1990년 10월 작고할 때까지 홀로 지켜왔다.

한때 친척에게 팔렸던 생가를 다시 사들이고, 사재를 들여 복원한 시인의 부인 인병선 여사는 '신동엽 생가'라는 시를 지어 이 생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읽는 이의 가슴이 저리도록 밝혀 놓았다. 지금 이 시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으로 유명한 신영복 교수의 글씨로 새겨져 생가 마루 위 문설주에 걸려 있다.

우리의 만남을
헛되이
흘려버리고 싶지 않다
있었던 일을
늘 있는 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당신과 내가 처음 맺어진
이 자리를 새삼 꾸미는 뜻이라

우리는 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살며 있는 것이다.





신동엽 시인은 1930년 8월 18일 이곳 동남리에서 태어나 부여초등학교, 전주사범학교를 거쳐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19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필명 석림(石林)으로 장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입선하여 문단에 나왔다. 그는 10여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면서 토착적 정서에 역사 의식을 담은 '아사녀', '껌데기는 가라', '금강' 등 수많은 문제작을 발표하여 김수영 시인과 함께 60년대 시단의 대표로 떠올랐다. 특히 동학 혁명을 노래한 장편 서사시 '금강'은 당시까지 발표된 시 중에서 가장 긴 4,800행의 작품으로 수많은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과 민족 의식을 일깨운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신동엽 시인은 1969년 4월 7일 서울 동선동 자택에서 간암으로, 39세의 젊은 나이

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신동엽 시인의 죽음은 문단에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 주었다. 시인 박봉우는 "동엽! 우리의 귀중한 동엽! 너를 사랑하는 벗들은, 또 알맹이들은, 안으로 안으로 울고 있다. 우리는 대(竹)와 같이 푸르게 줄곧하게 피어 가며 이 땅의 흙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사랑할 것이다. 아, 동엽! 고요히 영혼을 잠시 쉬어라……."라며 격정적으로 슬퍼하였다. 시인 신동문은 "지리지 못난 이 나라의 시인들이 유행가 가락만도 못한 시를 쓰고 있을 때 그는 진정 하고 싶은 소리를 노래할 수 있었으니, 어찌 그를 녹두장군이라고 말 못하겠는가"라고 말하고 "아아 신동엽이는 죽어서 더욱 위풍당당한 장군이구나"라고 추모하였다. 또한 평론가 구중서는 "그의 헌걸찬 민족 서사시 금강과 함께 그는 자신이 것처럼 사랑하던 모토(母

土)와 형제들의 역사 속에 길이 살아서 흐를 것이다"라고 역시 그의 시를 높이 평가하였다.

신동엽 시비는 부여읍 중심가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604번지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바로 규암으로 건너가는 백제교 입구 왼쪽 술밭이다. 시비가 서 있는 지점은 유서 깊은 사적 제 58호 백제 나성지 바로 옆인데, 시비 남쪽에는 KBS 부여중계소, 동쪽에는 불교전래사은비가 위치해 있고, 서쪽에는 백마강이 흐르고 있다.

신동엽 시비는 1970년 4월 18일 신동엽시비 건립위원회(위원장 구상)에서 건립하였다. 원래 신동엽 시인의 1주기가 되는 4월 7일에 완공하려 했으나 공사가 늦어져 이날 제막된 것이다. 당시 건립비로 모두 26만3천 원이 들어갔는데, 한국문인협회, 시인협회, 펜클럽, 시극동인회, 조선일보사 및 지역 유지들이 후원을 하였다. 시비의 설계는 정건모, 조각은 최석구, 글씨는 박병규가 담당하였다.

시비의 전면에는 대표적 서정시 '산에 언덕에'가, 뒷면에는 구상 시인의 시비 건립문이 새겨져 있다. 이 시비는 충남에서 최초로 세워진 것으로 건립 장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공사를 담당했던 시를 쓰는 젊은 석공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귀가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막식에는 최일남(사회), 구상(식사), 박봉우(시비명 낭독), 김동리(추도사), 박두진(강연) 등 당시 문단의 중진들이 대거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는 민족 시인 신동엽의 위치가 당시부터 확고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에 숲속에 살아갈지어이.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行人아.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네
바람 비었거든 人情 담을지네.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 산에 언덕에 -

신동엽 시인의 묘소는 원래 경기도 파주군 금촌읍 월릉산 기슭에 있는 기독교인 묘지에 있었다. 작고 당시 경황 중에 그곳에 묘를 정한 것인데, 주위가 자꾸 황폐해져 1993년 11월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백제왕릉 남쪽 산으로 이전을 하였다. 신동엽 시인은 작고한 지 24년 만에 고향의 향그런 흙 가슴에 묻힌 것이다. ▣

남산놀이

추석 무렵이면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일가 친척의 부인네들 사이에 '반보기'라는 풍속이 있다. 옛날 부녀자들이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기에 만나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자주 만나 볼 수 없었다. 특히 시집간 딸과 친정 어머니가 서로 보고 싶으나 시집살이가 심하여 말미를 얻지 못할 때에는 중간 지점을 택해서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서 서로 만나 그리운 정을 나누는 '반보기'를 한다. 반보기는 겨우 하나절 정을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보기'가 못되고 '반보기'라고 한 것이다.

우리 고장 여인들도 음력 8월 17일이 되면 서천읍 남산리와 봉남리에 위치한 표고 140m의 남산(영취산)에 올라가 친척 식구들을 만나는 풍습이 있었다.

8월 17일, 추석 뒷마무리가 끝난 후 부녀자가 산 위에 모여 음식을 먹으면서 종일 놀며 즐긴다.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어 호위하기도 한다.

이 날을 위하여 음력 8월 17일 한가위까지는 남정네의 옷을 입고 그 다음날은 본인의 옷을 세탁하고 껌매어 남산에 올라갈 준비를 한다. 이 날은 당시 시집을 와서 친정을 자유스럽게

오갈 수 없었기에 시어머니께서도 간섭하지 않고 당연히 여인들이 나들이하는 날로 여겼다. 시집을 온 후 모처럼의 나들이하는 아낙으로써는 친정 어머니를 만난다는 기대, 그 동안 헤어져 이야기를 못했던 언니를 만난다는 기대, 본인보다 빨리 시집간 어린 시절의 친구를 만나 시집살이에서 참고 참았던 이야기를 원 없이 하고 싶은 기대, 또한 나는 시집가서 이렇게 잘 산다고 말해 주고 싶은 기대가 우리 고장의 여인들을 남산으로 모여들게 하였다고 한다.

음력 8월 17일이 되면 아침 식사를 하고 멀리 한산이나 문산에서 일찍 출발하여 점심 때쯤 도착하고 가까운 남산 주변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정오 무렵에야 남산에 오르곤 하였다. 이날 남산은 여인들이 인산 인해를 이루는데 내려오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이 즐비하여 헤아릴 수조차 없이 남산을 찾는 이가 많았다고 한다.

남산의 정상에 오르면 기약 없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왔기에 서로 아는 이를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돌아다니기에 인파를 이룬다고 한다. 이때 서로 아는 이를 만나면 어쩔 줄 몰라 눈물로

시집간 딸과 친정 어머니가 서로 보고 싶으나

시집살이가 심하여 말미를 얻지 못할 때에는

중간 지점을 택해서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서 서로 만나

그리운 정을 나누는 '반보기'를 한다.

'반보기'는 겨우 하나절 정을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보기'가 못되고 '반보기'라고 한 것이다.

말을 대신하는 모습이 태반이었다. 부둥켜안고 우는 이, 손을 붙잡고 뛰는 이, 별의별 모습이 다 있었다고 한다.

이날 장사치들이 한몫을 보는 데 옛장사의 자지러지는 가위 소리는 슬픔을 나누어 주는 소리며, 산을 오를 때 지친 목을 축이게 하는 1원짜리 냉수 한 그릇은 갈증을 해소하여 그 동안 병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의 체증을 가셔 주게 했다고 한다. 멀리서 친정 어머니, 언니, 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기쁨이 아침밥조차 거르고 세차게 걸어난 여인에게로는 떡장수의 송편, 깨끼 떡은 눈치 보느라 못 먹은 시집살이 빈속을 가득 채워 주었다고 한다.

시집간 딸의 시집살이를 들은 친정 어머니는 병어리 냉가슴을 앓으며 비녀 장수를 찾아 예쁜 비녀 하나 사주고, 사돈댁 시집 못간 아가씨에게 주라고 반질고리 사주며 찢어지는 마음 달래기 위해 서해 바다 내다보며 "참 날씨도 좋구나! 이리다가 비라도 오면 어쩐다니? 어서 내려가자"고 재촉하여 하늘 탓으로 이별을 돌리었

다.

내려오는 길에 남산 주변의 개구쟁이 총각 녀석들 군데군데 새끼줄 걸어 여인들이 넘어지는 모습에 박장 대소하고 기다리다 못해 새끼줄을 양쪽으로 잡고 고기떼 몰 듯하여 여인들을 괴롭히는 모습은 철모르는 총각 녀석들의 객기였다.

당시 시집 안간 처녀들은 땀을 따아 엉덩이 내림은 몸치장의 제일이었고, 꽃짚신에 왕골로 무늬 넣어 아름다움을 더해 자태를 자랑하였으며 여유 있는 집 아가씨는 당혜를 신고 올라가 남산 잔디밭을 밟고 다니었다고 한다.

헤어질 때는 '이별별 자(字)네 설위 마소. 만 날봉 자(字) 또 다시 있네. 명년 8월 17일에 악수 논정(握手論情) 다시 하세'라는 구슬픈 노래를 부르며 다시 재회를 기약하는 유습이 남아 있다. ■

동화제(洞火祭)

동화제(洞火祭)는 약 4백 년 전부터 칠갑산(七甲山)을 중심으로 주변 자연 마을에서 전승되어 왔다. 시원(始源)은 임진왜란 당시 왜적에 대항하기 위하여 화전(火戰)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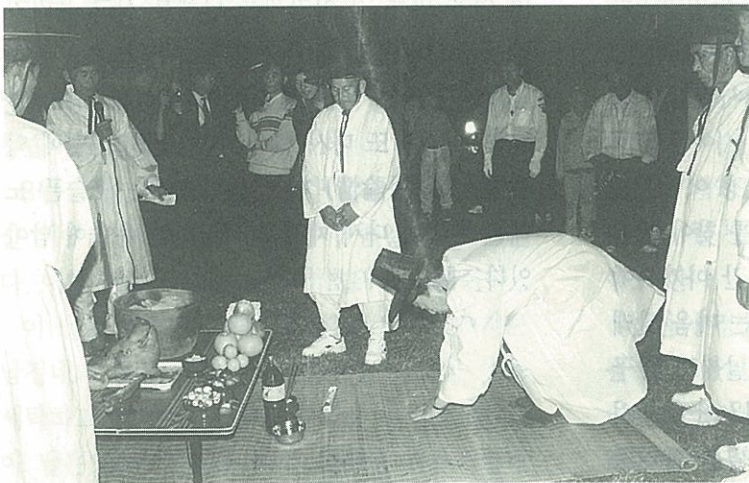
해마다 음력 정월 열나흘 저녁에 마을 사람들은 정성들여 목욕 재계한 다음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씩 베어다가 동아줄로 한 동치로 묶어 동화태(洞火台)를 세운 다음 달이 뜨면 그 앞에서 부락신(部落神)에게 제사(祭祀)를 올리고国泰民安(國泰民安)과 시화년풍(時和年豐)을

소원(訴願)한다. 동시에 모든 부정한 것을 불에 태워 액운(厄運)을 제거하고 마을의 평안(平安)을 빈다. 제사(祭祀)가 끝나면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준비된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으며 흥겨웁게 놀고 이웃 마을과 쥐불싸움을 하면서 대동 단결을 다짐하며 하룻밤을 지새우는 민속 놀이이다.

동화제(洞火祭)의 시작은 농악(農樂)과 함께 용대기(龍大旗), 농기(農旗), 영기(令旗), 오방기(五方旗)를 앞세우고 제관(祭官)과 제물(祭物)을 머리에 인 아낙네와 상송(上松), 하송(下松), 비봉(飛鳳) 등 3개 자연

부락 주민이 나무를 한 짐씩 지고 흥겹게 나타난다. 농악(農樂)이 울리면서 주민들은 지게에 지고 온 나무를 한테 모아 여럿이 선소리에 맞추어 흥겨웁게 동아줄로 묶어 동화태(洞火台)를 만든다.

가시나무 짐을 세우면서 나무 노래를 부르는 데 쌓으면서 하는 소리는 다음과 같다.



후렴:

우여러차 에헤 헤에에헤
산에올라 산나무 평생소녀 대추나무
들에내려 배나무 사월팔일 사시나무
봉화국에 회나무 대낮에도 밤나무
불에불여 행나무 사월팔일 느티나무
불밝혀라 등나무 먹기얼린 떡갈나무
용춤추어 용나무 휘느러져 버드나무
심리절반 오리나무 백양청정 황양나무
열의갑절 스므나무 중기중기 느름나무
한치라도 백자나무 갈기갈기 가락나무
조선에만 호도나무 칼로베어 피나무
남쪽에만 동백나무 목에걸려 가시나무
푸르러도 단풍나무 속비고 대나무
단풍저도 푸른나무 악스런 아구나무
소년시절 영감나무 내편네편 양편나무
씨름하여 지나무

제사(祭祀)

동화태(洞火台) 앞에 정성스런 제물(祭物)을 차린 후 달이 떠오르기를 조용하게 기다린다. 달이 뜨면 먼저 촛불에서 점화한 횃불로 동화태(洞火台) 상서(上瑞)에 불을 올린 후 제(祭)를 드린다.

祭禮順 焚香 再拜 獻爵 告祝

初獻 都化主

讀祝 祝官

亞獻 化主

終獻 村長

축문(祝文)

維歲次○○○正月○○朔十四日○○都化

主○○○敢昭告于

天尊之位前 伏以恭修 歲事于
國泰民安 歲和年豐 松鶴里 五穀豐登
六畜繁成 神基保佑 非無後艱 謹以炳酌
紙薦于神 尚
饗

민속놀이

제사(祭祀)가 끝나면 농악(農樂)을 울리고 춤을 덩실덩실 추며 일 년 열두 달 좋은 일만 있어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하며 동화 주위에서 흥이 나게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지게 가마타기

상송(上松), 하송(下松), 비봉(飛鳳), 3개 부락민들은 지게 2개를 겹쳐 지게 가마를 만들어 한 사람씩을 태우고 선소리에 따라 후렴을 합창하며 동화(洞火) 주위를 원을 지어 돌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지게를 지고 작대기를 치며 춤을 춘다.

지게 가마 타며 하는 소리

후렴:

아이 어허 이이~이이

명덕봉에 쌍룡이 놀고 고무래봉 동이튼다.

갈매봉에 신선놀고 국수봉에 선녀논다.

가세 가세 놀러가세 망월봉에 올라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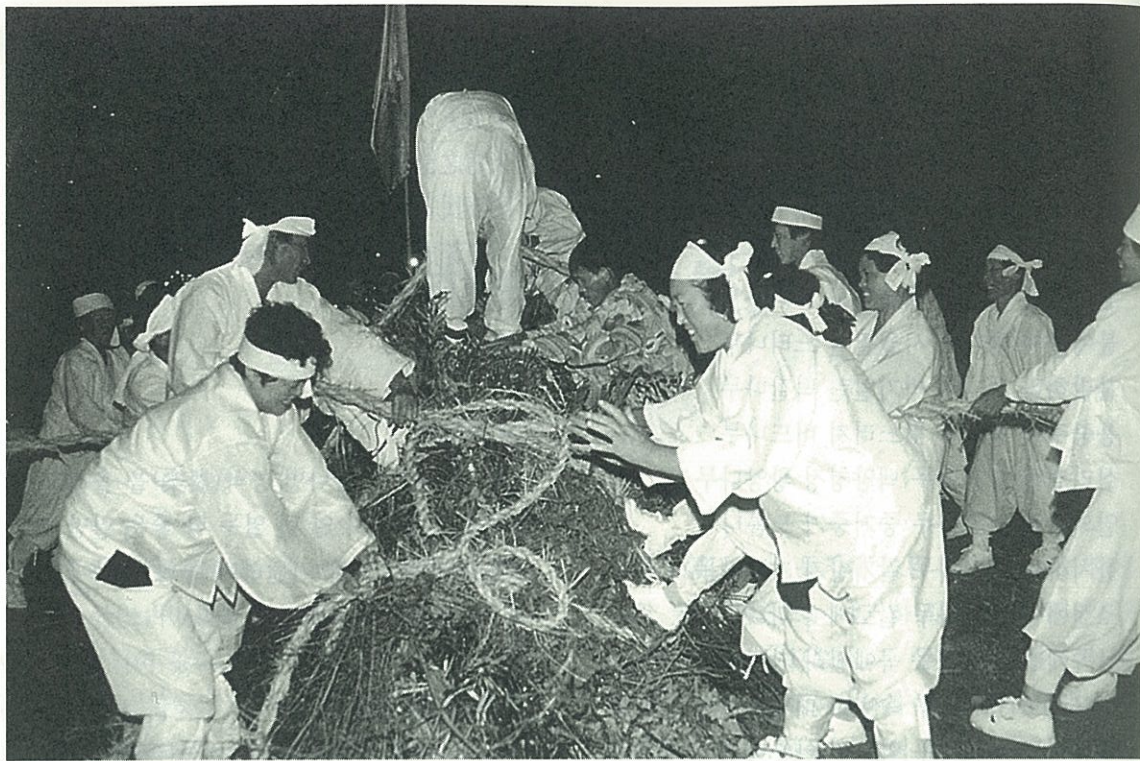
망월봉에 올라가니 초생달이 떠오르네

저 달은 떠서 대장이 되고

견우 직녀성은 후군이로구나

하늘에 은하수를 오작이 다리놓아

견우와 직녀성은 일년일도 만나는구나.



휘장(揮帳) 돌기

지게춤(어깨춤, 지게목발치기, 작대기치기)을 추며 원을 좁혔다 넓혔다 하면서 휘장 돌기를 한 후 자연 부락별(自然部落別)로, 지게로 봉(峯)을 쌓고 이어서 주민 모두가 합쳐서 하나로 지게 봉(峯)을 쌓아 마을의 행운과 충화를 다지며 놀이의 절정을 이룬다.

지게춤 추며 하는 소리

후렴:

아하헤 헤에야 헤헤헤야 에헤헤야
 흥두개 박달나무 비단같은 전나무
 죽어도 살구나 버선끝에 상모나무
 악마구리 복사나무 오목다리 오목나무
 등등에 모가나무 마주섰다 은행나무
 덜덜떠는 사시나무 넓적앉아 줄나무
 말라빠진 살대나무 입맛없다 쭈나무

오자마자 가재나무 입설같은 명조나무
 할수없이 가야나무 시집갈대 가마나무
 빠르기 화살나무 방귀뀌며 뽕나무
 전기상대 수기나무 부끄러워 무안나무

靑陽郡 定山面 松鶴里 洞火祭(도지정 무형문화재 제 9호)는 정초(正初)에 한 해를 앞두고 후박(淳朴)한 주민(住民)들이 소원 성취(所願成就)를 기원(祈願)하는 한편 상송(上松), 하송(下松), 비봉(飛鳳)등 3個 자연 부락민(自然部落民)들의 대동 단결(大同團結)로 마을의 안녕(安寧)을 유지(維持)코자 함이 실시되고 있다. 불을 신성시(神聖視)하고 불의 힘을 빌어 모든 부정(不淨)을 제거(除去)하고자 한 조상들의 삶의 단편을 볼 수 있으며 나무타령, 산타령, 지게춤 등을 발굴 보전되고 있다. ■

결성 농요

1. 결성 농요의 유래와 발굴

충남 홍성의 결성 지방은 유서깊은 곳으로 일찍이 선사 시대부터 천수만의 모산만을 중심으로 많은 인류가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가 크게 발달하여 많은 농민요가 전승되어 온 민요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특히 조선 영조때 판소리의 창시자 결성 최선달의 소리들을 그 후예들이 대를 이어 즐겨 부르다가 용호리(장터)에 이주해 온 김창룡 명창이 더욱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여 많은 들소리들을 전해오던 중에 50여 년(왜정시) 전부터 점차 사라져간 농요 어릴렐 상사리, 일카 덩어리, 두렛소리 등 발생지의 결성인들이 다시 발굴하여 제 34회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유명하게 되었다.

1989년 11월 28일, 문화부 문화재 전문위원 이소라(농민요 보존회)씨는 결성 성남 출신 최선달 명창 자료 수집차 황성창, 김청규씨의 안내로 금곡리 최광순, 최용권, 최용환씨 등 모심



는 상사리 소리 등을 채록할 당시부터 발굴이 시작되었다.

결성 농요는 역사가 깊은 결성골의 신금성(神衿城)을 중심으로 금곡천 유역에서 농경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해 오면서 노동요도 같이 발달, 농사의 각 과정에 따라 농요도 다양하게 발달해 내려왔다.

문화체육부 문화재 전문위원 이소라씨로부터 희귀한 소리로 어릴렐상사리와 일카덩어리, 두렛소리(산여·마루·몬들소리)등이 이곳에서 발생된 소리라고 증명되어 더욱 발굴에 힘이 되었다. 그리고 이보람은 들노래들의 유창한 음성

에 흥미를 가졌다. 복원된 이 일 노래는 두레꾼(공동 작업)과 어우러져 일 노래와 농악을 조화하여 흥미로운 일을 하는 민속 놀이이다.

2. 결성 농요의 공연 내용

농민들은 낫갯을 들고 도랭이, 호미, 지게, 가래 등 농기구를 갖추고 두레꾼으로 등장한다.

용신제: 동리 입구 대로변에 용대기를 세워놓고 좌상과 함께 간단한 예로 고사를 한다.

모내기: 머슴들이 일제히 무논에 들어가서 한 줄로 서서 모를 심고 소리를 하며 허리를 펴고 춤을 추며 계속 심는다.

건쟁이: 일꾼들은 아시매기 전에 잡초인 돌풀 등을 훑쳐 손질한다.

뚝매기: 갑작스런 폭우로 냇둑이 터져서 시급한 뚝매기를 가래로 세모 가래질을 한다.

아시매기: 호미로 풀을 매며 흙을 파서 뒤엎는 매우 힘이 드는 기본적인 일이다.

설참: 참이 되면 아낙네들이 술과 안주 등 먹거리를 가지고 나와서 다같이 먹으면서 한바탕 지게상여 놀이를 한다.

만물: 마지막 잡초를 매는 장면인데, 풀을 뽑으며 손질하고 피사리도 한다.(두 벌 맨 후에 만물하는 경우도 있다.)

일을 마치고 행진: 동리를 향해 돌아오거나 들마당까지 좋게 좋소의 흥미 진진한(노래) 소리와 함께 춤추며 행진한다.

한마당놀이: 모든 작업이 끝이 나고 피로를 풀기 위해서 샷쫄춤과 동시에 신바람 나는 춤을 추며 무동으로 꽃을 세워 놀이가 한마당 벌어져 결성 농요의 극치를 이룬다.

3. 결성 농요의 특성 '얼렐렐렐상사리'

결성 지방에 보급 전수되어 오고 있는 결성 농요 모심기 노래의 후렴구 '얼렐렐렐상사리'는 결성 농요의 특성을 대표하고 있다.

이에 '얼렐렐렐'과 '상사리', 두 단어구의 원형을 찾아 이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명한다. 후렴의 전구(前句) '어러얼렐렐'은 국어 사전에서는 '얼렐렐렐'로 후렴의 후구(後句) '상사리'는 '상사디'로 나와 있다. 전후구(前後句)를 분석하면 전구 '얼'은 '어르신'이고 후구 '상살이(上白是)'는 이두 '상사리'이다.

얼은 정신, 혼, 넋을 가리킨다.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재에서는 '얼'에 해당되고 후구는 한



자 표기(漢字表記)로 상사리(上白是)에서 그 의미 내용이 구한말 때 편지 끝에 쓰던 용어이니 '높으신 어른에게 사뢰다', '어르신에게 아뢰니다' 등의 용어구(用語句)이니 내용을 쉬 파악할 수 있다.

4. 결성 농요의 국내외 공연

'91년 10월 6일 서울 대학로에서 처음으로 발표회를 가진 후 음악 전문가와 민속학 자문위원들의 대호평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갑자기 유명하게 알려진 결성 농요가 충남의 대표로 '98년 10월 8일 제 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KBS TV 국악춘추 공연을 비롯하여 국내 중요 행사시마다 출연하였으며 민속촌에서 개최한 제 1회 아시아 태평양 10개국 민족음악



학회 및 전통음악 축제의 국제 행사에 이어 지난 97년 일본의 초청으로 10월 9일부터 출발하여 11일 오전 2시에 일본 애지현 문화회관에서, 2차는 장야에서 우리 한국과 필리핀, 중국, 그리고 일본 순으로 입장시부터 각국을 대표하여 선두에서 리드하여 영광을 차지하였고, 흥미로운 민속 놀이로 수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입장에 이어 우리의 용신제부터 모심기와 건쟁이, 뚝매기, 아시매기, 설참놀이와 만물을 마치고 마을로 행진하며 한마당 놀이로 흥에 넘치는 신바람나는 샷쫄춤과 무동의 꽃을 세워 하루의 일을 마치고 모든 피로를 씻는 한바탕 놀이로 극치를 이룬다. (약 30분간 공연)

국제민속예술페스티벌(제 39회 민속예술대회)

일본 초청 공연 1차 출연자는 황성창, 최광순, 최양섭, 장성철, 최광진, 이선중, 이대진,

김종덕, 박종해, 김석동.

2차 출연자는 조광성, 최광순, 최양섭, 최홍식, 최광득, 최용식, 장익태, 김길수, 김계환, 김종규 씨 등이 참석하여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문화 선양 사업을 하고 돌아왔다.



5. 결성 농요 가사

① 만물시 산여 소리

만물은 마지막으로 눈을 매는 것으로 만물 소리는 이 지방의 아주 특이한 소리(산여, 종다, 두레, 마루, 멘생이 몬들소리)로 결성 지방에서 사랑할 수 있는 소리이다.

(소리) 반이나 — 넘어 — 이어
늘어 늘어 — 이어, 늘어 어헤이
종다 열씨구, 절씨구

- 울타리 꺾으면 나온다더니 행랑채 부서도 안나온다.
- 저울산 장수바위야 신금성 내력이나 알려다오.
- 성호나룻개 굴파는 아낙네들 콧노래가 구성지다.
- 어헤, — 이어.

이이 — 헤헤 중부는 청처짐하고 양베리는 하위하위허게.

이이 — 에헤 헤에 헤헤 헤에이이여

이이 — 헤헤 파랭이 꼭지에 기화를 쫓고
해우레기춤을 너울너울 추네.

이이 — 에헤 헤에 헤헤 헤에이이여

이이 — 헤헤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를 마라.

이이 — 에헤 헤에 헤헤 헤에이이여

② 몬들산여소리

(메) 이히 헤헤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고구서 웃지를 말으라.

에헤.

인생칠십은 고래희요. 무정세월은 양유파라.

③ 어렷렷 상사리 모심는 소리

(긴소리) 어렷렷 상사리, 어렷렷 상사리,
헤헤헤이여루 상사리여

- 한일자로 들어서서 입구자로 심어보세.
- 스마지기 논땀이가 반달만큼 남았구나.
- 반이되어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 이논땀이 얼른심고 장구땀이로 넘어가세.
- 오늘 해도 다갔는지 골목골목 연기난다.
- (짧은소리) 어렷렷 상사리, 어렷렷 상사리
- 아까심은 붙여 심고, 어렷렷 상사리, —
- 어덕 밑은 떼어 심세, 어렷렷 상사리, —
- 금년 농사도 대풍이요, 어렷렷 상사리, —
- 싸게 심고 놀어보세 놀어봐, 어렷렷 상사리, —



향천사와 천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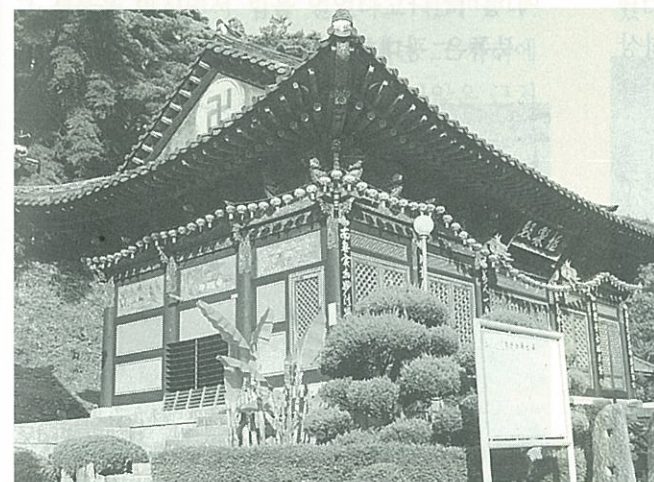
— 향천사의 창건에 얽힌 전설 —

충남 예산군 예산읍의 진산인 금오산, 그 리고 예산군 신암면 종결리의 서드물다리와 그로부터 물길따라 올라가서 예산읍 산성리의 무한산성 근처 주교리까지를 잇는 하천과 그 연변은 예산의 고찰 향천사를 창건하던 백제시대의 전설을 담고 있다.

예산읍 향천리에 위치한 향천사(香泉寺)는 백제(百濟) 의자왕 16년에 의각대사가 창건했는데 그는 키가 7척이나 되는 건장한 스님이었다. 그는 불도를 닦은 지 오래여서 사려가 깊고

불도가 아닌 일은 행하지 않았다.

그 무렵 신라와 백제는 국경선에서 충돌이 잦아서 날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계속되었다. 그럴 때마다 대개는 백제가 승리를 했는데, 특히 영리한 의자왕이 등극한 뒤에는 백제의 영토가 더욱 넓어져 갔다. 그러나 교만해진 의자왕이 정사를 멀리하고 주색에 몰두하게 되면서 나라는 기울게 되었다. 이를 본 의각대사는 머지않아 백제는 신라의 침공으로 도성에서까지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 의각화상(의각대사를 일컬음)은 일본으로 건너갔다. 백제사(百濟寺)라는 절에 잠시 머무른 뒤 당나라로 들어가 불도를 닦기 시작했다. 당나라에서 5년간 불도에 전념한 그는 백제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때 그곳 당나라의 스승이 의각화상에 불경과 석불을 가져가도록 권했고 의각화상은 그의 뜻에 따라 배에 석불 3053위와 불경 등을 싣고 백제로 향했다. 그리고 그 배는 순탄하게 지금의 신암면 종결리 서드물다리에 닿았다. (지금은 서드물다리에 하천이 흐



향천사(香泉寺)의 극락전



서드물다리 - 멀리 종경리(宗敬里)가 보인다

르지만 그 때는 바닷물이 꽤 깊은 뱃길이었다.)

‘어디에다가 부처님들을 모셔야 할까?...’ 의각화상은 당나라에서 이곳까지는 아무런 풍파없이 순탄하게 왔지만 막상 부처님들을 모실 만한 자리가 없어서 고심하게 되었다. 종경리에서 배를 멈춰 예불을 드린 의각화상은 부처님들을 모실 만한 곳을 찾게 해 달라고 불공을 드리기로 시작했다. 그 때마다 그는 당나라에서 가지고 온 범종을 울렸다.

종소리는 아름답고 은은하게 강촌에 울려 퍼졌다. 이리하여 이 마을을 종성마을이라고 하다가 차츰 종경리로 이름이 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각화상이 불공을 드리기 시작한 지 꼭 석달 열흘이 되는 날이었다. 이 날도 의각화상은 목탁을 두드리며 염불을 외는데 어디선가 금빛 찬란한 금까마귀 한 쌍이 날아와서 의각화상이 머무르고 있는 하늘에서 서서히 동그라미를 그리며 맴돌고 있었다.

‘금까마귀가 나타난 것은 상서로운 징조로구나’ 의각화상은 이렇게 생각하며 불상을 모실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나타날 징조라고 생각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서 금까마귀를 주시했다. 금까마귀는 하늘 높이 솟아 올라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점점 배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더니 다시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지금의 금오산 봉우리에 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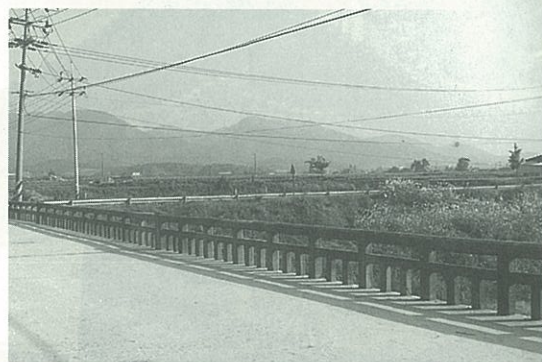
여기서 잠시 금오산을 살펴본다.

태백산에서 이어내린 차령의 정기가 예산읍의 북쪽에서 뭉쳐 금오산을 이루니 높이는 230m쯤 된다. 옛날에는 덕봉산이라 불렀는데 면에서 보면 삼각형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으로서 금까마귀 전설과의 인연으로 금오산이라 이름이 바뀌었고 산꼭대기에 오르면 예산읍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청명한 날이면 동남쪽 저 멀리 계룡산까지도 손바닥 만큼 아득하게 보인다.

서쪽으로는 무한천 건너로 신라의 원술랑이 점령한 후 당나라 대군을 무찌르고 백제 유민들이 영구히 이 땅에 안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전설을 담고 있는 원벌들(오가평야)과 마한 시대에 감계비리국의 백성을 먹여 살리던 삼교 평야와 그 건너 도립공원 가야산의 준봉들이 아름다운 저녁 노을 속에 잠겨든다.

남으로는 백제 부흥군이 침입한 당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끝까지 항전을 한 충렬의 임존성이, 아름다우면서 장엄한 산세를 예당호에 열비친다.

북쪽은 광대한 서들의 옥야(沃野)가 아산호



금오산(金烏山)- 멀리 오른쪽 끝으로 보이는 산(서드물다리에서 종경리 반대쪽으로 바라본 금오산 원경)

와 삼교호가 더불어 곡창을 이룬다. 산 중턱의 용바위는 옛날에는 심한 가뭄이 계속될 때 원님이 이곳에서 기우제를 올리면 비를 내리게 하여 주었고 지금은 매일 아침 많은 시민의 건강을 보살피 주고 있다.

금오산은 예산의 진산이자 그 주민과 더불어 그들 속에 간직되는 마음의 고향이다.

바로 이 금오산에 날아 앉은 금까마귀 한 쌍은 우물터로 내려와 물을 마시고는 오늘날 향천사가 있는 절터에 앉았다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 산을 금까마귀가 살아온 산이라고 해서 금오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의각화상은 금오산 아래에 절을 세우기로 했으나 배에다 싣고 온 불상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운반할 수가 없었다.

의각화상은 궁리 끝에 민가의 협력으로 마침힘센 황소를 빌어 쓸 수 있었으며, 그래서 의각화상은 그 황소를 이용하여 불상과 범종과 불경 등을 운반하였으며 짐이 향천리 샘에 이르자 그 샘에서는 향기가 나는 샘물이 솟았고 황소 또한 그 샘물을 마시면서 힘을 얻었다고 전해 온다. 짐을 모두 실어 나오자 타고 온 배는 그 자리에 가라앉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가라앉은 근처



배는 - 석불을 싣고온 후에 배가 가라 앉았다는 곳으로 지금은 하천이지만 예전엔 배가 드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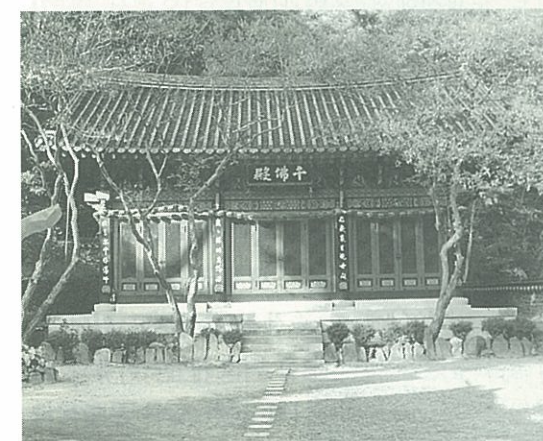


향천사 경내에 있는 천불전 내부의 천불상

를 배논이라고 불려왔으며 의각화상은 향기나는 샘물을 간직한 산자락에 불당을 짓고 절을 창건하였다.

그리고 절 이름을 향기나는 샘을 가졌다 해서 향천사라고 짓고 불당은 여러 천불을 모셨다 하여 천불전이라고 이름하여 오늘에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천불전에 모신 석불 삼천오십삼위는 그 후 조금씩 유실된 것으로 보이며 긴 세월 천불전도 건물이 노후되어서 십여 년 전에 신축하였으며, 그 불당내에 현재는 1035위의 석불이 보존되어 있다. ▣



천불전(千佛殿) - 1035위의 석불을 모신 불당

질갓(陶冠)

현 재 태안 읍사무소의 정문 입구 왼쪽에 많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니, 그 중에는 군수 송관화(郡守宋觀和)의 선정비(善政碑)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송 군수는 문벌이 높은 재상가(宰相家)의 아들로써 15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태안군수로 부임하였다. 그런데 송 군수는 부임 직전에 출발 인사를 하기 위해 외삼촌인 최판서(崔判書)댁을 찾았던 것이다.

이때 최판서는 어린 조카가 군수로 부임하는 것이 매우 대견스런 일이나, 너무 어린 나이이므로 노파심에서 목민관(牧民官)으로서 몇 가지 심득 사항을 익히도록 하라고 타일렀다. 이에 송관화는 자기가 데리고 간 하인을 불러 엽전(葉錢) 5푼을 주며 장터에 가서 짚신 한 켤레, 비 한 자루, 배(梨) 하나를 사오라고 하니 최판서는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속히 떠나라고 하였다.

그가 떠난 뒤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짚신과 비와 배를 사오게 한 이유와 또한 이를 보고 속히 떠나라고 한 뜻이 무엇이나고 최판서에게 물으니 최판서는 말하기를 그 늙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목민관 노릇을 제법 할 것인데, 내가 괜히 실수를 하였다 하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또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최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짚신은 자신의 앞길이나 잘 밟아갈 것이니 남의 앞길을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고, 비는 자신의 앞이나



깨끗이 쓸라는 뜻이며, 또한 남의 상에 배 놓아라 감 놓아라 간섭하지 말라는 비유인 것이니, 결국 조카한테 창피를 당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후 태안 군수에 취임한 송관화는 공무에는 열중하지 않고 매일 사냥 아니면 제기 차기로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 이를 보는 관속(官屬)들은 철모르는 어린 군수를 깔보고 모든 일을 저희들 맘대로 처리하며 따라서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실태를 지켜보고 있던 송 군수는 어느 날 갑자기 안면도 백사장으로 고기잡이 구경을 가자고 하며 관속들을 데리고 사락정(思樂亭 - 현재 태안 터미널 근처) 앞에 이르러 이방(吏房)을 불러 놓고 '저 밭에 가서 수숫대(수수깡) 하나를 꺾어 오라' 하니 이방은 속으로 아기 군수가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그러는고 하고 밭에 가서 수숫대를 하나 꺾어다 주니 송 군수는 이방에게 이 수숫대가 꺾여지지 않도록 소매 속에 넣어보라고 하였다.

이에 이방은 매우 오만한 태도로 긴 수숫대를 꺾지 않고 어떻게 소매 속에 넣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니, 송 군수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엄숙한 태도로 추상 같은 호령을 내렸던 것이다.

"듣거라 육방 관속(六房官屬)들아! 이 1년도 못되는 사이에 성장한 수숫대도 꺾지 않고는 소매 속에 넣을 수 없거늘, 하물며 15년의 긴 세월 동안 서울의 재상가에서 성장한 태안의 성주(城主)인 데, 너희들 소매 속에 넣고 또한 백성 다루기를 함부로 하는가? 명령을 내리니 3일 이내에 질그릇으로 만든 갓 10개와 굽의 높이가 한 자가 넘는 나막신 10켤레를 만들어 오라" 하고 호령한 것이다.

지금까지 철모르는 아기 군수로 여겨오던 이속(吏屬)들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비범한 인물임을 깨닫고 놀라는 한편, 지금까지 자신들의 그 무례했던 행동을 반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며칠 뒤에 질갓과 굽 높은 나막신이 준비되어 들어오니, 동헌(東軒) 뜰에 늘어 놓고 육방 관속들을 집합시킨 뒤에 송 군수는 "듣거라. 너희들이 키가 작고 갓이 가벼워서 꾸부릴 줄을 모르니 이제부터 이 나막신과 이 갓을 쓰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질 것이니 명령대로 실행하라" 하였다.

나이는 비록 어리나 비범한 인물임을 깨달은 이속들은 놀라서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동헌 뜰에 엎드려 밤새도록 사죄하였다.

옛날(朝鮮朝)의 이속들은 언제나 군수 앞에서 상반신을 구부리는 것인데, 어린 군수와 같보고 이를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다.

송 군수는 재임 기간 군민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으므로 뒤에 군민들이 그 업적을 기리어 태안읍 동문리에 송덕비(頌德碑)를 세웠었는데 최근에 이를 현재의 태안읍사무소 앞으로 옮겨 세운 것이다.

극히 최근까지도 태안에서는 뒷사람에게 머리 숙일 줄 모르던 '저 사람 질갓 씌워야 되겠다'는 말이 유행되었던 것이다. ▣





면천 은행나무와 두견주

당진군 면천초등학교 교정에 천년이 훨씬 넘은 은행나무 두 그루가 웅장하게 서 있다. 면천 복씨의 시조인 복지겸과 그의 15세 된 영랑에 대한 일화가 함께 전해 오는 유서 깊은 나무이다.

복지겸은 고려의 태조 왕건이 삼국을 통일할 때 공을 세우고 나라의 지략가로 활약하다가 노후에 고향인 면천으로 돌아왔다. 그는 고향의 산천에 묻혀 청렴한 선비 생활을 하다가 원인 모를 병을 얻어 눕게 되었다. 그가 병석에 누자 별의별 약을 수소문하여 다 써보았으나 별 차도가 없었다. 아버지를 따르고 사랑하던 영랑도 하루하루 깊어만 가는 아버지의 병세를 보며 근심이 쌓여갔다.

날마다 아버지의 병을 고쳐 달라고 신령님께 빌었다. 유난히 달이 밝은 어느 날 깨끗한 냉수를 떠 놓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상한 힘에 끌려 잠에 취했고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런데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를 위하는 정성이 하늘을 찌르는 듯 하구나. 네 정성이 가뭇하여 아버지의 병을 고

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잘 듣거라. 이 밤이 지나 날이 새거든 은행나무 두 그루를 구해다가 이 뜰에 심거라. 그리고 곧 앞산으로 올라가 진달래 꽃잎을 따 와서 안샘물(지금의 면천초등학교 우물)로 술을 담가라. 그 술을 백일 동안 놓았다가 아버지께 드리면 병이 나을 것이다.”

영랑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영랑은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아버지의 병환이 낫는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영랑은 날이 밝자 은행나무 두 그루를 구해다가 정성스럽게 뜰에 심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진달래 꽃잎을 따기 시작했다. 산에는 진달래꽃이 울긋불긋 지천으로 피어 있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바구니에 가득 따서 담아가지고 내려와 안샘물을 떠다 정성스럽게 술을 담갔다. 그날부터 은행나무 아래에서 아버지의 병세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백일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마침내 백일이 되는 날 술을 떠서 아버지께 드렸다. 산신령의 말대로 정말 그 술을 마시고 아버지의 병환이 나아지게 되었다.

아버지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 영랑이 정성스

럽게 심고 가꾼 이 은행나무는 지금은 면천초등학교 교정에 웅장하게 서 있어 어린이들의 기상을 키워 주고 있다.

현재 면천 은행나무는 1990년 5월 24일 충청남도 지정 기념물 제 82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영험한 효험의 전설로 담은 진달래로 빚은 술 두견주는 1986년 11월 1일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86-나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금도 봄이면 아이들과 아낙네들이 산으로 진달래 꽃잎을 따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도를 담았을까?

■면천 두견주

-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86호-나호 (1986. 11. 1 지정)
- 소재지: 충남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693-1
- 기능 보유자: 박승규



두견주는 천여 년 전 고려 개국 공신 복지겸이 백약이 무효인 병을 앓고 있을 때 효성스런 그의 딸 영랑이 백일 기도 끝에 터득한 비법에 따라, 참쌀, 아미산(면천 소재)의 진달래, 안샘물로 빚은 두견주를 마심으로 드디어 백약이 무효인 질병을 고쳤다는 신비의 전설과 함께 전해 오는 전통 민속주이다.

두견주는 산림경제, 임원, 동국세시에 언급되었다. 면천 두견주는 인간문화재인 박승규 선생의 3대에 걸쳐 양조장을 경영하고 가계를 통해 그 비법이 전승된 국가 지정 전통 민속 술이다.

또한 이 두견주는 예로부터 진달래꽃에서 추출된 약효 성분으로 가래를 삭혀 주는 진해 효과와 신경통, 부인냉증, 요통 등에 효험 있는 약용주로 동의보감에도 기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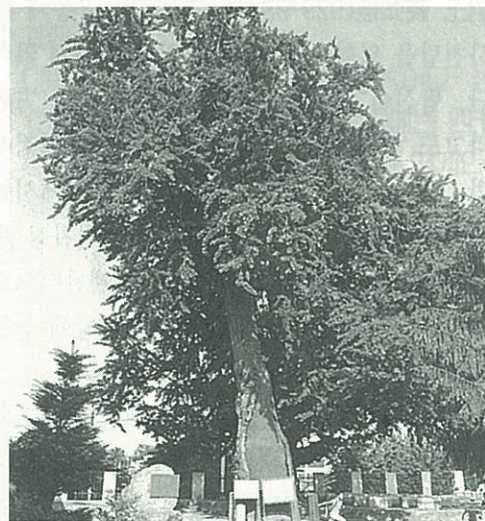
■면천 은행나무

- 충청남도 지정 기념물 제 82호(1990. 5. 24 지정)
- 소재지: 충남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772-1 면천초등학교 교정
- 관리자: 면천초등학교
- 나무 높이: 21.5m • 둘레: 6.1m

면천면 성상리 면천초등학교 교정 동쪽에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서 있다. 이 은행나무는 고려 개국 공신 복지겸(卜智謙)의 딸이 그의 집 뜰에 심었다고 전하는 데 수령이 천백여 년이 넘었다.

이 은행나무는 1910년 한일합방 후 면천초등학교를 건립할 때 터를 닦기 위해 흙으로 매워져 수고가 2~3m는 문혔다(묘목을 심었을 당시는 현 군자정 있는 지형과 같았다고 한다). 1918년에는 백로가 많이 앉아 장관이었다고 한다.

일제시에는 조선총독부 지정 보호수였으며 현재는 도 지정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보협인석탑

- 출 토 지: 천안시 북면 대평리
- 소 장 : 동국대학교 박물관
- 지정내용: 국보 제 209호
- 규 모 : 전체 높이 190cm
- 시 대 : 고려시대
- 재 료 : 화강암

보협인석탑(寶篋印石塔)은 탑과의 한 형식으로 원래는 보협인심형경(寶篋印心呪經)을 넣은 탑이란 뜻이다. 중국 오대십국의 吳越王 錢弘俶(929-988)이 짓게 한 금동제 팔만사천탑을 원형으로 한다. 납입물과 관계 없이 기단, 탑신이 모두 정사각형이며 寶形造(方形造)라고도 하며 불교 건축에서는 지붕의 정점에 노반, 보주 또는 상륜이 놓여진다. 중국에서는 찬점이라 부르고 방찬점, 팔각찬점, 원찬점 등의 용어가 있다)의 지붕은 위쪽을 계단식으로 하고 그 밑구석에 돌기장식을 붙여 중앙에 상륜을 세워 만든 탑을 가리킨다.

국보 제 209호로 지정된 천안 대평리 사지의 '보협인석탑'은 고려 시대의 특수형 석탑에 해당하며 현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

다. 제작 당시의 완전한 모양은 알 수 없고 현재는 5석이 남아 있다. 조각 양식을 살펴보면 가장 밑의 방형 석재는 각면 주위에 문양이 없는 테를 돌리고 그 속에 불좌상을 조각하였다. 이 석재의 하부에는 어떠한 시설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 위에는 탑신석을 받치도록 얇은 돌을 얹었는데 반원형의 복련이 음각되어 있다. 탑신석에도 역시 테를 돌리고 본생도를 조각하였다. 탑신석 위에는 밑에 당초문 위에 양련을 상하 2단으로 표현한 개석이 놓이고 정상에는 네 귀가 달리 상륜석이 얹혀 있다. 상륜석의 각면은 좌우로 분할하였고, 그 사이의 밑에는 여의두문과 같은 화형이 새겨져 있다. 좌우 각면에는 2중선의 돌은띠무늬로 윤곽을 돌린 다음 다시 상하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각각의 인물상을 조각하였다. 상륜석의 하단부에는 좁게 당초문이 음각되었다.

이러한 형식의 석탑은 중국 吳越王 錢弘俶이 조성하였다는 8만4천 기의 보협인탑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석탑의 제작에 앞서 금동제 보협인탑이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석탑은 비록 완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알려진 매우 귀중한 형식의 한 예인데 자칫 복원되지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었으나 천안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부나마 수습된 것이다.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기까지의 과정을 밝혀 보면 다음과 같다.

천안시 북면 대평리 마을에서 빨랫돌과 제방 석축재로 사용되어 오던 것을 1967년 8월 하순 마을 주민 이두세(李斗世)씨가 수습하여 보관해 오다가 윤철수(尹哲守)씨에게 6,000원에 매도하여 천안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동년 9월 하순에 천안시에서 반출 도중에 있는 석탑재 4기를 억류하고 그 상황을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문화계에 보고한 후 이은창(李殷昌) 선생님께 의뢰하여 유물 출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1968년 12월 15일 기증하였다.

이해를 돕고자 그림 2의 각 부분별 덧붙인다.

① 其一

石塔片 其一은 대평리 사지에서 반출되어 마을 우물가의 빨랫돌로 사용하던 것인데 높이 49cm, 넓이 66cm의 육면체로 各面에는 羅漢像을 二軀씩 조각 배치하였다. 石塔片의 基壇石에 해당한다.

② 其二

石塔片 其二是 대평리 사지에서 반출되어 역시 빨랫돌로 사용하던 것이다. 높이 26cm, 넓이 59cm의 육면체로 상반부에는 仰蓮紋을 하반부에는 唐草紋을 조각하였다. 基壇石의 上石에 해당되며 塔身 고임 구실을 하고 있다.

③ 其三

높이 46cm, 넓이 50cm의 육면체인 其三도 대평리 사지에서 반출되어 빨랫돌로 쓰였다. 옆의 四面에는 각기 「尸畏王割肉銅應救應 救世」 「慈力王割耳燃燈」, 「薩睡太子投身銅虎」, 「月光王捐捨寶首」의 釋迦本生을 조각하였다.

④ 其四

대평리 사지에 殘留한 蓮花紋石片이다. 높이 18cm, 넓이 66cm의 盤石으로 上面에는 四十瓣의 蓮花紋이 조각되었다. 옆 四面은 24개의 花瓣紋을 線刻하였다.

⑤ 其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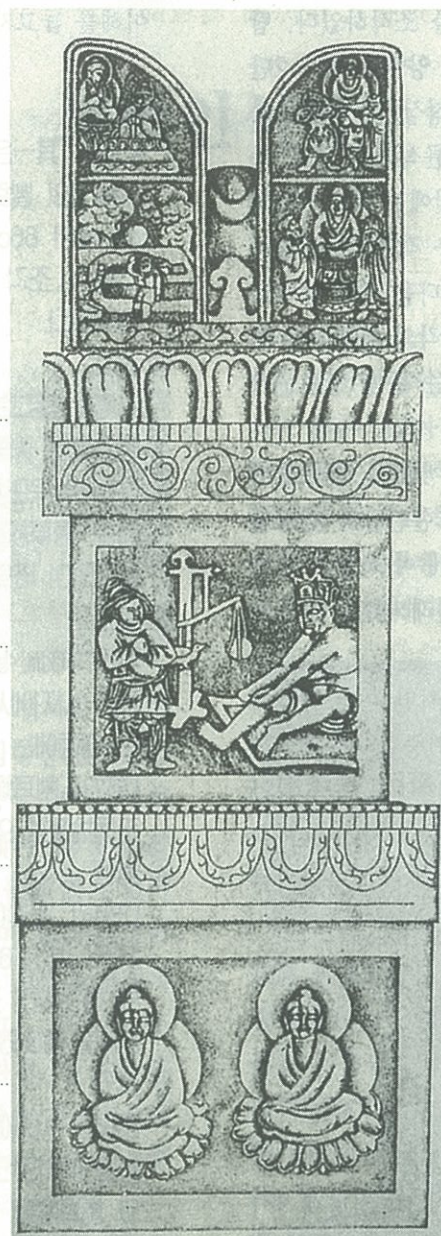
대평리 사지에서 반출되어 하천의 '유두돌'로 사용되던 것으로 높이 48cm, 넓이 53cm로 4개의 馬耳狀을 한 蓮花瓣이 네 모퉁이에 자리하였는데 馬耳狀의 隅飾인 花瓣部의 各面을 상하로 二分하여 16개의 區를 만들고 各區內에는 浮彫像을 배치하였다. ■

봉선홍경사 사적갈비 (奉先弘慶寺 事蹟碣碑)

충남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 319-8번지에 소재한 이 비는 1962년 12월 21일 국보 제 7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곳은 옛 직산현의 땅으로 인가도 없고, 갈대가 우거져 도적들이 지나는 행인을 괴롭히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고려 현종은 '부왕인 안종(安宗)께서 불법을 돈독히 받들었고 백성을 위한 사업을 성취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그 뜻을 받들어 여기에 사찰을 지어 길손의 편리를 도모하고, 불법을 선양하고자 한다'고, 현종 7(1016)년 가을에 시작하여 동왕 12(1021)년에 완공하였다.



相
輪

蓋
石

塔
身

基
壇

(其五)

(其四)

(其三)

(其二)

(其一)

보협인 석탑 복원도

“부왕인 안종(安宗)께서 불법을 돈독히 받들었고
백성을 위한 사업을 성취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그 뜻을 받들어 여기에 사찰을 지어 길손의 편리를 도모하고,
불법을 선양하고자 한다”

법당 200칸에 불상, 탕화, 종을 갖추고 사찰의 이름을 봉선 흥경사라 하였으며, 그 서쪽에 80칸의 여관을 짓고, 광연통화원(廣緣通化院)이라 이름하여 지나는 사람들을 보살폈다.

비문은 고려조 최고의 문장가인 최충(崔冲)이 짓고, 최고의 문필가인 백현례(白玄禮)가 해서로 썼다. 비문에는 976자가 새겨져 있으나 이 중 10자는 인위적으로 마모되어 알아볼 수 없다. 귀부(龜趺, 받침돌)와 이수(螭首, 머릿돌)를 갖춘 형식으로 귀갑 무늬와 어룡 모습의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는 점이 특이하고, 비좌(碑座)는 귀갑 위 중앙에 장방형으로 복연(伏蓮)과 양연(仰蓮)을 새겼다.

비신(碑身, 빗돌) 전면 주위는 두 줄의 테두름 사이에 당초문을 조각하였고, 상단에 봉선흥경사갈기라 가로로 전각(篆刻)하였다.

글씨는 2.4cm의 해서로 25행이 세로로 써 있다.

비신 옆면에는 두 줄의 테두름 속에 보상화문(寶相華文)을 조각하였고, 뒷면에는 아무런 조

각이 없다. 이수에는 높은 산 모양의 도식화된 운룡문(雲龍文)이 새겨져 있다. 우리 나라에 남아 있는 사적비로는 가장 완벽한 형태이다. 흥경사는 고려 명종 6(1176)년에 일어난 망이망소이의 난(亡伊亡所二亂)때 불타고, 조선 성종 12(1481)년에 여지승람이 편찬될 때에도 이미 절은 없어지고 원(院)과 비석(碑石)만 남아 흥경원(弘慶院)으로 불려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사지에는 비가 1978년에 건립한 보호각 안에 있으며, 그 옆에는 탑재의 일부와 1981년에 세운 국역비가 있다. 전체 규모는 280cm이고, 비신의 높이는 194cm, 너비 100cm이다. ■

정혜사의 부도 (定慧寺의 浮屠)

불교계에서 浮屠라 하면 僧侶의 墓塔을 말한다. 佛敎式의 葬法이 실시되었으나 모두 부실하였으므로 先師들을 길이 顯彰하기에는 마당치 않아 禪宗이 들어온 이후부터 모든 法弟門徒들은 영구적인 藏骨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唐나라에서는 石造 浮屠의 實例를 보이고 있어서 唐나라를 내왕하는 僧侶들의 見聞에 따라 新羅에서도 石造 浮屠가 만들어 되었다고 전한다.

그래서 新羅 時代에는 各禪門에 開山祖師의 浮屠가 建立되기 시작되고 그 年代는 9世紀 中葉으로 보고 있다. 浮屠는 또한 古今을 莫論하고 거의가 花崗岩으로 建造되었는데 이 石造物에서는 建築的인 要素 이외에는 각종 조각 표면의 장식 문양들이 있어 조각물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浮屠는 그 主人公을 알 수 있고 또 浮屠에 따른 塔碑가 세워져 建造 年代를 알 수 있으므로 중요한 石造物로 歷史的인 文化 遺物인 것이다. 浮屠의 形態는 時代에 따라 平面이 四角形, 또는 朝鮮 時代에 流行했던 종모양의 石鐘形등이 있으나 浮屠의 典型 樣式은 下台石, 中台石, 上台石등의 基壇部는 물론이고 塔身部 屋蓋石 相輪 部材까지 모두 8角으

로 造成되어 전체적인 平面이 8角인데 이러한 형식의 浮屠를 이른바 八角 圓堂型이라 한다. 이러한 浮屠는 우리 고장 靑陽 地方에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造成됐음을 알 수 있다. 靑陽郡 長坪面 花山里 소재 七甲山 남쪽 기슭에 자리한 定慧寺가 있다. 定慧寺는 新羅 文聖王 3년에 慧詔國師가 創建했다고 전한다. 그 후 도적떼들의 노략질로 크고 작은 殿閣들이 모두 불타고 三尊 佛像만 火難을 면했다. 이어서 麻谷寺의 寅明禪師가 다시 재건했으나 壬辰倭亂으로 다시 불타 버렸다는 것은, 이러한 受難을 겪은 定慧寺는 表忠院長인 松月禪師가 또다시 三創을 했으나 1906年 日韓末 扶餘의 窺岩에 침략자 倭兵들이 당시 投日투쟁을 벌이던 義兵隊가 定慧寺에서 僧兵들과 함께 集結한 것으로 보고 밤중에 倭兵들이 습격하고 寺刹에 불을 질러 모든 寺屋은 잿더미로 火難을 겪었다고 전한다. 이러했던 定慧寺에도 浮屠가 2基가 남아 있다. 이 浮屠는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松月禪師의 浮屠이고 다른 하나는 慧詔國師의 것인지 寅明禪師인 것인지 마모가 되어 알 길이 없으나 浮屠가 남아 있어 受難 많았던 千年 古刹임을 말해 주고 있다. ■

천안삼거리문화제

■ 개관

천안삼거리문화제는 '87년 11월 5일 천안삼거리 '홍타령' 문화제라는 타이틀로 천안 시민의 오랜 열망이었던 천안시민회관 개관과 함께 천안인의 한마당 축제로 열리기 시작하여 매년 9~10월경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제 13년의 연륜을 가지면서 40만 천안 시민의 한마당 잔치로 이어져 오고 있다.

행사의 주최는 순수 민간 단체의 주관하에 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천안문화원, 예총 천안지부 등이 주축이 되어 일관성 있는 행사와 특색 있는 새로운 행사를 잘 조화시켜 이제는 시민 대화합의 차원에서 날로 발전해 가고 있다.

■ 내용

올해로 13년째를 맞는 천안삼거리문화제는 '비용은 줄이되 내실 있는 시민 축제'를 표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검소하게 치러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21C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비약

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예술과 문화 도시로서의 탈바꿈을 목표로 9월 17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능수버들의 고장 천안을 상징하는 「마당놀이 능소전」이 버스 터미널과 삼거리공원, 천안문화원에서 1일 1회 순회 반복 형식으로 공연되었다.

천안문화원 전시실에서는 행사 기간 내내 전국사진공모전에서 입선한 1백20 점의 사진이 전시되었으며 다목적실에서는 문화원과 시민회관에서 꽃꽂이를 배우고 있는 여성 50여 명이 참여해 50여 점의 꽃꽂이 작품을 출품하는 꽃꽂이 전시회가 열렸다.

또한 천안문화원에서는 향토사연구소 주관으로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동산 문화재를 발굴, 2백여 점의 향토 유물이 전시되었는데 옛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충남 학생회관 전시실에서는 21일까지 미협 천안지부 주관으로 한국화, 양화 등 90여 점의 각종 미술품이 전시되었다.



천안삼거리 문화제 ('99. 9. 17 ~ 9. 21)

한편 삼거리 전설의 주인공 능소를 기리며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천안시 거주자 및 관내 직장 여성의 아름다움을 겨루는 「능소가가씨선발대회」와 천안의 특산물 호도를 상징하는 「호두도령선발대회」가 천안문화원 주최 전야제 행사로 9월 17일 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첫째날인 18일 오전 10시에는 삼거리공원 장승 앞에서 무속인 10명에 의해 전통 민속 신앙에 의한 전통 노제 방식의 「삼거리노제」가 펼쳐졌고 농악 한마당과 살풀이, 삼거리 환상곡 등식전 행사 이후 11시에 개막식이 거행되었다.

이후 식후 행사로 창과 태평무 등이 시립예술단에 의해 공연되었다.

삼거리공원에서는 12시부터 그네뛰기, 널뛰기, 제기차기, 화계놀이, 단체 줄넘기, 호도까기 등 6개 종목의 민속 경기가 펼쳐졌고 오후 1시부터는 성남, 수신, 성환, 북면 등 지역 농요와 지역마다 독특한 상여 소리가 현장감 있게 시연

되었다.

2시부터는 뽕뽕이 이상룡의 사회로 주부가요 열창이 열려 시민들의 흥을 더한층 돋웠다. 또한 한쪽에서는 미혼 남녀 한 쌍이 전통 혼례 절차에 따라 혼례식을 치렀으며 충남도내에서 참가한 1백여 명의 시조경창대회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오후 6시에는 무용, 가요, 국악 등이 어우러지는 「시민 가요 및 무대 예술제」가 공연되었는데 초청 가수와 시민, 그리고 '99 능소가가씨가 출연해 함께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삼거리공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동별로 1개소씩 경로 식당이 운영돼 먹고 마시고 하루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젓갈류, 신고 배, 거봉 포도, 호도 등을 전시 판매하는 등 「천안향토특산물」전이 열렸다.

둘째날인 19일에는 삼거리공원에서는 7백여 명

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가하는 학생 글짓기 및 사생대회가 열려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으며, 1시 30분부터는 문인협회 주관으로 시민 1백 명이 참가하는 시민 백일장이 열려 글 솜씨를 뽐내고 오후 2시부터는 버스 터미널 광장에서 선문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주관에 「천안 이 한곳에…」라는 주제를 갖고 대학 동아리 공연이 펼쳐졌다.

이 행사는 천안 1일 벼룩시장, 시민 즉석 노래자랑, 시민 장기자랑, IMF 극복을 위한 일반 상식 퀴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문예회관에서는 27~28일 양일간에 걸쳐 「학생국악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셋째날인 20일에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학생과 일반 시민, 음악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천안삼거리음악제」가 오후 7시부터 열려 독창과 독주, 합창과 합주를 펼쳤다.



21일 넷째날에는 오후 2시부터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아마추어 민요인들이 참가하는 「전국민요경창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전통 무용과 국악 등도 함께 공연되었으며 국내 유명 국악인도 2~3명 초청되었다.

이밖에 시민회관에선 21일 오후 7시 무용협회 회원 18명이 「무용협회 정기발표회」를 가져 1부에서는 북춤, 승무, 현대무용, 화관무가, 2부에서는 창작 무용이 공연되었다.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힘차게 웅비하는 천안과 더불어 40만 시민의 흥겨운 한마당 축제로 정착한 「천안삼거리문화제」가 올해도 더욱 알차고 다채롭게 치루어져 많은 문화 예술인, 시민, 주관 단체가 한마음 되어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가운데 가을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

충남의 문화 축제 ②

대천문화원

보령 머드 축제

- 이 혜 실 -

■ 행사 개요

- 기간 : 1999. 7. 15 ~ 7. 18 (4일)
- 장소 : 대천해수욕장 (일원)
- 주최 : 보령머드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충청남도, 보령시
- 축제 주제 : 신비로운 체험 보령 머드

■ 행사 진행

- 첫째날(7.15)
 - 상설 행사
 - 거리 축제 (악대 페레이드)
 - 식전 행사 (전통춤 공연)
 - 개막식 (개막의식)
 - 식후 행사 (에어로빅 시연, 보디빌딩 시범)
 - 축하 공연 (머드축제 특집, 해변 노래자랑)
- 둘째날 (7.16)
 - 상설 행사
 - 용왕제
 - 축하 공연 (사물놀이 공연)

• 세째날 (7.17)

- 상설 행사
- 축하 공연 (국악공연)
- 넷째날 (7. 18)
 - 상설 행사
 - 머드아가씨 선발 (결선)
 - 폐막식 (머드아가씨 시상 및 폐막의식)

■ 상설 행사

- 머드 맛사지 체험
- 머드 게임 (슬라이딩, 미끄럼틀, 로데오 등)



- 민속 놀이 체험 (제기차기, 널뛰기, 팽이치기)
- 해상 레포츠 체험 (제트스키, 윈드서핑, 스쿠바 등)
- 사진촬영대회 (축제전반 사진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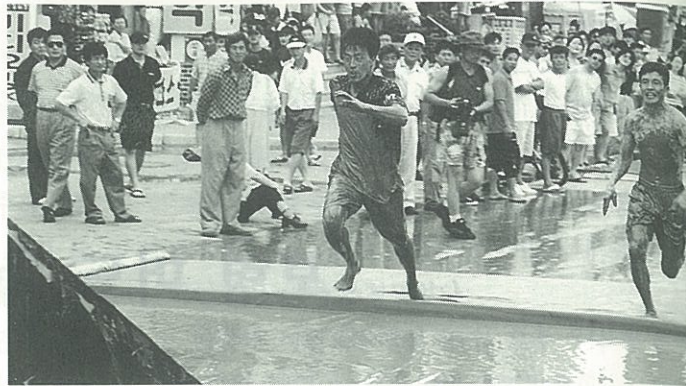
- 머드 조각 만들기
- 머드 홍보전 (보령 머드 및 관광 홍보)

■ 주요 성과

- 국내 상반기 문화관광축제 체험 이벤트 중 가장 높은 만족도 평가
- 보령 머드 제품 및 관광 홍보 (TV 10회, 라디오 4회, 신문 95회)
- 피서철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유치 기여 (약 166억 원)
- 지역 경제 생산 파급 효과 기여
- 축제 기간 외래 관광객 다수 유치 (385천명 / 시민 11%, 관광객 89%)
- 방송 언론 매체 유치로 인한 홍보비 절감 효과 (약 2천만 원)
- 머드 제품 판매 증가 ('98. 8월 말 대비 70% 증가)

■ 행사 발전 방안

- 머드 채취 체험 프로그램 개발
 - 머드 원료 채취 체험 (현장 이동 직접 채취)
 - 원료 가공 과정 시연
- 머드 체험장 시설
 - 머드탕 : 가족 단위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시설
 - 어린이 머드풀 : 간단한 놀이 기구 설치
- 무대 활용 활성화



- 이벤트가 없는 시간 무대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연극, 무용 등)

• 축제 프로그램 안내판 설치

- 행사장 주요 진입로에 행사장 배지도 날자별 행사 일정표, 축제 기간 행사 일정표 등 안내판 제작 설치 필요
- 축제의 체계적 안내는 이벤트 개최시 필요한 집객을 충족시키고 방문객의 이벤트 참여를 도와, 보다 효과적인 축제 프로그램의 실행을 가능케 함

• 머드 상품 판매

- 화장품 판매만 실시하는 소극적 판매 방법에서 미용 시연 등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제품 홍보 및 구매 욕구 증대

• 야간 이벤트 발전

- 관광객들이 주간에 주로 수영 등을 즐기고 야간에 해변 관광
- 야간에 보여 주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2000년 밀레니엄 기념으로 특별한 야간 이벤트 개발 필요

• 축제 상징 마스코트 개발

- 축제를 상징할 수 있는 마스코트 개발
- 마스코트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 기념품 개발

문화칼럼 ①

傳統 文化의 守護와 우리 民族의 基本 精神

- 논산문화원 부원장 김 영 배 -

새로운 21세기를 눈앞에 둔 2000년대의 정점에 서서, 우리는 그간 다급하게 걸어온 역사적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다시금 새로운 세기를 예비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그것은 근세 백년 동안에 걸쳐 이룩해 놓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아야 하겠으나, 우선 우리에게 당면 문제로 떠오른 문화 현실에 치중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선진국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해 놓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우리는 불과 30년 사이에 이루어냈다는 사실은, 전후 잿더미 위에서 독일민족이 이룩해 놓은 라인강의 기적과 함께 한강의 기적으로 평가받고 있음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온 국민이 '하면 된다' 라는 강한 신념으로 휴일과 휴가를 반납하고, 생산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 온 댓가이기에 더욱 그 보람이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 맺힌 수백 년의 가난을 몰아내고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짝튼 물질주의 황금만능 사상은 전통적 우리의 정신 문화에

적지 않은 병폐적 씨앗을 뿌리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가난을 몰아내고 물질적 풍요를 이룩해 내긴 했지만, 그와 함께 윤리·도덕성의 파괴와 정신 문화의 황폐 현상을 초래해 왔다 하겠다.

더구나 이런 급작스러운 성장 과정에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서양 문화의 분별 없는 수용은 풍요의 터전에 회오리바람을 일으킴으로써 서양 제국을 능가할 만큼 화려한 퇴폐주의가 만연되기에 이르렀다.

서양 사상은 합리적 사고를 통해 자연을 정복하고 개척함으로써 물질 문명의 풍요를 이룩하였으나, 동양의 전통적 사상은 소박한 농경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미덕을 실천해 왔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인정과 따뜻한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왔던 것이다.

동양 사상은 공자, 맹자의 사상을 체계화한 유교에 근본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우주의 근본 이법인 도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데 계를 리 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수입된 학문이나 종교는

그것이 원형 그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일단 들어온 학문이나 종교는 우리의 환경과 국민 정서에 부합되도록

개선 정립하여 우리 고유의 것으로 정착시켰던 것이다.

유교 사상은 인간의 현실 생활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며, 인성에 관한 이론을 다양하게 연구하였다. 그리고 주자의 도가 사상은 인간의 한계성을 절감한 나머지 이에 따른 반성에서 파생하였다. 그리하여 도가 사상은 유가 사상과 함께 양면적 관계를 이루며 차원 높은 긍정적 태도를 지니게 하였다.

또한 불교 사상은 우리의 생 자체를 괴로움으로 보고 이러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히 사는 길을 찾고자 하였다. 이조 중엽에 들어와서는 유교 철학인 성리학의 이론 체계를 지양하고, 우리의 삶속에 행동 질서를 세우기 위해 실천 유학인 예학을 정립함으로써 인간의 기본 생활인 관혼 상제의 예법과 생활 예절을 실천케 하였다.

이 행동 윤리와 실천 예절은 우리의 기본 정신으로 살아 남아 개인의 몸가짐, 가정의 윤리, 사회의 윤리, 국가의 윤리 등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한국을 동방 예의지국으로 숭양케 하였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과 미풍 양속이 천년 넘어 전수되어 우리의 정신 문화의 주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땅에는 많은 부정적

사조와 의식이 만연되고 있음은 실로 국가 장래를 위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에 출간된 김정일씨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이색적인 책은 우리의 정신 생활 규범에 혹독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물론, 그가 주장한 과격한 정신 개혁으로의 의지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신 문화의 빈곤성을 우려하는 층에서는 이 「공자가 죽어야...」라는 책자는 과격한 제목 자체부터가 거부감을 갖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것이다.

이 책이 출간되자 유도회의 최병철 교수(청주대)는 즉각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내어 이에 반론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자기 책의 출간 이유에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발상은 유교에 대한 혹심한 모독인 동시에 사성(四聖)의 한 분으로 추앙받는 스승에 대한 불손한 매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자가 살아야...」라는 상대적 표제를 감히 썼다고 말했다.

세계가 사성(四聖)으로 인정하고 모든 인류가 성현으로 숭모하며, 역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현실에서 위대한 스승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이토록 혹심하게 매도하는 것은 학자의 자세가 아닌 동시에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경거 망동하는 것이라 공격했다.

그는 또 「공자가 죽어야...」의 논리는 우리 문화의 전통성을 부인하고 전통 문화의 특수성을 파괴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대열에 동참하려는 소위 신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공박했다.

최 교수는 '나는 신토불이가 좋다', '조선 시대의 주자학은 출발부터가 우리 손으로 집주된 우리 것이었다. 온고지신이란 과거 지향이란 뜻보다는 미래 지향의 뜻이며, 충효 사상도 복종을 강요하기보다는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대하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교수는 또 물론 유교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현대 사회의 모든 병폐 뒤에 반드시 '유교 바이러스'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수입된 학문이나 종교는 그것이 원형 그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일단 들어온 학문이나 종교는 우리의 환경과 국민 정서에 부합되도록 개선 정립하여 우리 고유의 것으로 정착시켰던 것이다.

우리에게 뿌리 깊은 유학은 삼국 시대에 들어와 고려를 거쳐 이조에 와 정착되기까지 많은 연구와 수정을 통해서 독창적인 이론을 전개시켰다.

우리 사회 질서의 정립을 위한 예학도 우리에게

합당한 제도와 규범으로 창조된 것이다.

물론 유학이나 예학의 연구는 학자간의 파벌을 조성하여 파당을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올바른 참된 길을 가르쳐 실천시킨 것이 유학이요 예학이라면 어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윤리 도덕의 파괴 범죄나 사회 질서의 파괴 범죄들을 볼 때 민족 장래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며 남편이 동거녀와 함께 조강 지처를 살해하고, 아내가 정부와 더불어 남편을 살해하는가 하면 제자가 스승을 구타하고 친구간에 사기를 치는 등의 사회악이 연발되고 있음은 통탄 지사가 아닐 수 없다.

요즘 중국 지식층에서 공자가 재평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개방이 되면서 이기심의 팽배가 몰아온 인간성 황폐와 사회 정의의 붕괴가 모두 공자 맹자의 사상 탓으로 매도하던 그들이 다시금 인의(仁義)의 정신적 가치를 되살리고 있다.

사회주의 논리에 위배된다 해서 한 번 죽이던 그들이 문화 혁명의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두 번이나 죽임을 당한 그 공자가 다시 인간 생활의 지표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자 맹자의 종주국에서조차 재평가 받고 있는 공자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이 책은 너무나 시대 착오적 발상의 논리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

孝行은 萬 가지 德의 源泉이다

- 청양문화원장 안 종 일 -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정(情)이다.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정(情)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도 정(情)이다. 남녀 사이의 애정, 친구 사이의 우정, 이웃끼리의 인정, 이렇게 허다한 정(情) 중에도 가장 애틋한 것이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포근한 정(情)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헌신과 희생으로 자녀를 길러 주신 아버지의 지순한 사랑이 으뜸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忠, 孝, 禮, 義 전통 사상을 자랑하고 미풍 양속(美風良俗)을 지켜 온 우리 고유(固有)의 전통 윤리관(倫理觀)이 급진적인 산업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핵분열을 이루고 있다.

전란에 의한 술한 가족의 이산 농어촌의 가부장적 토대의 붕괴, 그리고 도시화가 몰고 온 핵가족 제도의 등장은 경로 사상(敬老思想)을 풍화시키고 도덕관(道德觀)을 퇴화시켜 가고 있다.

이러한 정신 공해는 급기야 부모(父母)의 존재조차 잊어버리는 비도덕적(非道德的)인 행위가 자주 일어나 사회의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비도덕적 행위는 자식들의 구박에 못 이겨 집을 뛰쳐나갔거나 심지어는 자살하는 등의 작금의 심심찮은 보도를 볼 수 있다. 지역적인 극소수의 일이긴 하지만 가정에서 소외당한 노인 문제가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 되겠다.

학술적인 조사 통계에 의하면 보호 시설에 있는 무의탁 노인보다 가정에 있는 노인이 더 소외감을 느끼고 우울증도 심하다는 것이다.

우리 다같이 생각해 볼 일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식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가?

부모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없으며 효도(孝道)는 만(萬) 가지 덕(德)의 원천(源泉)이요 인륜도덕(人倫道德)의 근원(根源)임을 동서고금(東西古今)이 다를 바 없이 성현(聖賢)의 가르침이라 하겠다.

아무리 물질 문명(物質文明)이 발달하였다 하여도 정신 문화(精神文化)가 뒤따르지 못하고 도덕(道德)이 없는 사회는 살벌한 사회이며 숨쉬지 않는 죽은 문명과 다를 바 없다.

흔히들 말하기를 충효 사상(忠孝思想)을 강조

하는 연로한 사람들을 가르켜 보수적(保守的)이며 수구적(守舊的)이라고 하여 마치 시대(時代)를 역행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진정한 새 시대(時代)의 창조 정신은 바로 미풍 양속(美風良俗)을 되찾고 국민 정신의 순화를 통한 충효 정신(忠孝精神)의 확립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오히려 선진 문화를 구가하는 서구 사회가 도리어 뿌리를 찾고 부모 모시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보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노인이 많은 사회는 그만큼 노련하고 도덕적(道德的)으로 성숙되어 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사실들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의 도덕적 혼란이 새로운 질서를 낳기 위한 진통이라는 희망을 걸어보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모두 경로 의식을 새롭게 하고 효를 실천하는 정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줄 안다.

부모를 모시는 기간은 그리 오랜 것이 못 된다. 아무리 효도를 하려 해도 기다려 주지 않는 것이 부모요, 세월이다. 뒤늦게 깨달아 효를 개탄하기에 앞서 부모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해야 한다고 본다.

※ 靑陽郡 忠孝會에선 '84년 6월에 孝親德目을 제정하고 군내 2만여 가구에 배부하는 한편 '孝行者를 발굴하여 '孝行의 집'이란 표찰을 모두 달아주고 군내 자연마을(10개 읍면)의, 효행의 전통을 지켜오는 자랑스런 마을에는 '효도마을'이란 비(碑)를 세우는 사업을 했다. 뿐만 아니라 여름과 겨울철에는 忠孝 教室을 운영하여 도덕성 회복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孝親德目

살아계실 때 孝行 다하여 父母님 恩惠에 報答합시다.

- 내 부모님 내가 정성껏 모신다.
- 가정사를 반드시 부모님과 의논한다.
- 부모님 저녁 문안 인사 드린다.
- 이웃 노인 내 부모님같이 공경한다.

- 청양군 충효회

1984년 6월

맺는 말

요컨대 효도란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도리이다. 따라서 자식은 일상 생활에서 부모를 정성껏 봉양(奉養)하고 정신 세계에서는 부모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생각과 행동을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상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현대에 부모된 사람들은 효도 교육을 함에 있어 태교(胎敎)부터 시작해야 하며 태아(胎兒)에서부터 정성을 다하는 모정 자전(母情子傳)으로 인간의 정이 듬뿍 담긴 종육(鐘毓)에 힘써야 한다.

또한 자식된 사람은 단지 풍부하고 호화로운 의식주(衣食住)의 해결로써 부모의 노후(老後)를 편안히 모시겠다는 생각에 앞서 항상 부모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생각과 행동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럴 때 자식과 부모와의 거리는 좁혀지며 노후 생활에서 오는 소외감(疏外感)이나 외로움을 덜 느낄 것이고 자식을 둔 보람 속에서 여생을 즐겁게 누릴 것이며 숭조 친종(崇祖親宗)하고 자손 만대 순리 보가(循理保家)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

2000년을 맞으며

- 당진문화원장 민영근 -

금세기의 마지막 해인 1999년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산이 총액대비 1%를 넘긴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새로운 2000년대에는 보다 다양하고 활성화된 문화 사업이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인류 사회에 있어 수천 년의 세계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좌우하는 것들은 전쟁을 통한 무력과 그를 등에 업은 경제력이었고, 그러한 힘의 원리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무력보다 경제력을 더 앞세우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의 어느 힘도 영속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한 시대를 풍미하고 훗날에는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질적인 것을 포용하며 발전하고 전파되며 우리 인류의 정신적 삶을 영유케 하는 것은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화야

말로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며 발전의 원동력이자 목표입니다.

세계 곳곳의 우수한 민족들이 자긍심을 지니고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지키고 이어와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 지역은 인종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라 종교 문제와 다른 문제들이 야기되어 참혹한 역사를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기들만의 문화를 지나치게 선호하며 남의 문화를 배척하는 극단적이고 편협한 사고 방식에 의해 야기된 비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스스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선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함은 개인이나 국가간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도 역사가 깊고 우수한 고유 문화를 지닌 민족입니다. 비록 경제적인 면에서는 선진국에 조금 뒤질지 모르지만 문화적 우수성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점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문화도 인정하고 그 중에서 좋은 점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보다 앞서 우리 고유 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전통 문화를 현대 생활에 맞게 현실화하여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겐 참으로 아름다운 미풍 양속과 지혜로운 생활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와 같이 효행과 경로 사상이 일반화된 나라가 드문 현실이고 인간의 존재를 귀히 여기며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경인 사상이 자연스러운 지역도 드문 게 현실입니다.

3대, 4대가 한 집에 살며 자연스레 생활 규범이나 예절을 익혔고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선도하는 것이 비단 자기 집에서 만이 아닌 온 동네 모두에게 한결같이 적용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아이들은 동네 어른들에게도 자기 집 어른과 같이 인사하고 공경하며 자랐습니다.

또 어른들도 남의 집 아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타일러 주었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있는 놀이와 두레 등 상부 상조의 모임에서 함께 하며 서로 존중하며 위해 주는 것을 체득하고 당연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경사가 있을 때면 온 동네가 함께 하는 잔치가 되어 안 오면 오히려 서운하다 하며 두루 와 주기를 바라고 또 함께 했습니다. 상사시에는 더더욱 찾아가 위로하고 자기 일처럼 힘껏 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생활 양식을 보면 그때는 원리는 모르지만 일반화되었던 여러 가지가 지금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기무찌'가 아닌 '김치'가 국제적 고유 명사로 인정받은 우리의 김치가 그러합니다. 김치는 이제 세계적인 발효 식품으로 각광받는 품목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콩의 영양학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옛날부터 한 단계 앞선 식품으로도 실용화했던 것들입니다. 두부가 그렇고 고추장, 간장, 된장이 그러합니다.

그 특이한 냄새 때문에 국제화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 영양학적 우수성은 이미 인정받고 있고 이를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얼마든지 실용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들어 관심을 가지는 우리 몸에 좋다는 원적외선만 해도 우리는 옛날부터 온돌과 황토 흙으로 만들어진 방에서 살며 이를 실용화 했습니다.

최근 들어 황토방이니 황토 매트니 하여 응용 제품들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음은 고유 문화의 계승과 발전이 실용화로 이어진 바라 하겠습니다.

옹기 그릇과 향아리 역시 우리 선조들의 지혜의 산물입니다. 숨쉬는 그릇이라 말할 수 있는 옹기는 여전히 우리의 살림살이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개량된 방식으로 만들어진 김치독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다면 얼마든지 국제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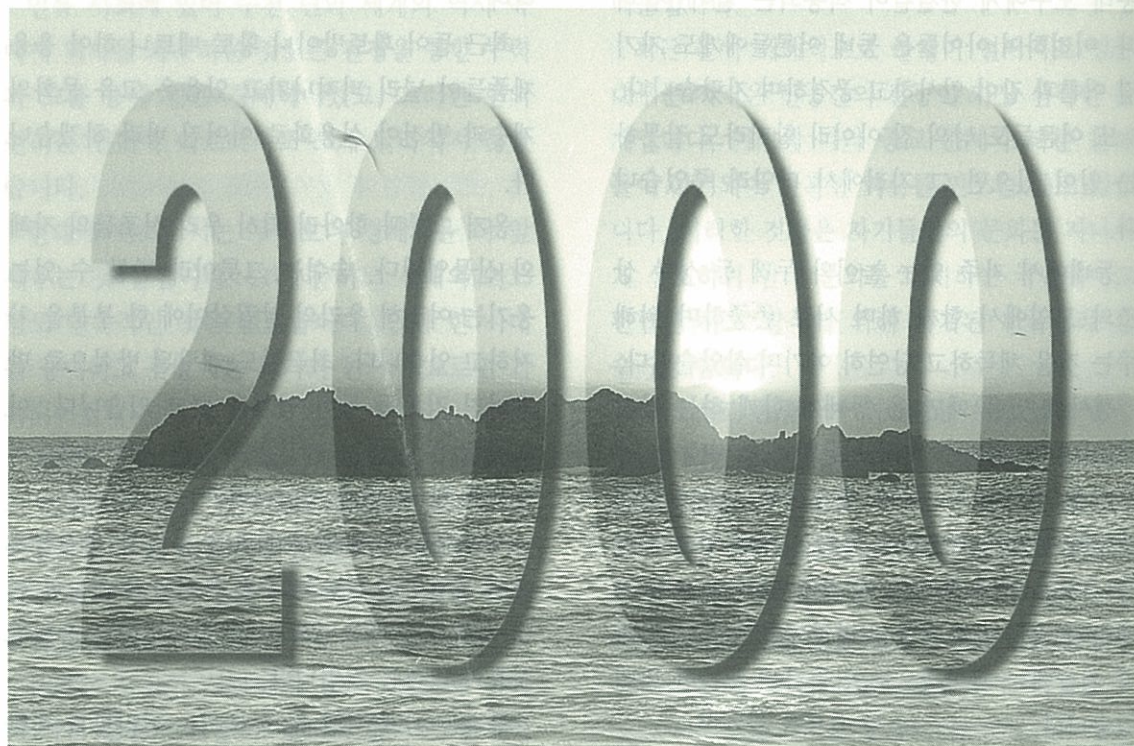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요는 우리가 무심결에 쓰며 생활하던 많은 전통의 물건과 양식들이 현대 과학으로 재조명해 보면 합리적이고 유익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편리함과 세련

된 모습만 보고 우리의 것을 멀리하고 서구의 것을 선호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의 것들을 현대의 생활 양식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멋있게 개선하고 널리 알리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런 중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경제적으로 큰 부가가치를 지닌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계 사회에서 남의 것을 모방하거나 뒤따라가면 영원히 뒤처지게 됩니다. 우리의 것, 고유의 것을 개발하여야 만이 앞서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 중에서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는 지식이 곧 돈이 되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우리 전래의 생활의 지혜를 응용하여 얼마든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고유 문화의 특성과 장점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빵이 삶의 최우선 과제이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정신적, 정서적인 충족을 위한 상품이 보다 가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유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더불어 경제적 풍요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초일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의 후세를 위하여,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에는 우리 모두 우리 고유 문화에 대한 긍지를 지니고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99 충청남도 문화예술인대회 수상자 명단

● 충청남도지사상

- **박 동 진**(83.국악인)
공주 장기 출생
판소리(춘향가) 8시간 완창
공주에 판소리전수관 건립
- **조 병 호**(85.서예가)
청양 정산 출생
정산중학교 설립
각종 전시회를 통한 문화
교류확대 및 후학양성
- **임 윤 수**(82.공주연정국악원장)
경북 영천 신령 출생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
공주연정국악원 설립
- **고 윤 봉**(80.가수)
예산 출생
「선창」등 노래발표로 일제
민족단합 및 독립정신고취
현재 왕성한 가수활동
- **김 영 학**(73.조각가)
부여 옥산 출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조각작품 128점 부여군에 기증
도민 문화공간 조성
- **심 우 성**(65.공주민속극박물관장)
공주 의당 출생
한국민속연구회 소장
아시아 1인국협회 설립
공주민속극 박물관 설립

● 충청남도지사 표창패

- **문 제 원** (한국국악협회 충남지회)
- **백 인 현** (한국예총 공주시부)
- **이 세 광** (한국예총 아산시부)
- **이 한 주** (한국예총 천안지부)
- **김 재 중** (한국예총 보령지부)
- **이 재 경** (합덕여자고등학교)
- **오 원 표** (예산문화원)
- **김 화 순** (천안문화원)
- **최 영 환** (아우내 문화원)
- **오 영 철** (조치원 문화원)
- **이 윤 표** (부여문화원)
- **이 춘 희** (청양문화원)

● 전국문화원연합회장 표창패

- **송 용 삼** (성환문화원)
- **지 경 흠** (충청남도 문화관광과)

● 문화원연합회 충남지회장 표창패

- **이 문 영** (대전문화원)
- **김 승 환** (서산문화원)
- **김 영 배** (논산문화원)
- **이 광 우** (금산문화원)
- **최 신 희** (서천문화원)
- **김 미 경** (홍성문화원)
- **정 낙 추** (태안문화원)
- **윤 복 순** (당진문화원)

● 한국예총회장 공로패

- **송 중 빈** (한국예총 논산지부)
- **원 유 선** (한국예총 아산시부)
- **남 상 능** (충청남도 문화관광과)

● 예총충남지회장 공로패

- **권 인 주** (한국문인협회 충남지회)
- **정 의 호**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지회)
- **서 인 숙** (한국예총 공주시부)
- **이 영 운** (한국예총 서산지부)
- **김 중 연** (한국예총 예산지부)
- **김 명 환** (한국예총 논산지부)
- **황 선 익** (한국예총 홍성지부)
- **이 복 희**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제43회 충청남도 문화상 시상

▣ 일 시 : 1999. 11. 30. (화) 10:30

▣ 장 소 : 도청 대회의실

▣ 문화상의 취지
우수한 연구·창작 및 의욕적인 활동을 통하여
향토 문화 선양과 지역 사회 발전에 그 공적이
뚜렷한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수상자
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

▣ 연혁
• 1957년 교육위원회에서 창설
• 1969년 (13회)부터 충청남도로 이관
• 1998년 42회에 걸쳐 230명 시상

1999년도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자

학술부문



李 文 鍾

• 1939. 10. 28 생
• 공주시 옥룡동 5
금강빌라 2-407

● 약 력

- 1967. 2.
- 1972. 2
- 1975. 7 ~ 현재
- 1984. 3 ~ 5. 2
- 1988. 2
- 1990. 12 ~ 91. 12
- 1997. 2 ~ 현재

공주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 교육학석사)
공주대학교 교수 (지리교육학과)
서울대학교 교류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지리학, 문학박사)
미국 Utah대학교 교환교수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공적 개요

- 1975년부터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반 저서 6권, 학
술 논문 23편, 시군지 17편, 문화지 편찬 10종 등 다수의 저술 활동을 통하
여 학술 연구 및 행정 자료 등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데 탁월한 업적을 이룩
-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인 「태안 반도의 촌락 형성에 관한 연구」로 임야 개
척, 해만 개척, 씨족 집단과 촌락 형성 과정을 3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논문을 발표 우리 지역의 역사, 촌락 지리분야 연구 발전에 기여
- 특히, 공주대 지역개발연구소를 설립하여 충남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조사 농어촌 지역 개발에 GIS 방법의 도입 시도, 충남 서해안 간석지 자원
의 바람직한 개발과 보존 방법을 이론화·모델화 하는 데 크게 기여함

예술부문



盧 德 一

• 1941. 3. 27 생
• 논산시 두마면 남선리
163, 용남고등학교

● 약 력

- 1966. 2
- 1978. 9
- 1980. 3 ~ 현재
- 1981. 1 ~ 85. 12
- 1993. 11 ~ 96. 12
- 1993 ~ 현재
- 199. 3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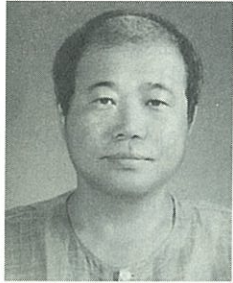
서라벌 예술대학 음악과 졸업
목원대학 음악교육과 졸업
충남·대전 지역 중·고등학교 음악 교사
한국관악협회 충남지부장
충남음악교사회 회장
충남교사관악합주단 창단 지휘자
용남고등학교 교사

● 공적 개요

- 1980년 이후 충남 지역의 중·고등학교 음악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 음악
교육 발전 및 25년간 도내 초·중·고교 합창단 매년 50여 회 순회 지도를 통
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 제고 및 열린음악 교육 활성화에 기여
- 1993년 충남취주교향악단 및 충남교사관악합주단을 자비로 창단,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15개 시·군 순회 연주 및 정기 음악회, 학생 연합 음악회 지휘
80여 회 등 열악한 지역 음악 교육 활성화에 공헌
- 특히 1981년부터 일본 모마쓰市 등 취주악단과의 교환 초청 연주, 지도자
연수 등을 통하여 한·일 청소년 상호 우호 증진과 관계 친선을 도모하고 충
남의 관악 연주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함

문학부문

● 약 력



池耀夏

• 1948. 2. 23 생
• 태안군 태안을 동문리
409-2 샘골연립
나-102호

- 1966. 2 태안고등학교 졸업
- 1982. 1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 소설 「추상의 늪」 당선
- 1985. 10 휴빛문학회 회장
- 1991. 1 동양문학상 수상
- 1993. 3 ~ 현재 충남소설가협회 창립, 초대 회장
- 1993. 8 ~ 현재 「소설 충청」 창간(제 7호 발간 중)
- 1998. 6 ~ 현재 태안문화회 창립, 초대 회장
- 1999. 3 ~ 현재 공주영상정보대학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 공적 개요

- 198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 소설 「추상의 늪」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 이후 고향을 지키는 순수 전업 작가로 200여 편의 중·단편 소설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창작 활동으로 문학적 감동 세계를 확립하는 데 공헌
- 1993년 충남소설가협회를 창립하고 충남문인협회 부회장과 충남소설가협회장으로 피선되어 모범적인 작가로 지방 문단을 풍미하면서 산문 문학의 활성화로 문학계의 모범적 전형을 제시
- 「충남예술」지의 편집위원, 잡지 「갯마을」·「휴빛문학」·「태안문학」, 지역 신문 「새너쉴」의 창간과 소설 발전을 주도하고 공주영상정보대학에서 문학 후학 양성 및 문학 인구 저변 확대 발전에 이바지함

교육부문

● 약 력



朴昌培

• 1937. 11. 20 생
• 태안군 태안을 남문리
417-1 태안군 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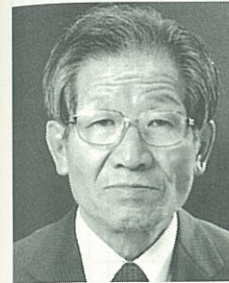
- 1960. 3 공주사범대학교 졸업 (이학사)
- 1960. 6 ~ 87. 2 석문중·기성중·회덕중·덕산고·부여고·유구고·충남여고 교사, 갈산고 교감
- 1987. 3 ~ 93. 8 충청남도 과학교육원 전시부장, 충무교육원 연수부장
- 1993. 9 ~ 96. 8 태안여중, 태안중·고등학교 교장
- 1996. 9 ~ 98. 8 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
- 1998. 8 ~ 현재 태안교육청 교육장

● 공적 개요

- 1960년부터 과학 교사로 교직에 몸담아 온 이래 40여 년 동안 후세 교육에 전념하면서 창의적인 교육 철학과 사명감으로 학생 지도에 힘써 왔으며 과학 전시회와 관련 교육부장관상 등을 12회 수상하였고, 98년 농어촌 현대화 시범 학교 설계 작업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에 지대한 공헌
- 특히, 충남과학교육원 재직시에는 민속 자료를 기증받아 민속 전시관을 조성 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과학 교육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하고 태안중·고등학교의 분리로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을 해소, 주민 화합과 애향 의식 고취
- 태안군 교육장 재직시에서는 교과교육연구협의회를 통해 학력 신장과 사랑의 생활 지도를 통한 인성 지도와 교육의 인간화 실현으로 교육 행정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 올바른 교육자상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함

지역사회개발부문

● 약 력



金鉀鉉

• 1932. 11. 10 생
• 홍성군 정곡면 도산리
408

- 1956. 3 중앙대학교 문리대 철학과 졸업
- 1959 ~ 1960 서울 덕수상업고등학교 교사
- 1962 ~ 1969 장곡농업협동조합장
- 1976 ~ 1980 홍성군 농업협동조합장
- 1989 ~ 현재 충청남도 도정 평가위원, 홍주 향토문화 연구위원, 장곡 3.1운동 기념비 건립추진위원장, 성균관 전학
- 1999. 1 ~ 현재 홍성군 제 2건국범국민추진위원, 향토유적보호위원, 한국사학회원
- 1999. 4 장곡 향토 문화유물전시관 설치 사업 추진위원회 고문

● 공적 개요

- 1989년부터 홍주향토문화연구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향토 문화 유적 발굴에 전념하여 선사 시대 유물인 고인돌 58점, 선돌 3점, 적성총 3점, 석판묘 18기, 도요지 3곳, 야철지 11곳, 무문형토기 12점 등 100여 점의 유물을 발굴
- 특히, 백제 부흥 운동 전적지인 주류성 발굴, 장곡 3.1 항일 운동의 관련 자료인 법원 재판 기록과 사료를 발굴하여 항일 운동 참여자 18명에게 대통령 훈장과 포장이 추서되도록 하여 애국 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 선양
- 충청남도 도정평가위원 및 홍성군 제 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으로 국·도정의 충실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성균관 전학을 역임하면서 주민 의식 개혁 및 지방 문화 육성 발전에 헌신 노력함

체육부문

● 약 력



金泰炫

• 1939. 5. 3 생
• 천안시 원성동
267-14
천안시 교육청

- 1957. 4 충북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 1963. 3 ~ 1985. 2 천안계광중·병천중·금산동중·조치원여중·천안공고·병천고·충남여고·조치원여고 교사
- 1984. 6 ~ 1989. 12 한국 중·고등학교 양궁연맹 경기이사 부회장
- 1984. 10 제 33회 세계양궁대회 조직위원회 경기부장
- 1991. 9 ~ 1999. 8 충청남도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 장학관, 홍성여고 교장
- 1997. 9 ~ 1999. 8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 1999. 9 ~ 현재 천안교육청 교육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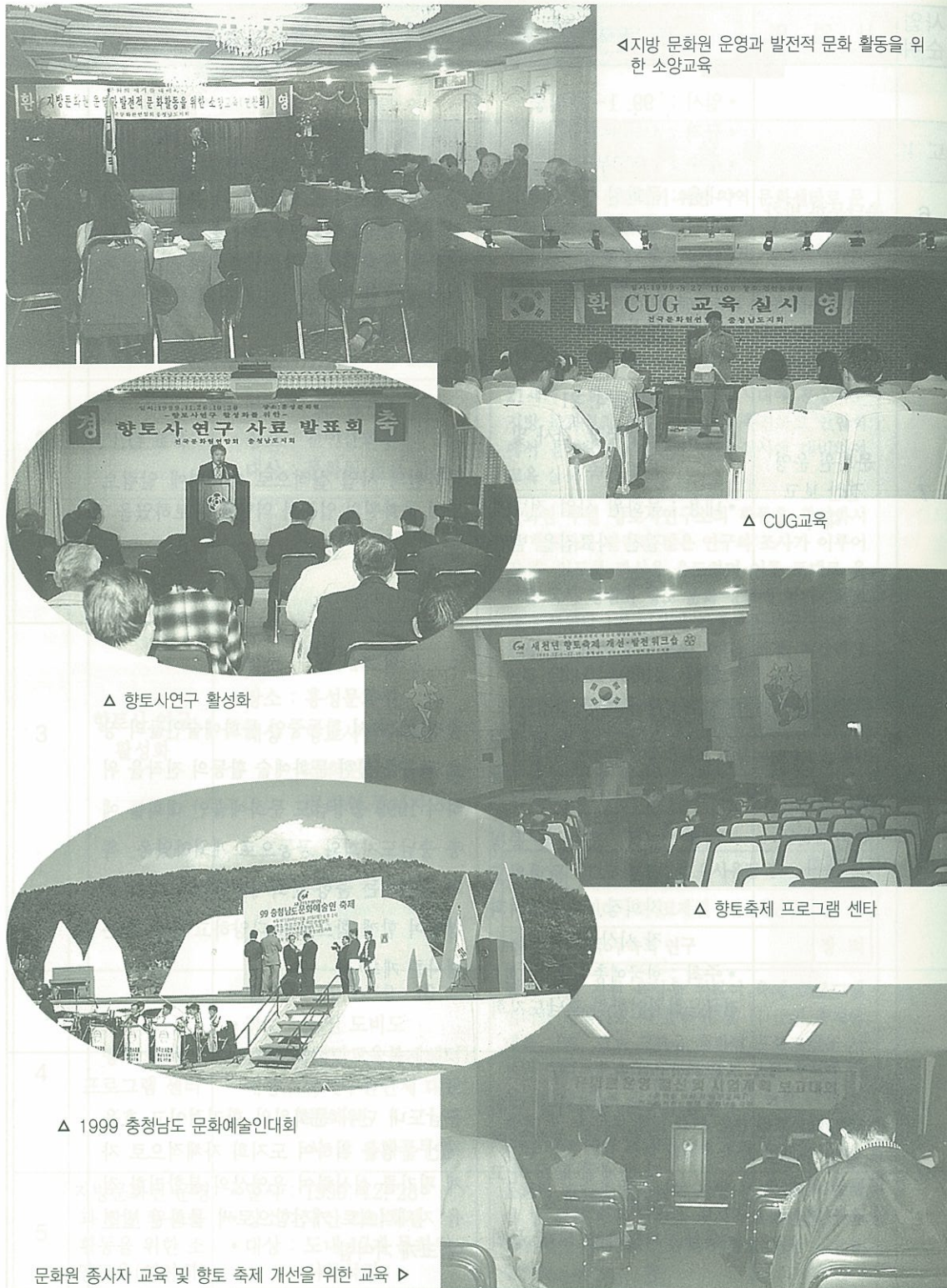
● 공적 개요

- 1963년부터 체육 교사로 투신한 이래 37여 년 동안 학교 체육 발전과 엘리트 선수 육성, 양궁, 육상, 하키, 핸드볼 등 낙후된 구기 종목의 경기력 향상과 미보급 경기 종목에 대한 경기 인구의 저변 확대에 헌신 노력
- 특히, 1974년부터 충남양궁협회이사·부회장 및 대한양궁협회 이사, 세계양궁 선수권대회 임원, 아시아 경기대회 양궁경기 운영 요원, 한국 중·고등학교 양궁연맹 경기이사 부회장으로 활약 양궁 발전에 크게 기여
- 1994년부터 홍성여고 교장, 충남교육청 평생교육 체육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 대표 양궁 선수 배출, 98전국체전 3위 입상, 99전국소년체전 3위 입상 등 전국 규모 체전 충남 상위권 입상과 학교 체육 활성화에 크게 공헌함

'99 충남도지회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	문화원 종사자 교육 및 향토 축 제 개선을 위한 교육	• 일시 : '99. 4. 20~21 • 장소 : 부여문화원 • 대상 : 각 시·군 및 문화원 향토 축제 담당자	지역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지역 문화센터로 문 화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리, 회계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축제관련자를 대상으로 향토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향토 축제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 모하고 지역 문화창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승화시킴																						
2	CUG 교육	• 일시 : '99. 8. 27 • 장소 : 천안문화원 • 대상 : 문화원 전산 담당	21세기 문화의 시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지방 문화원의 정보 전산화를 촉진하고 연합회 에서 운영중인 CUG의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교육 실시																						
3	향토사 연구 활성화	• 일시 : '99. 11. 26 • 장소 : 홍성문화원 • 대상 : 향토사연구위원 문화원장, 임원, 문화원 종사자	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활동을 활성화시 켜 향토사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며 이를 토대로 올 바른 국사 정립과 향토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자 문화원당 1편 이상의 향토사료 연구 조사 논 문을 응모받아 우수 논문 3편을 선정, 시상하고 이를 토대로 세미나를 개최함 <table> <tr> <th>성 명</th> <th>제 목</th> <th>등급</th> </tr> <tr> <td>임영수</td> <td>조치원 지명 유래에 대한 재조명</td> <td>최우수</td> </tr> <tr> <td>이인화</td> <td>기지사 줄다리기의 재조명</td> <td>우 수</td> </tr> <tr> <td>이은우</td> <td>서산지방의 백제역사</td> <td>우 수</td> </tr> <tr> <td>윤홍수</td> <td>충신두촌 임정식 유사유감</td> <td>장 려</td> </tr> <tr> <td>이영하</td> <td>여미리의 고대묘제 및 고분문화연구</td> <td>장 려</td> </tr> <tr> <td>한갑동</td> <td>한국 무속의 연구</td> <td>장 려</td> </tr> </table>	성 명	제 목	등급	임영수	조치원 지명 유래에 대한 재조명	최우수	이인화	기지사 줄다리기의 재조명	우 수	이은우	서산지방의 백제역사	우 수	윤홍수	충신두촌 임정식 유사유감	장 려	이영하	여미리의 고대묘제 및 고분문화연구	장 려	한갑동	한국 무속의 연구	장 려	
성 명	제 목	등급																							
임영수	조치원 지명 유래에 대한 재조명	최우수																							
이인화	기지사 줄다리기의 재조명	우 수																							
이은우	서산지방의 백제역사	우 수																							
윤홍수	충신두촌 임정식 유사유감	장 려																							
이영하	여미리의 고대묘제 및 고분문화연구	장 려																							
한갑동	한국 무속의 연구	장 려																							
4	향토 축제 프로그램 센터	• 일시 : '99. 12. 9~10 • 장소 : 당진 도비도 (대호농어민교육복제센터) • 대상 : 축제주관단체 대표, 문화원, 시·군 관계공무원	향토 축제 지원 육성을 위하여 축제 프로그램 센터를 운영하고 각 문화원 및 시·군의 축제에 대한 기획, 정보 교환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기 관과 유기적으로 공유하여 향토 문화 축제에 대 한 운영을 핵심 기구로 육성하기 위해 17개 문 화원 및 시·군의 향토 축제 결과 분석표를 제출 받아 이에 대한 사례 발표와 초청 강연을 개최																						
5	지방문화원 운영 과 발전적 문화 활동을 위한 소 양교육(연찬회)	• 일시 : 1999. 12. 28 • 장소 : 덕산 가야호텔 • 대상 : 도내 17개 문화원 사무국장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지방 문화원이 지향해 야 할 문화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적인 문 화원의 운영과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6	충남문화 발간	- 일시 : '99. 1~12월중 - 규격 : 4×6배판 - 부수 : 1,000부 - 내용 : 문화원 활동상황 향토문화 계도 - 보급 : 무가 보급 (전국 문화원, 기관, 단체, 향토사연구소 등)	98년에 이어 『충남문화』 제 3집 발간 『충남문화』는 충남도의 문화 시책, 도내 각 종 문화 행사와 도지회 및 각 문화원의 년 간 활동상황, 향토연구소사 활동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이는 충남 향토문화 사에 귀중한 사료로써의 가치를 가짐	
7	문화원 운영 결산 보고 대회	- 일시 : 1999. 4. 21 - 대상 : 사무국장, 간사 및 문화가족 - 내용 : 문화원 사업 전반에 걸친 자료집을 발간 배포	문화원의 사업 실적으로 대내외에 알림으 로써 문화원의 업무와 역할을 홍보하였음	
8	1999 충청남도 문화예술인 대회	- 일시 : 1999. 10. 30 - 장소 : 충남 아산 신정호 - 대상 : 충남도내 문화예술 인 및 출향 문화예술 인 - 내용 : 연극, 공연 및 충청 남도지사, 문화원도 지회장, 예충도지회 장 시상, 오찬 - 주최 : 한국예충충남도지회,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	충청남도에서 활동중인 문화예술인들의 상 호 교류를 통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작을 위 하여 1999 충청남도 문화예술인 대회를 예 충 충남도지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음. 특 히 금년에는 출향 문화예술인들을 대거 초 청하여 함께 함으로써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사를 개최함	
9	지방문화원 운영 과 발전적 문화 활동을 위한 소 양교육(연찬회)	- 일시 : 1999. 7~9월 - 방법 : 자체 평가서를 단위 문화원에 송부하여 작성제출토록 하고 이를 비교평가 - 대상 : 희망하는 도내 문화 원	충남도내 단위 문화원의 합리적이고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회 자체적으로 자 체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 을 자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문화원 발전 에 크게 기여함	



'99 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	'99 문화학교	- 기간 : 4~12월 - 과목 : 12개 과목 - 수강 인원 : 400여 명	요일별 개별 강좌 기타, 실내악, 한문, 켈트, 사진 등 12개 과 목 유적지 순례(6월 8일) - 서울 몽촌토성 등	사진 첨부
2	우리 문화 한아름교육	- 기간 : 3~12월 (매주 토요일) - 장소 : 문화원 놀이마당, 문화사랑방, 강당, 각급 학교 강당 - 대상 : 초·중·고생 (학교별 실시)	청소년들에게 전통 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제공하고, 정서 순화 및 감성 개발을 위해 '애들아 모여라, 우리 문화 찾아가자'란 타 이틀로 전통 문화 이론 및 국악 이론, 우리 함께 배워요, 우리 가락 신바람 한마당, 영 상물 감상 등 실시. (학교별 신청 접수 후 실시)	"
3	수채화 교실	- 기간 : 4~11월 (매주 월, 화요일) - 참석 인원 : 50명	소묘, 데생, 수채화 초급 및 중급 과정 야외 스케치 및 전시회 관람 등 년 1회 작품전 실시	12.20 ~ 22 작품전
4	시창작 교실	- 기간 : 4~12월 (매주 금요일) - 참석 인원 : 20명	예술 강좌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론, 수사론 문장론 등 시창작 강의 년 1회 시집 발간	
5	여류 시인 김부용 추모제	- 일시 : 4. 25(11:00) - 장소 : 광덕산 운초 묘역 - 참석 인원 : 100여 명	다례, 헌시 낭독, 시세계 조명 강의 등 문인협회, 향토사연구회, 문화가족, 회원, 천안차인회 회원 등 100여 명 참석	사진 첨부
6	향토문화자료 특집 6 발간	- 도서명 : 조선왕조실록 속의 천안 이야기 - 발행일 : 99. 5 - 발행 부수 : 1,000부	조선왕조실록 속에 나타난 천안에 대한 이 야기를 발췌 사건별, 사안별로 정리 요약하 여 엮음	"
7	내 고장 문화 알리기 사업 - 전입 주민 환영의 밤	- 일시 : 5. 28(19:00) - 장소 : 천안시민회관 대강당 - 대상 : 전입 1년 미만의 가족 단위 참석 - 참석 인원 : 800여 명	전입한 지 1년 미만의 가족을 초청, 천안에 대한 소개 및 각종 공연(시립합창단, 국악 관현악단, 실내악단, 사물놀이 등) 관람, 천안 소개 책자, 향토 자료집 배부 등 실시	"
8	어머니합창단 운영 - 제 6회 정기 연주회	- 일시 : 6. 3 (19:00) - 장소 : 천안시민회관 대강당 - 참석 인원 : 1,000여 명	천안문화원 노래사랑 문화가족 어머니합창 단(레이디스 싱어즈)의 여섯 번째 정기 연 주회 단원 60명, 성악가 특별 출연 매주 토요일 오전 합창연습, 영상음악감상	"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9	'천안문화' 제 28호 발간	• 발행일 : 6. 27 • 발행 부수 : 1,000부	향토문화 정보지로서 상반기 천안 지역 문화예술 소식, 논단, 장르별 활동, 기획 특집 등 수록	
10	찾아가는 박물관	• 기간 : 7. 7~10 (4일간) • 장소 : 문화원 다목적실, 외부 전시(대형 버스) • 관람 : 학교 단체 관람 등 2,000여 명	국립중앙박물관 순회 전시로 천마총 설명 판넬, 만화로 보는 박물관 판넬 등 6여점 전시, 대형 버스 이용 천마총 유물 전시 및 전통 영화 상영 등	사진 첨부
11	개원 45주년 기념식	• 기간 : 7. 10 (10:30) • 장소 : 강당 • 참석 인원 : 300여 명	기념식(기념사, 축사, 유공문화예술인 표창, 사업보고, 지역문화선언문 낭독, 문화원 송가 합창 등), 리셉션 등 실시 기관, 단체장, 일반 시민, 문화예술인 등 참석	"
12	'화미회' 수채화전	• 기간 : 7. 10~15 • 장소 : 전시실 • 참석 인원 : 회원 11명	수채화교실 수강생 중급 과정을 이수한 11명으로 구성된 '화미회' 창립전	
13	천안문화사랑 설치	• 규모 : 30평 • 장소 : 천안역 역사내 • 개관 : 7. 13	천안역 역사내 문화홍보관으로 천안 관광안내 및 문화재 현황, 명소, 역사, 인물, 문화유적, 전설, 민요 등을 현황판으로 제작 설치 서예, 양화, 한국화, 문인화 등 작품 전시	사진 첨부
14	글짓기 교실	• 일시 : 7. 23~31 (10:30~12:30) • 장소 : 초등학교 3~6년생 • 참석 인원 : 50명 수상	초등학교 3~6학년 대상으로 신청 접수 후 50명 수강 작문지도, 독서지도, 원고지 작성법 등 강의	
15	청소년 어울마당 - 반딧불 문예 축전	• 일시 : 8. 14 (16:00~21:00) • 장소 : 광덕면 보산원초등학교 • 참석 인원 : 1,000여 명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내 손바닥 석고찍기, 봉숭아 꽃물들이기, 시창작 교실, 시화전, 시낭송, 가족 동요부르기, 실내악 연주, 사물놀이 공연, 라이브 가수 초청 공연 등 1,2부로 나누어 실시	
16	향토 축제 개선 사업	• 일시 : 8. 31 (14:00) • 장소 : 다목적실	향토 축제(천안삼거리문화제)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한 토론회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위원 등 30여명 참석	
17	꽃꽂이 교실 (작품전)	• 강의 일시 : 매주 금요일 • 작품전 : 9. 17~19 • 장소 : 다목적실 • 출품 인원 : 30명	매주 금요일 오후 실시하고 있는 꽃꽂이 교실 수강생 30여 명의 생화, 드라이 소재를 이용한 생활, 예술 꽃꽂이 등 작품 전시	사진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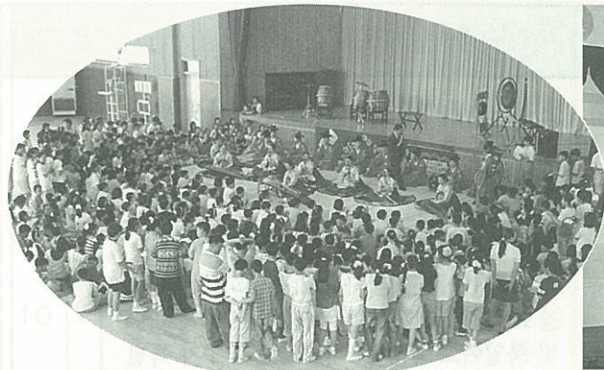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8	제 29회 학생 글짓기 · 사생대회	• 일시 : 9. 19 (10:00~17:00) • 장소 : 천안삼거리공원 • 참석 인원 : 600여 명	초·중·고생 대상(학교별 글짓기·사생 부문 각 5명씩 추천받아 실시) 당일 심사 후 시상	
19	한마음 실내악단 연주회	• 일시 : 11. 11(19:00) • 장소 : 천안시민회관 대강당	부설 한마음 실내악단의 제 6회 정기 연주회로 '내일을 향한 사랑의 음악회'란 타이틀로 실시, 클래식, 외국 민요, 가곡 등 연주 및 북일여고 합창단, 바이올린 연주자 특별출연 등 90분간 실시, 단원 27명으로 구성 매주 화요일 오전 연습	
20	'천안문화' 제 29호 발간	• 발행일 : 11월 말 • 발행 부수 : 1,000부	향토문화 정보지로서 하반기 천안 지역 문화예술 소식, 논단, 장르별 활동, 기획 특집 등 수록	
21	'99 오늘의 천안미술전	• 기간 : 12. 3~8 (6일간) • 장소 : 전시실 • 출품 인원 : 70여 명	천안 지역 최대의 미술전으로 천안 지역 작가 (서양화, 한국화, 서예, 공예, 디자인, 조각 등)를 초청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하여 실시 신청 접수 후 70여 점 전시	
22	향토문화자료 15집 '천안의 지명총람' 발간	• 발행일 : 12월 초 • 발행 부수 : 1,250부	천안시 25개 읍·면·동별 옛 지명 조사 연구 옛 명칭과 현재의 명칭 비교 분석 지명에 따른 민담과 인물 첨부 수록	
23	향토사연구소 운영 '향토연구' 제 10집 발간	• 발행일 : 8. 1 • 발행 부수 : 1,000부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정기 회지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들의 연구논문 수록	
24	향토사료 조사·수집사업	• 기간 : 년 중	문헌(고문서 등) 및 유물 등 각종 자료 수집	
25	향토사료관 운영	• 기간 : 년 중	향토사료관 안내(현황)판 제작 전시대 및 사료관 시설 보강 등	사진 첨부



△ '99 천안문화원 문화학교 - 기타교실



△ 윤초 김부용 추모제 - 4. 25 (광덕산 윤초 묘역)



△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 - 6. 5 (쌍용초등학교 강당)



△ 내 고장 문화 알리기 사업
- 전입 주민 환영의 밤
(5.28) 천안시민회관 대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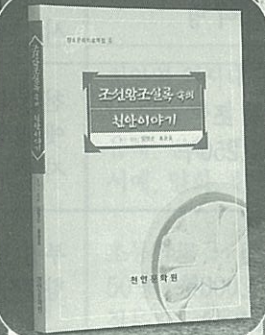
△ 어머니 합창단 제 6회 정기연주회 (6.3) 천안시민회관 대강당



△ 찾아가는 박물관
(7. 7~10)



△ 개원 45주년 기념식 7.10(10:30)



△ 향토문화자료 특집 6
- 조선왕조실록 속의
천안 이야기 -



△ 꽃꽂이 작품전 (9.17~19)
- 꽃꽂이 교실 수강생 작품전



△ 천안문화사랑 설치 - 천안역 역사내 문화 홍보관



△ 향토사료관 운영 - 일본인 관광객 견학 (10. 6)

'99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	장승제 보존	• 일시 : 3. 1 • 장소 : 천안시 성남면 • 참석 인원 : 100여 명	사라져가는 장승제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제수 비용 등을 지원	
2	개원기념 효자, 효부 및 효행 청소년 시상	• 일시 : 4. 20 • 장소 : 문화원 강당 • 참석 인원 : 80여 명	효행자들을 시상하고 그 선행을 널리 알림	
3	청소년 음악회	• 일시 : 5. 29 • 장소 : 천안시 병천면 병천성공회 • 참석 인원 : 200여 명	강사를 초청하여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기회 부여	
4	단오절 민속축제	• 일시 : 6. 16~6. 17 • 장소 : 아우내장터 • 참석 인원 : 200여 명	전통민속놀이 경연대회 개최 국악단 초청 공연	
5	제 79주기 유관순 열사 추모제 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	• 일시 : 10. 12 • 장소 : 유관순 열사 사우 • 참석 인원 : 200여 명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백일장 및 사생대회 개최	
6	백일장 및 사생대회 입상 작품집 발간	• 일시 : 11월중	백일장 및 사생대회에 입상한 작품을 엮어 배포함	
7	문화 유산 현장 답사	• 일시 : 11. 25 • 장소 : 김천 직지사 • 참석 인원 : 120여 명	문화원 가족들을 초청 문화 유산을 찾아 떠나는 테마 여행	
8	청소년 문화강좌	• 일시 : 9. 15~9. 17 • 장소 : 각 학교 강당 • 참석 인원 : 700여 명	유명 강사를 초청하여 관내 학교 순회 강연	
9	전입 주민 초청 '우리 고장 문화 알리는 날' 운영	• 일시 : 10. 17 • 장소 : 관내 유적 • 참석 인원 : 110명	새로 전입한 주민들과 관내 유적을 돌아보 며 향토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킴	
10	농악(풍물)놀이 강습회 개최	• 일시 : 99. 11~2000. 2 • 장소 : 성남면사무소 • 참석 인원 : 100여 명	농악(풍물)놀이 강습회를 지역별로 개최하 여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	



△ '99 단오제 그네뛰기



△ 문화유산 현장답사 '대웅전' 앞에서



△ '99 정기총회



△ 단오제 풍물패 '치후천황'의 식전행사



▷ 풍물(농악) 강습회 강사들의 시범연주

▽ 풍물(농악) 강습회 강사의 설명에 진지한 단정으로 경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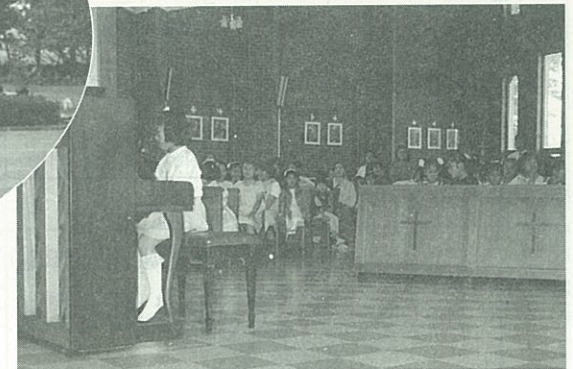
△ '청소년 음악회' '합창'



△ 백일장 및 사생대회 유관순 열사 사우에서 매년 열려 열사의 애국 정신을 되새기는 등 그 의미가 깊다

△ 청소년 음악회 연주 감상에 진지한 학생들

▽ 청소년 음악회 '피아노 연주' 감상 위주에서 탈피 직접 연주하는 발표회 개념으로 개최했다.



'99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	향토 문화 제 15집 발간	• 일시 : 1998. 12. 30	성환읍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내용을 모아 발간	1000부 예정
2	내 고장 고적 순례	• 일시 : 6.24, 7.3, 8.5, 8.9, 8.13, 9.11 • 장소 : 천안시 일원 • 참석 인원 : 300명	관내 유적지 답사를 통한 애향심 고취	년 6회 사진첨부
3	청소년 선도강연회	• 일시 : 7.14, 8.30 • 장소 : 동성중, 성환중, 입장중, 광풍중, 성환고 • 참석 인원 : 1,200명	청소년들이 지녀야 할 효(孝)에 관한 내용	년 5회 사진첨부
4	여성취미교실 (꽃꽂이 강습)	• 일시 : 8.31, 9.7, 9.14, 9.21, 9.28, 10.5, 10.12 • 장소 : 본원 • 참석 인원 : 210여 명	• 생활 꽃꽂이 지도 • 수강생 작품 전시회 (10.30 성환 배 축제 時)	년 7회 사진첨부
5	노인교양강좌	• 일시 : 1998. 3~11월 • 장소 : 성환노인학교 • 참석 인원 : 3,000여 명	건강한 노인 생활 및 레크레이션 강좌	년 30회 사진첨부
6	시창작교실	• 일시 : 8. 9~10.27 (매주 화, 수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 인원 : 480여 명	학생을 대상으로 독후감, 글짓기, 시창작 등의 운율, 수사법, 작문 등	년 24회 사진첨부
7	향토사교실	• 일시 : 9. 6 ~ 10. 28 (매주 월, 목, 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 인원 : 400여 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 바로 알기 강의 및 현장 답사	년 20회 사진첨부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8	한문교실	• 일시 : 8. 2~8. 31 (월~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 인원 : 480명	학생 및 일반을 대상으로 기초 생활 한자 과정	년 24회 사진첨부
9	서예교실	• 일시 : 7. 26~8. 31 (월~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 인원 : 400명	학생 및 일반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 궁체 지도	년 20회 사진첨부
10	향토 작가 초대전	• 일시 : 7.10~7.12 • 장소 :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 인원 : 900명	내 고장 출신의 미술 작가의 작품을 전시 (34작품)	년 1회 사진첨부
11	백제문화 탐방 ('99 청소년 어울마당)	• 일시 : 5.5, 6.5, 6.10 • 장소 : 청주, 서산 • 참석 인원 : 150명	찬란했던 백제 문화의 흔적을 찾아서 탐방	년 3회 사진첨부
12	내 고장 자랑 글짓기	• 일시 : 10. 30 • 장소 :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 인원 : 285명	관내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내 고장 자 랑에 관한 글짓기 공모, 시상	시상 11. 27
13	애향의식 고취 그림 그리기	• 일시 : 10. 30 • 장소 :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 인원 : 293명	관내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공모, 시상	시상 11. 27
14	경로 효친 회호대회	• 일시 : 10. 30 • 장소 :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 인원 : 55명	관내 초·중학생 대상으로 경로 효친에 관한 서예대회	시상 11. 27
15	입상 작품집 발간	• 일시 : 11. 25 • 장소 : 본원 231작품 수록 (국판칼라)	글짓기, 그림, 회호대회 입상 작품집 발간	500부 예정
16	세시 풍속 웃놀이	• 일시 : 2. 25 • 장소 : 본원 • 참석 인원 : 80명	민속놀이를 통한 화합 단결 및 친목 도모	년 1회 사진첨부
17	시민음악회	• 일시 : 10. 30 • 장소 :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 인원 : 10,000명	시민 화합을 위한 음악회	년 1회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8	국악의 대향연	• 일시 : 10. 31 • 장소 :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 인원 : 800명	천안시국악관현악단 초청 공연	년 1회 사진첨부
19	향토 문화 해설집 제작	• 일시 : 8. 20	'천안을 알고, 찾고, 가꾸자' 라는 내용의 향토 해설집 제작	600부 사진첨부
20	향토 특산물의 관광상품화 전략 발간	• 일시 : 12. 30	내 고장의 특산물인 성환 배, 거봉 포도 의 관광상품화 전략 화보집 제작	500부 예정
21	전입 주민 우리 고장 알리기	• 일시 : 6.24, 11.10 • 장소 : 천안시 일원 • 참석 인원 : 150명	우리 고장으로 전입 온 주민들을 대상으 로 내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자 유 적지를 중심으로 탐방 홍보	년 3회 사진첨부



△ 내 고장 고적 순례



△ 청소년 선도 강연회



△ 여성취미 교실 (수강생 작품 전시회)



△ 노인교양강좌

▷ 서예교실

△ 시청작교실



△ 향토사교실



▽향토작가 초대전



△ 한문교실



△ 세시풍속 웃놀이



△ 국악의 대향연



△ 전입 주민 우리 고장 알리기



△ 백제 문화 탐방 (99청소년 어울마당)

'99 대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	한내 12시간 돌 다리 밟기 민속 축제	• 일시 : 10. 27 • 장소 : 대천천한내돌다리현장 • 참석 인원 : 관광객, 지역 주민 지역 인사 2,500여 명	지역 전통 민속놀이 및 옛 풍속을 재현함으 로써 전통 문화 재조명	사진 첨부	
2	대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 서예교실 • 한국화교실 • 사군자교실 • 공예교실 • 건강교실 • 민요교실	• 99. 1 ~ 12월 • " • " • " • 99. 10 ~ 12월 • 99. 6 ~ 12월	• 서예 기초 이론 및 실기 지도 • 한국화 기초 이론 및 실기 지도 • 사군자 기초 이론 및 실기 지도 • 종이접기 및 각종 공예 지도 • 수지침 이론 및 실기 지도 • 경기민요 이론 및 실기 지도	"
3	향토 사료집 발간	년 중	보령 지역의 향토자료 수집 및 향토자료 모 음집 발간		
4	향토 사료 수집	년 중	보령 지역 옛 민속품, 농기구류, 철물류, 도자기류 수집		
5	청소년 문화강좌	• 기간 : 8. 9~14 (6일) •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향토사, 사회 교육 전통 예절 등 방학 기간 중 청소년 사회교양 교육 실시	사진 첨부	
6	청소년 문화 유적 순례 대행진	• 기간 : 8. 15 • 장소 : 보령시 문화 유적 • 참석 인원 : 청소년 300여 명	관광버스 대절 보령시 문화 유적 탐방	"	
7	문화가족 문화 유적 순례 대행진	• 기간 : 11. 16 • 장소 : 용인 민속촌	관광버스 대절 문화원 회원 및 문화가족 용인 민속촌 탐방		
8	문화원 회원 작품 전시회	• 일시 : 12. 18~20 (3일간) • 장소 : 대천문화원 2층 소강당	문화원, 회원 및 문화가족 작품 서예, 한국화, 공예, 사진 등 60여 점 전시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9	우리 문화 한아름 강좌	• 일시 : 9 ~ 12월 • 장소 : 보령시 각 학교 순회	향토사, 한국화, 문화재 탐방, 학교 순회 교육	
10	초, 중, 고 미술, 서예, 백일장 실기대회	• 일시 : 11. 24~25 (2일간) • 장소 : 대천문화원 대소강당 및 옥외 공간 • 참석 인원 : 보령시 청소년 2,000여 명	미술, 서예, 백일장 청소년 실기대회 개최	
11	내 고장 문화 유산 교육자료 발간	• 일시 : 1 ~ 12월	보령 지역 청소년 학습 교재용 문화 유산 자료 발간	
12	우리 고장 문화 알리기	• 일시 : 1 ~ 12월	우리 고장 문화 역사 현장 팸플렛 제작 배포	
13	보령의 문화 역사 인물 및 평가 발간	• 기간 : 1 ~ 12월	보령의 역사적인 문화 인물 및 소재자 발간	



△ 청소년 문화강좌 폐강식



△ 한내 12시간 돌다리 밟기 민속 축제

△ 한내 12시간 돌다리 밟기 민속 축제
흔레 신랑신부 다리 밟기

△ 청소년 문화강좌 개강식

△ 취미교양강좌 수료식

△ 우리 문화 한아름강좌 향토사 순회 교육

'99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	향토축제 개선 사업	- 시기 : 1999. 6 ~ 12월 - 용역의뢰 기관 :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 연구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향토축제 개선 사업에 부응하고 해미읍성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특성을 바탕으로한 문화관광 축제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 사업을 실시함	
2	용대기놀이 시연	- 일시 : 1999. 9. 19. 16:00 - 장소 : 서산시문화회관 광장 - 연출 : 박상의 - 출연 인원 : 덕지천동 두레패, 장도 두레패(80명)	서산의 덕지천동(덕지내)과 장동(돌계미)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벌어졌던 용대기 놀이는 일명 기줄기라고도 불리우는 민속 놀이로 그 역사적 전통과 규모면에서 타지방의 것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성대했음, 이를 덕지천동의 공양군공과 최용준옹 등의 체험단을 바탕으로 복원 시연함으로써 사라져가는 민속을 보존·전승함	
3	문화알리는 날 운영	- 일시 : 1999. 12. 21 - 장소 : 서산시청 대회의실	지난해(1998년)에 이어 지역 주민, 또는 전업 주민들을 초청, 지역 유래 및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내 문화 현장을 소개 향토 문화 채득과 주민 의식을 심어줌	
4	향토사료 수집	- 일시 : 1999. 12월 - 장소 : 서산을 중심으로 백제권역	백제 시대의 토기류와 무속 사료를 중심으로 전문 수집인과 계약을 통하여 각종 사료를 수집하였음	
5	호산록 재판	- 시기 : 1999. 5 ~ 9월 - 재판 수량 : 1,000부	우리 고장의 향토사료지(370여 년 전)인 호산록이 국내외적으로 향토사 연구의 자료로 많이 쓰여져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나 소장본, 또는 보급본이 없어서 이를 재판·보급함	
6	지육교실 운영	- 시기 : 연중 - 대상 : 초·중학생 - 장소 : 지육교실 강의실	지식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학교 교육 외에 영재 교육에 필요한 개성과 능력과 특성을 살려 저마다의 소질과 소양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7	제 2의 건국운동 추진 강좌	• 시기 : 1999. 3. 15~11. 23 • 장소 : 읍·면·동사무소 회의실, 문화사랑방 • 대상 : 15개 읍·면·동 회원 • 참석 인원 : 총 600여 명	제 2의 건국의 이상은 문화에 있다고 제시하면서 동문동의 추진은 문화로부터 시작하여 문화의 힘으로 이루자는 강좌를 실시함	
8	주부 교양 강좌	• 시기 : 1999. 5. 25 • 장소 : 서산문화원 문화사랑방 • 대상 : 대한노인회 회원 • 참석 인원 : 100여 명	가정은 생활의 터전이며 기본이다. 건전한 가정이 건전한 나라를 만들며 가정 교육이 기본이 된다. 이에 가정의 주된 역할은 주부가 담당하므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실시함	
9	노인 교양 강좌	• 시기 : 1999. 6. 15 • 장소 : 서산문화원 문화사랑방 • 대상 : 대한노인회 회원 • 참석 인원 : 100여 명	가정의 연로가 막히고 발언권이 없어진 노인들이 회초리를 들고 자녀, 또는 손자녀들을 바른길로 가게 이끌 수 있는 노년층 대상의 강좌를 실시함	
10	서산의 백제사 조사 연구 사업	• 일시 : 1999. 11. 16 • 장소 : 서산문화원 문화사랑방 • 대상 : 내포지역 (서산, 태안, 당진, 예산, 홍성) 향토사학자 • 참석 인원 : 100여 명	백제 시대의 서산 지역을 조명하여 그 문화를 체계화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도모하여 서산 지역이 백제 문화의 발상지임을 고찰하고 세미나를 개최함	
11	문화 유적 현장 학습	• 시기 : 1999. 3. ~ 4월 • 대상 : 문화가족, 국악협회, 서산시청 사격선수단 • 장소 : 서대문구치소, 국립박물관, 민속박물관, 예술의 전당	관내외의 문화 유적을 답사하면서 문화 의식 고취와 문화제의 소중함을 인식케하며 문화재 보호 의식을 심어줌	
12	문화대상 시상	• 시기 : 1999. 12. 20 • 장소 : 서산시문화회관 대강당 • 시행 방법 : 서산문화대상포상 운영규칙에 따라 서산문화대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발굴 시상함 • 수상자 : 서예가 문정용	향토 문화예술 진흥에 공이 많은 인사를 서산문화대상 포상 운영 규칙에 의거 발굴하여 시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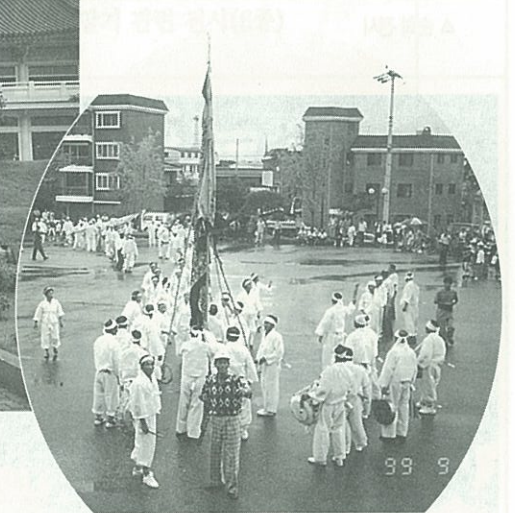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3	이달의 문화인물 기념 행사	• 시기 : 1999. 1 ~ 12월 • 대상 : 지육교실 학생 및 회원, 분교장 학생, 문화학교 수강생	정부가 지정하는 이달의 문화 인물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조명해 보는 행사를 실시함	
14	건축·문화의 해 기념 행사	• 시기 : 1999. 8. 30 ~ 31 • 장소 :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일원	정부가 매년 지정하여 그 의미를 기리는 행사로써 한국의 건축물을 탐방하고 한국 건축물의 우수성을 인식함	
15	문화사랑방 운영	• 시기 : 1999. 1 ~ 12월 • 활용실적 : 총 146회 • 내용 : 지역문화학교 강좌, 미술전시회, 회의장, 연극 연습 장소 등으로 활용	정부가 설치해 준 문화사랑방을 문화 애호 동호인들의 만남과 행사, 휴식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함	
16	작은 도서관 운영	• 시기 : 1999. 1 ~ 12월 • 대상 : 일반 시민 및 회원	정부가 지정한 작은 도서관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신간 도서 구입, 문화원간 배부 서적의 활용, 내실을 확충해 가며 지식 정보 제공의 산실로 널리 활용함	
17	사이버 문화관 운영	• 시기 : 1999. 1 ~ 12월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soback.kornet21.net/~culinfo	문화원 고유 역할 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정보통신 체계를 활성화하고 각종 지역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지역 문화 및 지역 정보 센타로 운영함	
18	전시 홍보 활동	• 일시 : 1999. 1 ~ 12월 • 장소 : 각급기관 및 사회 단체의 해당 장소	정부가 보급하는 자료와 각종 문화 예술 관련 홍보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전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요청에 따라 순회 강연도 실시함	
19	순회 전시	• 시기 : 1999. 12. 13 ~ 18 • 장소 :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서산의료원, 문화사랑방	현실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도시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문화 향수권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지역을 순회하며 전시회를 개최하고 지역 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20	서산 사계절 문화관광축제	- 시기 : 1999. 9 ~ 12월 - 주관 연구자 : 한국문화정책 개발원 연구원 이원태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서산의 대표적 축제 를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가에 의뢰하여 서 산 사계절 문화관광 축제를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계절 어울리는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함	
21	새해 다짐 대회	- 시기 : 1999. 1. 4. 10:30 - 대상 : 시민 - 장소 : 현대예식장	새해를 맞이하여 각계의 인사들이 한데 모 여 새해 인사와 이 고장 발전과 도약, 그리 고 화합을 다짐하는 신년 하례식을 가짐	
22	향학관 설치	- 시기 : 1999. 1 ~ 12월 - 취전된 학자수 : 105명	전국의 대학 및 학술 기관에 재직하는 서산 출신 학자들의 자료를 취전하여 자료집을 발간하고 저서, 논문 등을 수집함	
23	문화원보 (스산의 숨결) 발간	- 시기 : 1999. 1 ~ 12월 - 대상 : 문화원 회원 및 기관 - 발행 부수 : 월 2,500부	문화원 소식지로 매월 1회 36면을 발간하 여 회원 및 전국 문화원, 출향 인사, 각급 기관에 배포하여 향토문화 교양지로 발전 시키고 회원간 교류의 창으로 활용함	
24	지역문화학교 운영	- 시기 : 1999. 3. 3 ~ 11. 4 - 대상 : 주부 및 일반인 - 개설강좌 : 문화유적답사교 실, 민요부르기교실, 논어교 실, 종이접기와 한지공예교 실, 기타교실, 수채화교실	정부가 지정한 지역문화학교로 주부를 주 대상으로 문화 예술적 감성을 개발하여 지 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 교 육을 실시함	
25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	- 일시 : 1999. 4 ~ 12월 - 장소 : 30개 초·중학교 - 대상 : 초등학생 및 중학생	문화관광부의 특수 시책으로 감수성이 예 민한 청소년들에게 전통 문화 예술을 접하 고 익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우 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함	
26	청소년 야외 음악회	- 시기 : 1999. 10. 19 - 대상 : 초·중·고학생 및 시민 - 장소 : 서산시문화회관 광장 - 참여 인원 : 3,000여 명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을 감상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예술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여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정서 함양, 건전한 가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27	제 1회 청소년 문학제	- 시기 : 1999. 9. 19 - 대상 : 서산시문화회관 광장 - 주관 : 서산문화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문학을 접함으로써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글쓰기를 통해 사 고력을 함양하며 이를 통해서 건전한 청소 년 문화를 육성함	
28	서해안 저녁놀 축전	- 시기 : 1999. 12. 31 - 대상 : 부석면 간월도리 일원 - 참가자 : 각급 기관장 및 서 산 시민 1,000여 명	충청남도 밀레니엄 행사의 일환으로 부석 면 간월도리 일원에서 천년을 보내며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천년에는 희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함	
29	새 천년 맞이 봉화 축제	- 시기 : 1999. 12. 31 - 장소 : 각 읍·면·동의 주산 및 봉화터 - 참가자 : 각 읍·면·동장 및 해당 지역 인사	충청남도 밀레니엄 행사의 일환으로 각 읍 ·면·동을 통하여 새 천년 맞이 봉화 축제를 실시하였음	
30	원사 신축	- 시기 : 1999. 1 ~ 12월 - 위치 : 서산시 읍내동 515-2번지	연속 사업으로 1999년도에는 국비 2억, 도 비 2억, 시비 8억7천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현대식 건물로 원사를 신축하 기 위하여 설계를 마치고 건축 예정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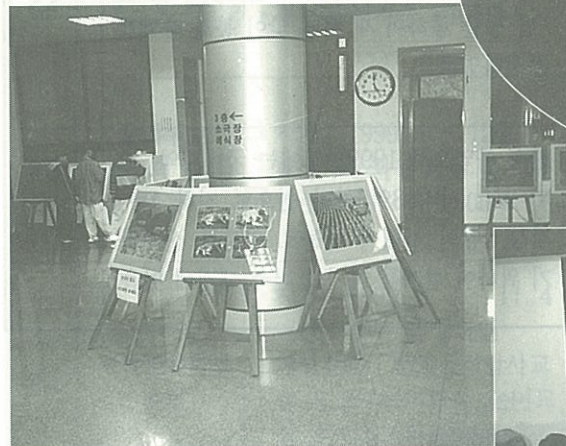
△ 건축 문화의 해 기념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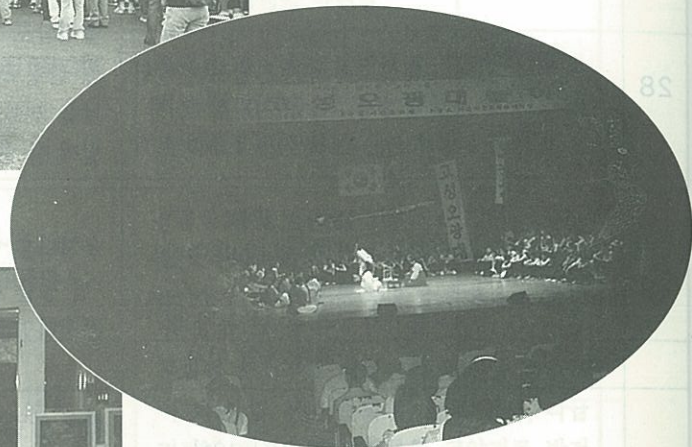
△ 용대기놀이 시연



△ 제 1회 서산시 청소년 백일장



△ 순회 전시



▽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



△ 서산의 백제사 학술회의



△ 청소년 야외 음악회

'99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	강경 황산나루 용왕제	• 일시 : 99. 3. 15 • 장소 : 강경포구 • 참석 인원 : 800여 명	• 목적: 우리 민속 문화의 뿌리 토속 신앙인 용왕제를 재현함으로써 토속 문화에 대한 애착심과 깊은 이해로 향토 문화의 발굴은 물론 사라져가는 민속 문화 예술을 계승 발전 보급하며 문화 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에 의한 고장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 내용: 부정풀이, 고축, 산신제(산신당), 신명봉청(용왕제), 뉘풀이, 고풀이, 용선맞이, 신도축원(논산 시민을 위한 축원), 뒤풀이(두레풍장놀이)	
2	제 4회 논산 딸기 축제	• 일시 : 99. 4. 11 • 장소 : 논산공설운동장 • 참석 인원 : 25,000명	• 목적: 무궁해 논산 딸기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어렵고 힘든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논산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임 • 내용: 딸기 품평회, 딸기 먹기 경진, 딸기 선별 포장, 딸기 세미나, 딸기 요리 개발 경진, 딸기 관련 전시(6종)	
3	논산시 광석면 지와바리놀이	• 일시 : 99. 5. 27 • 장소 : 논산시민회관 • 참석 인원 : 600여 명	• 목적: 우리 민족 문화의 뿌리 농경 문화인 논산시 지와바리놀이를 재현함으로써 민속 문화에 대한 애착심과 깊은 이해로 향토 민속 문화 발굴은 물론 사라져가는 민속 문화 예술을 계승 보급하여 문화 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에 의한 고장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 내용: 두레공사, 농신제, 작업장의 준비, 논매기, 이동시, 두레싸움, 길굿, 지와바리놀이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4	여성 문화 학교 운영	• 일시 : 99. 6. 15~8. 2 • 장소 : 논산문화원 사랑방 • 참석 인원 : 1,440명	• 목적: 논산 관내의 주부들이 취미 생활을 하고 문화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임 • 내용: 장구 강습, 종이접기 강습, 요리 강습, 지점토 강습	
5	중·고생 및 전입 주민 유적지 답사	• 일시 : 99. 5. 21 (1차) 99. 7. 15 (2차) • 장소 : 논산문화유적지 • 참석 인원 : 180명	• 목적: 관내 중·고생 및 전입 주민들이 내 고 장 문화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임 • 내용: 돈암서원 답사, 개태사 답사, 쌍계사 답사, 성삼문 묘 답사, 계백 장군 묘 답사, 견훤 묘 답사, 강경 옥녀봉 답사, 이삼 장군 고택 답사, 충령사 답사	
6	제 3회 강경전 통맞갈짓 축제	• 일시 : 10. 16~10. 20 • 장소 : 논산시 강경읍 (강경고등학교) • 참석 인원 : 2만여 명	• 목적: 제조 방법의 전수와 철저한 품질 관리로 감칠맛 나는 강경 젓갈의 맛을 전국 각처에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정을 나눌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임 • 내용: 농악공연, 주부 옷놀이, 시가행진, 민속공연(품바, 각설이), 청소년어울마당, 김치담그기 대회, 씨름대회, 맛갈짓 할인판매(20%), 연예인 초청 공연 및 노래자랑, 농·특산물 홍보 판매, 향토 음식점 운영, 강경 민속장터 운영(인절미, 빈대떡, 김치, 막걸리 무료 제공), 그 외 다수의 종목	
7	'99. 초·중·고 글짓기, 그리기, 서예(일반) 실기대회	• 일시 : 99. 10. 22 • 장소 : 시민회관 광장 및 논산문화원 사랑방 • 참석 인원 : 1,300여 명	• 목적: 청소년들에게 내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창작 의욕을 왕성하게 해주며 내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임 • 내용: 제 14회 청소년백일장대회, 제 14회 청소년사생대회, 제 10회 서예실기대회	



강경 황산나루 용왕제



제 4회 논산 딸기 축제



△ 논산시 연산면 돈암서원





◁ 논산시 가야곡면 향림서원



△ 여성문화학교 운영 (종이접기 강습)



△ 중고생 유적지 답사



논산시 공석면 지와바리놀이 시연장면



△ 전입 주민 유적 답사



제 3회 강경 전통 맛갈젓 축제 광경
(1999. 10. 16~17)



'99 초·중·고 글짓기, 그리기,
서예(일반) 실기대회



'99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	「금산의 탐 신앙」 조사 보고서 발간	• 판형 : 4.6배판 600P • 부수 : 1,000부 • 조사 지역 : 금산 전지역	금산의 마을 공동체 신앙으로 자리한 돌탑 을 조사하고 2분포 및 성격을 규명하르써 금산의 탐 문화권의 중심지임을 밝히는 사 업	
2	장동마을 민속지 발간	• 판형 : 4.6배판 300P • 부수 : 1,000부 • 조사 지역 : 금산읍 양지리 장동 마을	장동 마을의 신앙·의례 민속놀이 등을 조사하여 금산 민속의 원형 탐구	
3	「장동 달맞이 축제」 이미지 표준화 규정집 발간	• 장동 달맞이 축제 • 심벌 마크 외 12종 제작	금산 마을 축제를 대표하는 장동 마을 대보 름축제를 특장화시키고 축제의 이미지 제고	
4	우리의 문화 유산을 찾아서	• 일시 : 11.7, 11.28 • 장소 : 온양민속박물관 내소사 문화답사 • 참석 인원 : 120명	• 청소년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역사 의 식을 제고시키고 문화 시민의 자질 향상 함양 • 금산 문화가족 참여와 자긍심 부여	
5	금산 문화 학교 운영	• 일시 : 3 ~ 8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참석 인원 : 191명	금산품물, 문예창작, 서예강좌, 판소리·민 요, 한국화, 마을공동체 문화강좌 등을 통 하여 생활과 함께 하는 생활 문화 교육과 평생 교육 구현	
6	금산 농악단 운영	• 일시 : 3 ~ 12월(10회) • 장소 : 금산군내 자연 마을 • 참석 인원 : 2,200명	• 각 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풍 물마당」 인삼골 농악경연대회 개최 • 각 마을에 금산농악 전수 • 금산 농악 강습(대학생)	
7	인삼골합창단 운영	• 일시 : 1~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참석 인원 : 600명	• 매주 목요일 '국민과 함께 하는 도래 모 임' 개최 • 정기 발표회 1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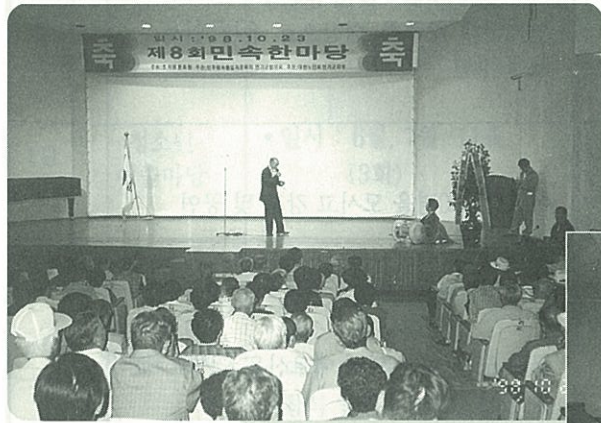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8	'99 장동 달맞이 축제	• 일시 : 3. 1 ~ 3. 2 • 장소 : 금산읍 양지리 장동마을 • 주최 : 금산문화원 • 주관 : 금산 농악보존회 장동마을 민속보존회 • 참석 인원 : 15,000명	• 자연 친화적인 관광 문화 축제로 한국문 화예술진흥원 후원으로 개최 • 종목은 물떼기 농요, 쉬리와 함께 하는 민물고기 탐사 여행 등 18개 종목 개최	
9	제 40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 일시 : 9. 14 ~ 9. 17 • 장소 : 제주도 • 참석 인원 : 140명	• 한국민속예술제에 충남을 대표하는 농바 우끄시기가 참가 • 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	
10	'99 금산 문화 예술제 개최	• 일시 : 11. 5 ~ 11. 7 • 장소 : 청산회관 • 주최 : 금산문화원 • 주관 : 좌도시동인회, 금동 인회, 금목회, 인삼 골 합창단 • 참석 인원 : 600명	문화의 달을 기념하는 종합 문화 예술제 로 음악회, 시낭송회, 미술 전시회, 서예 전시회, 영화 포스터전	
11	제 25회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참가	• 일시 : 10월 7일 • 장소 : 홍성문예회관 • 참석 인원 : 45명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인삼골합창단이 금 산을 대표하는 참가 동상 수상	
12	금산 문화 예술지 발간	• 판형 : 국판 130P • 부수 : 1,000부 • 대상 : 금산의 역사 인물 환 경, 시 작품 등	금산을 중심으로 하는 금강 문화권의 교 양 무크지 창간	
13	좌도시동인 시집 「불어라 바람이 여」 발간	• 판형 : 국판 152P • 부수 : 1,000부 • 대상 : 좌도시동인회	전국적인 동인회로 성장한 좌도시동인회의 동인 시집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4	금산사랑운동	• 일시 : 6 ~ 12월 • 장소 : 금산군 • 대상 : 전입자 주민 및 금산 방문객, 학생	• 금산에 전입하였거나 금산을 찾는 외래 관광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산 문화 를 소개하여 애향심 고취 • 전입 주민 문화 유적 답사 실시	8
15	큰기울리기 및 지신밟기	• 일시 : 2월 18일 • 장소 : 금산군 일원 • 참석 인원 : 400명	설날을 맞이하여 문화원 시무식으로 큰기 울리기를 한 후 각 기관과 가정을 방문 한 해의 풍년과 무사 태평 축원	
16	임희재 회고전	• 일시 : 11. 5 ~ 11. 7 • 장소 : 청산별관 • 참석 인원 : 400명	금산의 대표적인 예술인으로 작고한 시나 리오 작가 임희재 선생을 회고하는 영화 포스터와 작품집 발간	9
17	「독서생활화」 서석규 선생 초청 문학 강연회	• 일시 : 11. 6 • 장소 : 청산회관 • 참석 인원 : 210명	독서를 통한 탐구 정신 함양을 위하여 출 향 문인 초청 강연회 개최	01
18	청소년 캠프 운영	• 일시 : 7. 31 ~ 8. 1 • 장소 : 부리면 평촌리 • 참석 인원 : 90명	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하여 전통 문화 체험, 자연 생태 탐구, 극기 활동 실시	
19	청소년 어울마당	• 일시 : 6월, 7월, 11월 (3회)	청소년 여가 활동과 탐구 정신을 함양하 기 위하여 금강 탐사 기행과 백제 문화 유 적 기행 실시	
20	우리문화 한아름 행사	• 일시 : 3 ~ 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대상 : 초등학교 • 참석 인원 : 960명	매주 목요일 오후에 국악 체험 마당과 매 주 토요일 오후 글쓰기 체험 교실을 운영 하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여가 활동 지원	81
21	청소년 동아리 활동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참석 인원 : 720명	매주 토요일 오후 문화원을 개방 버팀목문 학동인회, 나아내어린이 풍물단운영 및 지 도	81

'99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	제 8회 민속 한마당	• 일시 : 10. 15 (09:00) • 장소 : 군민회관 대강당 • 참석 인원 : 700명	군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민요, 시조, 노 래가락 등 기타 장기 자랑	사진 첨부
2	농악대 운영	• 일시 : 3 ~ 12월 매주 월·금 오후 2시 • 장소 : 문화원 농악대사무실 • 참석 인원 : 50명	사라져가는 우리 소리(풍물)의 전승 및 농악대 운영	
3	향토사 운영	• 일시 : 3 ~ 12월 • 장소 : 연기군내 • 참석 인원 : 20명	연기 지역 향토 연구 활동 및 문화 유적지 고적 답사	
4	청소년 문화 유적 순례	• 일시 : 8 ~ 11월 (5회) • 장소 : 연기군내 • 참석 인원 : 200명	군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군내 유적 답사 및 강좌	
5	주부 교양 강좌	• 일시 : 10. 16 • 장소 : 군민회관 • 참석 인원 : 700명	연기군내 주부를 대상으로 유명 인사 초청 강연	사진 첨부
6	노인학교 운영	• 일시 : 10. 19 • 장소 : 군민회관 • 참석 인원 : 150명	어르신 700명을 모시고 강좌 및 공연	„
7	경로 효친의 달 행사	• 일시 : 5.6, 5.21, 11월 • 장소 : 현충사 및 서산 미륵사지 • 참석 인원 : 300명	군내 65세 이상 영세 어르신을 모시고 효 도 관광	„
8	경로 효친 웅변대회	• 일시 : 5. 19 • 장소 : 군민회관 • 참석 인원 : 200명	군내 초·중·고 학생들의 경로 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웅변대회	„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9	청소년 독후감 공모	• 일시 : 10 ~ 12월 • 장소 : 연기군내 • 참석 인원 : 100명	군내 초·중·고 학생 독후감 공모	
10	농악대 운영	• 일시 : 10월 매주 수·금·토·일요일 • 장소 : 군민회관 • 참석 인원 : 1,000명	군내 유치부·초·중·고·일반인을 대상으로 건전 영화 상영	사진 첨부
11	향토사 운영	• 일시 : 4. 19 ~ 20 • 장소 : 연기군내 • 참석 인원 : 200명	바둑 기능인 양성 군민 상호 친목 도모	"
12	청소년 문화 유적 순례	• 일시 : 12월 • 장소 : 군민회관 • 참석 인원 : 300명	문화 화합 다짐의 밤	"
13	주부 교양 강좌	• 일시 : 12월 • 장소 : 군민회관 • 참석인원 : 700명	2000년 맞이 신년 교례	"



◁ 제 8회 민속한마당



▷ 주부교양강좌



△ 노인학교 운영



△ 경로 효친의 달 행사



◁ 경로 효친 응변대회



△ 문화가족 간담회



◁ 군민 친선 바둑대회

▽ 신년 교례회



△ 청소년 건전 영화 상영



'99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	제 1회 시인 신동엽 문학제	'99. 4. 1~4. 30 부여문화원 및 부여군 일원 참석 인원 : 10,000여 명	민족 시인 신동엽 시인의 30주기를 맞아 시인을 추모하는 문화제를 개최 백일장, 시 낭송대회, 신동엽 비디오 감상회, 신동엽시 보내기 운동, 신동엽기념비 건립 등	
2	청소년 시낭송대회	'99. 4. 24 군내 중·고학생 대상 15개팀 참가 참석 인원 : 300여 명	군내 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낭송 대 회를 개최하여 아름다운 정서와 맑은 시 심을 심어 주고, 아울러 시를 읽는 청소 년상 정립	
3	어린이 역사교실	'99. 4. 1 ~ 12. 30 군내 초등학교 백제 문화권 유적지	군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월 1회 사적 답사 및 영상 감상을 실시하여 백제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향토애를 고취시킴	
4	청소년 역사교실	'99. 4. 1 ~ 12. 30 군내 중학생 백제 문화권 유적지	군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군내 사적지 및 백제 문화권의 주요 유적지 답사와 영상 감상을 실시하여 전통 문화와 향토사의 올바른 이해와 향토애 고취	
5	부여 관광정보 센터 운영	'99. 1. 3 ~ 12. 30 연중 수시 운영 10,000여 명 참가	군내외 관광객에게 부여의 관광 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유적지 현장 설명을 실시 하는 종합 관광 안내 센터 운영	
6	관광 문화 상품 개발	'99. 4. 1 ~ 7. 30 무량사 책자, 엽서, 책받침 등 개발	금년 9월의 문화 인물로 매월당 김시습 선 생이 선정됨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무량사 를 찾을 것에 대비, 관광 상품이 전혀 없는 무량사의 문화 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함	
7	신년 교례회	'99. 1. 4(월) 14:00 군내 각급 기관단체장 및 지역 유지 참석 인원 : 1,120여 명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 신년 세배, 축하 행사, 신년 교례 회 명부 발간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8	영화감상교실	'99. 2. 5 ~ 12. 30 문화원 문화사랑방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대상 참석 인원 : 2,000여 명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으로 영화 해설 및 감상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 민들의 문화 생활을 유도	
9	'99 문화학교	'99. 5. 1 ~ 12. 30 군내 주부 및 일반인, 학생, 직장인 등	전통 공예, 사군자, 일본어, 도예 등 각종 문화 강좌를 실시하여 군민의 문화 향수 능력을 계발케 함은 물론 평생 교육의 기 회 제공	
10	'99 건국문화의 해 기념사업 (백제계 건축 탐방)	'99. 4. 1 ~ 11. 5 부여문화원 회원 서산 마애불, 예산 수덕사, 사면불, 완주 화암사, 익산 미륵사지 참석 인원 : 300여 명	'99 건국 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원 회 원의 단합과 교양 증진을 위하여 백제계 건축을 탐방하는 사적 답사 실시	
11	교사를 위한 백제문화순례 강좌	'99. 12. 1 ~ 12. 30 백제 문화권의 유적지 군내 초·중·고 교사 참석 인원 : 50여 명	군내 초·중·고 교사들의 향토사 교육 방법 및 현장 실습 기회 제공 프로그램	
12	이달의 문화 인 물 기념 사업 (매월당 문화 유 적 탐방)	제 1차 답사: 9. 4 ~ 9. 5 제 2차 답사: 9. 11 서울, 강릉, 경주 남산, 부여 무량사 등 참석 인원 : 문화원 회원 80 여 명	9월의 문화 인물인 매월당 김시습 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선생의 출생에서 입적까 지의 문화 유적 탐방 실시	
13	청소년을 위한 (우리 문화 한아름 강좌)	'99. 4. 15 ~ 12. 15 군내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당 1회 순회 교육(강의) 실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 유적, 역사 인물, 향토 민속 등을 교 육하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 어 주도록 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4	내 고장 문화·역사 인물 발굴 홍보	'99. 3. 20 ~ 12. 30 내 고장 문화 인물 현판 제작 공공 장소에 설치	내 고장을 빛낸 대표적인 문화·역사 인물 을 발굴하여 현판으로 소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내 고장 애郷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관광객에게는 지역의 훌륭한 역사 적인 인물을 홍보함	
15	제 1회 백제 토기 만들기 대회	'99. 12. 8 대전, 충남 초·중·고 학생 대상 부여박물관 및 백제요에서 행사 참석 인원 : 350여 명	세계적 수준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었던 백 제 토기를 만듦으로써 백제인의 뛰어난 창 의력을 계승하고, 문화 유산의 보호 의식 을 고취함은 물론 백제 토기 문화의 우수 성을 널리 알려 지역 발전과 관광 진흥에 도움을 주고자 함	
16	2000년 맞이 기념 사업 (새 천년의 화음)	'99. 12. 28	새로운 천년을 내실 있고 의미 있게 맞기 위하여 국내 저명 인사를 초청하여 기념 강연회를 개최하고 강의 내용을 비디오 테 잎으로 제작하여 군내 각급 기관 단체에 보급	
17	부여 관계 지리지 조사 발간	'99. 12. 1 ~ 12. 30 부여현, 홍산현, 임천군, 홍산 현 지리지 각 10여 종	부여 관계 각종 지리지를 규장각, 국립도서 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조사 수집하여 영인본으로 발간함	
18	향토민속발굴사 업 (유왕산 놀이 발굴 조사)	'99. 3. 2 ~ 12. 30 유왕산 놀이 발굴 조사 및 조사 보고서 발간 발간 부수 500부	백제 패망과 관련되어 여인들만의 독특한 유습으로 부여군 양화면 암수리 일원에 전 승되어 오는 유왕산 놀이를 체계적으로 발 굴 정리하여 보고서로 발간함	
19	향토축제 개선 및 축제 프로그램센 터 운영(은산별 신제 CIP개발)	'99. 4. 1 ~ 12. 30 심벌마크, 로고타입, 전용색 상, 시그니취 등 제작	국가중요무형문화 제 9호인 은산별신제 이미지 통합 개발	
20	전입 주민 내 고 장 문화 알리는 날 운영	'99. 12. 18 '99년도 우리 고장 전입 주민 대상, 문화제 슬라이드 강연 박물관 및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	전입 주민들을 문화원에 초청 지역의 유래 및 향토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내 문화 유 적 등을 견학시킴으로서 향토 문화 체득과 애郷심 고취 계기를 마련해 줌	
21	문화원 문화 교 류 및 결연 사업	'99. 5. 1 ~ 12. 30 상호교환 방문, 공동기획 프로 그램 마련, 관광객 유치 등	문화원간 문화 교류를 통하여 상호 협력 지원 체계 구축, 문화원간 공동 이익 모색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서울 지역 문화 원과 자매 결연 추진	

'99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	신년 교례회	• 일시 : 1. 4 • 장소 : 군민회관 소강당 • 참석 인원 : 300명	군내 각 기관 단체장과 지역 유지들을 초 청, 상호 교례하며 신년 하례식을 실시함	
2	청소년 경로 효친 표창	• 일시 : 5. 13 • 장소 : 군민회관 소강당 • 참석 인원 : 19명	중·고 각 학교당 1명 추천으로 선발. 효행 및 선행 학생 표창장과 상품 수여식	
3	청소년 문예백일장	• 일시 : 5. 13 • 장소 : 군민회관 2층 강당 • 참석 인원 : 150명	중·고 학생들의 글짓기, 회화, 한국화, 서 예 등의 기량을 한 장소에서 한껏 발휘함	
4	사물 풍물놀이 경로 위안잔치	• 일시 : 6. 12 • 장소 : 군민회관 대강당 • 참석 인원 : 800명	제 8회 국악 한마당의 위로 공연을 실시한 후 광장에서 놀이패와 군민들의 한마당 잔 치로 어우러짐	
5	농악 육성 사업	• 일시 : 연중	농악 육성 사업으로 연중 장고, 쟁파리, 북, 징 등을 농악 교육 실기용으로 사용토 록 장려함	
6	하계 문화강좌	• 일시 : 7. 22 ~ 8. 2 • 장소 : 군민회관 2층 강당 • 참석 인원 : 120명	여름 방학을 기하여 중·고 학생들의 문화 체험 교육의 장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행사 로서 공예 (꽃꽂이, 칼라믹스), 음악(기악, 성악, 레크레이션), 농악, 예절의 과목으로 10일간 교육함	
7	하계 사적지 순방	• 일시 : 8. 6 • 장소 : 수덕사, 서산 마애삼존불상 • 참석 인원 : 60명	청소년들의 옛 고성과 역사를 탐방하기 위 해 도내 사적지를 견학함	
8	서천 군민 친선 바둑대회	• 일시 : 9. 12 • 장소 : 군민회관 소강당 • 참석 인원 : 250명	서천군의 바둑 기량 향상을 위해 바둑 애호 인들이 건전한 오락으로 상호 친목한 가운 데 대회를 열어 승부를 결정함	
9	중등미술교사 미술작품전시	• 일시 : 10. 11 ~ 16 • 장소 : 군민회관 전시실 • 참석 인원 : 1,000여 명	중·고 미술 교사들의 작품을 다량 출품하 여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실기 향상을 도 모하며 교사들의 작품을 서로 감상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0	아동문예 백일장	•일시 : 10. 13 •장소 : 서천초등학교 •참석 인원 : 400명	초등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도모하여 글짓 기, 그리기, 붓글씨의 과목으로 서로 다른 기량들을 발휘함	
11	서천 군민 친선 장기대회	•일시 : 5. 13 •장소 : 군민회관 소강당 •참석 인원 : 300명	장기 애호인들의 정서 함양과 서천 군민들 의 융화 단결을 도모하여 장기대회를 마련 함	
12	문화관광축제 평가 분석	•일시 : 5. 1 ~ 6. 30 •제 10회 문화관광축제 모시문화제 •저자 : 정강환 교수	제 10회 모시문화제 축제 개선에 대한 평 가 분석한 자료집	
13	우리 고장 문화 알리기	•일시 : 6. 1 ~ 12. 31 •각 시도 600여 곳	우리 고장 문화 알리기 사업으로 문화원에 서 발행한 간행물을 전국으로 배부할 계획 임	
14	향토민속 발굴	-	향토민속 발굴 사업 계획 추진중	
15	초·중·고 작품 전시	•일시 : 11월 중 •장소 : 군민회관 전시실 •참석 인원 : 500여 명	초·중·고 학생들의 백일장 입상작을 전시 함으로 널리 홍보함	
16	학생문집	•일시 : 12월 중	초·중·고 학생들의 백일장 입상작 모음	
17	향토사연구 (서천지리지)	•일시 : 1. 1 ~ 12. 31	서천 지리지 편찬 계획	
18	송년음악회	•일시 : 12월 중 •장소 : 군민회관 대강당 •참석 인원 : 1,000여 명	중·고 학생들과 음악 교사들의 협찬으로 음악 실기 경연함으로서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며 희망찬 새해를 기림	
19	동계 문화강좌	•일시 : 12월 말 •장소 : 군민회관 2층 강당 •참석 인원 : 120여 명	겨울 방학을 기하여 중·고 학생들을 대상 으로 문화 강좌를 실시할 예정임	
20	동계 사적지 순방	•일시 : 2000. 1월 초 •장소 : 미정 •참석 인원 : 60여 명	중·고 학생들이 도내 유적지를 순방함으로 견문을 넓히고자 함	
21	지역환경보존	•일시 : 연중 행사	캠페인, 현수막 설치함으로서 군민의 생활 의식에 변화를 주고자 함	

'99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	'99 신년 교례회	•신년사 •축사 •상호 교례 •풍물패 공연 •오찬	군내 각급 기관 단체장 및 지역 유지의 신 년 하례식	
2	정기 총회	•98 회계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보고 •99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임원 및 문화 회원이 참가한 98 결산서 인 준 및 99 사업 계획 예산안 심의	
3	임시 총회	•정관 변경의견 •임원 선출의 건	임원 및 문화 회원이 참가한 99 임시 총회 정관 변경 및 임원 선출	
4	민속 옷놀이 대회	•토너먼트 방식으로 1~4등 선발 •단체전 1~3등 선발	우리 고유의 명절 정월 대보름을 맞아 사행 성 놀이 억제와 민속 놀이 재현	
5	민속 장기대회	읍·면·민간 단체 및 개인전 경기	칠월 칠석을 맞아 장기대회를 통한 읍·면 민간의 단합 및 화합의 장 마련	
6	문화 유적지 순례	•문화 회원 유적지 순례 •청소년 백제 문화권 순례	문화 회원 및 청소년들 대상으로 순례를 통 하여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재인식시킴	
7	문화학교 운영	•민요교실 강습 •미술교실 강습 •사물놀이 강습 •음악교실 강습 •한문교실 강습	•건전한 청소년 지도 육성을 위한 정례 한문, 음악 강좌 •우리 고유의 전통 음악인 민요 및 풍물 (꽝과리, 장구, 북, 징)놀이 강좌 •주부 및 어린이들을 위한 종이접기 강좌	
8	발간사업	•칠갑문화 8호 발간 •청양군 지도첩 발간 •조선환여승람 청양군편 발간	•군내 문화재, 향토사, 문화 행사, 시, 수 필 등 소개 책자 1,000부 발간 •향토 사료연구 및 지도발달사 교육 자료 •향토 사료 발굴 보존 및 지방사 연구에 필 요한 책자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9	음악회	한사랑 정기 연주회	청소년들의 참여로 (중창, 듀엣, 솔로) 건 전 가요 보급과 건전한 심성 배양	
10	전시회	향토 작가 초대전	출향 문화 예술인들의 서화전	
11	향토민속 자료 수집	민속 자료 조사 수집	유물, 문헌, 민속 자료 등을 수집 향토사료관 설치	
12	문화 코너 운영	• 영화 감상 • 음악 감상 • 도서관 운영	영화 및 음악 감상을 통한 청소년들의 취 미생활과 정서 교육에 기여	
13	씨클 활동	씨클 활동 지원 (한사랑, 청무풍물패, 칠갑사우회, 군내 미술 교사 동호회 등)	문화 가족 씨클을 지원 조직적으로 운영하 여 효율적인 문화 활동 도모	
14	제 11회 칠갑문화제	• 산신제 • 정산 송학리 동화제 시연 • 장승깨기 시연 • 청양 난우회 가을 전시회 • 청양 특산물전 • 청양 구기자 아가씨 선발대회 • 민속 공예품전 • 군민 위안 영화의 밤 등	청양의 전통 문화 선양과 청양인의 단결, 화합의 계기로 발전 승화	



▽ 청소년 문화 유적지 순례



△ 청소년 문화 유적지 순례



△ 향토사연구위원 향토사료 조사



△ 문화학교 (한문교실)



△ 칠석맞이 민속 장기대회

'99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	홍성문화 발간	• 통권 134~137호 발간 • 발행일 : 3·6·9·12월 (년 4회) • 발행 부수 : 8,000부 (회당 2,000부) • 규격 : 4·6배판 • 보급 : 비매품	향토 문화지로 시, 소설, 수필, 사설 등과 홍성의 문화, 역사, 행사, 향토사 등을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발간함	
2	제 5회 만해제	• 일시 : 8. 14 ~ 15 • 장소 : 만해 생가, 푸른섬터, 홍주문화회관 • 참석 인원 : 10,000여 명	만해 한용운 선사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고 선사의 독립 정신과 애국 애족 정신을 거국적으로 확산, 만방에 고취시키고자 제 5회 만해제를 갖음 행사 내용으로는 고유제, 국민 한마음 걷기 대회, LG씨름단 초청 행사, 기념식, 기념 공연(우담바라 합창, 홍주국악단 공연, 선무도, 얼음조각전, 두레차 시연), 시조경창 대회, 만해 문학의 밤(문학강의, 만해 시낭송, 작가와의 대화, 불교와의 만남, 최윤희 춤 공연, 만해 추모 음악), 리셉션, 얼음조각전, 상설 행사(만해 머드마네킨, 용기 전시, 짚풀공예, 지승공예 전시, 먹거리 장터), 사생실기대회 및 백일장, 청소년을 위한 공연	사진 첨부
3	문화, 역사 인물 홍보집 발간	• 발행일 : 12월 • 발행 부수 : 1,000부 • 보급 : 비매품	홍성의 문화, 역사, 인물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청소년 및 군민에게 내 고장 문화를 알리고 홍보함	
4	홍주향토 문화발간	• 발행일 : 12월 • 발행 부수 : 500부 • 규격 : 4·6배판 • 보급 : 비매품	홍주향토문화연구회원들의 지역 향토사를 연구하여 사료집을 발간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5	사료실 운영	• 사료 구입 기간 : 연중	홍성의 산재한 유물, 문헌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료를 구입하여 보존해서 자료로 활용	
6	내 고장 명가 발굴	• 발행일 : 12월 • 발행부수 : 500부 • 보급 : 비매품	우리 고장의 각 분야로 전통을 지켜온 명가를 발굴하고 정리하여 책으로 발간 내용은 집안의 내력, 생활 양식, 선대의 유명 인물, 가풍, 현재의 생활, 기타 특이한 점	
7	우리 문화 한아름 강좌	• 일시 : 7. 22 ~ 23일 8. 22 ~ 21일 10.22, 26, 28 11.1, 2, 5일 • 장소 :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 홍남초등학교 외 5곳 • 참석 인원 : 1,000여 명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내 고장 역사와 문화를 강의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 줌 • 방법 : 각 학교별 순회 강의 및 방학을 이용해 문화원에서 자율적 참여로 시행	사진 첨부
8	영화 감상회	• 일시 : 매주 화요일 • 장소 :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 • 참석 인원 : 500여 명	군내 동호인을 중심으로 명작 감상 및 토론과 의견 교환	
9	홍성의 문화재 슬라이드 제작	• 기간 : 연중	홍성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촬영하여 슬라이드로 제작하고 각종 행사시 홍보용 및 교육적 자료로 활용	
10	홍주의병 학술 세미나	• 일시 : 6월 28일 • 장소 :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 • 참석 인원 : 100여 명	조선 중기 이후의 홍주 지방 의병 활동에 대해 관련 학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갖음	사진 첨부
11	문화 예술인 신년 교례회	• 일시 : 1월 28일 • 장소 :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 • 참석 인원 : 150여 명	군내 문화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인사 및 일년을 다짐하고 우수 문화 예술인을 표창함	
12	신년 교례회	• 일시 : 1월 3일 • 장소 : 군청 대강당 • 참석 인원 : 200여 명	군내 각급 기관 단체장들이 참여하여 상호 신년 인사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3	유적지 순례	• 일시 : 12월 • 국내 유적지 • 참석 인원 : 80여 명	회원과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여 유적지 순례	
14	홍성의 마을제 발간	• 발행일 : 12월 • 발행 부수 : 600부 • 규격 : 4·6배판	사라져가는 홍성의 토속제, 산신제 등을 조사한 것을 책으로 발간	
15	효자, 열녀 완의문 자료 수집	• 수집량 : 10권	효자, 열녀에 대한 완의문 자료를 수집, 복사하고 번역하여 보관해서 자료로 활용	
16	백제 주류성의 연구 발간	• 발행일 : 12월 • 발행 부수 : 600부	백제 주류성이 홍성군 장곡면에 있었다는 사실을 학설과 비교하여 발간함	
17	당산풍어제 조사	• 조사 기간 : 3 ~ 11월 • 책자 발간 : 12월 • 부수 : 500부	서부면 판교리 수룡동 마을의 풍어제를 집중 조사하여 책으로 발간하여 사라져가는 향토 민속을 보존시킴	
18	향토 축제 분석 평가 및 발전 방안 연구	• 조사 기간 : 8 ~ 10월 • 보고서 : 10월 「홍성 만해제 평가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축제 전문가(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개발연구소)에게 용역을 주어 만해제의 분석 평가 및 발전 방안을 연구함	
19	우리 고장 문화 알리기	• 일시 : 4월, 5월, 11월 • 장소 : 군내 유적지 • 참석 인원 : 120여 명	타지역에서 전입한 주민을 대상으로 군내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여 애향심을 북돋아 줌	사진 첨부
20	문화학교 운영	• 일시 : 3 ~ 12월 • 장소 :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 • 과목 : 6과목 • 참석 인원 : 200여 명	주부 노래교실, 사진교실, 주부 한문교실, 단소교실, 일본어교실, 바둑교실	"
21	성년의 날 기념 행사	• 일시 : 5월 18일 • 장소 :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 • 참석 인원 : 50여 명	만 20세가 되는 성년을 대상으로 옛 성년 의식 행사를 재현함으로써 성년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심어 주어 건전한 가치관과 국가관을 지닌 민주 시민으로 육성	"
22	거리 영화제	• 일시 : 7월 3일 • 장소 : 남산공원 푸른쉼터 • 참석 인원 : 800여 명	야외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감독을 초청해 작품 설명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작품 감상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및 문화 수준 향상에 이바지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23	청소년 역사교실	• 일시 : 10월 16일 • 군내 유적지 • 참석 인원 : 80여 명	군내 중학교 1학년생 80명을 추천받아 군내 유적지를 답사하고 내 고장 사랑의 참뜻을 이해시키고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역사 의식 함양	사진 첨부
24	청소년 민속교실	• 일시 : 11. 25 ~ 26일 • 장소 : 홍주문화회관 • 참석 인원 : 1,000여 명	잊혀져가는 우리 민속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고자 수능 시험이 끝난 고 3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 저명한 민속학자를 초청하여 강의	
25	예능경연대회	• 일시 : 12월 18일 • 장소 : 홍주문화회관 • 참석 인원 : 1,000여 명	연말에 들며 탈선하기 쉬운 청소년들을 한 자리에 모아 노래와 춤 등에 소질 있는 학생들의 예능경연대회를 통해 상호 친목 도모 및 스트레스 해소	



◀ 문화학교 주부 한문교실



▷ 문화학교 주부 노래교실



△ 문화 예술인 신년 교례회
(1월 28일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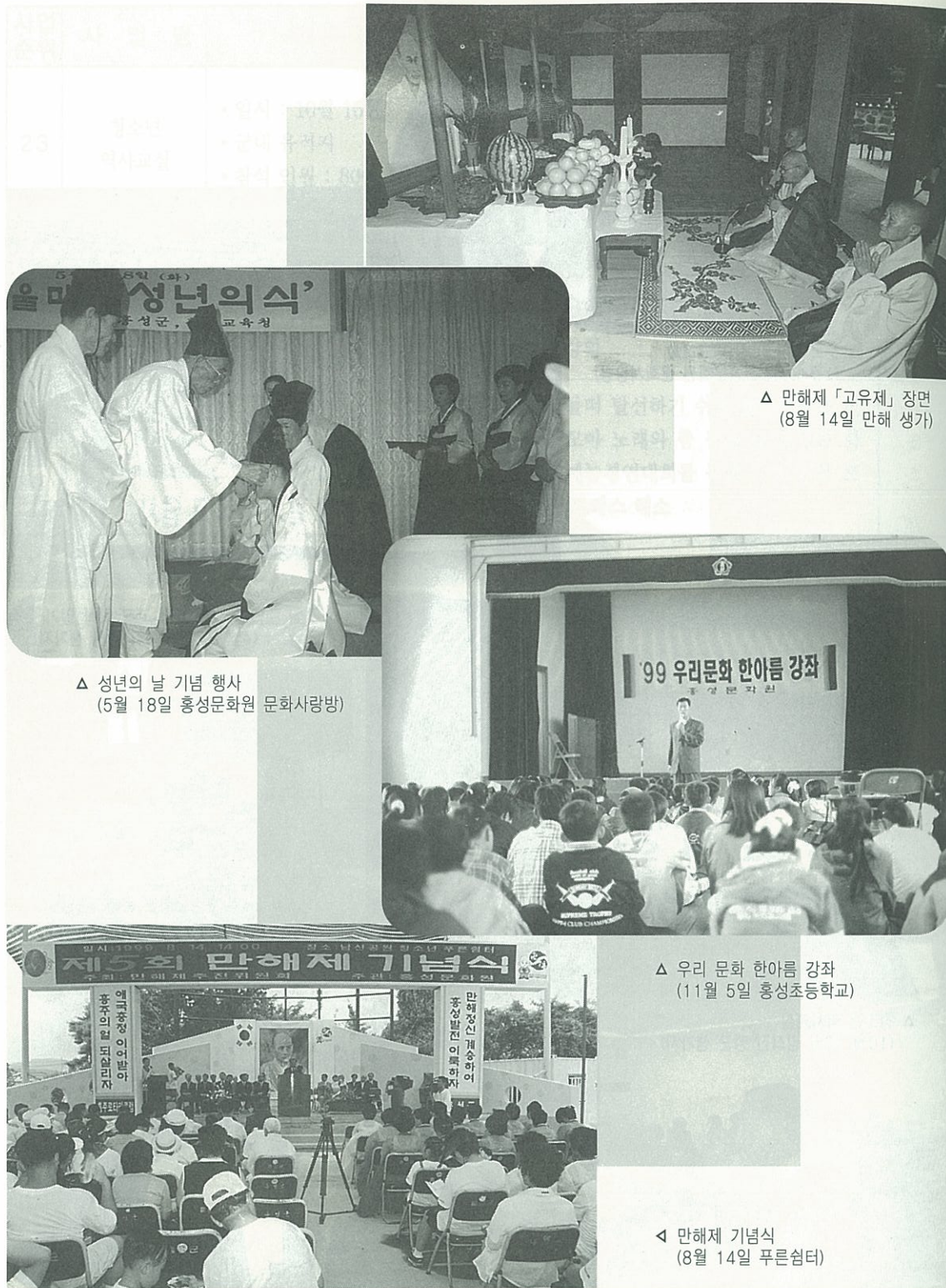
△ 전임 주민을 위한 우리 고장 문화 알기 유적지 답사 (4월 24일 김좌진 장군 생가지)



△ 청소년 역사교실
(10월 16일 김좌진 장군 생가지)



▽ 홍주의병 학술 세미나
(6월 28일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



△ 만해제 「고유제」 장면
(8월 14일 만해 생가)

△ 성년의 날 기념 행사
(5월 18일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

△ 우리 문화 한아름 강좌
(11월 5일 홍성초등학교)

△ 만해제 기념식
(8월 14일 푸른섬터)

'99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기묘 신년 교례회	- 일시 : 1월 4일 - 장소 : 예산군청 회의실 - 참석 인원 : 350명	군내 각 기관 단체, 기업체의 대표 및 지역 유 지들을 초청, 교례 및 하례식을 거행함	
2	갈신리 장승제	- 일시 : 2월 19일 ~ 20일 - 장소 : 대흥면 갈신리 - 참석 인원 : 250명	국태 민인과 부락의 무병 장수를 기원하는 민속 행사로서 약 500년 전부터 시행해 오던 부락민 행사를 문화원 지원 사업으로 시행함	
3	조곡리 산신제	- 일시 : 2월 22일 ~ 23일 - 장소 : 신암면 조곡리 - 참석 인원 : 150명	신암면 조곡리 산신을 받드는 민속 신앙으로 서 정월 초순에 부락민의 염원을 축원함	
4	교촌리 행당제	- 일시 : 2월 23일 - 장소 : 대흥면 교촌리 - 참석 인원 : 100명	예로부터 부락 어귀 은행나무에 수호신이 깃 들어 있고 그 영험을 마을 사람이 받았다 하 여 매년 정초에 부락의 무병 장수를 축원함	
5	정월 세시 풍속놀이	- 일시 : 2월 27일 - 장소 : 예산문화원 앞뜰 - 참석 인원 : 200명	예산문화원 문화가족(정회원, 문화 회원, 단 체 회원)의 년초 화합을 다지는 대회로서 매 년 웃놀이대회를 시행함 (택일은 정월 대보 름에서 가장 가까운 토요일로 함)	
6	한학 강좌	- 일시 :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 ~ 4시 - 장소 : 예산문화원 전시실 - 참석 인원 : 30명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강좌로서 '99년도에는 「논어집주」 강좌 시행 • 강사 : 전용국 부원장 (덕산향교 전교)	
7	주간 서예 강좌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 예산문화원 전시실 - 참석 인원 : 50명	추사 김정희 선생이 낳고 활동한 고장으로서 그 분의 학예 정신을 후학인 우리가 이어받고 자 주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강좌를 시행함 • 강사 : 전홍규 초대 작가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8	야간 서예 강좌	- 일시 : 매주 월·금요일 오후 6시~8시 - 장소 : 예산문화원 전시실 - 참석 인원 : 30명	직장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야간에 강좌 시행 강사 : 한만평 초대 작가	
9	한국화 강좌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 장소 : 예산문화원 전시실 - 참석 인원 : 30명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강좌로서 예산군내 거주하는 주부 강좌임 강사 : 정춘사 선생	
10	시조 강좌	- 일시 : 매월 7,15,20,30일 - 장소 : 예산문화원 문화단체실 - 참석 인원 : 40명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강좌로서 내포 시조를 강습함 강사 : 김정태 시우회장	
11	종이 공예 강좌	- 일시 : 매주 목요일 - 장소 : 예산문화원 전시실 - 참석 인원 : 30명	지역 주부의 기량 향상과 가정 생활 순화를 위하여 문화학교 강좌로서 시행	
12	예산문화 제 30집 간행	일시 : 전반기	예산문화원 기관지로서 문화 소식, 회원 소식, 지역 소식, 회원 논단을 게재	
13	향토 사료 물품 수집	년중 수집	조상들의 생활 도구, 용품 수집	
14	청소년 세시 풍속놀이	- 일시 : 정월 보름에 가장 가까운 토요일 오후 (2. 27 14~17시) - 장소 : 예산문화원 앞뜰 - 참석 인원 : 150명	예산군내 중·고등학생 대항 율놀이대회 시행	
15	김남조 시인 초청 강연회	- 일시 : 3월 26일 - 장소 : 예산문화원 앞뜰 - 참석 인원 : 500명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명사 초청 강연회를 년 2~3회 시행하며 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여함	
16	덕산고등학교 풍물 강습	- 일시 : 5월 27일 - 장소 : 덕산고등학교 - 참석 인원 : 300명	학교별로 순회 풍물 강연 시행 담당 : 풍물패 아사달 (회장: 우제풍)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7	구성애 특강	- 일시 : 6월 21일 - 장소 : 예산군 학생체육관 - 참석 인원 : 700명	예산군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로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으로 시행	
18	영상 음악회	- 일시 : 7월 17일 18시 ~ 20시 - 장소 : 책마당 - 참석 인원 : 200명	청소년들의 불거리를 마련해서 학업으로부터의 어려움의 일부를 덜어 주고자 시행함	
19	수요 음악회	- 일시 : 7월 20일 18시~20시 - 장소 : 책마당거리 - 참석 인원 : 250명	책마당과 예산문화원이 공동으로 수요 음악회를 1회 시행함	
20	청소년 유적지 순례	- 일시 : 8월 15일 - 장소 : 독립기념관 - 참석 인원 : 200명	예산군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로서 예산군 초·중·고등학교로 편성해서 독립기념관을 탐방함	
21	제 8회 임존성 백제부흥군위령제 및 청소년 성지 순례	- 일시 : 9월 12일 11시~17시 - 장소 : 임존성지 - 참석 인원 : 300명	임존성은 백제 최후의 항전지로서 내 고장 조상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청소년들에게 역사성을 소개함	
22	제 10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서예백일장	- 일시 : 10월 10일 - 장소 : 예산군 학생체육관 - 참석 인원 : 600명	추사 김정희 선생의 학예 정신과 학덕을 기리고자하는 뜻에서 그 분의 향리인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의 추사 고택에서 시행함	
23	제 5회 예산군 어린이 사생실기대회	- 일시 : 10월 10일 - 장소 : 추사 고택 일원 - 참석 인원 : 300명	예산군내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해서 사생 실기로 겨룸	
24	예산군 학생서예대전	- 일시 : 10월 10일 - 장소 : 예산군 학생체육관 - 참석 인원 : 250명	추사 선생의 서예를 이어받고자 그 분의 후예인 초·중·고등학생들이 모여 서예대회를 금년 첫회 시행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25	예산군 초등학교 글짓기대회	• 일시 : 10월 10일 • 장소 : 추사 고택 일원 • 참석 인원 : 1200명	대학 입시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문장 구성 능력을 키워 주고 초등학교의 정서 함양을 위해 서 글짓기대회를 시행함	
26	제 9회 예산군 학생품물겨루기 대회	• 일시 : 10월 9일 • 장소 : 예산군 학생체육관 • 참석 인원 : 300명	우리의 국악을 꼭 지키기 위하여 예산군내 초·중·고등학교 품물겨루기대회를 시행함	
27	열린분우회 분재 전시회	• 일시 : 10월 8일~10일 • 장소 : 예산문화원 앞뜰 • 참석 인원 : 1,000명	예산문화원 회원 단체의 회원전으로서 추사 문화제의 첫 행사로 매년 시행함	
28	문화가족 유적지 순례	• 일시 : 12월 5일 • 장소 : 예산 지역 문화 유적 • 참석 인원 : 150명		
29	문화학교 학생 작품 발표회	• 일시 : 12월 14일~16일 • 장소 : 예산군 문예회관 전시실 • 참석 인원 : 500명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주간 서예반, 야간 서예반, 한국화반이 기량을 발휘하여 발표 전시회를 시행함	
30	극단 소란 공연	• 일시 : 12월 • 장소 : 예산신탁회관 • 참석 인원 : 300명	문화 단체 공연으로서 년 1~2회 무대 공연을 시행	
31	품물패 아사달 공연	• 일시 : 11월 9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예산군 문예회관 • 참석 인원 : 650명	문화 단체 공연으로서 책마당의 후원으로 년 1회 공연하는 정기 공연으로 시행	
32	극단 예춘 공연	• 일시 : 11월 17일 • 장소 : 예산군 문예회관 • 참석 인원 : 500명	문화 단체 공연으로 송년 정기 공연으로 시행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33	전입 주민 내 고장 알리는 날 유적지 순례	• 일시 : 12월 • 장소 : 예산군 일원 • 참석 인원 : 150명	전입 주민에게 예산의 문화 유적을 알리는 날 행사로서 유적지 순례 시행	
34	청소년 한아름 강좌	• 일시 : 12월 10일 • 장소 : 예산중학교 임성중학교 • 참석 인원 : 300명	예산군 청소년 문화 강좌로서 시행 • 강사 : 전용국 부원장	
		• 일시 : 예산여자중학교 광시중학교 • 참석 인원 : 200명	예산군 청소년 문화 강좌로서 시행 • 강사 : 성부제 향토사연구소장	
35	내 고장 인물 알리는 홍보물 제작	• 일시 : 1월 중 • 장소 : 역·터미널	추사 김정희 선생과 매헌 윤봉길 의사 홍보물 제작 게시	
36	예산의 설화집 간행	• 일시 : 11월 중	예산의 전설 50여 편을 수록 간행	
37	예산문화 제 31집 간행	• 일시 : 12월 31일	예산문화원 기관지로서 연말 연시 특집 간행	
38	새 천년 맞이 산신제, 축원제, 봉화, 공연 행사	• 일시 : 2000년 1월 1일 0시 • 장소 : 금오산 일원 • 참석 인원 : 1,000명	산신제 거행 새 천년 맞이 축원제 봉행 새 천년 봉화 점화 행사	
39	경진 신년 교례회 준비	• 일시 : 12월 중 • 장소 : 군청 회의실 • 참석 인원 : 400명	군내 각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임원 및 지역 인사들의 신년 인사회 거행 아사달 품물 공연	

'99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이원면 벚가릿대놀이 시연	• 일시 : 3. 8 (10:00) • 장소 : 이원면 관리 다목적회관 • 참석 인원 : 120여 명	향토 고유 문화 전승 사업으로 음력 2월 1일 을 '머슴의 날' 이라 하여 이원면 주민들이 참 여하여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벚가릿대놀 이를 시연함	
2	제 8회 소성백일장	• 일시 : 3. 10~4. 2 • 장소 : 문화원 • 대상 : 초·중·고 학생 • 참석 인원 : 362명	청소년들의 표현력과 문장력을 기르기 위하 여 시와 산문 분야로 나누어 백일장을 실시하 고 시상함	
3	1. 향토 문화 알리기 유적지 답사 2. 백제권 유적지 답사	1차: • 일시 : 4. 28 • 장소 : 관내 유적지 • 대상 : 전입자 • 참석 인원 : 125명 2차: • 일시 : 6. 11 • 장소 : 부여, 공주 • 대상 : 향토연구위원, 전입자, 문화가족 • 참석 인원 : 43명	우리 고장에 전입하여 들어온 주민들에게 우 리 고장의 역사성과 문화 유적에 대해 바로 알려주어 보다 친밀감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 도록 하고 향토위원과 문화가족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 고장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전입 주민과 향토 주민간의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사진 첨부
4	어린이 한마당 푸른음악회	• 일시 : 6. 3 (14:00) • 장소 : 군민체육관 • 대상 : 초·중·고 학생 • 참석 인원 : 800여 명	합창, 중창, 독창, 기악, 사물놀이, 시낭송 등 학생들이 평소에 익힌 개인 기량과 학교 생활 에서 익힌 장기를 다른 학교 학생들 앞에서 마음껏 발표함	"
5	초·중·고 미술실기대회	• 일시 : 6. 8 • 장소 : 태안여고 교정 • 대상 : 초·중·고 학생 • 참석 인원 : 592명	태안여고의 아름다운 교정에서 군내 초·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실기대회를 개최 하여 미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6	청소년 교육 영화 상영	• 일시 : 7. 12~10. 30 • 장소 : 문화원 • 대상 : 초·중·고 학생 • 참석 인원 : 400명	영상 매체가 가지는 시각적, 언어적, 음악적 기능을 통해 보다 쉽게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 양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 만화, 자연 다큐멘터리, 고유문화 소개 등을 상영함	사진 첨부
7	태안여고 길쌈놀이 지원	• 일시 : 10. 2~10. 4 • 장소 : 태안여고 교정 • 대상 : 태안여고 1~2학년 동아리 • 참석 인원 : 120명	전통놀이 문화인 길쌈놀이를 재연하여 우리 전통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여 주기 위함	
8	태안 지역 패총과 청동기 문화 세미나	• 일시 : 9. 15 (09:00~12:00) • 장소 : 문화원 강당 • 대상 : 중·고 학생 • 참석 인원 : 199명	태안 지역의 패총과 청동기 문화에 대하여 교 재와 슬라이드를 가지고 강의를 실시하고 강 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 하여 우리 지역의 패총과 청동기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심어 줌	사진 첨부
9	우리 고장 문화재 제 24호 예능보유자 시연회	• 일시 : 9. 28 (14:00~17:00) • 장소 : 만리포 해변 • 대상 : 장세일, 민속문화보존회 • 참석 인원 : 180명	설경의 세계를 펼쳐낸 충남 무형문화재 제 24호 앉은곳의 예능보유자 작품을 설명하고 문화재 가치를 인식화하고 민속문화보존회는 남북 평화통일 기원 대체로 통일을 기원토록 함	"
10	청소년 향토 문화 유적지 답사	1. 태안군 유적지 답사 • 일시 : 7. 2 • 장소 : 태안군 유적지 • 참석 인원 : 125여 명 2. 백제권 유적지 답사 • 일시 : 7. 8 • 장소 : 백제 유적지 • 대상 : 고등학생 • 참석 인원 : 84여 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향토 문화를 바로 알리고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나아가서는 백 제의 문화와 역사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1	주부 교양강좌	• 일시 : 10. 27 (10:00~12:00) • 장소 : 태안중학교 체육관 • 대상 : 군내 주부 • 참석 인원 : 250여 명	‘태안 신지식인’ 이란 주제로 태안교육청 교육장(박창배)의 강연과 ‘중년기 정신 건강’ 이란 주제로 한서대학교 교수(안권순)의 강연을 실시하여 주부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12	문화학교 운영	• 일시 : 2. 1 ~ 12. 31 • 장소 : 문화원 등 • 대상 : 민요, 농악 - 주부 바둑교실 - 중학생 서예교실 - 일반인 전통 윤리 향토사 - 제한 없음 • 참석 인원 : 77명	농악 (2. 1~12. 31) - 팽과리, 장구, 북, 징, 새납 지도 민요 (2. 1~12. 31) - 장구, 북, 가락 지도 서예 (7. 3~12. 31) - 서예 기초에서 완성까지 바둑 (7. 3~12. 31) - 바둑 기초 지도 전통 윤리와 향토사 강좌 - 전통 혼례, 상례, 제례, 예절 강좌와 향토 문화유적 강좌	사진 첨부
13	고남면 조개부르기제	• 일시 : 11. 10 (11:00) • 장소 : 고남면 누동리 해변 • 참석 인원 : 200여 명	옛부터 전승되어 오는 지역의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함	
14	송년 음악회	• 일시 : 12. 21 • 장소 : 태안문화원 • 대상 : 출향 인사 중 예술 특기자 초청 • 참석 인원 : 200여 명	한 해가 저물어가는 길목에서 군민의 뜻을 모아 밝고 명랑한 송년 음악회를 갖고자 함	



△ 문화학교 민요교실



△ 태안여고 교정



△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



△ 충남 무형문화재 제24호인 장세일 법사가 설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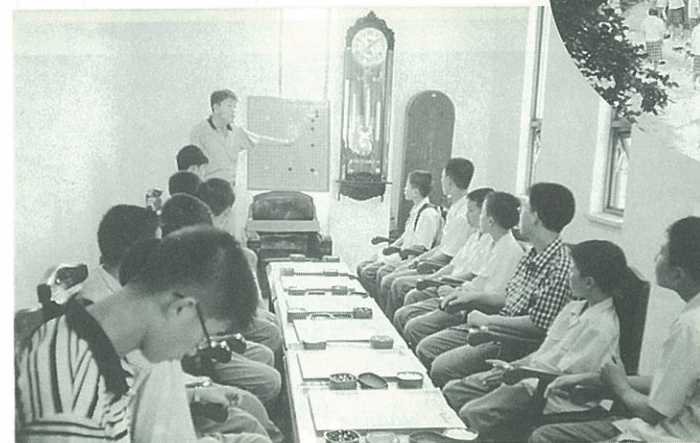
◁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 (기념관)



△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에서(사당)



▽ 문화학교 바둑교실



△ 태안 마애삼존불

△ 태안여고 교정

'99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당나라의 맥락」 19집 발간 湖周-마을지킴이	• 발간 일시 : 99. 11월 중 • 발행처 : 당진문화원 • 발행 부수 : 1,500부	사진 화보와 민속적인 설명으로 구성 발간	
2	당진문화원 신축 및 문화의 집 개관 기념식	• 일시 : 99. 5. 19 • 장소 : 당진문화원 (읍내리 50-6) • 참석 인원 : 800여 명	개관기념식, 서야중고 오고무공연, 천안문화원 한마음실내악단 초청공연, 당진신희 고전무용담 공연, 김성진 서예개인전, 최영근 백두산 사진 초대전, 노종선과 가무악 열림 21 품물놀이	사진 첨부
3	충남국악 관현악단 초청 공연	• 일시 : 99. 9. 10 • 장소 : 충장사 • 참석 인원 : 2,500여 명	군민들에게 전통 국악을 사랑하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 민족의 가슴속 깊이 스며 있는 잔잔하면서도 흥겨운 민족 정서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듦	"
4	남이흥 장군 문화제 학생백일장	• 일시 : 99. 9. 10 • 장소 : 충장사 • 참석 인원 : 2,500여 명	당진 군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충장공 남이흥 장군의 충절과 고귀한 호국 정신을 되살린 그 뜻을 널리 선양하여 청소년들에게 조상의 민족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줌	
5	대호지 4.4 독립만세운동 기념 학생백일장	• 일시 : 99. 6. 4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 인원 : 60명	당진 군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제에 항거하여 옥고를 치르면서 조국 광복에 헌신하신 우국 열사의 고결하고 숭고한 애국 애족 정신을 추모하며 후손에게 영원히 계승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6	전통 고전 줄타기 공연	• 일시 : 99. 11. 16 • 장소 : 소들공원 • 참석 인원 : 800여 명	중요무형문화재 제 58호 '줄타기' 기능보유자 김영철옹과 신라 시대부터 있어 왔다는 줄타기의 기나긴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기능보유자 홍기철 선생의 전통고전줄타기 공연을 통해 조상들의 해학과 볼거리로 군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7	씨름왕 선발대회	• 일시 : 99. 9. 10 • 장소 : 충장사 • 참석 인원 : 2,500여 명	우리 고유의 민속 경기인 씨름 경기를 통해 지역 주민의 화합과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민 모두가 혼열 일체가 되어 한마당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함	사진 첨부
8	당진·홍성문화원 합동 문화탐방	• 일시 : 99. 11. 6 • 장소 : 한국민속촌 • 참석 인원 : 35명	당진문화원과 홍성문화원간 화합을 도모하고 선조들이 남기신 전통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문화 민족으로써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	"
9	당진·홍성문화원 합동 강연회	• 일시 : 99. 11월 중 • 장소 : 당진문화원 • 대상 : 중·고 학생 • 참석 인원 : 2,000여 명	당진문화원과 홍성문화원간 합동으로 강연회를 주최함으로써 향토 문화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10	「당진문화」 14, 15호 발간	• 발간 일시 : 연중 2회 • 발행처 : 당진문화원 • 발행부수 : 3,000부 (1회당)	연중 당진 지역 문화 행사를 중심으로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 기회를 부여하고 문화원 사업 소개 및 출향 인사, 군민을 대상으로 논고, 미담 사례, 시, 수필 등을 게재하며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내용을 엮어 발간 보급함	
11	문화원 홍보 팸플렛 제작	• 발행 일시 : 99. 4. 30 • 발행처 : 당진문화원 • 발행 부수 : 5,000부	군민의 문화사랑방, 생활 문화 체험 공간으로 조성되어 각광받을 당진문화원·문화의 집 개관과 더불어 이용객 및 당진 군민을 위한 홍보 팸플렛을 발간하여 배포하고자 함	
12	당진 옛 사진전 및 향토 작가전	• 일시 : 99. 11월 중 • 장소 : 당진문화원 • 전시 규모 : 40여 점	새 천년을 맞이하여 지나온 당진군의 발전 모습을 담은 옛 사진과 지역내 향토 사진작가들의 사진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정서적으로 메말라가는 청소년 및 지역민들에게 아름다운 사진 예술의 감상과 당진의 잊혀져가는 옛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하여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과 향토애를 고취시키고자 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3	이상수 사진작가 '한국민속촌' 사진 초대전	• 일시 : 8. 18~8.22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 인원 : 1,200여 명	사진작가 이상수씨의 '한국민속촌' 사진 초대전을 통하여 선조들이 남기신 전통 고유의 생활 모습을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지역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것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마음을 고취시키고자 함	사진 첨부
14	국립현대미술관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 및 기념 공연	• 일시 : 10. 12~10. 15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 인원 : 2,000명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 및 사랑의 문화 봉사단 기념 공연을 통하여 당진 군민과 관내 학생들의 미술 문화 이해 증진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마련함	"
15	백촌강 사적 발굴 -백촌강과 고대 일본	• 발간 일시 : 99. 12월 중 • 발행처 : 당진문화원 • 발행 부수 : 600부	AD 662년 일본의 제명천황의 주유(州柔)에 구원군 만여 명을 파견하여 나당(羅唐) 연합군에 의해 백촌강(白村江) 전투에서 참화를 입고 일본군이 일본에 귀국할 때 백제 사람들 수백 명과 일본으로 건너간 역사로 알려지고 있는 백촌강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되찾고자 함	
16	향토 축제· 문화제 평가 분석 개선 방안 -남이흥 장군 문화제	• 발간 일시 : 99. 11월 중 • 발행처 : 당진문화원 • 발행 부수 : 500부	당진 지역의 역사와 전통에 바탕을 둔 향토 축제 및 문화제를 육성하고자 실질적인 향토 문화행사 개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행사 결과의 효과 분석 및 지역 경제의 과급 효과 등을 분석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7	우리 고장 문화 알리기	• 일시 : 99. 10. 31 • 장소 : 당진군내 • 참석 인원 : 87명	타지역에서 이주한 전입 주민과 지역민들에게 훈훈한 지역 인심과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향토 문화 이해와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사진 첨부
18	당진문화원 [문화학교]	• 일시 : 99. 연중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 인원 : 620명	한지공예, 일본어, 꽃꽂이, 민요, 고려수지침, 고전무용, 서예, 가요, 한문, 댄스 스포츠, 종이접기, 단전호흡, 문화탐방, 종합발표회 등 문화강좌 운영	사진 첨부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9	[청소년 어울마당] '연극공연 갯바람'	• 일시 : 99. 4. 13 • 장소 : 서산문화회관 • 참석 인원 : 400여 명	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서산지역협의 회 주관으로 실시된 청소년을 위한 창작극 '갯바람' 공연 관람	
20	[청소년 어울마당] 어린이 꿈잔치	• 일시 : 99. 5. 5 • 장소 : 군민회관 • 참석 인원 : 700여 명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문화적 혜택이 부족 한 당진 지역 청소년들에게 주인의식을 고 취시키고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며 부족하나 마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들에게 꿈 과 사랑을 심어 주기 위하여 제 15회 어린 이 꿈잔치 행사에 부모와 함께 하는 레크레 이션 지도 및 장기자랑 실시	사진 첨부
21	[청소년 어울마당] 그룹 댄스 및 가요 경연대회	• 일시 : 99. 5. 15 • 장소 : 군민회관 • 참석 인원 : 800여 명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청소년 문화 선도를 위한 그룹 댄스 경연 및 가요 경연대회 실시	"
22	[청소년 어울마당] 연극 공연 나이 라임오렌지 나무	• 일시 : 99. 6. 26 • 장소 : 군민회관 • 참석 인원 : 1,300여 명 (2회 공연)	문화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년들 에게 보다 유익하고 우수한 연극 작품을 관 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적 균형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고양함	
23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음악의 밤	• 일시 : 99. 9. 14 • 장소 : 합덕읍사무소 • 참석 인원 : 700여 명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고취시키는 동 시에 불우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행사 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청소년 음악의 밤' 행사를 실시함	사진 첨부
24	[청소년 어울마당]	• 일시 : 99. 11. 6 • 장소 : 소들공원 • 참석 인원 : 800여 명	청소년들의 평소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 기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키고 그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정서 함양 도모	
25	[청소년 어울마당] '99 송년 청소년 열린음악회	• 일시 : 99. 12. 18 • 장소 : 군민회관 • 참석 인원 : 800여 명	저물어가는 1999년을 보내며, 새로운 천년 을 맞이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 주고 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정서 함양 도 모하며 우정과 화합을 도모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26	2000년 맞이 풍년 기원 노인위안잔치	• 일시 : 99. 11. 16 • 장소 : 소들공원 • 참석 인원 : 800여 명	풍년의 기쁨을 함께 하고, 당진군 지역 주민 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문화를 바 탕으로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산시켜 나 감으로써 전통 민속 문화의 맥을 이어나가 고, 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노인들을 위한 경 로 잔치를 마련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정서 함양과 충효 애향 정신을 키워 나감으로써 새 천년을 맞이하는 당진 향토문 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	
27	특별기획 전시 중국 건국 50주년 사진 전시회	• 일시 : 11. 17~11. 22 • 장소 : 당진문화원 • 전시 작품 : 80여 점	중국과 새로운 무역 기지로 발돋움하고 있 으며 역사적 관계가 밀접한 당진 지역에서 양국의 문화적 이질감으로 해소하고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민간 외교 차원의 계기를 만들고자 함	
28	송봉화 사진 전시 日本, 唐津 くんち 사진 전시회	• 일시 : 10. 4~10. 9 • 장소 : 당진문화원 • 전시 작품 : 50여 점	일본 당진이 우리가 사는 당진과 지명이 같 고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있어 온 것 과 관련하여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 지 세계적인 축제로 열리고 있는 일본 당진 '쿤치' (중요무형민속문화재)를 통해 일본의 공동체를 체험하고, 전통 문화를 잘 보존하 면서 세계적인 관광 축제로 이어가고 있는 뜨거운 힘과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 고, 일본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성숙된 교류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고자 마련함	사진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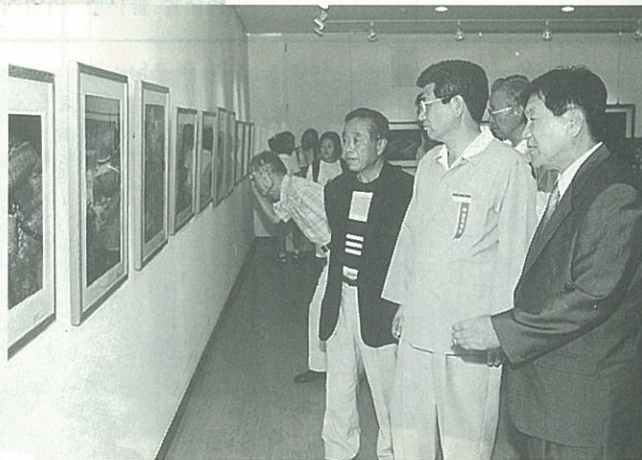
◁ 충남국악관현악단 초청 공연



△ 씨름왕 선발대회



△ 당진·홍성문화원 합동 문화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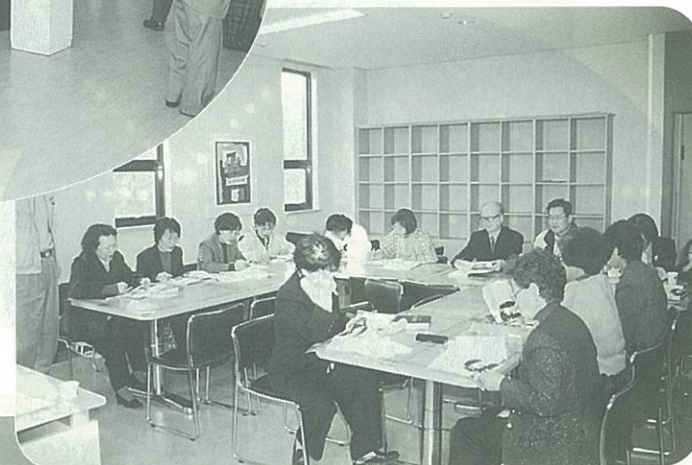
▷ 이상수 사진 작가
'한국민속촌' 사진 초대전



◁ 우리 고장 문화 알리기



△ 국립현대미술관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 및 기념 공연



당진문화원
[문화학교]



◁ 어린이 꿈잔치



△ 청소년 어울마당



△ 청소년 음악의 밤



▷ 송봉화 사진 전시회
日本, 唐津 くんち
사진 전시회

편집위원

민영근(당진)	신정교(금산)	안종일(청양)
이지호(예산)	이하영(홍성)	장영석(부여)
조성민(아우내)	지해두(성환)	

忠南文化

1999
〈통권 제 3호〉

*발행일 : 1999년 12월 30일

*발행인 : 김현구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356-020 충남 서산시 읍내동 268

전화(0455)667-0417

팩스(0455)669-4567

*인쇄 : 대산인쇄사

충남 서산시 읍내동 463

☎(0455)667-2311

〈비매품〉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문화원명	소재지	설립 년월일	원사 면적(평)	문화가족		전화번호
				원장	사무국장	
계	17개소					
도 지 회	서산시 읍내동 268	67. 2. 20		김 현 구	한 기 홍	(0455) 667-0417
천 안 문 화 원	천안시 성정동 694-9	54. 7. 10	800(단독)	민 병 달	이 정 우	(0417) 575-3004
아우내문화원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172	58. 4. 20	161(공동)	조 성 민	김 성 준	(0417) 564-1022
성 환 문 화 원	성환읍 성환리 449-66	68. 1. 25	84(단독)	지 해 두	신 광 식	(0417) 581-2101
공 주 문 화 원	공주시 반죽동 184-2	54. 12. 16	303(단독)	이 관 용	정 재 욱	(0416) 582-9005
대 천 문 화 원	보령시 동대동 983-16	62. 2. 4	309(단독)	윤 원 석	이 혜 실	(0452) 934-3061
온 양 문 화 원	아산시 온천동 206-24	64. 11. 24	285(단독)	박 노 을	장 기 승	(0418) 545-2222
서 산 문 화 원	서산시 읍내동 268	57. 6. 15	233(단독)	김 현 구	한 기 홍	(0455) 669-5050
논 산 문 화 원	논산시 내동 279-4	57. 11. 14	105(공동)	하 기 수	양 순 모	(0461) 732-2395
금 산 문 화 원	금산읍 상리 176-43	68. 3. 5	138(단독)	신 정 교	안 용 산	(0412) 754-2724
조치원문화원	조치원읍 교리 21-1	64. 10. 14	90(공동)	장 영	성 문 경	(0415) 865-2411
부 여 문 화 원	부여읍 동남리 722	54. 4. 1	145(공동)	장 영 석	김 인 권	(0463) 835-3318
서 천 문 화 원	서천읍 읍내리 202-5	65. 2. 26	300(공동)	노 금 래	홍 덕 유	(0459) 953-0123
청 양 문 화 원	천양읍 읍내리 202-5	65. 2. 11	286(단독)	안 종 일	임 두 순	(0454) 943-4774
홍 성 문 화 원	홍성읍 오관리 412-13	65. 1. 26	150(단독)	이 하 영	김 경 식	(0451) 632-3613
예 산 문 화 원	예산읍 예산리 433	55. 10. 15	145(단독)	이 지 호	김 문 희	(0456) 335-2441
태 안 문 화 원	태안읍 남문리 53-11	90. 9. 15	205(단독)	이 갑 춘	정 지 수	(0455) 674-2192
당 진 문 화 원	당진읍 읍내리 50-6	58. 3. 5	340(단독)	민 영 근	이 성 복	(0457) 354-2367

